〈연구보고 RR 2014-11〉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 대학 진학수요 맞춤형 교육운영체제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정 광 희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연구보고 RR 2014-11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 대학 진학수요 맞춤형 교육운영체제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_ 정 광 희 (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_ 심 우 정 (한국교육개발원)
나 민 주 (충북대학교)
이 병 식 (연세대학교)
이 필 남 (홍익대학교)
손 현 주 (전북대학교)
장 상 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 조원 _ 공 희 정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머리말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초연결사회로의 진전, 자원 확보를 둘러싼 심화된 세계적 경쟁과 동시에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적 공조의 필요성 증가 등은 우리 사회의 복잡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몇 가지 핵심어입니다. 대학 교육은 전통적으로 사회를 이끌어나갈 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선 현대 사회에서는 보편 교육으로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변화의 물결과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따라 대학 교육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물론이요 대학 교육의 직접적 수요자인 학생의 요구와 기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진단이 절실합니다.

이에 이 연구는 고등교육에 대한 개인적 수요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입학(Input)-교육과정(Process)-졸업과 졸업 후 결과(Outcome)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어떤 기대와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교육수요의 다양화를 경험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고 있는 해외 주요 대학의 사례와 국내의 우수 교육 사례를 분석하였고, 대학교육 정책 주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기관이 스스로 학생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의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마무리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많은 도움과 조언을 제공해 주신 대학의 교무처장과 관계자, 대학교육의 미래상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개선안을 제시해 준 학계 교수 및 연구자, 설문 및 면담 조사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적극 개진해 준 대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진의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4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백순근

연구요약

고등교육의 보편화,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식기반사회, 고등평생학습사회,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등교육의 체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대학 개혁만이 아니라 개별 대학 차원에서도 혁신적인 체제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 연구는 후자적 변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선발에서부터 교육, 성과(졸업)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전 과정에 대해 제 과제를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 면담 조사 및 사례 분석, 협의회 등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룬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을 둘러싼 중요한 교육환경 변화가 개별 대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 대학 교육에 대한 대학 관계자 및 학습자의 문제의식과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3)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에 부응한 학습자 맞춤형 고등교육을 위해 대학의 교육운영체제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가?

이 연구에서 대학의 교육체제는 미시적 관점에서 IPO(투입, 교육, 성과)모델을 채용하였다. 투입은 입학 자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과정은 교육과정 요인과 교수학습 방법적 요인으로, 성과는 중간성과와 학습 성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이 연구는 고등교육에 대한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가 입학, 교육, 성과의 전 과정 속에 내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연구 진행상 논의의 출발점을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되는 진학 수요의 다양화에 두고, 입학 요건의 차별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진학 경로별 수요를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 연구에서 유형화한 4가지 진학 유형은 1)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전통적인 진학 유형인 '고교-대학 직선형', 2) 고교 졸업 후 일정 경력을 거친 후 그 경력이 입학 요건의 하나로 활용되는 '경력 연계형', 3) 대학

졸업 후 진학 목적을 달리하는 학사 편입이나 재진학의 형태로, 졸업장이 입학 요건의 하나로 활용되는 '학사 연계형', 4) 외국적자로 자국의 교육제도를 통해 이수한 교육 이력을 활용하여 국내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국가 연계형(글로벌형)'이다.

이어서 이상의 4개 진학 유형별로 8개 대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각각 대학 관계자와 학생의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고교-대학 직선형에서는 대학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 준비도, 학력 편차가 커지는 문제가 중요하게 지적되었고, 경력 연계형과 학사 연계형에서는 일반학생과 다른 조건에 대한 대학의 배려 부족과 대학 내 일반학생과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불만과 소외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국가 연계형에서는 유학 목적과 진로의 다양성이 무시된 교육과정 운영과 한국인과의 교류 기회의 부족 문제에 강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대학이 공통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는 학습자 진학 수요에 맞는 입학 정보의 제공과 입학 경로 마련, 대학 편의적이고 이론중심의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의 개선, 상호작용과 소통없는 일방적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전통적, 학령기 중심의 교육 체제의 개선(비전통적·비학령기 학생에 대한 배려 체제), 학습 성과 보장 체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개선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 사례를 발굴, 분석한 결과, 우선 국내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목되었다.

첫째, 학습자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채용되고 있다. 단과대학별 학문 특성에 최적화된 상호작용 학습 모델 개발, 핵심 역량 진단 검사와 주기적 진단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동기 유발 프로그램의 운영, 학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학습자별 학습패턴 분석과 자료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대학 차원에서 비전통적 진학 형태인 소수 그룹의 선발과 학업 연계 등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위원회·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전문대학과 사례 대학 간의 연계협력위원회 운영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셋째, 교과-비교과 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다. 교수, 선후배 간의 멘토 프로그램, 튜터링제도, 이론과 실제를 융합한 인턴십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국외 대학의 경우, 첫째,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와 미시건 대학교는 수요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과 방법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학생중심으로 한 인터페이스 IT기술의 개발, 이러닝 강좌, 온라인 가상시스템 등 다양한 학습 환경 및 시스템의 활용, 시공간을 초

월하여 쌍방적 의사소통과 참여를 가능하게 한 개별 학습 지원시스템 사례, 인터넷 세대의 학습 방법과 호흡을 맞춘 24시간, 365일 서비스 시스템 등의 운영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둘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2+2제도는 커뮤니티칼리지에서 대학으로의 학사편입제의 운영 방식으로, 전문대학과 대학의 연계 진학에 대한 적극적인 관점과 방법이 주목되었다. 특히 이러한 진학 방식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비 절감과 학위 취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고등교육 기회균등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과 4년제 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함으로써 전문대학 진학이 단순히 4년제 대학교로의 진학 실패에 대한 차선책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진로 선택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셋째, 호주의 유학생 정책은 국가 4대 산업의 하나로서 접근될 만큼 국가적 수준에서 강력한 지원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체계와 지역커뮤니티, 대학 당국과 다양한 교육기관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유학생 유치에서부터 대학교육과 생활 지원, 졸업 후 취업 및 정착까지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운영하는 풀서비스 정책이 주목된다.

대학의 요구 분석과 진단된 유형별 과제들에 대해 국내외 사례들을 참조하면서 제시한 진학 유형별 교육체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진학 유형인 고교-대학 직선형의 학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준과 관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 체제로 개선할 것과 특히 학습 빅데이터 활용의 학습분석 서비스 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경력 연계형과 같은 비전통형의 소수 구성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센터는 선발, 교육과정, 그리고 과정 이수 후 취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대학 차원에서, 혹은 대학 간 연계 협력 조직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관련 전형의 입학 조건 완화가 필요함도 언급하였다.

셋째, 학사 연계형의 경우, 전문대학을 종점교육기관이 아닌 순환교육기관이라는 관점에서 편입 과정을 확대하고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계 가능한 대학의 풀 확대, 연계대학 간 공통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운영(과목 코드 쉐어링), 편입생을 위한 통합 지원 센터 운영, 차별 없는 개방형 제도 설계, 동문이나 외부 관계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도입, 운영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전문대학-대학 연계는 자칫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유의가 필요하지만 고등교육 기회

확대 관점에서 전문대학 프로그램을 학술트랙과 직업트랙으로의 이원화 방안도 장기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국가 연계형의 경우, 우선 다양한 유학 목적에 대응할 수 있는 입학 정보의 제공과 대학 특성별 유학생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졸업 후 취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 및 유형별 개선 방안에 기초하여 향후 대학의 대응 방안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 먼저 연구 결과,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 시 고려해야 할 7개의 개선 원칙을 제시하였다: 학습자 중심의 원칙, 전 과정 책무성 기반의 원칙, 교육 형평성의 원칙, 평등한 학습권 존중의 원칙, 평생학습의 원칙, 이론과 실제, 기초와 실용 간 균형성의 원칙, 대학의 자발성과 지속 가능성의 원칙 등.

이어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대응해야 할 교육운영체제 개선 방안을 투입, 과정, 성과(IPO) 체제에 따라 제시하였다. 즉 진학 수요 맞춤형 선발 체제 구축,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기초교양, 전공 간 연계, 이론과 실제 융합의 교육과정 등), 상호작용의 교수학습 방안, 교과와 비교과 연계와 시스템 속에서의 지원 강화(멘토링, 인턴십, 인적교류, 동아리 활동 등), 중간성과 확인 등 시스템적인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 학업과 생활적응 지원시스템, 인턴십 제도를 통한 이론과 실제의 융합교육, 비전통적 비학령기 진학자 배려의 교육운영체제, 교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등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학, 정부 등 관련 주체들의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 체제틀에 따라 선발, 교육, 성과 측면으로 정책 제언을 대학과 정부로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대학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선발 측면에서 대학은 진학자 관점에서 필요한 입학 정보를 개인이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다양한 진학 수요 맞춤형 입학정보 제공과 진로지도).

교육 측면에서는 대학은 학습자 맞춤형 교육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첫째, 대학구성원의 다양화된 구조적 특징과 요구를 조사 분석하고, 이들과 대학의 현재 체제 간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도록 한다. 둘째, 전교적 차원에서 학습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학습분석에 기반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준비한다. 셋째, 학

습자 맞춤형 교육은 전 과정에 상호 연계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맞춤형 입학정보제공, 맞춤형 교수학습 방법의 지원, 중간성과의 주기적 확인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습 성과의 보장과 맞춤형 진로지도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넷째, ICT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세대의 학생과 교수세대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다섯째, 학생과 교수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여섯째, 대학 교육에서 핵심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을 학습자 관점에서 재정비하기 위해 처 수준의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한다. 일곱째, 이론과 실제의 융합 교육과정을 위해 대학 혹은 학과 차원에서 산학연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전문가와 함께 교육과정 구성, 현장 전문가의 교수(강사)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 운영하도록 한다.

성과 측면에서는 첫째, 중간성과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습분석 서비스 체제를 활용하도록 한다. 주기적으로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교과, 비교과 활동을 연계하여 학업부적응, 생활부적응 학생들을 지원하도록 한다. 특히 현재의 대학 교육 체제가 학령기, 전통적 진학자 중심의 운영 체제를 비전통형의 다양한 소수 구성원을 함께 배려하는 운영 체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선발(Input) 중심의 운영 체제를 역량과 학습성과(Output) 중심 체제로 개선하도록 한다. 이 때 소수 그룹에 대한 낙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입학시점 기반의 '학번'과 같은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넷째, 교수의 교육 역량 강화, 입학에서 졸업(후)까지 풀 서비스 체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소수 그룹에 대한 지원이 대학의 전체 운영 차원에서 부담될 경우, 권역별 거점대학 운영 방식을 통해 대학 간 협력적 대응을 하도록 한다.

다음은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이다.

선발 측면에서 정부는 고등평생학습의 관점에서 학령기, 전통적 진학 방식을 개방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의 입학 조건을 조정,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선취업 후진학 확대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미국 사례처럼 사회형평성의 관점에서 전문대-일반대 연계 편입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력과 학벌중심사회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악용,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학벌주의적 인식 전환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등을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교육 측면에서 대학의 학습자 맞춤형 교육체제는 대학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과제이지만, 이러한 노력을 촉구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역할이 요청된다. 맞춤형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우선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 데이터 축적과 학습분석 서비스 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강의 발굴 및 우수 교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계속 사업으로 추진). 둘째,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 역량 강화사업(Faculty Development), 직원 역량 강화사업(Staff Development)을 추진하고, 교수학습개발센터(CTL)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FD, SD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과 실천을 위해 지정대학제를 도입하도록 하며, 후자에 대해서는 개별 대학의 CTL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 간 교수학습 지원 기능과 인프라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권역별 거점 CTL지정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셋째, 역량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선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역량'의 준거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 산업체 인사관계자, 전문가, 사회오피니언리더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집중 논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넷째, 학습자 맞춤형 교육체제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입학 시점의 데이터 사용 제한에 대한 허용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별 대학이 체제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대학의 다양한 실천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글로벌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과 일부 규제에 대한 완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유학 목적별, 진로별로 교육을 특성화하고, 이에 따라 입학 조건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유학생 정책을 부분 수정하여 전략적으로'고급인력양성교육, 실용인력양성교육, 한국어교육'등과 같이 다양한 동기, 배경, 진로계획의 유학생을 학-연, 산-학 연계 방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특화한 중점대학을 지정, 운영하도록 한다.

성과 측면에서는 첫째, 역량 교육과정 개발과 연계된 역량 평가 도구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대학의 데이터를 축적, 이를 활용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기반하여 대학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정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 체제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대학의 과제라면, 대학들의 데이터 중 정책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

째, 중장기적인 과제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실제적 장애가 되고,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분석 효과를 무력화하는 상대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차 례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7
3. 연구 방법 9
4. 연구 범위와 제한점 14

Ⅱ. 이론적 기초 17

1. 관련 문헌 분석 19
2.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운영 현황과 과제 진단 28
3. 대학 진학 수요 유형화 및 연구 접근 틀 46

Ⅲ. 대학 진학 유형별 대학 관계자 및 학습자 요구 분석 59

1. 조사 개요 61
2. 고교-대학 직선형 71
3. 경력 연계형 92
4. 학사 연계형 111
5. 국가 연계형 137
6. 진학 유형 간 비교 분석: 차이점과 공통적 과제 154

Ⅳ. 국내 대학 운영 사례 분석 165
1. 기초 학력 증진 및 동기 유발 프로그램: A대학교 사례 167
2.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학습자 맞춤형 교육지원체제: B대학교 사례 174
3. 재직자 학생을 위한 교육운영체제: C대학교 사례 180
4. 전문대 연계 편입 프로그램: E대학교 사례 182
5.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제도: G대학교 사례 184
6. 사례별 특징과 과제 190

Ⅴ. 주요국의 대학 운영 사례 분석 193
1. 다양한 수요 맞춤형 대학 교육 사례: 미국 대학 195
2. 학사 편입제도 운영과 지원 교육 사례: 미국 CA주의 2+2제도 206
3. 호주의 유학생 관리 정책 213
4. 사례별 특징과 시사점 222

Ⅵ. 대학 진학 유형별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225
1. 고교-대학 직선형 227
2. 경력 연계형 236
3. 학사 연계형 245
4. 국가 연계형 256

Ⅶ. 종합 논의 및 정책 제언 265
1. 요약 267
2. 종합적 논의: 단위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271
3. 정책 제언 283

■■■ 참고문헌 305

■■■ ABSTRACT 321

■■■ 부 록 329

[부록 1] 행정가 및 대학생 면담지(Ⅲ장 관련) 331

[부록 2] 대학 관계자 및 학습자 요구분석 표(Ⅲ장 관련) 377

[부록 3] D, F, H대학교 사례(Ⅳ장 관련) 404

표 차 례

〈표 Ⅰ-1〉 면담 조사 정보(학생) 10
〈표 Ⅰ-2〉 서면면담 구성 및 내용 11
〈표 Ⅰ-3〉 전문가 협의회 개최 내용 및 일정 13
〈표 Ⅱ-1〉 고등교육 유형 변화에 따른 수요와 요구 변화 24
〈표 Ⅱ-2〉 연도별 고등교육 기관 수 추이(수) 29
〈표 Ⅱ-3〉 연도별 학생 수 추이(명) 30
〈표 Ⅱ-4〉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수 31
〈표 Ⅱ-5〉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강좌 구성에 대한 학생 만족도 34
〈표 Ⅱ-6〉 교양 교육과정을 통한 개인 능력 신장 35
〈표 Ⅱ-7〉 연도별 대학 이러닝 실시 현황 37
〈표 Ⅱ-8〉 대학생들이 경험한 수업방법 37
〈표 Ⅱ-9〉 전공 수업의 교수·학습 만족도 '만족한다' 이상 응답률 39
〈표 Ⅱ-10〉 교양 수업의 교수·학습 만족도 '만족한다' 이상 응답률 39
〈표 Ⅱ-11〉 기업의 교육 훈련 비용 45
〈표 Ⅱ-12〉 연도별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인원 48
〈표 Ⅱ-13〉 대학 진학 수요의 4가지 유형 51
〈표 Ⅱ-14〉 고등교육 운영체제와 영향 요인별 하위 영역 57
〈표 Ⅲ-1〉 선정된 조사대상 대학의 특성 62
〈표 Ⅲ-2〉 면담 대상자 정보 63
〈표 Ⅲ-3〉 대학 현황 조사지 항목 64
〈표 Ⅲ-4〉 사례 대학 교육운영 조사 내용 66
〈표 Ⅲ-5〉 대학 관계자 면담조사 내용 67

〈표 Ⅲ-6〉 서면 면담지 구성 및 내용 68
〈표 Ⅲ-7〉 조사 참여자(학생)의 일반특성 69
〈표 Ⅲ-8〉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의 활용과 유용성: A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75
〈표 Ⅲ-9〉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과 유용성: A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76
〈표 Ⅲ-10〉 학생들의 역량 발달: A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78
〈표 Ⅲ-11〉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의 활용과 유용성: B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83
〈표 Ⅲ-12〉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과 유용성: B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85
〈표 Ⅲ-13〉 학생들의 역량 발달: B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87
〈표 Ⅲ-14〉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의 활용과 유용성:
C대학교 및 D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103
〈표 Ⅲ-15〉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과 유용성: C대학교 및 D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105
〈표 Ⅲ-16〉 학생들의 역량 발달: C대학교 및 D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107
〈표 Ⅲ-17〉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의 활용과 유용성: E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119
〈표 Ⅲ-18〉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과 유용성: E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120
〈표 Ⅲ-19〉 학생들의 역량 발달: E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123
〈표 Ⅲ-20〉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의 활용과 유용성: F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132
〈표 Ⅲ-21〉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과 유용성: F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133
〈표 Ⅲ-22〉 학생들의 역량 발달: F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134
〈표 Ⅲ-23〉 G대학교와 H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증감 추이(명, %) 139
〈표 Ⅲ-24〉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의 활용과 유용성:
G대학교 및 H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147
〈표 Ⅲ-25〉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과 유용성: G대학교 및 H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148
〈표 Ⅲ-26〉 학생들의 역량 발달: G대학교 및 H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151
〈표 Ⅲ-27〉 진학 유형별 대학 관계자 및 학생의 대학 교육운영에 대한
문제 인식 및 요구 155
〈표 Ⅲ-28〉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의 활용과 유용성: 전체 학생 응답 결과 158
〈표 Ⅲ-29〉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과 유용성: 전체 학생 응답 결과 159
〈표 Ⅲ-30〉 학생들의 역량발달: 전체 학생 응답 결과 160
〈표 Ⅳ-1〉 동기 유발 학기 세부 프로그램 내용 168

〈표 Ⅳ-2〉 동기유발학기 투입 인적, 재정적 자원 169
〈표 Ⅳ-3〉 기초 학력 증진실 교육 프로그램 유형 및 내용 169
〈표 Ⅳ-4〉 A대학교 핵심 역량 검사 도구 구성 171
〈표 Ⅳ-5〉 연도별 모집 정원 현황(2010~2015) 180
〈표 Ⅳ-6〉 연계교육 운영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182
〈표 Ⅳ-7〉 전문대 연계 편입학생 모집 및 등록 인원 183
〈표 Ⅳ-8〉 외국인 유학생 지원 기준 185
〈표 Ⅳ-9〉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한 평가기준 186
〈표 Ⅳ-10〉 글로벌 튜터링 제도 개요 188
〈표 Ⅳ-11〉 국제교류 프로그램 학생지원단 활동내역 190
〈표 Ⅳ-12〉 국내 사례 대학 개요 191
〈표 Ⅴ-1〉 미국 고등교육의 변화 198
〈표 Ⅴ-2〉 편입제도 208
〈표 Ⅴ-3〉 2014년도 캘리포니아 대학교(UC) 편입 합격자 현황 211
〈표 Ⅴ-4〉 남가주 대학교 학부학생 구성 212
〈표 Ⅴ-5〉 호주의 고등교육 제도 214
〈표 Ⅴ-6〉 TAFE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종류 215
〈표 Ⅴ-7〉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및 지원 217
〈표 Ⅴ-8〉 UWA의 유학생 지원 219
〈표 Ⅴ-9〉 TAFE NSW의 스터디 투어 222
〈표 Ⅴ-10〉 주요 국외 사례 개요 223
〈표 Ⅵ-1〉 고교-대학 직선형 개선 방안 및 실천 전략 235
〈표 Ⅵ-2〉 경력 연계형 개선 방안 및 실천 전략 245
〈표 Ⅵ-3〉 학사연계형 개선 방안 및 실천 전략 255
〈표 Ⅵ-4〉 국가 연계형 개선 방안 및 실천 전략 264
〈표 Ⅶ-1〉 대학의 교육운영체제에 대한 문제 진단 및 개선 방안 274

〈부록 표 1〉 A대학교 단과대학별 신입생의 입학성적 편차 현황(2010~2014) 377
〈부록 표 2〉 A대학교 졸업자의 평균 재학기간(2010~2014) 377
〈부록 표 3〉 A대학교 학업부적응 관련 프로그램 및 참여자 현황(2010~2014) 378
〈부록 표 4〉 A대학교 학업부적응학생 현황(2010~2014) 378
〈부록 표 5〉 A대학교 신입생의 고등학교 졸업연도별 현황(2010~2014) 378
〈부록 표 6〉 A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교육과정) 379
〈부록 표 7〉 A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교수학습) 380
〈부록 표 8〉 A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성과-역량변화) 381
〈부록 표 9〉 B대학교 학업부적응학생 현황(2010~2014) 381
〈부록 표 10〉 B대학교 학업부적응 관련 프로그램 및 참여자 현황(2010~2014) 382
〈부록 표 11〉 B대학교 졸업자의 평균 재학기간(2010~2014) 382
〈부록 표 12〉 B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교육과정) 383
〈부록 표 13〉 B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교수학습) 384
〈부록 표 14〉 B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성과-역량변화) 385
〈부록 표 15〉 C대학교 지식경영학부 학년도별 모집정원 현황(2010~2015) 386
〈부록 표 16〉 D대학교 재직자전형 모집전형(2010~2014) 386
〈부록 표 17〉 C대학교 재직자전형 모집전형(2010~2014) 386
〈부록 표 18〉 C대학교 및 D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교육과정) 388
〈부록 표 19〉 C대학교 및 D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교수학습) 389
〈부록 표 20〉 C대학교 및 D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성과-역량변화) 390
〈부록 표 21〉 E대학교 입학연도별 편입생 유형별 분포(2010~2014) 391
〈부록 표 22〉 E대학교 최근 5년간 졸업생 대비 연계편입 현황(2010~2014) 391
〈부록 표 23〉 E대학교 연도별 연계편입 지원인원 대비 합격인원(2004~2014) 391
〈부록 표 24〉 E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교육과정) 392
〈부록 표 25〉 E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교수학습) 393
〈부록 표 26〉 E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성과-역량변화) 394
〈부록 표 27〉 E대학교 평균재학기간 추이 정보(2010~2013) 394
〈부록 표 28〉 E대학교의 입학자, 중도이탈자, 취업자 추이 정보(2010~2013) 394
〈부록 표 29〉 F대학교 입학년도별 편입생 유형별 분포(2010~2014) 395

〈부록 표 30〉 F대학교의 입학연령별 추이(2010~2014) 395
〈부록 표 31〉 F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교육과정) 396
〈부록 표 32〉 F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교수학습) 397
〈부록 표 33〉 F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성과-역량변화) 398
〈부록 표 34〉 F대학교의 평균재학기간 별 정보(2010~2014) 398
〈부록 표 35〉 F대학교의 입학자 및 중도이탈자 정보(2010~2014) 399
〈부록 표 36〉 G대학교 SSIA 활동 내역 400
〈부록 표 37〉 G대학교 및 H대학교 분석 결과(교육과정) 401
〈부록 표 38〉 G대학교 및 H대학교 분석 결과(교수학습) 402
〈부록 표 39〉 G대학교 및 H대학교 분석 결과(성과-역량변화) 403

그림차례

[그림 Ⅱ-1] 미래 사회의 주요 동인과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 21
[그림 Ⅱ-2] 평생학습을 위한 고등교육의 변화 25
[그림 Ⅱ-3] 연도별 고등교육 기관(일반대학, 전문대학) 충원률6) 32
[그림 Ⅱ-4] 연도별 고졸자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 47
[그림 Ⅱ-5]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학위과정, 비학위과정) 49
[그림 Ⅱ-6] 고등교육 진학 경로별 진학 유형과 교육 흐름도 56
[그림 Ⅳ-1] 동기 유발 학기 구성 167
[그림 Ⅳ-2] 교육 품질위원회 활동 내용과 일정 173
[그림 Ⅳ-3] B대학교 유형별 스마트 강의실 교육기자재 지원 현황 175
[그림 Ⅳ-4] B대학교 교수학습지원 시스템 모형 176
[그림 Ⅳ-5 B대학교 "T" 자형 모듈기반 학습체제 178
[그림 Ⅳ-6]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개요 178
[그림 Ⅳ-7]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성과 측정·환류 시스템 179
[그림 Ⅴ-1] 브라운대학교에서의 Clicker 활용 사례(Associated Press, 2005) 199
[그림 Ⅴ-2] 버지니아 공대 Math Emporium(Robinson, & Moore, 2006) 202
[그림 Ⅴ-3] 버지니아 대학 학생 e-Portfolio 203
[그림 Ⅵ-1] 해외대학에서 운영 중인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육운영모델 242
[그림 Ⅵ-2] 미국대학들의 편입생 지원 프로그램 예시(UCLA와 NYU 사례) 251
[그림 Ⅵ-3] 연계편입학에 대한 대학의 지원 예시 253
[그림 Ⅵ-4] 연계편입과정을 통한 학사연계 실천 전략 모형 254
[그림 Ⅵ-5] 국가 연계형 대학운영 모형도 263
[그림 Ⅶ-] LAPA(Learning Analytics for Prediction & Action, 조일현(2014).) 279

[부록 그림 1] C대학교 2018+ 발전계획 385
[부록 그림 2] 재직자의 학업수준 및 학업여건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C 대학교 사례 387
[부록 그림 3] G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체계 399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범위와 제한점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2018년부터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게 될 것이며, 2024년 이후에는 입학정원의 30% 수준이 미충원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교육부, 2014.02).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고등교육의 혁신적인 구조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70.9%(교육부, 2014.08.29)에 이르고 있어 명실공히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의 학습자 구성원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이들의 다양한 수준과 관심, 진로 방향 등에 부응하여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가 요구되고 있다. 대학에서의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학부교육과 대학원 교육, 전문인과 직업인 양성 등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다양한 학습자 구성원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인지 등 커리큘럼과 교육의 특성화, 그에 따른 질 관리 등, 대학 교육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대학은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맞는 맞춤형 방식의 교육운영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고등교육의 보편화는 사회통합의 과제도 함께 포함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발 경쟁의 양극화, 입시중심 학교교육의 저령화가 한층 심화되고 있고, 이는 계층의 양극화와 계층 재생산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이에 선발과정에서부터 교육과 졸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고등교육기관이 교육소외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 등 사회통합적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들이 긴장하고 있는 다른 한편으로 사이버대학이나 기술학원형

고등교육기관 등 영리고등교육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 고등교육의 운영 체제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요구가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거나, 고등교육 진학 이유가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수요층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변화와도 관련된 현상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고등교육의 운영 방식은 물론, 다양한 연령층으로 고등교육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학교육이 학생들의 요구에도, 산업계의 요구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자주 나오고 있다. 한 언론 조사에 의하면 서울대 학생 중 입학 후 대학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여 자퇴를 하거나 자퇴를 고민한다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만사항으로 전공 커리큘럼 미흡, 기초학문 취약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인재 육성을 등한시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1]. 고등교육에 대한 불만은 산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체 혹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공급에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100인 이상 483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졸 신입사원 채용 및 재교육 현황 조사'(2008년)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평균 19.5개월에 1인당 60,884,00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만큼 사회요구와 고등교육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08:1-4).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 증대, 지식기반 경제 사회의 고도화, 숙련된 전문가(highly skilled professional)에 대한 수요 증대 등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변화 요구에 계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기능 지식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산업 구조, 인구 구조 등 직업 세계를 둘러싼 관련 요인들이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취업과 직장에 대한 인식이 함께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평생 직업이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취업 후에도 계속적으로 전문 역량을 업데이트 해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분야와 직업에 대한 도전과 탐색, 적응과 역량 개발 등 경력 개발 노력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가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이미 진입한 만큼 이제는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왔던 고등교육의 범위를 넘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응(퇴직 후 새로운 경력

1)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6/15/20140615002675.html, 2014년 6월 17일 검색.

개발, 계속 공부 등) 등 다양한 내용과 방법을 갖춘 고등교육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고등교육(재취업을 위한 새로운 분야 공부 포함)을 받고자 하는 누구에게나(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졸 등 학력, 연령, 계층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선 진학이든 선 취업이든, 퇴직 이후에도), 어디서든(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외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교양인, 전문인, 직업인 교육 등)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고등평생학습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학의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여기에 평생학습사회를 뒷받침 내지 선도하는 지원/선도체제로서의 대학에 대한 역할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커다란 변화는 글로벌화의 진전이다. EU연합의 볼로냐 프로세스를 비롯하여 고등교육의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의 해외분교 설치, e러닝 등 국경을 초월하여 고등교육이 경쟁적으로, 혹은 협력적으로 제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고등교육의 학점, 학위 등이 유연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통용 가능한 교육체제(transnational education)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외국 유학생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고등교육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국가 간 통용 가능한 교육체제 구축과 환경 조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근래 외국인 유학생이 수년간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부분 감소 경향을 보이면서 이들에 대한 질 관리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이제 많은 대학들이 안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상의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개별 대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준비도와 학업 편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ICT 기술의 발달은 이른바 디지털 세대를 형성하면서 이들에 맞는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변화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생학습 시대의 진전과 함께 새로운 진학 형태가 등장하면서 경험과 배경 등 특성을 달리하는 소그룹의 대학 구성원에 대한 대학과 교수들의 대응 곤란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한편, 많은 대학들이 너무나 다양한 배경과 동기를 가진 이들에 대한 교육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고등교육을 둘러싼 교육환경의 변화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대학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개별 대학들의 교육운영 방식과 체제 변화도 동시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거시적 관점에서의 대학 구조 혁신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데 비해(이병식 외, 2005; 최상덕 외, 2008; 채재은 외, 2009; 유현숙 외, 2011; 백성준 외, 2011), 개별 대학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인 관점에서의 대학 변화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고민스러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21세기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들과 그 안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갖는 과제의식은 무엇이며,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대학은 어떻게 운영 방식과 체제 개선을 도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들이 그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개별 대학의 관점에서 대학의 현행 교육운영체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나.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개별 대학 수준에서 교육운영체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종전의 많은 연구들이 취한 거시적 관점과는 달리, 개별 대학의 교육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선발에서부터 교육, 성과(졸업)로 이어지는 교육의 전 과정에 대한 과제를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고등교육에 대한 학습자 수요가 크게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체제는 종전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 적합도가 계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1) 고등교육을 둘러싼 교육환경 변화가 대학 교육에 미친 영향과 과제를 분석하고, 2) 고등교육의 보편화 사회에서 다양한 고등교육의 진학 경로를 유형화한 후, 3) 진학 유형별로 특정 대학의 대학 관계자 및 학습자 요구를 분석하여 대학의 교육운영과제를 진단하였다. 4) 진단된 요구와 문제 개선을 위해 국내외 대학 운영 사례를 분석한 후 이를 참조하여 5) 진학 수요 유형별 대학의 교육운영체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6)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학과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개별 대학의 관점에서 대학의 운영 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선발에서부터 졸업, 취업에 이르는 대학교육의 전 과정을 학습자에게 적합한 대학 운영 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의 대학 교육을 설계하는 종전의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이 연구의 성과는 고등교육을 둘러싼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들이 교육운영체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방향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과제인식과 상황에 맞게 선택적, 조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별 개선 노력들은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한 선순환적 평생학습 체제 구축, ICT 등의 과학기술과 연계한 열린 고등교육체제 구축, 빅 데이터의 학습분석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학습 체제 운영 등, 대학들이 각각 지향하는 맞춤형 교육운영체제를 만들어 가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육을 둘러싼 중요한 교육환경 변화가 개별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 대학교육에 대한 대학 관계자 및 학습자의 문제의식과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3. 다양한 학습자 특성과 요구에 대한 학습자 맞춤형 대학교육을 위해 대학의 교육운영체제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가?

2. 연구 내용

○ **이론적 배경과 실태 분석**

1. 문헌 분석
   가. 교육환경 변화
   나. 교육환경 변화와 고등교육에의 영향
2. 고등교육의 운영 현황 분석
   가. 고등교육 현황
   나. 대학의 운영 현황
      - 입학자원의 다양화 현황과 추이
      - 교육과정 운영의 변화 추이
      - 학부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추이

- 대학생의 학습 양식의 변화 추이

3. 고등교육 운영체제 및 수요 유형화

가. 국내 대학에 대한 진학 수요 유형화

- 고교-대학 직선형(전통형):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 학사 연계형: 고등교육기관(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 등) 졸업 후 대학 진학 (학사편입 포함)
- 경력 연계형: 취업 후 대학 진학
- 국가 연계형(글로벌형): 외국 교육기관 졸업 후 국내 대학 진학

나. 주요 개념 규정 및 연구 틀

- 주요 개념 규정
- 연구 틀

○ 대학 진학 유형별 대학 관계자 및 학습자 요구 분석

1. 고교-대학 직선형
2. 경력 연계형
3. 학사 연계형
4. 국가 연계형(글로벌형)
5. 유형 간 비교 분석

○ 국내외 대학의 교육 운영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1) 고교 연계형 고등교육 수요 대응 사례(전통적 진학 경로)
2) 경력 연계형 고등교육 수요 대응 사례
3) 학사 연계형 고등교육 수요(학사 편입형)
4) 국가 연계형(글로벌형) 고등교육 수요 대응 사례
5) 사례별 특징과 시사점

2. 국외 사례

1) 고교 연계형 고등교육 수요 대응 사례(전통적 진학 경로)

- ICT 활용의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실천 사례: 미국사례

2) 학사 연계형 고등교육 수요(학사편입형): 미국 CA주 운영 사례

3) 국가 연계형(글로벌형) 고등교육 수요: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 호주

4) 사례별 특징과 시사점

○ **진학 유형별 맞춤형 대학 교육 운영체제 개선 방안**

1. 고교-대학 직선형
2. 학사 연계형
3. 경력 연계형
4. 국가 연계형(글로벌형)
5. 종합 :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 방안

3. 연구 방법

가. 관련 문헌 분석

고등교육을 둘러싼 교육환경의 변화 관련, 미래고등교육 관련 연구 및 보고서, 진학 유형과 관련한 연구 자료 및 보고서, 평생교육관련 자료 및 보고서 등을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최근의 고등교육정책의 내용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이 밖에 대학생의 진학 형태 및 성향, 학업 패턴 등의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 관련 통계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나. 면담 조사(서면 조사, 면대면 조사)

1) 조사 목적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의 (학생)수요자를 ①고교 대학 직선형, ②학사 연계형, ③경력 연계형, ④국가 연계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입학 및 교육과정, 교육성과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학생 면담조사(서면, 심층)와 대학관계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특별전형 진학자 등 대학의 소수 구성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면담 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각 대상에 대해 먼저 서면조사를 진행한 후, 서면조사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면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표집 및 조사 대상

가) 조사 대상 대학 선정 및 표집

조사 대상은 대학교육의 수요자 4개 유형에 대해 각 유형과 관계되는 교육부의 특성화 지원 대학 중 우수 모델 대학 중에서 선정하되, 가능한 한 지역, 설립유형, 교육사명 등도 함께 고려하여 유목적적 표집을 실시하였다. 진학 유형 당 두 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총 8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면담 학생은 각 대학별로 20~25명 수준에서 진행하였다.

나) 조사 대상자 선정 및 표집

면담 대상은 표집 대학의 재학생과 교수 및 교육기관 관계자 등이다. 교수 및 교육기관 관계자는 해당 대학의 교무처장을 조사 대상으로 면담하였다. 면담 대상자 중 학생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표Ⅰ-1〉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Ⅲ장의 1절에 제시하였다.

〈표 Ⅰ-1〉 면담 조사 정보(학생)

구분	면담대상	총(명)
고교-대학 직선형	○유형1: 전통학생 :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재학생	50명
경력 연계형	○유형2: 선취업 후진학 (2대학) : 고졸 → 사회(취업) → 대학(4년제)	50명
학사 연계형	○ 유형3: 학사 연계형(재진학, 편입포함) (2대학) 1) 2, 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편입 재학생 2) 2,3년제, 4년제 대학→ 사이버대학, 편입 재학생	51명
국가 연계형	○ 유형4: 국가 연계형(글로벌형) : 외국인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4년제)	43명
	서면면담 대상자 수(총)	총 194명

다) 조사 실시 및 자료처리

연구의 면담조사 기간은 2014년 8월~10월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는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관련부처장, 해당 유형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대학의 담당 직원 혹은 팀·처장의 연구협력을 받아 1차 서면 면담 조사(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일부 학생에 대한 면대면 조사를 추가 실시하였다(9월~10월초).

라) 면담지 내용 구성

본 연구의 대학 행정가 면담조사는 유형별 사례대학에 교육운영에 대한 투입, 과정 및 대학차원의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하였다(상세 내용은 부록 1에 면담지 참조).

학생 면담 조사는 이 연구의 방법 틀인 고등교육 운영체제와 영향 요인별 하위 영역에 준하였다. 투입(Input)에 대하여는 수요자 유형별 학생들의 대학 진학 동기 및 대학선택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정(Process)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끝으로 산출(outcome)과 관련해서 대학생의 학습성과 중 역량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였고 계속학습에 대한 요구 내용을 조사하였다. 면담지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의 〈표Ⅰ-2〉와 같다(상세 항목은 Ⅲ장의 1절 참조).

〈표 Ⅰ-2〉 서면면담 구성 및 내용

범주		구분	구성
I (투입)		입학자원 (선발과 구성)	-대학구성원의 개인특성요인 (능력, 동기, 개인차, 사전 경험 등)
P (과정)		내용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방법 (교수학습)	-교수학습 방법
		교육환경	-교육시설 및 행정적 지원
O (산출)	중간성과	학교적응	-학생의 대학생활, 학습적응
	성과	교육성과	-교육성과(지식과 역량)
	졸업후	계속학습	-졸업이후 성과

다. 사례 조사

1) 국내 대학의 운영 모델 사례 조사

국내 대학의 운영 사례는 면담조사 대상 대학과 동일하며, 진학 유형과 관련된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사례 조사를 위해 해당 대학의 관계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관계 자료 정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4년 6월부터 9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2) 국외 대학의 운영 모델 사례 조사

국외 대학의 사례 조사는 진학유형별 대학 교육운영의 사례를 발굴하여 국내 대학이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미래형 고등교육 시스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 발굴에 초점을 두었다. 조사 대상은 미국 대학(버지니아공대, 미시간대학 등)의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 사례, 데이터 기반의 학습자 맞춤형 교육 사례, 캘리포니아주의 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대학으로의 학사 연계 사례,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프로그램 등이며, 해당 국가에 현재 체재 중인 고등교육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원고 집필을 의뢰하였다. 조사 기간은 국내 사례 조사와 마찬가지로 2014년 6월부터 9월에 걸쳐 수행되었다.

라. 전문가협의회

1) 목적

연구 계획 단계에서는 연구 방향 및 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고, 면담조사를 위한 질문지 검토, 진학 경로에 대한 유형화에 대한 의견수렴, 유형별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발굴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수시로 가졌다. 전문가협의회에는 대학의 교무처장, 혹은 국제협력처장 등 교육운영에 직접 관계하는 관계자 등 고등교육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2) 개최 내용 및 일정

개최 및 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Ⅰ-3〉 전문가 협의회 개최 내용 및 일정

구분	내용	일정	참석자(전문가)
1차	고등교육 수요 패턴 변화에 대한 대학의 대응 내용과 과제 협의 - 재직자전형 입학, 사이버대학, 외국인 유학생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	2014.6.27	차정민(중앙대) 정종욱(고려사이버대) 최우석(우송대)
2차	고등교육 수요 패턴 변화에 대한 대학의 대응 내용과 과제 협의 - 선취업 후진학 전형 입학생들의 교육 경험과 과제를 중심으로 -	2014.7.9	김경숙(건국대) 배석주(한양대)
3차	고등교육 수요 패턴 변화에 대한 대학의 대응 내용과 과제 협의 -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개선 등의 성과 및 과제를 중심으로 -	2014.7.29	임철일(서울대) 조일현(이화여대) 정진갑(계명대) 오도창(건양대)
4차	고등교육 수요 패턴 변화에 대한 대학의 대응 내용과 과제 협의 -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 및 가능성 탐색을 중심으로 -	2014.7.30	김성식(서울교대) 조일현(이화여대)
5차	고등교육 수요 패턴 변화에 대한 대학의 대응 내용과 과제 협의 - 학사연계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 및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	2014.8.19	김규희(두원공과대) 박성배(계명문화대)

마. 정책 토론회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하기 전 단계로 진학유형별 교육모델의 적합성, 관련 정책 제언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목적: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 방안 탐색
- 일시: 2014년 10월 22일(수) 14:00~ 18:00
- 발표자: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 방안 탐색(발표자: 정광희)
- 토론자: 신현석(고려대), 채재은(가천대, 대학평가처 처장), 이찬규(중앙대, 교무처장), 오도창(건양대, 교무처장), 이기정(한양대, 국제협력처장), 최해운(계명대, 교무부장), 오창환(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종욱(고려사이버대, 기획예산처장)

4. 연구 범위와 제한점

이 연구는 대학을 둘러싼 교육환경 변화가 대학의 교육운영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교육운영체제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으로, 기존의 거시적 연구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교육환경 변화가 개별 대학의 교육운영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로 제한한다. 이는 그 동안 미래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구조 개혁 문제를 거시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개별 대학 수준에서 직면하고 있는 교육 운영의 문제는 별로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한 결과이다. 대학 교육의 개혁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접근되어야 하지만 개별 대학 차원에서, 특히 학생의 관점에서 대학의 운영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학습자의 관점에서 입학에서 졸업(졸업 이후까지 포함)까지의 전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대학의 교육운영체제(IPO)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의 대한 문제를 논제로 하고 있다.

둘째,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의 문제가 현재 사회적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고등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수요를 학령기만이 아니라 성인학습자, 국외 수요자 등 다양한 진학 수요층으로 확대한다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현재 논의 중인 대학의 직접적인 구조조정의 접근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의 문제를 별도 과제로 간주하고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셋째, 이 연구는 특정 대학 조사를 통해 대학들의 교육운영에 관한 과제 진단을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유형별 관련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 중 협력에 응한 대학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들 대학의 교육운영 조건이나 교육적 노력은 일반대학과는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조사 결과의 일반화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 대학 관계자 및 학습자 요구 조사는 면담조사에 의존하고 있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을 포함한다. 면담조사를 통해 진학 유형별 대학 관계자와 학생들의 요구를 심도 있게 파악한다는 목적은 달성한 반면, 질적 조사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다섯째, 대학 진학 수요층의 확대라고 하는 관점에서 현재 대학 내 형성되어 있는 집단별 진학자들을 유형화하고 각각에 대한 맞춤형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

색하였다. 고교 졸업 후 바로 진학하는 고교-대학 직선형, 취업 활동 이후 진학하는 경력 연계형, 대학을 졸업한 후 다른 유형의 대학에 편입, 혹은 재진학 하는 학사 연계형, 다른 나라에서 유학 온 국가 연계형 등이 그것이다. 단, 경력 연계형은 주로 재직자 전형을, 학사 연계형은 전문대학에서의 학사 편입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국가 연계형의 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국내 유학생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 연구는 국내 대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의 정규 (유)학생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여섯째,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4가지 진학 유형에 대한 개선 방안은 이상적인 대학 운영 모델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각 유형별 맞춤형 교육체제에 대한 개선 방안은 각 대학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필요한 부분, 혹은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제시한 참고 자료적 성격을 갖는다.

일곱째, 이 연구는 교육환경과 대학 교육의 문제에 대해 미시적 접근을 통해 대학 운영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일반적인 미시적 연구처럼 분석된 각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접근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 반면, 향후 대학의 교육운영체제의 다양한 과제들을 심층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Ⅱ. 이론적 기초

1. 관련 문헌 분석
2.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운영 현황과 과제 진단
3. 대학 진학 수요 유형화 및 연구 접근 틀

Ⅱ. 이론적 기초

1. 관련 문헌 분석

가. 교육환경 변화

우리는 지난 50년간 인류 역사 그 어떤 시기보다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지금까지 보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급속할 것이며 그 양상은 우리의 예측과 추정의 범위를 넘어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Hershock, 2012). 변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외 정부기관, 국제기구, 민간연구소 등에서 다수의 미래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중 미국 국가정보국(O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는 5년 주기로 미래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2년 발간된 『세계 동향 2030: 대안적 세계(Global Trends 2030: Alternative Worlds)』는 2030년 미래사회의 주요한 네 가지 변화의 흐름을 전망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권한 신장(Individual Empowerment), 세계 정치·경제권력 분산(Diffusion of Power), 인구 구조의 변화(Demographic Patterns), 식량·물·에너지 문제(Food, Water, Energy Nexus)이다(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13). 이와 유사하게 국내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2010)은 세계적 동향 중 특히 한국 사회에 큰 파급력을 지닌 요소를 추려 15가지의 큰 변화의 흐름(megatrend)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지식 기반 경제의 확산,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의 진전, 기후 변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기 심화, 글로벌화에 따른 멀티플레이어형 인재의 부상 그리고 인구 이동성 증가, 세계 정치경제지형 변화 등을 꼽았다.

미래 사회의 큰 변화의 흐름은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호주에서 발간된 『미래의 대학(University of the Futur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지식 접근의 민주화, 대

학 간 재정 확보를 둘러싼 경쟁 심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 글로벌화에 따른 교류·이동 증가, 산학 협력 및 통합의 확대 등을 고등교육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Bokor, 2012). 미국 딜로이트사에서 2014년 발간한 보고서는 고등교육 비용 증가,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평생학습 시대의 도래를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하고 학습자의 요구에 "꼭 맞춘(just right)" 교육 모델(Sledge, L., & Fishman, 2014: 6)과 "학점은행식(stackable)" 학위취득 제도의 등장(Sledge, & Fishman, 2014: 12) 등을 고등교육의 새로운 흐름으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교육환경 변화에 주목하여 교육 비전과 미래상을 진단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유현숙 외, 2011), '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 변화 예측'(황양주·최유성, 2011),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개편 방안'(김병주 외, 2011)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고등교육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주목하여 그에 따른 미래의 고등교육기관 및 체제에 대해 예측하여 변화를 전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외 미래 교육환경에 관한 보고서를 종합하여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관련된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그림 Ⅱ-1] 참조).

첫째,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고등교육 운영에 있어 변화가 불가피하며 성인학습자를 포함한 비전통적 학습자들의 요구와 수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황양주·최유성, 2011; Sledge, L., & Fishman, 2014).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부터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 정원이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게 될 것이며, 2024년 이후에는 입학 정원의 30% 수준이 미충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교육부, 2014.02). 반면 급격한 인구 노령화와 평생학습사회의 진전으로 학령기에 있는 전통적 의미의 학생이 아닌,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성인 학습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최상덕 외, 2009; 백성준 외, 2011). 즉,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등교육의 수요는 전통적 학생에서 비전통적 학습자까지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의 보급, 교육 문호의 확대, 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개인의 권한이 그 어느 때보다 신장되고 한 개인의 영향력 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National Intelligent Council, 2013). 휴대용 디지털 기기와 조밀한 연결망을 활용하여 대중이 고급 정보와 지식에 이전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여 언제 어디서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은 전통적으로 지식의 상아탑으로 고등지식

과 기술을 생산, 보관, 전수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지식 창조와 공유에 관한 개인의 영향력의 증대는 대학과 학생 개인과의 관계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다. 이제 학생은 수동적인 지식을 전달받는 교육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학습을 주도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 특성의 변화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Ⅱ-1] 미래 사회의 주요 동인과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

셋째, 지식 기반 사회의 진전으로 과거와는 다른 기술과 역량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많은 정보를 압축하여 분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 해석능력과 비판적·분석적 사고역량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과 같이 개인 혹은 하나의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의 대두로 개인 간, 집단 간,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팀의 일원으로서 협동심을 발휘하고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

재가 각광받고 있다. 인재상의 변화는 대학의 교육내용과 목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화에 따른 인적교류 및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로 유입되는 학생들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배경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유현숙 외, 2011). 향후 대학에 제공되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감소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대학 입장에서 해외 유학생은 새로운 입학 자원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 인도를 필두로 한 아시아권 국가들이 세계의 정치·경제 중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며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권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유학생의 비율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유학생 증가는 고등교육 관점에서는 새로운 교육수요의 창출이며, 이들을 위한 대학의 교육운영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및 요구 변화

이 절에서는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와 요구는 교육의 직접 대상인 학생의 관점과 교육 결과에 이해를 공유하는 사회의 관점에서 기술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우선, 고등교육 보편화 현상과 결부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요구가 보편화의 각 단계별로 변화되는 양상을 설명하고 지식기반 평생 학습 사회에서 고등교육의 변화 방향을 탐색한다. 다음으로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들의 특성과 요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기술하고자 한다.

1) 사회적 수요의 변화

미국의 고등교육학자 Martin Trow는 고등교육 기회확대 과정을 학령인구의 고등교육 취학률을 기준으로'엘리트(elite)-대중화(mass)-보편화(universal)'의 세 국면으로 구분하여 이론화하였다. 취학률이 15% 미만인 엘리트 단계, 취학률이 15~50%로, 엘리트 단계에 비해 다양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단계를 대중화 단계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취학률이 50%를 넘어서는 상황을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라고 정의

하며 이때 대학교육은 소수가 누리는 특권이 아닌 모두가 받아야할 의무로 인식되기 시작한다고 논하였다(Trow, 1976; Trow, 2006에서 재인용).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고등교육 각 단계별로 교육에 거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 역시 변화하게 된다(Brennan, 2004). 엘리트 단계에서 교육은 사회의 지도층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둔다. 대중화 단계에서는 이전보다 대학에 입학하는 인구의 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적 지도층의 범주가 확장되고 교육 내용 역시 전문 기술과 지식의 전수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고등교육 기관의 유형도 다양화되어 대중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체제가 개편된다. 취학률이 50%를 넘어서는 보편화 단계에서는 누구나 원하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할 때 고등교육에 진입, 퇴장할 수 있다. 교육의 내용은 사회적 수요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될 여지가 크며 전문화된 지식뿐 아니라 현실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 지식 역시 고등교육의 주요 학습내용이 된다(〈표 Ⅱ-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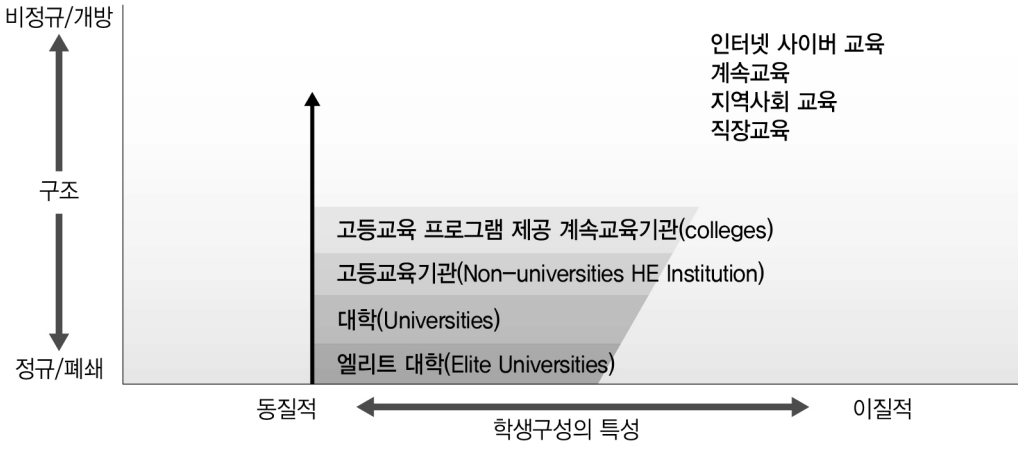
지식사회의 진전은 고등교육의 수요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지식기반 중심 산업구조로의 변화는 직업과 경력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에 당연시 되었던 평생 직업이나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새로운 직업이나 분야가 등장하면서 급격히 직종이나 직업 수명의 단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취업을 위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경력 개발이나 계속교육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Drucker, 1993을 이재규 역, 2002에서 인용). Peterson과 Dill(1997)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주요 수요자와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재편되는지를 제시하였다(〈표 Ⅱ-1〉 참조). Martin Trow(1976)와 John Brennan(2004)이 제시한 고등교육 발전의 3가지 국면에 더하여 고등교육이 상용화, 일상화되는 시기를 상정하였고 이때를 "고등교육 지식 산업화(Post-secondary Knowledge Industry)" 단계로 지칭하였다. 고등교육 지식 산업화는 말 그대로 대학교육이 지식 산업화하여 언제, 어디서라도 접근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원하는 때에 언제라도 교육내용에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표 Ⅱ-1〉 고등교육 유형 변화에 따른 수요와 요구 변화

고등교육 유형	기관의 유형	고등교육 수요자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
엘리트 고등교육	전통적인 고등교육 기관(4년제 대학 등)	전통적인 학생(고등학교 졸업자)	엘리트의 품성·인성 함양
대중적 고등교육	새로운 2년제 고등교육 기관의 등장(지역사회대학)	비전통적 학생의 증가	전문 기술·지식 전수
보편적 고등교육	영리추구형 대학의 증가	기존학생, 비전통적 학생(성인, 시간제 학생들의 증가)	실용적 지식에 대한 요구 증가
고등교육 지식 산업화	정보통신 회사 등 일반기업의 진출과 교육훈련 기관의 증가	기존의 고객, 직장인, 일반성인	학습자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출처: Peterson, & Dill (1997); Brennan (2004)의 내용을 재구성.

유사하게 Schütze와 Slowey(2000)는 평생학습시대의 진전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재구조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평생학습을 위한 고등교육의 변화에 대한 그림을 살펴보면, 학생의 구성은 점차 다양해지고 이질적으로 변화하며, 고등교육기관의 구조 또한 비정규화, 개방화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종전의 엘리트 대학의 모형에서 다양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계속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확장되고 있으며, 비형식교육에 속하는 인터넷 사이버교육, 지역사회교육, 일터학습 등의 형태로 평생학습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요컨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확대는 지식기반 사회의 사회적 요구와 결부되어 있으며, 고등교육은 사회적 지도자 양성이라는 전통적 교육목표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직업교육 및 21세기 새로운 학습역량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수용해야 한다([그림 Ⅱ-2] 참조).



[그림 Ⅱ-2] 평생학습을 위한 고등교육의 변화

*출처: Schütze, & Slowey (2000). p.22; 최상덕 외(2009)에서 재인용.

직업세계와 산업현장의 수요 역시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지식 경제와 정보화 시대를 맞아 산업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며,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주들은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분석 능력, 창조/혁신 능력, 정보 기술의 적용,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 등 인지적 업무 처리 능력과 더불어 다양성, 팀워크와 협동심, 리더십 등 타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꼽았다. 이와 더불어 직업의식과 성실성, 도덕성과 사회 책임 등 인성적 측면 역시 21세기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았다(Casner-Lotto, J., & Barrington, 2006).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대학의 학습 환경은 특정 상황에 집중한 지식의 전달보다는 기본적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Zuckerman, Azari, & Doane, 2013), 디지털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집단 커뮤니케이션과 팀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 분야에서 과학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Johnson et al., 2013). 요컨대, 인재상에 대한 변화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달라지고 있으며, 대학은 교육목적을 새롭게 조정하고 교육내용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구조할 필요가 있다.

2) 개인적 수요의 변화[2)]

고등교육에 대한 개인적 수요 측면에서 감지되는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성인학습자, 일-학습 병행 학습자와 같이 비전통적 학생의 증가이다. 이들은 학령기에 있는 전통적 학생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비전통적 학습자'로 통칭하고 있으나 이들은 다양한 집단을 아우르는 개념이며, 입학 동기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OECD, 1987의 내용을 손준종·구혜정, 2007:144에서 재인용). 첫째는 자기 개발형 학습자(personal developer)이다. 이들은 대학교육에 대한 사전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순전히 개인적 성장과 만족을 위하여 대학에 다시 입학 혹은 최초로 입학하는 성인들을 일컫는다. 둘째는 재충전형 학습자(recyclers)로, 직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기술,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직을 위해 필요한 것을 습득할 목적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습자들이다. 셋째는 패자부활형 학습자(second chancers)이다. 이들은 학령기에 고등교육에 접근하지 못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새롭게 교육할 기회를 얻어 학력을 획득한 성인 학습자들이다. 이들의 목적은 정규 학위취득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학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 혹은 재입학한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단기 학습자인데, 이들은 정규 대학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고 직업 혹은 교양의 이유로 단기과정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학생을 말한다.

비전통 학습자의 증가는 교육기회 접근 경로의 다변화를 의미할 뿐 아니라, 학습자의 학업역량에 있어서의 편차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고교 졸업 이후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비전통적 학생들은 소득이나 학업 성취도 수준에 있어 열세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Field, 2003). 특히 패자부활형 성인학습자의 경우에는 학령기에 경제적 및 시간적인 부족을 이유로 대학 진학기회를 놓쳤거나 미루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상당시간이 흘러 학습의 단절로 인해 대학수학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소양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교육의 전통적인 수요자인 학령인구의 학습 양식과 성향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선호와 요구에도 영향을 주었다. 21세기 인터넷 기술과 모바일 통신 기기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인터넷 세대(Net Generation)"는 기존 세대와는 다른 상호작용, 정보처리 및 학습 양식을 보이고 있다

2) Ⅴ장의 미국 사례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한 것임.

(Oblinger, 2006; Bates, & Sangrà, 2011). 인터넷 세대는 어려서부터 디지털 도구를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사용해 온 세대로, 과학기술 활용 능력과 인터넷 매체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주어진 텍스트를 순차적으로 따라가기 보다는 과학기술을 활용해 능동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내용을 구성하고 이해한다. 나아가 스스로 정보의 생산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모호한 개념보다는 조직적이고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선호하며, 새로운 정보나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등장했다가 소모되고 잊혀진다. 한편,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은 소셜 미디어 등의 인터넷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우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와의 연결이 이를 통해 이루어지며, 즉각적인 반응과 협력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Prensky, 2001; Oblinger, & Oblinger, 2005; Lomas, & Oblinger, 2006).

교육수요자인 학생 특성의 변화는 대학교육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학자들은 무엇보다 정형화된 교수계획에서 벗어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Milne, 2006), 사고를 형성, 전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며(Oblinger, 2003; Oblinger, & Oblinger, 2005), 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학습과 커뮤니케이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인터넷 세대의 특수한 학습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Smith, & Caruso, 2010; Bates, & Sangrà, 2011; Casares et al., 2012). 이미 다수의 대학들이 다양한 교육공학기술들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은 수업에 활용되는 과학기술이 자신들의 학습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mith, & Caruso, 2010). 다만, 수업에서 활용되는 과학기술만으로는 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 활용능력을 갖추기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아 이에 대한 대학들의 관심이 요구된다(Smith, & Caruso, 2010; Bates, & Sangrà, 2011).

Wilson(2001)은 경영과 마케팅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개념인 “대중 맞춤(Mass customization)”을 차용하여 변화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에 맞춤한 교육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대중 맞춤형 고등교육은 학습자 중심 교육과 유사한 개념이나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학습자 중심 교육은 교수자에서 학습자로 교육활동의 주제가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제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주로 의미한다. 이는 한 명 혹은 다수의 교수들이 교수학습을 주도하는 전통적인 교육체제의 변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중 맞춤형 고등교육은 학습자 중심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학습자의 요구를 빠르게 파악하여 개별 학습자의 요구진단에 기반하여 맞춤형 교육 서비스로 환류하는 체제를 의미한다(Wilson, 2001). 개인의 학습과 교육수요는 다양하지만 과거 다양한 교육수요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반적인 교육수요를 가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교육의 내용,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 흥미, 요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석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학습자 개개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준별 교육내용을 학습자 개인의 성향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자에게는 디지털화된 매우 짧은 시간의 내용을 휴식시간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전통적 학생의 경우는 상호작용이 풍부한 교육방식으로 보다 긴 시간에 걸쳐 교육내용 전달이 가능하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운영의 방식과 체제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즉각적인 피드백과 상호작용을 선호하는 인터넷 세대의 학습에 효과적이다. 요컨대 대학교육의 대상이자 주요 구성원인 학생의 특성이 변화하고 그들의 진학과 학업의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수요의 변화는 고등교육의 운영에 있어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2.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운영 현황과 과제 진단

대학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기관은 지난 30년간 다양한 형태의 대응과 전략을 선보였다.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변화에 대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관과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어떠한 방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통계 및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가. 고등교육 현황과 수요 변화 추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없는 고등교육의 급속한 확장을 경험하였다. 2013년 조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은 68.7%로 학령기 인구 중 2/3 이상이 대학에 가고 있다[3].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은 연도별 고등기관 수 변화추이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고등교육 기관 수는 1980년 358개에서 2013년 1,590개 기관으로 3배 가량 증

3)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2014년 11월 7일 검색.

가하였다.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이 모두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동기간 4년제 일반대학은 85개 기관에서 188개 기관으로 2배 이상 수가 증가하며 고등교육의 급격한 확장을 주도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8)[4]. 이러한 현상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1990년 후반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대학의 설립이 다소 자유로워지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팽창, 특히 4년제 대학의 양적 성장에 더하여 고등교육 기관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사이버대학의 출현을 들 수 있다. 국내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2001년 처음 출범하였으며, 그 이후 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대학 이외에도 원격대학, 사내대학과 같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 기관이 등장하고 있다. 〈표 Ⅱ-2〉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기관 다양성이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을 전통적인 대학의 유형으로 정의한다면 2000년대에는 이와 같은 전통적 대학이 전체 기관의 99%가량을 차지하였다. 2013년 현재 이들 기관은 전체 고등교육 기관 중 9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이버대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Ⅱ-2〉 연도별 고등교육 기관 수 추이(수)[5]

구분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일반대학	161	177	179	183	189	188
전문대학	158	146	145	147	142	140
교육대학	11	10	10	10	10	10
산업대학	19	12	11	9	2	2
기술대학 (대학)	1	1	1	1	1	1
방송통신 대학	1	1	1	1	1	1
각종학교 (대학)	3	1	2	4	4	4
원격대학 (대학)	–	4	2	1	1	1
사이버대학 (대학)	–	12	15	16	17	17
사내대학 (대학)	–	1	1	1	1	3
합계	354	365	367	373	368	367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 p.8에서 부분 발췌.

4) 고등교육기관 수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모두 포함된 수치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8).
5) 전문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고등교육 기관 수는 대학과정에 설치된 기관 수를 의미한다.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양적 확장과 기관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학령기에 있는 전통적 학생과 전통적 유형의 대학이 여전히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고등교육 기관별 등록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이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기관의 재학생은 약 20만 명 증가하여 2013년 현재 약 3백 3십만 명에 이른다(〈표 Ⅱ-3〉). 또한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학생 중 일반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과 같이 전통적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의 비율은 2000년 88.5%에서 2013년 89.2%로 증가하여 여전히 전통적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의 확장에 중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Ⅱ-3〉 연도별 학생 수 추이(명)

구분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일반대학	1,665,398	1,984,043	2,028,841	2,065,451	2,103,958	2,120,296
전문대학	913,273	760,929	767,087	776,738	769,888	757,721
교육대학	20,907	22,879	21,618	20,241	18,789	17,500
산업대학	170,622	143,368	133,736	122,916	95,533	76,377
기술대학	50	130	121	135	143	128
방송통신대학	360,051	277,372	272,452	268,561	254,652	245,257
각종학교	2,687	1,127	1,213	4,829	4,333	4,448
원격대학	-	19,826	3,646	969	1,032	1,011
사이버대학	-	69,743	93,297	103,917	106,080	109,673
사내대학	-	96	92	93	94	211
합계	3,132,988	3,279,513	3,322,103	3,363,850	3,354,502	3,332,62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 p.9에서 부분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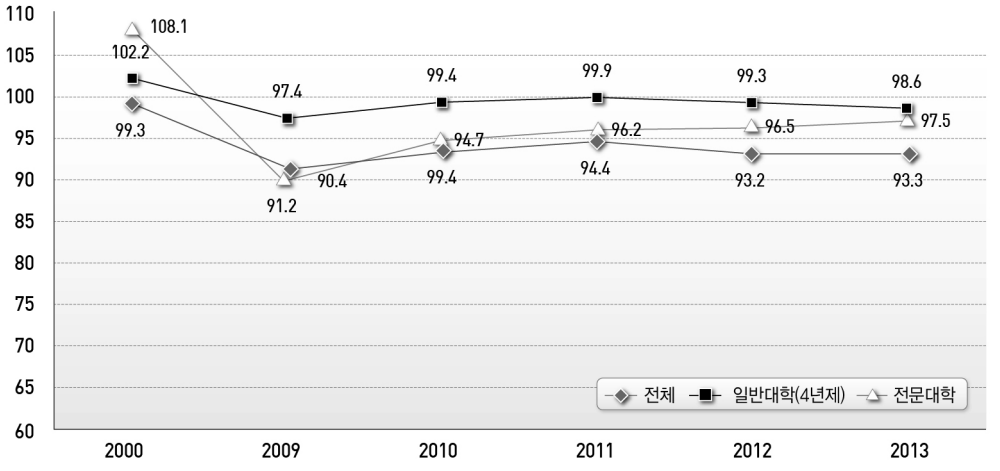
연령별 입학비율에 대한 〈표 Ⅱ-4〉를 살펴보면, 학령기 학생 중심의 입학과 선발이 여전하거나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18~24세 4년제 입학생 비율은 2006년 97.3%에서 2013년 97.8%로 거의 변화가 없다. 오히려 중장년층 입학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Ⅱ-4〉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수

전문대학	전체	~17세	18-24	25-29	30대	40대 이상	30대/전체 입학자	40대 이상/전체입 학자
2006	254,433	2,037	204,542	14,421	19,712	13,721	5.39%	7.75%
2007	255,395	1,166	207,211	14,158	18,684	14,176	5.55%	7.32%
2008	249,291	2,346	201,317	13,414	17,664	14,550	5.84%	7.09%
2009	242,525	2,653	198,549	12,223	14,439	14,661	6.05%	5.95%
2010	249,144	3,268	206,832	10,390	13,439	15,215	6.11%	5.39%
2011	249,693	3,110	213,654	8,832	10,955	13,142	5.26%	4.39%
2012	238,952	2,846	209,538	6,985	7,891	11,692	4.89%	3.30%
2013	227,707	2,209	202,029	5,875	6,455	11,139	4.89%	2.83%
대학	**전체**	**~17세**	**18-24**	**25-29**	**30대**	**40대 이상**	**30대/전체 입학자**	**40대 이상/전체입 학자**
2006	335,581	1,986	326,686	2,631	2,410	1,868	0.56%	0.72%
2007	342,250	1,648	334,423	2,469	2,022	1,688	0.49%	0.59%
2008	342,916	4,298	332,684	2,329	1,931	1,674	0.49%	0.56%
2009	347,750	4,719	337,439	1,970	1,844	1,778	0.51%	0.53%
2010	358,511	5,879	347,838	1,685	1,511	1,598	0.45%	0.42%
2011	361,686	6,483	350,435	2,026	1,399	1,343	0.37%	0.39%
2012	372,941	8,097	359,096	2,641	1,574	1,533	0.41%	0.42%
2013	365,515	4,556	357,438	1,227	905	1,389	0.38%	0.25%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 p.17의 내용을 재구성.

학령기 학생과 전통적 고등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의 입학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018년부터 고교 졸업자 수가 이보다 적어져 미충원 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교육부, 2014. 2). 미충원 전망을 굳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2009년 이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생 충원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그림 Ⅱ-3] 참조). 2000년대 초반 100%를 상회하던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충원률은 2013년 기준으로 93.3%로 하락하였다. 충원률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전문대학에 비해,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완만하기는 하지만 충원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림 Ⅱ-3] 연도별 고등교육 기관(일반대학, 전문대학) 충원률[6)]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a). p.46의 내용을 재구성. [6)]

요컨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양적 팽창, 기관의 다양화를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하였다. 높은 진학률, 취학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25세~64세의 성인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 역시 40%로 OECD 국가 평균인 32%를 상회하고 있다(OECD, 2012).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여전히 학령기 학생과 전통적인 고등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술한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입학구조는 위기와 위협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인해 2018년부터 대학입학자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충원률 추이를 보면 2000년도 중반 이후 충원률이 격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눈부신 과거를 뒤로 하고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6) 입학자 충원율=(당해연도 정원내 입학자 수/당해연도 입학정원 수)×100

나. 대학의 교육운영 실태

1) 교육과정 운영 측면

우리나라 대학의 학과 중심의 교육과정의 운영 구조는 1924년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교)에 “일본식 유럽형 학과제”를 수용하여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강명구·김지현, 2010: 330). 이후 1972년에 공표된 ‘고등교육에 관한 장기 종합계획안’을 토대로 1973년 ‘실험대학’을 운영하며 학과 간 장벽을 제거하고 공통 교양과정을 설치하는 등 대학 교육 운영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실험대학’은 과다한 필수 교양과목으로 인한 학생들의 선택권 약화, 전공선택 단계에서 일부 인기학과로의 편중현상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다가 1980년 7.30 교육개혁과 입시제도의 변화로 ‘학과제’의 전면적 부활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강명구·김지현, 2010). 이후 90년대 중반 유사학과를 통폐합하여 대단위 모집단위로 구성하는 ‘학부제’가 다시 등장하였다가 2008년 정부정책의 변화와 함께, 현재는 학부대학, 기초교육원, 자유전공학부, 다중전공제 등의 형태로 일부 그 흔적이 남아있다.

‘학부제’의 등장과 소멸, 재등장 속에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전공별 전문교육에 더하여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틀이 마련되었다. 강명구와 김지현(2010)은 학사제도의 복잡한 변화 속에서 자리 잡은 우리나라 대학의 기초교양교육은 그 개념과 목적, 대상, 내용, 그리고 방법 등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교육적 이념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기초교양교육은 현재 대학교육의 요체로서 전공별 전문교육과 함께 대학교육과정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간의 학부교육 개선 사업(예, 학부선진화 사업)은 비교과 활동을 포함한 학부 교양 교육과정의 체계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기초교양교육이 보다 깊이 있는 내용으로 활성화될수록 기존의 인문학적 교양교육에 더하여 직업 준비 교육, 창의적인 지식의 창출 등 시대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발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양 혹은 전공 교육과정의 전반적 현황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외적으로 박인우·박주호·김인식(2011)은 고등교육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를 산출하고 학생, 교직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해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구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및 강좌 구성의 적절성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Ⅱ-5〉와 같다.

〈표 Ⅱ-5〉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강좌 구성에 대한 학생 만족도

영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강좌 다양성	267 (8.8%)	696 (23.0%)	947 (31.3%)	736 (24.4%)	263 (8.7%)	3.01	1.105
학생 수 만족도	203 (6.7%)	665 (22.0%)	1153 (38.2%)	709 (23.5%)	178 (5.9%)	3.00	0.998
개설 수 만족도	325 (8.8%)	883 (29.2%)	951 (31.5%)	580 (19.2%)	167 (5.5%)	2.79	1.066
실용성	217 (7.2%)	723 (23.9%)	1176 (38.9%)	612 (20.3%)	177 (5.9%)	2.93	0.999
난이도	193 (6.4%)	581 (19.2%)	959 (31.7%)	879 (29.1%)	292 (9.7%)	3.17	1.069
다양한 경험	424 (14.0%)	922 (30.5%)	926 (30.7%)	487 (16.1%)	144 (4.8%	2.66	1.073
요구반영	315 (10.4%)	934 (30.9%)	1121 (37.1%)	430 (14.2%)	105 (3.5%)	2.68	0.973
진로 연계성	330 (10.9%)	971 (32.1%)	1009 (33.4%)	474 (15.7%)	122 (4.0%)	2.69	1.01
전공 관련성	353 (11.7%)	965 (31.9%)	990 (32.8%)	490 (16.2%)	110 (3.6%)	2.67	1.014
취업 도움	304 (10.1%)	992 (32.8%)	1055 (34.9%)	454 (15.0%)	101 (3.3%)	2.68	0.975
단계/수준별 교과목 구성	233 (7.7%)	845 (28.0%)	1218 (40.3%)	515 (17.0%)	97 (3.2%)	2.79	0.938
학문-실용의 균형	140 (4.6%)	624 (20.7%)	1369 (45.3%)	648 (21.4%)	127 (4.2%)	3.00	0.897

*출처: 박인우·박주호·김인식(2011). p.115에서 발췌.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강좌구성에서의 학생들의 만족도 혹은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5점 만점에 응답자 평균이 2.5~3점 사이로 전반적으로 보통 혹은 보통 이하의 수준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교양 교육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지의 여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되어 편성되고 있는 정도, 진로와의 연계성, 전공과의 관련성, 취업에의 도움 정도, 수준별 구성 영역에서는 평균 3.0점 미만으로 만족도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현행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진로와 취업과의 연계성, 다양성, 체계성에 있어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동일 연구에서 학생들이 교양 교육과정을 통해 개인 능력 신장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Ⅱ-6〉에 제시한 것과 같이, 교양 교육과정의 개인 능력 신장에 대한 효과성은 보통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평균 3.13), 문제해결 능력(평균 3.07), 외국어 능력(평균 2.88)에 대한 효과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에서의 교양 교육과정에서 상기의 역량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내용의 편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표 Ⅱ-6〉 교양 교육과정을 통한 개인 능력 신장

영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외국어	249 (8.2%)	774 (25.6%)	1054 (34.9%)	678 (22.4%)	119 (3.9%)	2.88	1.001
사고력	153 (5.1%)	595 (19.7%)	1177 (39.0%)	796 (26.3%)	152 (5.0%)	3.07	0.951
자기개발능력	132 (4.4%)	504 (16.7%)	1113 (36.8%)	908 (30.1%)	212 (7.0%)	3.20	0.966
의사소통능력	139 (4.6%)	551 (18.2%)	1165 (38.6%)	827 (27.4%)	191 (6.3%)	3.13	0.96
정보활용능력	122 (4.0%)	493 (16.3%)	1142 (37.8%)	896 (29.7%)	221 (7.3%)	3.21	0.958
문제해결능력	125 (4.1%)	596 (19.7%)	1288 (42.6%)	678 (22.4%)	184 (6.1%)	3.07	0.933

*출처: 박인우·박주호·김인식(2011). p.117에서 발췌.

2) 교수학습 방법 측면

21세기 대학에서의 교수학습은 지식전수 또는 지식전달의 과정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지식을 확장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인지적, 정의적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으로 정의된다(박권생, 2011). 최근 대학교육에서 교수자의 역할이 줄어들고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의 교수자는 대학의 교수 및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위자이자 요소임에는 틀림없다(유현숙 외, 2013b). 이성호(1992)에 의하면, 대학 수업은 가르치는 사람(교수), 배우는 사람(학생), 지원해 주는 사람(행정인력)의 준거 틀 속에서 각 관련자의 능력과 기회, 유인 등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교수학습의 방법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대학별로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특히, 학습자 스스로 내용을 습득하거나 학습동기부여를 위한 이러닝(e-learning)과 역전학습(Flipped Learning) 등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을 검토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조사한 '고등교육 이러닝 현황 조사 분석 보고서'는 조사에 참여한 138개 대학의 이러닝 실시 현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131개 대학(94.9%)이 이러닝을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대학이 정규과정으로 이러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대학, 산업대학은 100% 이러닝을 실시하고 있고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93.9%, 94.6%로 일부 실시하지 않는 대학이 있다.

전체 대학의 이러닝 강좌 구성을 종합한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이러닝 강좌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서 평균 86.8강좌에서 2012년 93.1강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닝 강좌 수강생의 수도 201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대학의 전체 강좌 수 대비 이러닝 강좌의 수는 불과 3.9%였다(〈표 Ⅱ-7〉 참조).

〈표 Ⅱ-7〉 연도별 대학 이러닝 실시 현황

연도	2010	2011	2012	평균
이러닝 강좌 수	86.8	91.4	93.1	90.43
이러닝 강좌 비율(%)	3.7	3.9	3.9	3.83
이러닝 강좌 수강생	639,421	669,505	679,726	662,884
이러닝 수강비율(%)	31.4	31.9	31.6	31.63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2). p.3에서 발췌.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습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을 모집단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유현숙 등(2010)의 연구에서도 이러닝과 같은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는 빈도가 아직은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83.8%의 응답자들이 수강하는 과목의 80% 이상이 강의실 면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수강과목의 60%~80% 정도가 면대면 수업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수는 불과 10명 중 1명이었다. 한편, 온라인 수업 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84.4%가 수강 과목의 20% 미만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강과목의 20%~40%가 온라인 수업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도 11.1%에 머물렀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수업 방법인 강의실 면대면 수업이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8〉 대학생들이 경험한 수업방법

(단위: 응답자수(비율))

연도	20% 미만	20~40%	40~60%	60~80%	80%이상
강의실 면대면 수업	53 (2.6)	77 (3.8)	111 (5.5)	227 (11.2)	611 (83.8)
온라인 수업	1705 (84.4)	224 (11.1)	76 (3.8)	8 (0.4)	6 (0.3)

*출처: 유현숙 외(2010). p.97에서 발췌.

유현숙 등(2010)의 연구에서는 또한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이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실태와 수업방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강의식 수업으로 보고 있었으며, 판서 위주로 교수자의 일방적 강의를 "졸리고 나쁜"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강의식 수업이더라도 이해를 증진하는 사례를 제공하고, 그림, 동영상 등 풍부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며,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좋은 수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최근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 증대로 대학 수업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전통적 강의식 수업 외에 토론식 수업 등이 시도되고 있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 또는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블랜디드 수업(blended class)이 등장하고 있다(유현숙 외, 2010). 특히 강의식 수업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온라인상의 교수학습의 경우는 복습이나 예습에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현숙 외(2013b)는 연속연구로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을 탐색하였다. 학생과 교수자들의 교수학습 실태와 학습활동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조사하였는데, 이 중 학생들의 전공 및 교양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표 Ⅱ-9〉에 따르면, 전공 수업의 교수학습 만족도의 각 영역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이상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적절한 수업자료 선택에 대한 항목은 3개년 내내 80%가 넘는 학생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2011년 대비 2013년 결과를 확인해 보면 전반적 수업 만족도가 감소했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업 여부, 피드백의 적절성 등의 항목 또한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9〉 전공 수업의 교수·학습 만족도 '만족한다' 이상 응답률

설문내용	2011년	2012년	2013년
(전공) 전반적 수업 만족	83.0	70.6	75.2
(전공) 적절한 수업자료 선택	88.4	81.8	83.5
(전공) 적절한 사례 제시	-	-	73.4
(전공) 흥미롭고 지적호기심을 자극	69.9	56.5	62.1
(전공) 적절한 피드백	68.8	56.2	64.4

*출처: 유현숙 외(2013b). p.202에서 발췌.

교양 수업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전공 수업에 비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약간 낮았다. 단,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업인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전공 수업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공 수업의 경우와 유사하게, 수업 자료를 적절히 선택했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3개년 모두 많은 수의 학생들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적절한 피드백 제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개년 모두 60%대 이하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Ⅱ-10〉 교양 수업의 교수·학습 만족도 '만족한다' 이상 응답률

설문내용	2011년	2012년	2013년
(교양) 전반적 수업 만족	78.8	68.8	72.4
(교양) 적절한 수업자료 선택	86.3	78.9	82.9
(교양) 적절한 사례 제시	-	-	71.6
(교양) 흥미롭고 지적호기심을 자극	71.4	61.5	65.4
(교양) 적절한 피드백	62.9	52.0	60.3

*출처: 유현숙 외(2013b). p.204에서 발췌.

이상의 자료와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대학은 이러닝(e-learning),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등과 같이 온라인 기반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닝 강좌를 도입하고 있는 대학의 비율이 90%를 넘어서고 2010년 이후 기관당 평균 이러닝 강좌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는 빠르지 않다. 강의식 수업이 지배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전반적인 수업에 대한 만족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전공·교양 수업 모두 지적 자극 수준에서 만족할 만하지 못하며, 교수자의 적절한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요컨대,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도입하여 대학 교육환경을 혁신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대학은 강의식, 교수자 중심의 전통적 교수학습 형태가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고등교육 정책 현황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대학의 교육운영체제와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과제는 크게 대학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 대학의 학생 선발 관련 정책, 대학의 국가 간 문호 개방 정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은 2000년대 이전까지 연구개발 중심의 재정지원 정책의 초점이 학부 교육의 경쟁력과 다양화로 확대되며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교육부가 학부교육모델에 대한 창출 확산을 지원하고 있는 '잘 가르치는 대학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 ACE)'이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대학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부교육 선도 모델을 발굴하여 이를 대학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각 대학들은 대학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교육부, 2014. 6.).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대학들은 학부 교육의 내실화 및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꾀하기 위한 혁신과제를 도출해 내고 있다. 정부 주도의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은 학부 교육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학부 교육의 질 제고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과 같은 양적 지표 중심의 평가와 재정 확보를 둘러싼 대학 간 경쟁 심화에 따라 대학들이 오히려 유사한 교육운영체제와 성과를 강조하는 등 대학 교육의 다양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대학의 학생선발과 관련한 주요 정책으로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도입한 재직자 특별전형은 입학자원의 다양화 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09년 10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 14호 다목적에 의거, 해당 학교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이거나 고등학교(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포함)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에게 대학에서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을 정원 외 전형으로 모집하여 재직 근로자가 경력과 연계하여 대학 입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010학년도 3개 대학(중앙대, 건국대, 공주대)을 필두로 하여 점차 운영 대학 및 학과 수가 확장되었으며 2013년 기준 총 50개교 대학(4년제)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13. 5). 한편, 이와 다르게 입학 수요자에 대한 수급을 조절(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찾아 볼 수 있는데, 대학의 편입제도와 관련하여 2012년 4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1) 정원 내 일반 편입학 여석의 산정기준을 변경, 2) 정원 외 학사 편입학 모집 비율과 관련하여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각 지역의 주요 대학 입학처장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학편입학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반 편입학과 학사편입학의 모집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최근 주요 흐름인데, 구체적으로 모집 인원을 축소하고 정원 외 편입학 선발 횟수를 축소하는 것이 해당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학의 진학 경로를 확대 혹은 조정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정책목표 간 일관성 부족, 관주도의 학생선발정책의 한계로 대학 선발에 있어서의 복잡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국가 간 문호를 개방하고 이를 관리하는 정책의 대표적 사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용 방안',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체계 선진화 방안',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 방안' 등이 있다. 먼저 유학생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체계 선진화 방안'을 통해 유치-수학-귀국의 전 주기를 관리하고 대학의 유치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인센티브 중심제로 범정부적 정책 연계 강화하는 선진화 방안을 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8. 12). 또한 최근에 발표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활용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재 유형별 전략적 유치 활용 정책으로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대상 확대를 통해 고등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발표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1. 23).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상담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유학생의 국내 활동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를 확대하고 Study Korea 2020 Project의 세부 계획을 추진하여 정부 초청 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 GKS)의 확대 및 유학생의 출신 국가의 다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대학의 유학생 관리 체제에 관하여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립하였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1. 9. 22), 이와 별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 IEQA)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인증제를 통해 해외 학생들에게 유학생 유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우수한 대학 명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GKS사업 대상자 선정 시 행·재정적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4. 30).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상과 같은 유학생 정책은 시의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주기적 관리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유학생 정책이 여전히 유치와 선발에 집중하고 있어 중도 탈락, 부적응과 같이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교육수료 이후 취업과 같이 후속관리 측면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교육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책 내용을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터하여 우리나라 대학교육 운영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식사회로의 전환, 과학기술의 발달, 평생학습 수요 증가, 국제화 등과 같은 교육환경 변화 트렌드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즉, 국제화 진전에 따라 대학 수준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의 국제적 경쟁 격화에 따라 교육의 질과 수월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정부의 과제 및 정책 사업은 대학별 특징과 자원을 고려하여 추진 및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 대학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개발되어 시행되었고 입시전형에 있어 각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교육, 연구, 사회적 기여와 봉사라는 대학의 세 가지 기능 중 교육부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정부가 오랜 기간 추진해온 학부교육역량 강화사업과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성화 사업의 경우 학부 교육의 체질 강화와 선도적인 학부교육 모형의 개발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개입에 힘입어 대학교육 현장에서도 연구,

학술 활동 못지않게 학부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성과와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 운영관련 정책에 있어 몇 가지 한계점이 발견된다. 첫째, 정책의 수혜자 혹은 주요 대상이 학습자인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물론 대개의 정책사업이 대학단위로 사업비를 교부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학생교육에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 예산을 쓰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정책에 따른 수혜가 학생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학금, 활동자금 지원과 같은 형태로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사업비가 교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사업비를 통해 개발되어 운영되는 대학의 특정 프로그램에 선호를 가진 학생에게 수혜가 편중될 수도 있다. 둘째, 대학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정책들 대부분이 대학의 입학, 접근,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소수에게만 개방되어 있었던 엘리트형 고등교육 운영체제에 맞는 운영체제이자 초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를 지나 일상화, 보편화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학습자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학과 접근뿐 아니라 교육과정, 경험, 심지어 졸업 이후의 결과까지에 대한 맞춤형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ACE사업과 같이 교육과정 개선에 초점을 둔 정책도 있으나, 현재까지의 정책은 대개 입시제도와 선발의 공정성에 무게중심을 두어 대학교육 운영의 핵심인 과정(Process) 부분에 대해 소홀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라. 과제 진단

지금까지 간략하게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현황, 교육운영 실태, 그리고 고등교육 관련 주요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과 함께 기관의 수와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공과 교양교육과정을 근간으로 대학 교육과정의 틀이 형성되었다. 또한 교육의 개방화, 다양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으며, ICT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이러닝, 블렌디드러닝과 같은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으나, 앞으로 펼쳐질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개선을 넘어선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당면한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변화하는 학생의 요구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구성은 9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전통적 학생들이다(〈표 Ⅱ-4〉 참조). 이 학생들은 디지털 세대로 불리며, 이전 세대와는 다른 학습 방법과 취향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세대의 학생들은 교수자 위주의 일방향적 강의가 주를 이루는 대학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교양교육과정의 개편이나 운영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데 대하여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서 학생은 다수를 이루는 구성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나 필요가 교육내용이나 방법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요구나 필요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 역시 전반적으로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통적 학생의 요구와 필요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ICT의 발달에 힘입어 사이버대학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젊은 세대들의 학습의 양식과 선호가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세대는 강의식 수업보다는 교수자와 학생의 즉각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풍부한 학습 환경을 선호한다. 이 같은 현상은 고등교육의 교육과정과 운영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관은 이러닝, 블렌디드 러닝 등을 도입하여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는 학습자의 요구 수준을 아직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대학 강좌 대비하여 이러닝 강좌의 수가 3.9%(〈표 Ⅱ-7〉 참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격차를 증명한다. 우리의 대학교육이 새로운 기술 환경과 빠르게 변화는 학습자의 특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수학습 방식과 학습지원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식 창조 경제의 진전과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변화된 산업과 사회의 수요에 대응한 교육내용과 과정의 개혁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직업세계에서도 고등학위가 요구되는 분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과 같이 직업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역량이 개발되고 있다는 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고용주들은 현재의 대졸자들이 자신들이 중요하게 평가하는 능력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교육 훈련 투자 비용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 더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표 Ⅱ-11〉). 이는 대학교육이 실제 산업과 생활과 동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재교육이 필수적이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교육을 통해 길러진 역량과 지식은 사회적 수요에 응답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의 대학교육은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과정이 학생과 사회적 수요를 얼마나 적절하게 담아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 Ⅱ-11〉 기업의 교육 훈련 비용

(단위 :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전체	지원 O	지원 X	전체	지원 O	지원 X
기업 규모	300인 미만	45.4	83.7	16.9	52.3	76.0	24.7
	변화치	-	-	-	(6.9)	(-7.7)	(7.8)
	300인 이상	267.8	297.0	86.7	276.6	295.8	118.9
	변화치	-	-	-	(8.8)	(-1.2)	(32.2)
전체		154.3	224.3	30.0	169.3	217.5	43.9
변화치		-	-	-	(15.0)	(-6.8)	(13.9)

*출처: 고용노동부. 『기업 직업 훈련 실태조사』, 각 연도에 대해 반가운(2013). p.108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대학의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미래의 사회에서는 성인학습자, 재입학자와 같은 비전통적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3년 기준 30.2%로 아직은 높지 않은 편이며(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b: 26), 고등교육단계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국제교류학생의 비율은 1.9%로 OECD 평균인 6.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교육부, 2013.06.25). 우리나라 대학교육 환경에서 성인학습자, 일-학습 병행자와 같은 비전통적 학생과 외국인 학생은 소수로 남아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이 차지하게 될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으며 일부 대학들은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이미 구상하여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새로운 수요계층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들의 학습 요구와 학습 양식에 대해서 그간 학술적, 정책적 관심은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학생들 못지않게,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비전통적 학생과 유학생의 요구와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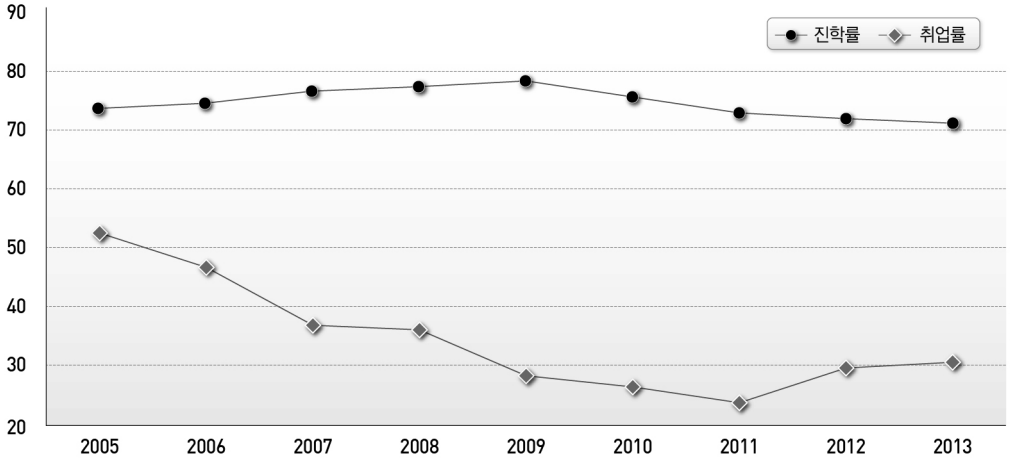
3. 대학 진학 수요 유형화 및 연구 접근 틀

급격한 환경 변화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교육운영에 있어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터하여 이 연구는 현행 교육운영 모형을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미래형 고등교육 운영체제를 탐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그 동안 대학 교육의 변화가 상의하달식, 교수자 및 학교 행정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향후 고등교육 운영을 학습자 관점에서 접근하되, 고등교육 진학자들의 진학 목적과 유형이 크게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각각의 학습자 수요에 맞는 대학 단위의 교육운영 개선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가. 대학 진학 수요의 유형화

최근 대학 진학의 형태를 보면 몇 가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변화는 고졸 후 바로 대학에 직행하는 대학 진학의 풍조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Ⅱ-4]에서와 같이, 그 동안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 77.8%을 정점으로 매년 조금씩 하락하여 2014년 70.7%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된 반면, 고졸 취업률은 2005년 52.3%에서 2011년 23.3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2013년 30.2%까지 상승하고 있다[7].

7) http://kess.kedi.re.kr/kessTheme/zipyo?survSeq=0000&survCd=933&uppCd1=030201&menuId=m_02_03_01&item Code=03, 2014년 11월 11일 검색.



[그림 Ⅱ-4] 연도별 고졸자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

*출처: http://kess.kedi.re.kr/kessTheme/zipyo?survSeq=0000&survCd=933&uppCd1=030201&menuId=m_02_03_01&itemCode=03, 2014년 11월 11일 발췌.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선취업-후진학 전형,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공공기관 고졸 취업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대졸과 고졸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대졸 후 실업률이 높고 원하는 직무에 취업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고졸 후 대학 진학의 감소 현상이 우리 사회의 의식 변화와 함께 일어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고졸 후 묻지마식으로 대학에 직행하던 대학 진학 풍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는 취업 후 대학 진학을 하는 이른바 선취업 후진학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정부 정책에 의해 특성화 고졸자들의 대학 진학율 감소와 연결되어 있다. 정부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재직자 특별 전형은 최근 몇 년 새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3개 대학에서 시작하여 2014년 현재 60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입시에는 87개 대학에서 5천여 명을 모집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이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표 Ⅱ-12〉 연도별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인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모집인원	207	456	649	1,036	3,027	3,902
참여대학	3	7	15	23	42	60

*출처: http://www.hifive.go.kr/front/bbs/bbsList.do?bbs_id=60&rootMenuId=04&menuId=040202, 2014년 11월 11일 검색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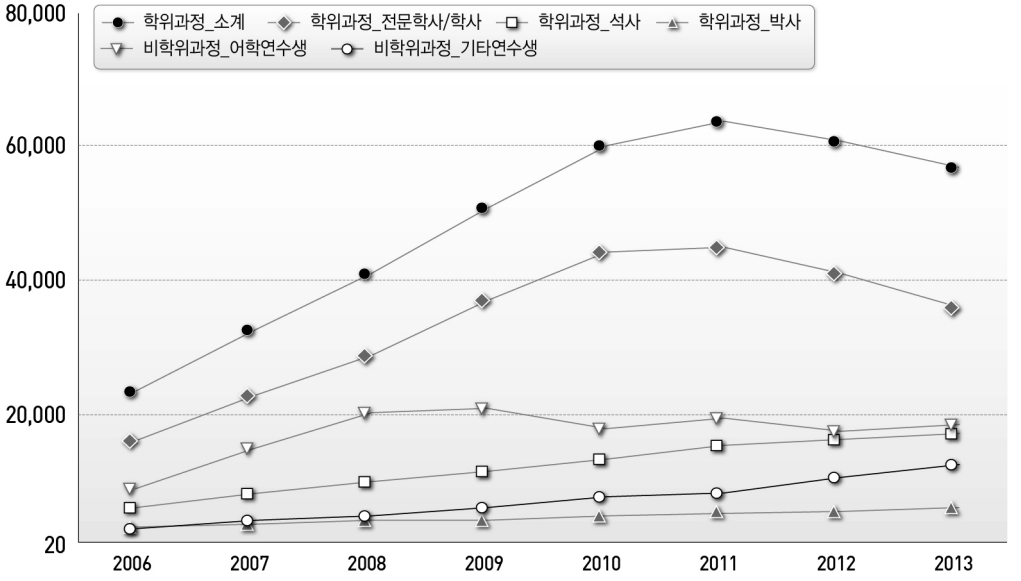
다만 재직자 전형의 경쟁률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크게 경쟁률이 높은 편은 아니다. 특성화고졸자, 재직자 신분 유지, 지리적 제한, 일부 분야의 학과 개설 등 제한적 조건이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완화될 경우, 이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이버대학의 경우, 최근 3년간 40~50대 비율이 증가했고 재학생 64%가 직장인(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3: 309)이라는 사실은 선취업 후진학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요도 다양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세 번째 현상은 대학 진학의 목적이 다양화되면서 학사편입이나 유턴 진학과 같은 새로운 진학 양상의 등장이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일반대학으로 진학하는 편입현상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대학(원)을 졸업한 후 다시 대학, 혹은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는 재진학, 혹은 유턴진학은 새로운 현상이다. 후자, 즉 재진학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대학에 졸업한 자가 졸업한 대학에서 충족되지 않은 다른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 재진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순수한 의미에서 개인의 성장과 만족을 위한 자기 개발형[8] 재진학자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성적이 아닌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에 맞는 분야를 찾아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재진학자들도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직업과 관련한 능력 습득을 목적으로 한 재충전형 혹은 재개발형 재진학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전직에 필요한 것을 습득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최근 취업 곤란으로 대학이나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으로 진학하는 실용성을 추구한 진학 형태, 인생 이모작을 도모하는 성인 학습자들을 이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셋째는 패자부활형 재진학자가 있다. 이들은 주로 사회적 평가가 높은 대

8) 여기서 자기개발형, 재충전형, 패자부활형은 손준종·구혜정(2007)의 학습자 구분을 참조함.

학으로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넷째는 교양·취미형 재진학자이다. 중년 이후 혹은 노년기에 속한 연령층의 교양과 취미를 위한 고등교육 재진학 수요가 있다. 이는 자기 개발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중년기 이후 수요자가 많다는 점에서 별도 구분이 가능하다.

네 번째 현상으로,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외국에서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양상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Ⅱ-5]에서와 같이, 연도별 국내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학위과정 학생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의 세계화와 국내 대학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비율은 2%로 여전히 OECD 평균(8%)보다 낮았지만, 2005년보다는 비율이 4배 정도 커진 것을 볼 수 있다[9].



[그림 Ⅱ-5]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출처: http://kess.kedi.re.kr/index, 외국인 유학생 현황 연도별 자료. 2014년 11월 11일 검색.

9) http://news.donga.com/3/all/20140909/66289324/1, 2014년 11월 7일 검색.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고졸 후 대학에 진학하던 전통적인 고등교육의 수요가 목적이나 조건에 따라 다양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등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고령화 사회와 평생학습사회 진전, 글로벌화의 진전 등에 의해 향후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다양화되고 있는 대학 진학의 유형은 목적, 경로, 연령 등 다양한 특성들을 포함한다. 앞에서 다룬 4가지 현상에 대해 대학 진학시 다른 진학 경로와 차별화되는 전형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진학방식을 유형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의 학습 성과, 즉 고교 내신, 수능, 그 외에 고교 생활의 기록 등을 중요 요건으로 하는 진학유형이다. 이는 고교 졸업 후 취업 등 다른 우회과정 없이 대학으로 직접 진행하는 직행방식으로, 전통적으로 고등교육 진학의 주류를 형성해 온 유형이다. 졸업 후 학습 이외의 다른 경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학진학에 실패하여 재수, 삼수와 같은 재도전 과정을 거치는 경우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는 이 유형을 '고교-대학 직선형'이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둘째, 고교의 학습 성과 이외에 취업 경력을 활용하여 진학하는 유형이다. 취업 경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를 '경력 연계형'이라고 명하기로 한다. 즉 개인 사정이나 경제 사정, 성적, 고등교육에 대한 진학 동기 미약, 강한 취업 동기 등의 이유로 고교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하여 사회생활을 경험하다가 대학 진학 동기가 형성된 시점, 혹은 경제적 여건 등 진학 환경 조건이 형성된 시점에서 고졸 후의 경력을 활용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방식이다. 단 이때 '경력'은 취업 활동과 같은 사회생활의 취업경력을 말한다. 또한 취업 후 진학이란, 진학시점에 따라 취업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 가능하나, 여기서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셋째,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학사경력을 활용하여 진학하는 유형이다. 즉 대학(전문대 포함)을 졸업한 이후, 사회적 평판이 상위인 대학으로의 진학, 새로운 학문 분야 학습, 전문 기술 학습 등 진학자의 다양한 동기에 따라 다른 유형(전문대학,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이나 다른 관심 분야로 재입학하는 진학유형이다. 이 때 기존에 취득한 학력이 대학 진학에 활용되며, 입학 이후 이전 고등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공통의 기초교양과목이나 유사 분야의 기초 전공과목 등에 대한 단위가 인정될 수

있다. 대학 진학시 학사경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앞의 '경력 연계형'과 구분하여 '학사 연계형'으로 명하기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대학원으로의 진학은 이전부터 존재해 온 일반적인 진학 유형으로 학사 연계형에서 제외한다.

넷째, 자국에서의 중등교육, 혹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성과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의 대학에 진학하는 유형이다. 학점이수, 졸업장 등 자국 내에서의 교육성과가 반영되는 것이 다른 유형과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이 점에 주목하여 이를 '국가 연계형(글로벌형)'으로 명하고자 한다. 단 국내에서 외국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 외국으로부터의 국내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 등 양방향의 진행이 가능하나,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논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 그 중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진학한 자로 그 대상 범위를 제한한다.

이상 대학 진학의 4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Ⅱ-13〉과 같다.

〈표 Ⅱ-13〉 대학 진학 수요의 4가지 유형

진학 유형		진학 경로	대학진학의 입학요건	수요자
전통형	고교-대학 직선형	고교→대학	고교 교육성과	학령기
비 전통형	경력 연계형	고교→취업→대학	취업 경력	사회인, 연령 분포 다양
	학사 연계형	대학(원)(전문대 포함) (취업)→대학	학사 경력	대졸자, 사회인, 학생연령 분포 다양
	국가 연계형 (글로벌형)	외국 교육제도 →국내 대학	자국 내 교육 이력	고졸자, 대졸자, 연령분포 다양

나. 관련 용어 개념 규정 및 연구 접근 틀

1) 관련 용어 개념 규정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한정하고자 한다.

'고등교육'이란 중등교육 수료 후 정부에 의해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인정되는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 훈련, 연구지도 등을 말한다. 고등교육기관에는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명시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통

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학점인정 및 학위를 수여하는 학점은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단, 이 연구에서는 논의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범주를 2~3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이상의 일반대학으로 크게 구분하고, 주로 4년제 이상의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고등교육은 주로 '대학'을 뜻하며, 이 때 '대학'은 기본적으로 4년제 이상의 일반 대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2~3년제 단기의 대학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고등교육 수요'는 개인적 수요(learner's demand)와 사회적 수요(social demand)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개인적 수요란 주로 앞에서 제시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려는 학습자의 요구(need)를 의미한다. 즉 고등교육에 대한 개인적 필요와 욕구로부터 나타난 교육수요를 말한다(김영철·손용택·이만희, 2000: 15). 사회적 수요란 산업사회의 인력수요(manpower requirements)에 근거한 교육수요로서 산업계로부터 요구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인력 수요의 문제와 연관된다. 전자는 직접적으로는 대학의 입구와 연결되면서 교육의 과정으로 이어지고, 후자는 직접적으로는 대학의 출구와 연결되지만, 교육과정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대학의 전 과정과 관계를 맺게 된다. 다만 이 연구는 주로 대학 운영의 시작점이 되는 진학수요, 즉 개인적인 학습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요는 '역량'중시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성과 논의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고등교육 운영체제'는 이 연구 범위와 내용을 포함하는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 고등교육은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주로 대학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따라서 이 연구에서 '고등교육의 운영 체제', '대학의 교육운영체제'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고등교육 (운영)체제'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고등교육 운영체제는 한 국가 차원에서 고등교육이 다른 교육체제 혹은 사회의 다른 영역과 연결되는 방식 혹은 고등교육 내에서 각 기관이 연결되는 방식을 의미할 수 있다(Clark, 1986; Teichler, 2008). 미시적으로 고등교육 운영체제는 고등교육 기관 수준에서 기관이 담당하는 고유기능과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달성하기 위한 조직, 과정 등을 의미할 수 있다(Astin, 1993; Astin, Keup, & Lindholm, 2002). 고등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연구, 교수, 봉사(학술활동, 사회적 기여 포함)의 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볼 경우, 고등교육 운영체제는 연구,

교수, 봉사의 세 가지로 세분하여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미시적 관점의 교육운영 그 중에서도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어 교육운영체제를 논의하였다. 특히 대학이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체계적인 구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투입, 교육, 성과라고 하는 대학교육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투입'에는 특히 입학자원, 즉 입학자들의 특징이 중심이 되며, '교육'에서는 대학교육의 내용, 즉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이 중심 내용이 된다. 이 때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교수학습방법, 교육 시설 및 행정적 지원 등이 모두 관련된다. '성과'는 대학 교육을 받은 결과인 학점의 이수, 졸업, 취업 등을 의미한다. 단 대학과정의 종료 시점에서의 성과만이 아니라 학년 등 중간 시점의 성과를 모두 고려하였다. 이 외에도 평가, 대학 교육 결과 습득된 지식과 역량, 성과 적용과 활용의 기회(진학, 취업 등), 대학 교육의 만족도(학생, 고용주) 등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고등교육의 진학경로에 따른 다양한 진학 유형이다. 여기서 '고등교육 진학경로'란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통상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다양한 방식의 과정들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고등교육에 진학하는 경우, 입학 자격 요건에 포함되는 고교 졸업 인정과 학업성취 자료(학생부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 대학이 요구하는 입학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게 된다. 이 때 입학 자격 조건으로 고등학교의 학업성취, 대학수학능력을 증명하는 국가시험 결과 외에도, 직장이나 사회생활의 경력,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인증, 혹은 다른 국가에서의 교육과정 이수 경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 입학 시 주로 활용되는 요건 중 다른 것들과 차별화된 전형요소를 중심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논의하였다. 앞에서 진학 형태를 4가지로 유형화한 '고교-대학 직선형', '경력 연계형', '학사 연계형', '국가 연계형(글로벌형)'등이 그것이다(〈표 Ⅱ-13〉 참조).

2) 연구 접근 틀

고등교육을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내지 교육프로그램으로 간주하고 그 시스템을 분석하고자 할 경우, 다양한 분석 모델로 접근해 볼 수 있다. 가장 기능적인 도식으로 활용되는 투입-과정-산출의 IPO모델이 있고, 상황을 고려하는 CIPP모델(Context-

Input-Process-Product), 반응의 단계를 거쳐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는 CIRO모델(Context-Input-Reaction-Outcome), 매개자를 중시하는 IMOI모형(Input-Mediator-Output-Input), 투입에서 결과로의 전이과정을 중시하는 ITO모형(Input-Transform-Output), 이외에도 Kirkpatrick모형과 Phillips모형과 같이 결과지향적인 접근 등이 있다(케이엠플러스컨설팅, 2012).

이 중 IPO모델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델 중의 하나이다. 예컨대 Pascarella와 Terenzini(2005: 57)는 대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개념적 모형을 I-P-O의 대학 체제 속에서 제시한 바 있으며, Astin(1993) 또한 투입-환경(과정)-산출(I-E-O) 모델을 통해 학생자원의 투입, 학생이 대학 안에서 경험하는 환경, 학생의 성과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대학생의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접근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투입-과정-산출모형에 바탕을 두어 학생중심의 학습성과 및 대학 교육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다(Berger, & Milem, 2000; Terenzini, & Reason, 2005).

이 연구 역시 고등교육체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IPO모델을 채용하여 고등교육체제를 기능 분석하였다. 선발에서 교육, 졸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대학의 운영 체제를 논의하기에는 IPO모델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 투입, 과정, 성과는 각각 분리되어 움직이거나 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독립적 요소들이 아니다. 대학진학에 대한 학습자 수요는 대학교육의 운영 체계에서 투입(Input) 요소 중의 하나이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개인적 수요와 좀더 관련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학습성과는 산출(Output) 요소 중의 하나로 사회적 수요와 좀더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둘 모두는 서로 과정(Process)으로 연결되면서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투입, 과정, 성과는 교육의 전 과정 안에서 순환적 관계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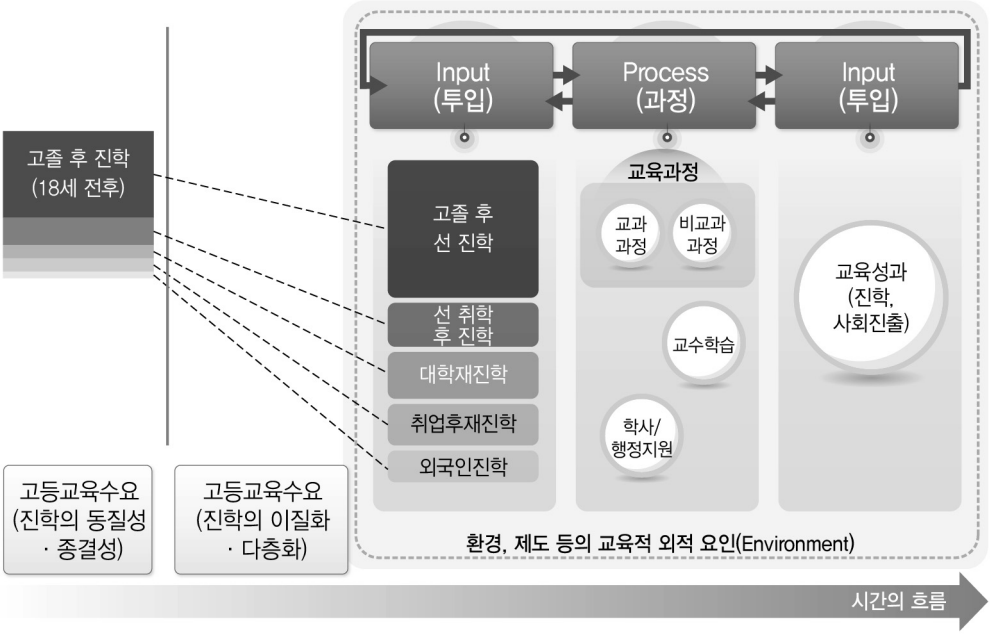
IPO모델은 투입, 산출 그리고 투입을 성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진행 과정들을 포함한다. 투입은 외부로부터 과정으로 가는 데이터와 내용요소들(materials)을 대표하며, 과정의 단계는 투입의 전이 효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과제들을 포함한다. 성과(산출)는 전이과정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와 내용 요소들이 된다[10]. 여기서 투입(Input), 과

10) http://www.sixsigmadaily.com/methodology/input-output-model, 2014년 5월 29일 검색.

정(Process), 성과(Output)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른 내용 요소들로 구성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을 학습자 관점에서 접근하고, 고등교육을 구성원인 학습자의 서로 다른 특성, 특히 어떤 진학 통로로 입학하는가에 따라 학습배경, 사전경험 등 그 학습자 개인의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먼저 이 연구에서 '투입'은 고등교육으로의 진학 방식에 따른 입학자원의 특징을 내용으로 하였다. 대학이 어떤 입학자원을 출발점으로 하여 어떤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 교육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 입학자원별 고등교육과 그 성과 문제를 다룬 것이다. 대학의 입학자원이 갖는 개인적인 특성, 즉 개인적인 사전 경험, 다양한 배경, 학습에 대한 동기 수준, 진학 목적 및 태도 등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에 따라 교육과정의 구성이나 운영도 다양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 연구에서 대학의 입학자원 구분은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진학 유형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즉 가장 전통적인 입학방식인 고교 졸업 후 바로 진학하는 '고교-대학 직선형', 고교 졸업 후 취업 등 사회생활을 경험하다가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게 되는 '경력 연계형', 평생학습사회 진전 혹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에 다시 다른 분야 혹은 다른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학사 연계형', 그리고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력을 활용하여 국내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게 되는 '국가 연계형(글로벌형)'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과정(Process)'과 그 산물인 '성과(Output)'는 투입 요소에 따라 다른 진행과정을 거치게 되거나 다른 성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규정에 따라 대학이 개설,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교수와 과목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의 교육 방법이나 강의 등 다양한 방식의 교수학습방법을 경험하게 되지만, 진학 경로별로 다르게 설계, 운영되는 독립적으로 구분된 구조는 아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입학한 대학생이라면 그 대학의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등의 영향을 공통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운영과 교수학습의 전략 등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끝으로 '성과'에서는 학교적응, 평가, 핵심역량의 변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의 흐름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Ⅱ-6] 고등교육 진학 경로별 진학 유형과 교육 흐름도

* 세로 줄을 중심으로 좌측은 기존의 고등교육 수요 양상, 우측은 고등교육 수요의 변화 양상과 그 흐름

이 연구에서 접근하고 있는 IPO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더 기술하면, 투입인 입학자원에서는 진학 동기, 과정이해도(학습준비도), 입학 이전의 경험(사회경험, 고등교육기관 경험, 외국 교육기관 경험 등) 등과 같은 개인 특성요인들을 고려하였다. 한편 교육의 단계에서는 교과목 구성과 개설의 적절성, 교수학습 전략과 지원 등이 교육과정 요인의 중심이 되며, 이 과정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되는 교육환경 지원요인(시설과 교육인프라, 문화 환경 등 대학의 구조적인 요인 등)과 학사관리 및 지원 등을 살펴보았다. 성과 단계에는 교육과정을 종료한 후 지식과 역량의 성장, 학습성과의 적용 기회(진학, 취업 등) 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14〉 고등교육 운영체제와 영향 요인별 하위 영역

범주	구분	내용	하위 영역
I (선발)	입학자원 (선발과 구성)	대학구성원의 개인특성요인 (능력, 동기, 개인차, 사전 경험 등)	• 진학 동기 및 기대 • 자격 요건 및 사전 경험(고교, 취업, 다른 고등교육기관, 외국 교육기관 등) • 학습준비 정도
P (교육)	내용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교수목적, 교육과정 설계 기준(보충/심화, 개별 지원 프로그램, 산학 연계 교육과정 등) • 교육과정 개발(교재, 프로그램 등)
	방법 (교수학습)	교수학습 방법	• 교수학습전략(교수학습방법, 다양한 학습 매체 활용) • 학습공간의 확대(사이버 공간, 대학 밖)
	교육환경	교육시설 및 행정적 지원	• 교수학습의 지원 인프라(CTL, ICT 등 technology 환경) • 학사관리 및 지원
O (성과)	중간성과	학업·생활 적응	• 학업 적응 • 학습된 지식 및 역량(기초교양 및 전공 역량) • 학생, 고용주 반응과 평가(만족도) • 학위, 학점 인증 • 성과 적용 및 활용 기회(취업/진학)
	교육성과	교육성과(지식과 역량)	
	졸업 후 교육서비스	재진학(계속 교육) 지원	• 재진학 체제와 학점 인증

Ⅲ. 대학 진학 유형별 대학 관계자 및 학습자 요구 분석

1. 조사 개요
2. 고교-대학 직선형
3. 경력 연계형
4. 학사 연계형
5. 국가 연계형
6. 진학 유형 간 비교 분석: 차이점과 공통적 과제

Ⅲ. 대학 진학 유형별 대학 관계자 및 학습자 요구 분석

1. 조사 개요

가. 조사 도구 개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의 (학생) 수요자를 ①고교 대학 직선형, ②학사 연계형, ③경력 연계형, ④국가 연계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입학 및 교육과정, 교육성과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학생 면담조사(서면, 심층)와 전문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도구의 개발 및 조사를 위해 먼저,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면담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면담 조사 내용과 방법, 조사 시기, 표집 등을 결정하였다. 이후 연구 목적에 상응하는 면담 조사 항목 및 조사할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미국의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부 4학년 조사 「College Senior Survey」(HERI, 2014),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 대학생 학습과정 분석연구」(유현숙 외, 2010)을 참고하여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설문 초안을 제작하였다. 이후 면담조사도구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았으며 대학생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문항 및 내용을 확정하였다.

나. 조사 설계

1) 표집 및 조사 대상

가) 조사 대상 대학 선정 및 표집

조사 대상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선정한 대학진학 네 가지 유형별로 교육부의 각종 지원 사업의 우수 사례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선정하되, 가능한 한 지역, 설립 유형, 교육사명(Mission) 등도 함께 고려하여 유목적적 표집을 실시하였다. 표집된 대학 중 연구협력을 수락한 협조대학을 중심으로 사례 대학을 최종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진학 유형별 두 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총 8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정된 대학의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선정된 조사대상 대학의 특성

유형 구분	대상 구분	특징
고교-대학 직선형	A대학교	비수도권 위치, 사립대학, ACE사업 우수사례 선정대학(2012),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대학(2014)
	B대학교	수도권 위치, 사립대학, ACE사업 우수사례 선정대학(2013)
경력 연계형	C대학교	수도권 위치, 사립대학, ACE사업 우수사례 선정대학(2012),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대학(2014)
	D대학교	비수도권 위치, 국립대학, 정부의 재정자원(장학금) 지원 수혜(2012)
학사 연계형	E대학교	비수도권 위치, 사립대학, 활발한 연계교육과정 운영
	F대학교	수도권 위치, 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 중 가장 낮은 중도탈락률, 가장 많은 편입생 수
국가 연계형	G대학교	수도권 위치, 사립대학, ACE사업 우수사례 선정대학(2012),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
	H대학교	비수도권 위치, 사립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

나) 조사 대상 학생 선정 및 표집

면담대상은 조사 대상 대학의 재학생과 교수 및 처장을 포함한 대학 관계자이다. 면담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표 Ⅲ-2〉와 같다.

〈표 Ⅲ-2〉 면담 대상자 정보

유형 구분	대상 구분	면담대상 (대학관계자)	면담대상 (학생)	학생선정기준	유형설명
고교-대학 직선형	A대학교	교무처장	25명	전공, 학년 및 성별 고려	고졸→4년제 대학 진학
	B대학교	교무처장, 교무팀장	25명	전공, 학년 및 성별 고려	
경력 연계형	C대학교	교무처장	25명	전공, 학년 및 성별 고려	고졸→사회(취업)→대학(4년제)
	D대학교	교무처장, 교무과장	25명	전공, 학년 및 성별 고려	
학사 연계형	E대학교	교무부장	28명	전공, 학년 및 성별 고려	2, 3년제 대학→4년제 대학 편입 재학생 2,3년제, 4년제 대학→ 사이버대학, 편입 재학생
	F대학교	기획예산처장	23명	전공, 학년 및 성별 고려	
국가 연계형	G대학교	국제처장, 국제팀장	16명	국가, 전공, 학년 및 성별 고려	외국인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4년제)
	H대학교	글로벌 자유전공학부 학과장	27명	국가, 전공, 학년 및 성별 고려	

다. 조사 실시 및 자료 처리

면담조사 기간은 2014년 8월~10월까지이며 조사 대학의 담당 직원 혹은 팀·처장에게 연구 협력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학 현황조사 및 사례조사의 경우 각 해당 대학에 필요한 자료 및 내용을 요청하여 8월부터 9월 말까지 실시되었다. 또한 대학 관계자 면담

조사의 경우,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해당대학의 팀·처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 서면면담의 경우, 8월에서 9월 중순까지 각 대학의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생들이 서면면담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회수된 서면면담지에 대해 에디팅 요원 및 연구진의 검수 과정을 거친 후, 응답이 미진하거나 오류가 발견된 면담지에 대해서는 재차 작성을 요청하여 회수 받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서면 면담자 중 유형별로 3~5명을 심층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여 9월 중순~10월 초까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라. 조사 내용

1) 대학 현황 및 사례 조사

본 연구의 대학 현황 및 사례조사는 앞서 제시한 네 가지 수요자 유형을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조사지 항목은 사례대학의 일반적인 개황 및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유형별 수요자의 요구 및 문제인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조사 항목의 내용은 〈표 Ⅲ-3〉과 같다.

〈표 Ⅲ-3〉 대학 현황 조사지 항목

구분	조사 항목 내용	총(개)
고교-대학 직선형	1. 신입생의 고등학교 졸업연도별 분포 2. 신입생 학과별 학생 간 편차 분포 3. 신입생 연령별 분포 4. 신입생 국가장학금 수혜자 분포 5. 졸업자의 평균재학기간 정보(4년편제 전공/학과기준) 6. 졸업자의 평균재학기간 정보(5년 이상 편제 전공/학과기준) 7. 학업부적응 학생 관련자료(학사경고 학생 수, 중도이탈자 학생 수) 8. 학업부적응 지원 프로그램 및 참여자수 추이 9. 대학생활부적응 지원 프로그램 및 참여자수 추이 10. 취창업/진로 지원 프로그램 및 참여자수 추이 11. 단과대 별 학생 간 대학 평점(GPA) 편차/평균 추이 12. 복수전공, 부전공, 무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 등 운영 현황	12

구분	조사 항목 내용	총(개)
경력 연계형	1. 학년별 재학생(휴학생 포함) 정보 2. 성별 재학생(휴학생 포함) 정보 3. 연령별 재학생(휴학생 포함) 정보 4. 재직직장 산업체유형 정보 5. 재직직장 직급별 정보 6. 출신 고교계열별 정보 7. 평균재학기간 정보 8. 교육성과(연도별)—입학자, 중도이탈자	8
학사 연계형	1. 입학연도별 편입생 수 분포 2. 편입생 성별 분포 3. 편입생 연령별 분포 4. 편입생 이전대학정보 5. 편입생의 소속단과대 정보(입학당시기준) 6. 편입생의 평균재학기간 정보(4년편제 전공/학과기준) 7. 편입생의 교육성과 정보(입학자, 중도이탈, 졸업자 수) 8. 연계편입대상 대학(E): 졸업이후 정보 9. 연계편입대상 대학(E): 편입시점 전공계열 유사관련 정보	7~9
국가 연계형	1. 학년별 재학생(휴학생 포함) 정보 2. 성별 재학생(휴학생 포함) 정보 3. 연령별 재학생(휴학생 포함) 정보 4. 국적별 재학생(휴학생 포함) 정보 5. 전공계열별 재학생(휴학생 포함) 정보 6. 평균재학기간별 정보 7. 교육성과(연도별)—입학자, 중도이탈, 졸업자, 취업자	7

다음으로, 사례 대학의 교육운영 조사 내용은 〈표 Ⅲ-4〉와 같다. 공통적으로 각 대학별 수요자 유형 학생에 대한 '투입, 과정, 성과'(IPO) 모형에 대한 내용에 준하여, 대학의 일반 현황, 각 대학 수요자의 유형별 전형 관련 내용, 추진 주체와 과정, 추진내용,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형별 대학에 특히 주목하는 주제에 부합하도록 세부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고교-대학 직선형 유형의 두 개의 사례대학에 대하여는 각각의 교육과정 혹은 교수학습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경력 연계 유형의 두 개 사례 대학에 대하여는 선취업 후진학 전형에 대한 대학교육 운영사

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어 학사 연계 유형의 사례대학 두 개에 대하여, 일반대학에는 전문대학과의 연계 편입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사례를 조사하였고 사이버대학에 대하여는 사이버대학으로의 편입에 대한 교육운영 사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연계 유형의 두 개 사례 대학에 대해서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학위과정 교육운영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표 Ⅲ-4〉 사례 대학 교육운영 조사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및 세부 주제
공통	1. 대학 현황과 교육목적, 인재상 2. 각 대학의 수요자 유형별 전형관련 내용: 교육, 전형, 시스템화 등 추진 배경과 목적 3. 추진 주체와 과정 - 대학 내 합의, 예산, 인력 확보 방법 등 4. 추진내용 - 선발조건, 선발 후 추수관리, 보충교육,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 졸업 후 관리 등 5.성과와 향후 과제 -성과 -추진 시 필요한 대학 내 조건/과제 -대외 조건/과제 (정책적 지원, 관련 규제 완화 등 추진상의 필요조건 혹은 요구 사항) -타 대학에서 벤치마킹 시 유의사항 등
고교-대학 직선형	A대학교: 교수학습-빅데이터 기반 학습자 행동패턴 및 성과예측 사례 B대학교: 동기유발 학기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관련 사례
경력 연계형	C대학교: 선취업 후진학 전형 운영사례 D대학교: 선취업 후진학 전형 운영사례
학사 연계형	E대학교: 편입제도 중 2+2연계 편입 교육과정 운영사례 F대학교: 사이버대학으로의 편입에 대한 교육운영 사례
국가 연계형	G대학교: 외국인 학생 학위과정 교육운영에 초점 H대학교: 외국인 학생 학위과정 교육운영에 초점

2) 대학 관계자 면담 조사

본 연구의 대학 관계자 면담조사는 유형별 사례 대학의 교육운영에 대한 투입, 과정 및 대학 차원의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5〉와 같으며, 유형별 진학자의 모집 및 구성, 교육과정 및 학생 지원, 대학 교육운영에

대한 향후 과제 인식 및 제도 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부록 1 참조).

〈표 Ⅲ-5〉 대학 관계자 면담조사 내용

구분	면담 조사 항목	조사 내용
투입	진학자 모집, 선발 및 구성	1. 유형별 입학생 구성의 적절성 2. 입학자원의 변화 3. 진학자 모집 및 선발제도의 강점 및 특징 4. 진학자 선발제도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 5. 진학자의 대학선택 이유 6. 진학자의 대학진학 동기(대학특성)
과정	교육과정 및 학생지원	1. 진학자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 2. 교육내용, 교육방법, 학사제도 지원 등 3. 진학자 관리의 애로사항 및 향후 개선점 4. 대학 전체의 교육과정 관리시스템의 유무 5. 대학교육의 운영상 문제점 혹은 개선점 6. 대학의 특별 프로그램 혹은 방안 - 교육과정 혹은 학생지원 관련 7. (유형별) 수요자에 필요한 교육적 지원 - 교육내용, 방법, 학사제도, 교육환경 등
교육운영 전반 (대학차원)	향후 과제 인식 및 제도 건의사항	1. 고등교육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과 불확실성 2. 각 대학의 향후 모습 전망 3. 대학 교육운영에 있어 방해되는 요인들 4. 필요한 국가적 지원 및 정책

3) 학생 면담 조사

본 연구의 면담 내용은 〈표 Ⅲ-6〉과 같이 크게 세 부분(투입-과정-산출)으로 구성된다. 세부 내용은 이 연구의 접근 틀인 고등교육 운영체제와 영향 요인별 하위 영역에 준하였다. 투입(Input)에 대하여는 수요자 유형별 대학 진학 동기 및 대학 선택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과정(Process)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끝으로 산출(Outcome)과 관련해서 대학생의 학습 성과 중 역량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였고 계속학습에 대한 요구 내용을 조사하였다. 보다 자세한 면담지의 내용은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Ⅲ-6〉 서면 면담지 구성 및 내용

범주		구분	구성	하위 문항 내용
I (투입)		입학자원 (선발과 구성)	대학구성원의 개인특성요인 (능력, 동기, 개인차, 사전 경험 등)	-진학 동기 및 기대 -자격 요건 및 사전 경험(고교, 취업, 다른 고등교육 기관, 외국 교육기관 등) -학습준비 정도
P (과정)		내용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수목적, 교육과정 설계 기준(보충/심화, 개별 지원 프로그램, 산학 연계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개발(교재, 프로그램 등)
		방법 (교수학습)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전략(교수학습방법, 다양한 학습 매체 활용) -학습공간의 확대(사이버 공간, 대학 밖)
		학사/행정 지원	교육시설 및 행정적 지원	-교수학습의 지원 인프라(CTL, ICT 등 기술환경) -학사관리 및 지원 -교수, 동료 학생과의 관계(멘토링 등)
O (산출)	중간성과	학교적응	학생의 대학생활, 학습적응	-대학생활, 학습에 대한 적응 -적응 도움 요인 -대학만족도(대학, 교수, 행정 등)
	성과	교육성과	교육성과(지식과 역량)	-학습된 지식 및 역량(기초교양 및 전공 역량) -성과 적용 및 활용 기회(취업/진학)
	졸업 후	계속학습	졸업이후 성과	-계속교육 요구 및 졸업 후 계획

마. 조사 참여자의 특성

1) 조사 참여자의 일반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 학생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의 〈표 Ⅲ-7〉과 같다. 총 194명의 학생이 서면면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대학 별 특성 및 유형 별로 유목적적 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사례대학별로 성별, 나이, 학년, 전공계열의 분포는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자 중 남자는 36.6%, 여자는 63.4%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2.9%, 2학년이 14.4%, 3학년이 38.7%, 4학년이 30.4%이며 초과학기 학생들도 3.6%의 비율을 보인다.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18세~22세까지 42.8%, 23~27세 33.5%, 28세 이상 12.9%, 38세 이상 10.8%를 보이고 있다. 전공계열의 경우, 인문계열이 16.5%, 사회과학계열이 33.5%, 교육계열 2.6%, 자연과학계열 12.9%, 공학계열이 20.1%, 의약학계열이 2.1%, 예체능 계열이 12.4%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Ⅲ-7〉 조사 참여자(학생)의 일반특성

유형 구분	사례 대학	응답자 (명)	성별(명)		연령(명)		학년(명)		전공계열(명)	
고교-대학 직선형	A	25	남자	15	18~22세	13	1학년	0	인문	6
					23~27세	12	2학년	6	사회과학	2
							3학년	6	교육	0
			여자	10	28세 이상	0			자연과학	7
							4학년	10	공학	5
					38세 이상	0	초과학기	3	의약학	4
									예체능	1
	B	25	남자	0	18~22세	21	1학년	6	인문	4
					23~27세	4	2학년	5	사회과학	5
							3학년	7	교육	2
			여자	25	28세 이상	0			자연과학	5
							4학년	5	공학	2
					38세 이상	0	초과학기	2	의약학	0
									예체능	7
경력 연계형	C	25	남자	4	18~22세	8	1학년	6	인문	0
					23~27세	8	2학년	9	사회과학	25
							3학년	5	교육	0
			여자	21	28세 이상	7			자연과학	0
							4학년	5	공학	0
					38세 이상	2	초과학기	0	의약학	0
									예체능	0
	D	25	남자	23	18~22세	2	1학년	10	인문	0
					23~27세	7	2학년	7	사회과학	0
							3학년	8	교육	0
			여자	2	28세 이상	13			자연과학	3
							4학년	0	공학	22
					38세 이상	3	초과학기	0	의약학	0
									예체능	0

유형 구분	사례 대학	응답자 (명)	성별(명)		연령(명)		학년(명)		전공계열(명)	
학사 연계형	E	28	남자	10	18~22세	19	1학년	0	인문	5
					23~27세	8	2학년	0	사회과학	4
							3학년	28	교육	0
			여자	18	28세 이상	0			자연과학	5
							4학년	0	공학	4
					38세 이상	1	초과학기	0	의약학	0
									예체능	10
	F	23	남자	6	18~22세	0	1학년	0	인문	12
					23~27세	3	2학년	0	사회과학	2
							3학년	10	교육	3
			여자	17	28세 이상	5			자연과학	2
							4학년	12	공학	3
					38세 이상	15	초과학기	1	의약학	0
									예체능	1
국가 연계형	G	16	남자	6	18~22세	7	1학년	1	인문	3
					23~27세	9	2학년	0	사회과학	10
							3학년	4	교육	0
			여자	10	28세 이상	0			자연과학	1
							4학년	11	공학	2
					38세 이상	0	초과학기	0	의약학	0
									예체능	0
	H	27	남자	7	18~22세	13	1학년	2	인문	2
					23~27세	14	2학년	1	사회과학	17
							3학년	7	교육	0
			여자	20	28세 이상	0			자연과학	2
							4학년	16	공학	1
					38세 이상	0	초과학기	1	의약학	0
									예체능	5
총계	8	194	–	194	–	194	–	194	–	194

바. 조사 결과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대학 현황 조사(〈표 Ⅲ-3〉 참조)와 면담조사(〈표 Ⅲ-6〉 참조)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앞에서 제시한 '투입, 과정, 성과'(IPO)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조사 응답자들의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부록 1〉의 면담지에서 제시된 문항 중, 입학(Input)과 관련한 학습 수요자의 요구 분석에는 문항 1,2번이 사용되었으며, 과정(Process)과 관련하여서는 문항 3,4번이 사용되었다. 또한 성과(Outcome)와 관련한 요구 분석에는 문항 6번이 활용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술 통계 값을 제시하였으며 만족도의 경우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반구조화된 설문지에 기반한 서면/심층 면담의 내용을 분석하여 대학 관계자 및 학생 수요자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였으며,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주제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인용구를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2. 고교-대학 직선형

가. A대학교

1) 대학 개요[11)]

A대학교는 지방 소재 중규모 대학으로 10개 단과 대학, 41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A대학의 교무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월 현재 재학생 수는 학사 과정 5,900명이고, 중도탈락률은 6.3%이다. 졸업자 취업률은 70.6%이고, 진학률은 3.6%이다. 학과별 신입생 입학 성적(수능 기준) 편차를 2010년도와 2014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2개 단과 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 편차가 약간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부록 표 1〉 참조). 졸업자의 평균 재학 기간을 2010년도와 2014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4년 졸업자 비율은 각각 49.8%, 48.4%로 약간 감소하고, 6년 이하 비율은 77.3%에서 80.4%로 약간 증가하였다(〈부록 표 2〉 참조).

이 대학은 학업 부적응자 지원 프로그램을 2개 운영하여 2012년 303명, 2013년 317명

11) A대학 제공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기술함.

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당해 연도 재적 학생의 3.8%, 4.0%에 해당한다(〈부록 표 3〉 참조). 학업 부적응 지원 프로그램은 학사 경고자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학사 경고자 재교육 프로그램이다. 대학 생활 부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1개 운영 중이고, 2012년 1,420명, 2013년 1,737명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당해 연도 재적학생의 각각 18.0%, 21.7%에 해당한다(〈부록 표 3〉 참조). 학업부적응 측면에서 학사 경고자 비율을 2010년도와 2014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9.3%에서 3.4%로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중도탈락자 비율 역시 7.2%에서 2.1%로 크게 감소하였다(〈부록 표 4〉 참조).

2) 대학(기관 차원)의 문제 인식 및 요구 분석

가) 대학의 입학생 모집 및 선발

A대학은 신입생 구성에서 편차가 확대되는 반면, 학생 수능 평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진로 체험, 교수 특강, 입시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교-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 선발에서 고교생 부담 완화,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 "2010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의 신입생 백분위 편차를 살펴보면 2011년 최저 편차를 보이다가 이후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이 중점 육성하고 있는 특성화 분야 학과는 낮은 수준의 편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편차 폭이 커지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매년 신입생의 수능평균점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A대학 교무처장)

나) 교육과정 및 학사 지원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습 스타일 검사, 동기 유발 학기 운영, 무전공 입학 도입 등을 통해 대학 진학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학습 수요를 고려하여 자기 주도적이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 평가팀을 설치하여 전체 학과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을 갖추고 있다.

"...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습스타일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의 대표적인 진입교육 프로그램이자 ACE사업 대표모델인 '동기유발학기'는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유형이 수행동기 제고에 있다는 검사결과를 반영한 독창적인 교육제도입니다. ...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진입단계에서부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부여와 학습동기유발이 선행되어야만 자기주도적인 대학생활 패턴형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A대학 교무처장)

이 대학은 학습자 유형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전공 입학, 연계 전공 및 트랙 강화 등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적 접근에서 더 나아가 "교육과정의 유연성 강화와 진로 선택 프로그램 고도화, 재학생 핵심 역량 측정 시스템 등 실질적인 학생의 수요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적 접근을 겸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초 학력 편차에 대응하여 기초 학력 증진실을 운영하고 있다.

"... 진입 교육을 벗어나 전공교육 단계로 접어들면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는 부분이 기초 학력 편차입니다. ... 학생의 학력 편차 해소를 위한 전문부서로 기초 학력 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학생의 기초 학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이들이 참가하게 될 전공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A대학 교무처장)

이 대학의 교수학습 지원체제는 학습 능력 편차 해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습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학습 스타일 검사를 통해 드러난 학습수준에 맞추어 진단-개발-평가-개선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일정 기간 학업현장에서 벗어나 있었던 복학생과 학습환경이 변화된 편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능력 강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고,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무제 학습 능력 강화 프로그램은 학사 경고자 수를 20% 이상 낮추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앞으로는 학습 부진이 아닌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학습 편차 해소를 위해 교내 학생 생활 상담 연구소와 연계하여 학교 생활 부적응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이후 학습 능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체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 다양화와 학생 간 편차 확대(부적응)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는 2011년도 도입된 재학생 핵심 역량 진단 검사, 2012년도 도입된 대학 생활 적응도 검사를 들 수 있다. 핵심 역량 진단 검사는 대학의 9가지 핵심 역량에 대한 전수조사 방식의 진단 시스템으로 재학생은 총 4회의 진단을 통해 개인의 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학 생활 적응도 검사는 1학년 2학기에 시행

하며 검사 결과는 학생 생활 상담 연구소, 지도 교수, 학과장에 통보되어 실질적인 상담 지도로 연계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학습 스타일 조사 및 교육 만족도 조사와 이들을 통합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양한 학생의 수요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교수학습 지원 센터 이외에 교육 연구 전문 부서를 2014년 9월에 신설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제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왔다. 복수 전공, 부전공, 연계 전공, 트랙 등에 대한 학생의 이수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프레임을 채택하고, 유사 학과 간 공통 트랙 개발을 통해 교육과정의 안정적 변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무전공 입학제를 도입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 학생의 문제 인식 및 요구 분석

가) 입학

이 대학 학생들의 대학 진학 목적은 지식 함양, 관련 분야에 대한 흥미, 적성을 찾아서, 원하는 곳으로 취업, 원활한 취업, 비교적 낮은 등록금 등으로 다양하다. 또 대학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입학 관련 정보를 취득한 곳은 입학안내 책자, 학교 홈페이지, 입학 설명회, 인터넷, 고교 담임, 지인 추천 등이다. 대학 선택 이유는 장학금 혜택, 적성에 맞는 전공, 밝은 전망, 유명한 교수, 특별한 교육과정, 수능 성적, 지리적 이점, 높은 취업률 등이다. 대학측의 적극적 유치도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신의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기존 관심 분야, 발전 가능성, 높은 취업 가능성, 주변 추천 등이다.

> "... 총장님이 직접 오셔서 A대학교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도 하셨으며, 수시 지원기간과 정시 지원기간에 입학 정보를 알 수 있는 책자나 자료 등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 입학하기 전부터 학과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A대학, #13 학생)

학생들이 대학 입학 과정(학생의 지원-대학의 입학 결정-학생의 등록 결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지원 자료 준비, 급변하는 입시 혼란, 전공 선택, 대학 생활 적응 고민, 금전적 문제, 지방대로서 경쟁력, 불투명한 취업 등이다.

> "어떠한 대학에 지원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매년 입시정책이 바뀌고 대학별로 입시전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A대학, #14 학생)

나) 과정

(1) 교육과정[11)]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프로그램은 교육 및 학습 지원 시설(강의실, 도서실, 컴퓨터 환경 등)(25명)과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25명)이다. 반면 외국 대학과의 복수 학위제(2명)와 교환 학생 프로그램(2명)을 경험한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유용성 정도에 대한 평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교환학생 프로그램(4.75),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4.74)이다.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은 것은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8명)이고,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는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3명), 신(편)입생 프로그램(3명)이다. 멘토 프로그램, 외국어 강의 수강, 신(편)입생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과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했다.

〈표 Ⅲ-8〉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의 활용과 유용성: A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12)]

항목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	18	3.50	0	3
대학의 복수전공제(이중 전공 포함)	3	4.20	0	0
대학의 멘토 프로그램	22	4.14	5	2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	12	4.00	0	2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2	3.67	1	0
교환학생 프로그램	2	4.75	0	2
외국어 강의 수강	19	3.95	2	2
대학연계 산학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	8	4.33	2	0
학습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	14	4.07	1	0
교육 및 학습 지원시설	25	4.46	6	1
신(편)입생 프로그램	23	3.86	2	3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25	4.74	8	0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12	4.42	1	1
취업 및 진로관련 상담 및 서비스	17	4.25	2	1

11) A대학의 교육과정 관련 전체 항목 분석 결과는 〈부록 표 6〉에 제시함.
12) 각 해당 문항에 응답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작성함. (이하 표 모두 동일)

교육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너무 많은 수업량, 수시시험 방식, 더 많은 실습수업, 적절한 평가 기준, 교육과정, 교양 강제성, 더 많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과정 증설, 복지 서비스, 여가시간 등이 있다.

(2) 교수학습[13)]

대학의 교수학습 및 방법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24명), 수업과 관련하여 그룹 프로젝트 진행(23명)이고, 다른 항목에 대한 경험 학생 수도 대부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 상호작용 중심의 쌍방향 수업(Moodle)(5명)은 상대적으로 경험 학생 수가 적었다. 유용성 정도에 대한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다양한 학습 매체의 활용(4.61), 수업과 관련한 외부 콘텐츠 활용과 공유(4.50), 수업 내용과 관련한 교수로부터의 피드백(4.29)의 순이다. 그러나 대학 온라인 강의(3.53)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은 것은 수업 내용과 관련한 동료 학생의 피드백(6명)이고,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는 대학 온라인 강의(5명), 강의 중심 수업(5명)이다.

〈표 Ⅲ-9〉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과 유용성: A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항목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대학 온라인 강의(사이버강의)	17	3.53	2	5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 준비	16	3.73	0	2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관련 자료 공유	22	4.26	6	2
인터넷을 이용한 상호작용 중심의 쌍방향 수업(MOODLE)	5	3.83	0	1
수업내용과 관련한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21	4.29	4	0
수업내용과 관련한 동료학생의 피드백	19	4.28	6	1
수업에서의 질문이나 토론활동	22	4.22	1	2
수업과 관련하여 그룹 프로젝트 진행	23	4.10	4	2
수업과 관련한 외부 콘텐츠 활용과 공유	20	4.50	2	0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ex. 동영상, 피피티 등)	24	4.61	5	0
강의중심 수업	23	3.91	2	5
프로젝트중심 수업	22	4.14	6	2

13) A대학의 교수학습 관련 전체 항목 분석 결과는 〈부록 표 7〉에 제시함.

학생들이 학습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도움을 받는 사람은 교수, 선배, 동기, 학술 동아리, 인터넷 등이다.

"수업 내용에 대해 교수님과 동기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한 번 더 공부가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됨을 느꼈습니다." (A대학, #9 학생)

"수업시간에 집중하여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외 학술동아리에서 선배들과의 전공공부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A대학, #23 학생)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개선점으로는 일방적 강의방식 지양, 학생 참여형 수업, 실용적 내용 강의, 수업 방식에 대한 정확한 평가, 더 많은 사이버강의 개설, 수업 수준 조절 등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상호작용하는 수업은 없었던 것 같다. ... 그룹 프로젝트의 취지나 교수님들이 원하는 의도는 좋지만 막상 실상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로 만의 교류는 상상 이상으로 좋지 않습니다." (A대학, #8 학생)

(3) 교육 지원

학업 측면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빡빡한 수업 일정, 많은 과제량이다. 또한 온라인 수업을 위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 온라인 수업에서도 교수, 학생과의 소통,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생활 측면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통학, 낯선 대학 문화, 기숙사 생활, 선후배 관계 등이다.

"고등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대학 문화와 처음 겪는 기숙사 환경에 무척 고생했습니다." (A대학, #4 학생)

"학업이 약간 난이도가 있었으며 선후배 관계 유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방 사립대 특성상 선후배 관계를 중요시하기에 그에 맞추어 주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A대학, #25 학생)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은 학생 지원(수업, 시설 및 복지), 동기유발학기, 다양한 장학금 등이다. 불만족하는 것은 너무 학습에만 치중, 행정처리 과정 개선, 개선

의견의 신속한 처리, 고학년에게는 적은 프로그램, 학생 간 상호교류 인프라 부족 등이다.

>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동기유발학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는지, '무엇에' 필요한지도 모른 채 공부를 하는 것은 결승선 없는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에게 학기 초반 동기를 부여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목적의식을 고양시키는 동기유발학기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A대학, #14 학생)

다) 성과[14)]

(1) 학생 역량 발달

자신의 역량(competency)이 어느 정도 발전하였다고 인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입학 당시와 현재 시점의 점수를 표시하도록 한 결과, 역량 변화 정도가 가장 큰 것은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3.48)이고, 외국어 구사능력(1.44)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변화 정도가 작았다고 인식하였다. 현재 역량 점수가 높은 것은 대인관계 역량(8.20), 의사소통 역량(8.00)이고, 외국어 구사 능력(5.00), 글로벌 역량(5.92)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Ⅲ-10〉 학생들의 역량 발달: A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항목	기대역량 (명)	입학전 역량 (평균)	현재 역량 (평균)	역량변화정도(평균)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3	4.24	6.24	2.00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14	3.92	7.40	3.48
외국어 구사 능력	9	3.56	5.00	1.44
종합적 사고력	5	4.96	6.82	1.98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3	4.32	6.60	2.42
대인관계 역량	12	5.84	8.20	2.36
의사소통 역량	6	5.72	8.00	2.28
자기관리 역량	5	5.28	7.24	2.08
글로벌 역량	4	4.04	5.92	1.87
진로에 대한 준비	5	4.16	7.29	3.17
강의중심 수업	23	3.91	2.00	5.00
프로젝트중심 수업	22	4.14	6.00	2.00

14) A대학의 성과(역량 변화)에 대한 관련 전체 항목 분석 결과는 〈부록 표 8〉에 제시함.

학생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 종합적인 사고능력, 좋은 대인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 글로벌 시대에 맞는 외국어 구사 능력, 자기 관리 능력 등을 높이기를 원하고 있다.

> "자신의 분야를 전공하는 만큼 그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취업할 수 있고,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전공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대학, #9 학생)

>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인관계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지식 및 기술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고 글로벌시대에 맞춰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A대학, #15 학생)

(2) 계속학습 요구

대학 졸업 이후 진학하고 싶은 대학 유형으로는 일반 대학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전문대학 5명, 일반대학원 2명, 사이버대학 1명의 순이었다. 진학하려는 이유로는 일반 대학의 경우 사람들의 인식, 학위 취득 등이다. 배우고 싶은 내용으로는 관심 분야, 관련 분야, 전공 분야의 심화 지식 습득이고 구체적으로는 인문, 바리스타, 경영, 회계, 발달심리학, 방송 또는 문화 관련, 제2외국어 회화, 물리치료, 인간 관계 등이었다.

>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싶다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회사 내 진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혹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할 경우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대학, #1 학생)

나. B대학교

1) 대학 개요[15)]

B대학교는 서울소재 대규모 대학으로 B대학의 교무처 및 입학처에서 제공한 2013~2014년도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모집단위 기준), 11개

15) B대학 제공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기술함.

단과대학에 17개 학부, 67개 전공(학과), 15개 대학원(일반 1, 전문 5, 특수 9)을 개설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및 교육 역량으로 한국의 지식강국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현재 재학생 수는 16,166명이고, 외국인 학생 수는 273명이다. 학사과정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을 보면, 일반고가 55.7%로 가장 많고, 외고국제고 15.4%, 자율고 11.1%, 예술체육고 9.7%, 특성화고 1.3%, 과학고 1.1% 등이다. 학사과정 졸업생 가운데 47.5%가 취업하였고, 22.5%가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2012년 이후 현재 학업부적응 지원프로그램을 4개 운영 중이고, 2010년 325명, 2011년 485명, 2012년 467명, 2013년 596명이 참여하였다. 이는 당해 연도 재적학생의 1,8%, 2.7%, 2.6%,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부록 표 10〉 참조). 학업부적응 측면에서 학사 경고자 비율을 2010년도와 2014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2.44%에서 1.44%로 감소하였고, 중도탈락자 비율은 1.30%에서 1.93%로 증가하였다(〈부록 표 9〉 참조). 그러나 두 가지 비율 모두 연도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여 일관된 추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2) 대학(기관 차원)의 문제 인식 및 요구 분석

가) 대학의 입학생 모집 및 선발

이 대학은 대학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고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B대학은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으로 학업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교이다. 그런데 교무처장의 언급처럼 유능한 학생의 유치에 더하여 외국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의 유치와 입학이 과거에 비해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입학 자원의 배경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수요에 있어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 "... B대학이 지도자 양성,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오랫동안 대해 왔잖아요? ...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또 이제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략) ... 취업, 진로, 그 다음에 글로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전체적인 큰 방향의 흐름은 여기 학생들이 취업과 글로벌 쪽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 (B대학 교무처장)

B대학은 학업 우수자를 선발하여 사회적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을 학교의 사명으로 삼았다. 글로벌화의 추세로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량에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학교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나) 교육과정 및 학사 지원

학생 구성이 다양화됨에 따라 언어 소통, 수요 다양화에 상응하는 강의 개발, 영어 강의, 개별 지도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교수 개인을 넘어서 학과, 입학처, 국제 교류처 등 학교 전체 차원에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대책 마련이 중시되고 있다.

> "입학 자원 혹은 학생들의 학습 요구가 다양하죠 일단.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애로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학생지도교육과 교수학습지도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략)... 그 다음에 글로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 소통의 문제와 또 그 수요에 맞춘 강의 개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특수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영어로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외국어 강의가 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래서 개별적인 지도가 사실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 자원, 학과 자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처 자원, 입학처 자원, 여러 부처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B대학 교무처장)

대학 전체 교육과정을 관리하고 교수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개발원의 기능을 더욱 확충하고, 주요 보직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위원회를 운영하고, 학생의 입학에서 학습의 전 과정의 데이터 분석을 체계화하여 교수학습을 위한 사전 처방, 성과 분석, 개별 맞춤형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수 개별면담 이외에 학생별 포트폴리오를 도입해서 학생 특성을 분석하고 교육, 진로, 취업 지도에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 기존에 이제 말씀하셨던 학업성취가 떨어지는 학생들, ... 학사경고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면담지도를 통해서 교수님과 학과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운영차원에서 그런 게 있었고. 최근에는 ...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특성들을 성과분석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서 다양하게 나가겠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B대학 교무팀장)

3) 학생의 문제 인식 및 요구 분석

가) 입학

B대학 학생들의 대학진학 목적은 명문대 진학(네임밸류, 인맥), 관심학과, 학문적 성장, 취업 준비, 자질 함양, 당연한 진학 등이었다. 대학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입학 관련 정보를 취득한 곳은 담임선생님,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 선배, 부모님, 대학 홈페이지, 입학처, 입학 설명회, 책자, 입시 정보 카페, 진학 관련 사이트, 입시 관련 학원 등이다. 이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수능 성적, 부모님 및 주변 추천, 개인적 선호도, 사회적 인지도, 거리 등이다. 자신의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수능 성적, 취업 준비, 흥미, 적성 등이다.

학생들이 대학 입학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전공 및 진로 결정, 부족한 입시 정보, 수능 성적, 비싼 등록금 등이다. 학생별로 입학과정의 애로 사항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학생은 대학 입학 시 대학, 학과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 "대학입학성적에 맞추어 전공 및 진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과가 있다고 해도 점수가 되지 않으면 진학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점수와 관련된 학교 및 학과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여러 대학 및 학과에 관한 다양하고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습니다."(B대학, #1 학생)

그러나 다른 학생은 학교에서 입학관련 정보와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았다고 한다. 물론 전공 결정시 관련정보가 적어서 선택에 대한 불안이 있었으나, 이 학생은 관심학과에 진학하였고, 대학에서도 교내 시스템, 선배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고, 대학 만족도와 진학목적 달성 기대 역시 높다.

>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께서 모두 제공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입시 막바지에는 학원을 통해 2번에 걸쳐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B대학, #2 학생)

나) 과정[16]

(1) 교육과정

대학에 제공하는 여러 교육 서비스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프로그램은 교육 및 학습 지원시설과 신(편)입생 프로그램(각 23명)인 반면, 외국 대학과의 복수 학위제(0명)를 경험한 학생 수는 적다. 이 가운데 유용성 정도에 대한 평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교육 및 학습 지원시설(4.56)이고, 대학의 멘토 프로그램(3.33), 취업 및 진로관련 상담 및 서비스(3.40)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은 것은 교육 및 학습 지원 시설(4명)이고,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는 외국어 강의 수강(7명)이다. 신(편)입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장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이 5명인 반면,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학생도 4명이어서 상반된 의견이 동시에 나타났다.

〈표 Ⅲ-11〉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의 활용과 유용성: B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항목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	8	3.60	0	1
대학의 복수전공제(이중 전공 포함)	10	4.00	3	0
대학의 멘토 프로그램	11	3.33	1	3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	9	3.89	1	1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0	3.00	0	0
교환학생 프로그램	4	4.43	3	0
외국어 강의 수강	22	3.75	2	7
대학연계 산학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	5	3.50	1	1
학습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	7	3.67	0	0
교육 및 학습 지원시설	23	4.56	4	1
신(편)입생 프로그램	23	3.64	5	4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20	3.86	3	3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15	3.88	2	2
취업 및 진로관련 상담 및 서비스	12	3.40	1	4

16) B대학의 교육과정 관련 전체 항목 분석 결과는 〈부록 표 12〉에 제시함.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경험 기회, 입학 전 전공 선택, 현실적인 커리큘럼, 암기 위주의 교육 방식, 실습 병행 수업, 교수의 피드백, 학생 밀착형 지원 제도, 학습지원 부족, 보충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 튜터링 활성화, 상담 프로그램 등이다.

>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실기의 경우 중고등학교 때조차 아이들이 많아도 8~10명당 선생님 한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대학 실기 수업이고 더 어려움은 분명한데 교수님 한분당 학생 정원이 20명입니다. 실제로는 30명 이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B대학, #10 학생)

(2) 교수학습[17]

대학의 교수학습 및 방법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수업에서의 질문이나 토론 활동, 다양한 학습 매체의 활용(동영상, 피피티 등),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 수업관련 자료 공유, 강의 중심 수업, 수업과 관련하여 그룹 프로젝트 진행 등이다(각 24명). 다른 항목에 대한 경험 학생 수도 대부분 높은 편이다. 그러나 대학 온라인 강의(3명)는 상대적으로 경험 학생 수가 적었다. 이 가운데 유용성 정도에 대한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수업내용과 관련한 교수로부터의 피드백(4.24), 그 다음은 수업 내용과 관련한 동료 학생의 피드백(4.20)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중심 수업(3.05)은 경험 학생 수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온라인 강의(3.33), 인터넷을 이용한 상호작용 중심의 쌍방향 수업(3.46)에 대한 평가도 낮은 편이다.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은 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 수업관련 자료 공유(7명), 그 다음은 수업 내용과 관련한 교수로부터의 피드백(6명)이다. 대학 온라인 강의, 수업과 관련한 외부 콘텐츠 활용과 공유를 언급한 학생은 없었다. 한 학생은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 교수라고 한다. 다른 한 학생도 "교수님과의 사이버캠퍼스 상에서 주고받은 쪽지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수업이나 과제에 관련하여 질문을 한 적이 많다."며 가장 도움 받은 사람으로 교수를 꼽았다.

17) B대학의 교수학습 관련 전체 항목 분석 결과는 〈부록 표 13〉에 제시함.

"교수님의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로 관심 분야에 오래 연구해 오신 분들이고 경험도 많으시기에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적은 편이 아니기에 좀 더 활발하고 연계 높은 조언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맞추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B대학, #5 학생)

〈표 Ⅲ-12〉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과 유용성: B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항목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대학 온라인 강의(사이버강의)	3	3.33	0	2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 준비	21	3.95	2	1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관련 자료 공유	24	4.13	7	3
인터넷을 이용한 상호작용 중심의 쌍방향 수업(MOODLE)	15	3.46	1	2
수업내용과 관련한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22	4.24	6	1
수업내용과 관련한 동료학생의 피드백	21	4.20	1	1
수업에서의 질문이나 토론활동	24	4.09	2	0
수업과 관련하여 그룹 프로젝트 진행	24	3.09	4	8
수업과 관련한 외부 콘텐츠 활용과 공유	21	3.72	0	0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ex. 동영상, 피피티 등)	24	4.17	1	1
강의중심 수업	24	3.78	1	2
프로젝트중심 수업	21	3.05	2	8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는 프로젝트 중심 수업(8명), 수업과 관련하여 그룹 프로젝트 진행(8명)이다. 수업과 관련하여 그룹 프로젝트 진행의 경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응답자도 있었으나(4명),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라는 응답자도 8명으로 다수여서 학생 간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한 학생에 의하면, 프로젝트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직접 실습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전공의 특성상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강의를 들을 때,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시간에 이론으로만 배운 내용을 직접 프로젝트를 통해 실습해 보니, 전공 관련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B대학, #4 학생)

그러나 다른 학생은 그룹 프로젝트 혹은 토론식 수업은 전공 학문 학습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수업 집중도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어서 강의 위주의 수업을 선호한다고 한다. 다른 학생도 "프로젝트 위주로만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막상 강의가 끝나고 생각해 보면 배운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 "소위 팀플이라고 하는 학습 활동의 원래 목적은 화합과 조화 그리고 협동이지만 실상 불신과 배신이 팽배하는 활동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B대학, #8 학생)

학생들이 학습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도움을 받는 사람은 교수, 조교, 선배, 동기 등이다.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개선점으로는 다양한 수업 방식, 취업 관련 조언, 철저한 수업준비, 능동적 피드백, 사이버강의 증가, 융통성 있고 실용적인 공부, 수강생 정원 제한 등이다. 한 학생에 의하면, 진로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으나, 학생이 원하는 맞춤식 정보 제공이나 추수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학교 내에 진로 및 취업 관련 기관에 여러 번 찾아가 보았으나, 정보를 다양하게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맞춤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또는 상담 이후에 꾸준히 관리를 해주거나 상담을 해주는 부분이 미흡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전공과 커리어와 관련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B대학, #2 학생)

(3) 교육 지원

학업 측면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암기 위주 공부 방식 등이다. 한 학생은 전공과목의 특성에 맞게 실습과 프로젝트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전공과목에 대한 실습 및 프로젝트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전공은 컴퓨터공학으로서 실습과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야만, 실력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전공과목에서 이런 실습과 프로젝트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공 특성에 맞게 실습 및 프로젝트의 비율 늘려야 생각합니다." (B대학, #4 학생)

생활 측면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낯선 대학 생활, 등록금 및 생활비 문제, 주거 문제, 친구 사귀기, 선후배 간의 소통 문제, 동아리 선택 과정 등이다. 지방 출신인 한 학생은

주거 문제, 전공과목 적응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학교에서 “학습 적응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른 학생도 학생 간 교류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 성과

(1) 학생 역량 발달[18)]

자신의 역량(competency)이 어느 정도 발전하였다고 인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입학 당시와 현재 시점의 점수를 표시하도록 한 결과, 역량 변화 정도가 가장 큰 것은 전공 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3.26)이다. 의사소통 역량(0.88)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변화 정도가 작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현재 역량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종합적 사고력, 의사소통 역량, 글로벌 역량(각 7.21)이고,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6.13)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참고로 입학 전 역량 평균은 4.78, 현재 역량 평균은 6.79이다.

〈표 Ⅲ-13〉 학생들의 역량 발달: B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항목	기대역량 (명)	입학전 역량 (평균)	현재 역량 (평균)	역량변화정도 (평균)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6	4.92	7.21	2.43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1	6.33	7.21	0.88
외국어 구사 능력	8	4.33	7.21	2.88
종합적 사고력	4	6.04	7.17	1.22
자원·정보·기술의 활용 역량	6	5.75	7.00	1.35
대인관계 역량	3	4.63	6.71	2.09
의사소통 역량	9	3.75	6.67	2.92
자기관리 역량	4	5.25	6.38	1.13
글로벌 역량	18	3.08	6.17	3.26
진로에 대한 준비	13	3.71	6.13	2.42
강의중심 수업	23	3.91	2.00	5.00
프로젝트중심 수업	22	4.14	6.00	2.00

18) A대학의 성과(역량 변화)에 대한 관련 전체 항목 분석 결과는 〈부록 표 14〉에 제시함.

학생들은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미래 직업, 삶에 필요한 종합적인 역량, 그리고 교양, 봉사,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대학기간을 통해 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원하나, 대학에서 기회가 많지 않았다.

>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데, 대학 내에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일부 학생만이 해당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대학생활 중에 느꼈습니다." (B대학, #5 학생)

(2) 계속학습 요구

대학 졸업 이후 진학하고 싶은 대학 유형으로는 일반 대학원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유학 1명, 사이버대학 1명의 순이었다. 진학하려는 이유로는 일반대학의 경우 학위 취득, 사회적 인식, 재취업 탐색, 학문적 호기심,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의 수준, 자아실현 등이고, 일반 대학원은 전문성 확보, 학위 취득, 취업 등이고, 유학은 석박사 과정 이수였으며, 사이버대학은 취업 탐색이었다.

>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공 관련과 융합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공의 학위를 획득하여 저의 지금 주 전공과 연관하여 더 큰 연구와 개발을 해보고 싶습니다." (B대학, #4 학생)

다. 고교-대학 직선형 교육의 특징과 시사점

두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고교-대학 직선형 교육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차원의 문제인식 및 요구 분석 결과를 보면, A대와 B대의 교무행정가들은 학생모집 및 선발과 관련하여 과거에 비해 입학자원인 학생의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지방에 소재한 A대학의 경우 학생의 다양화를 입학성적으로 대표되는 학업준비도 혹은 학습역량에 있어서의 학생간의 편차 확대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A대학 입학생 가운데 당해 연도 고졸자의 입학 비율이 가장 높으나, 최근 5년간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80%대 → 70%대)을 보이고, 학과내 신입생의 입학

성적(수능 기준)의 편차 역시 대부분 약간씩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부록 표 5〉 참조). A대학의 문제인식이 '편차폭'의 증가로 대표되는 학생의 학업 능력의 격차 확대에서 비롯하였다면 B대학의 경우는 입학자원의 다양화를 학생의 배경과 교육요구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B대학은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으로 학업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교이다. 교무처장과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유능한 학생 유치에 집중하였으나, 최근 외국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의 유치와 입학이 과거에 비해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입학자원의 배경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수요에 있어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학업 및 생활 적응 측면을 보면, 졸업자의 평균 재학 기간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현재 4년 이내 졸업자 비율과 6년 이하 졸업자 비율을 보면, A대의 경우 전자는 48.4%로 증가하고 후자는 80.39%로 201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부록 표 2〉 참조). B대의 경우 전자는 39.2%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후자는 96.3%로 증가되었다(〈부록 표 11〉 참조). 또 대학들은 다양한 학업부적응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A대에는 2개 학업부적응 지원프로그램, 1개 생활부적응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각각 연도별로 재적학생의 4%와 20%내외가 참여하였다(〈부록 표 3〉 참조). B대의 경우 4개의 학업부적응 지원프로그램에 당해연도 재적학생의 2~3%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부록 표 10〉 참조).

다음으로 교육과정 및 학사 지원의 측면에서 입학 자원의 다양화와 교육 요구의 변화는 양교 모두에게 교육운영 및 지원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대학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략을 마련 중이다. 학생 구성의 다양화에 따라 적합한 강의를 개발하고 지도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학 전체 차원에서 학생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을 체계화하여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 학생을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교수학습의 사전적 처방, 성과 분석, 개별 맞춤형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학업 준비도와 학습 역량에 있어서의 편차 확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A대의 경우 학습 능력의 편차 해소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지원 체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B대의 경우, 학생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체제의 구축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의 입학에서부터 학습의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체계화하여 교수학습을 위한 사전 처방, 성과 분석, 개별 맞춤형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다.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교수자 입장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B대학은 학생들의 개별 학습 맞춤 지원을 위해서 학교 전체적인 조율과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B대학은 대학 전체 교육과정을 관리하고 교수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개발원의 기능을 더욱 확충하고, 주요 보직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유사하게 A대학도 교수학습 지원기능의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 다양화와 학생 간 편차 확대(부적응)에 대응하기 위해 A대학은 개인별 핵심 역량 진단 검사를 통해 개인의 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양한 학생의 수요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연구 전문 부서를 신설하였다.

학생 차원의 문제 인식 및 요구 분석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입학 동기는 대학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두 대학 모두 관심 분야 공부, 흥미·적성, 취업 등은 공통이나, 명문대 진학, 낮은 등록금 등은 대학별로 차이를 보인다. 재학 중인 대학을 선택한 이유도 다소 차이가 있다. 두 대학 모두 수능 성적, 주변 추천은 공통이나, 사회적 인지도, 유명 교수, 교육과정 특색 등으로 차이를 보인다.

교육과정 측면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육 서비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대학별로 상당한 차이도 있다. 그 유용성 정도 역시 대학별, 학생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B대에서 가장 유용성이 높다고 한 것은 교환 학생이나, A대에서는 교수 및 학습 지원 시설이다. 동일한 항목에 대한 상반된 평가도 있다. 교수학습 측면에서 학생들은 강의 중심 수업 이외에 그룹 프로젝트, 토론, 다양한 학습매체 등을 경험하고 있으나, 쌍방향 수업, 온라인 강의 등의 경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대학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유용성 정도에서 가장 도움이 된 것은 학교별, 학생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교수와 동료의 피드백, 다양한 학습매체 활용이 가장 높다. 온라인 강의, 그룹 프로젝트, 쌍방향 수업, 강의중심 수업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학생들은 일방적 암기위주 교육 방식보다는 다양한 수업 방식과 취업에 도움 되는 실용적 강의, 수업의 내용 및 수준의 적절한 조절 등을 원한다.

성과 측면에서 첫째, 학생들은 입학 전에 비해 현재 자신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대학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전공분야 지식 및 기술, 진로 준비 역량이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공통이나, A대학은 자원정보기술의 활용 역량, B대학은 글로벌 역량의 변화도가 큰 것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졸업이후 계속학습 요구, 진학하려는 대학유형, 배우고 싶은 내용에서도 대학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두 대학 사례 분석 결과가 향후 고등교육 체제 개선에 주는 시사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입학성적, 학점 등에서 편차가 확대되고 있고, 교육과정, 교수학습, 진로 등에 있어 학생들의 선호, 평가, 인식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학생 유형별로 그 특성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별, 지원 서비스별 정밀 분석을 체계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 학생 구성에서 다양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각 대학은 그에 대응하여 교육과정, 학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제 프로그램별로 참여도, 만족도, 유용성 등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유용성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이 실제로 원하는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많이 경험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와 그 유용성 정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환 학생, 튜터링, 개별 지도 등을 확대한다.

넷째, 학생들의 학습 능력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입학 직전부터 입학 이후 전 과정에서 보충 학습 및 심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입학 시 학력에서 동일 대학 내는 물론이거니와 동일 학과 내에서 편차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학생별 수준, 성취도, 진로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상호작용과 공유에 초점을 둔 교수학습을 촉진해야 한다. 학생들은 일방적 강의 중심 수업, 온라인 강의, 외국어 강의 등에 대해서 유용성을 낮게 평가하는 반면, 교수 및 학생과의 상호작용, 공유와 협력을 통한 학습이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강의 수업 이외에 프로젝트, 온라인, 쌍방향수업 등을 적절히 활용하되, 교수학습 내용의 수준과 내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교수-학생의 상호작용과 협력, 공유를 촉진하는 교수학습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전교적 차원의 자료 분석 및 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생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대학 운영 전반에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경력 연계형

경력 연계형 진학자는 고교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하여 사회생활을 경험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고등교육 진학 여건이나 진학 동기가 형성된 시점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제도로 시간제등록,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학과, 학점은행제, 재직자특별전형, 사내대학, 사이버대학 등의 제도가 있는데(이희수 외, 2014), 이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에 따라 등장한 '재직자 특별전형' 방식을 '경력 연계형'의 주요 사례로 보고 2개 대학의 재직자 과정 사례를 살펴보았다.

가. C대학교와 D대학교

1) 대학 개요 및 재직자전형 현황[19)]

C대학교는 2008년 6월에 국내 대기업이 학교경영에 참여함으로써 대학개혁의 선도에 서게 된 곳이다. 이 대학은 종합대학으로서 인문, 사회, 사범, 경영경제,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예체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분야의 교육·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과 경기도 두 곳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C대학 교무처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전에 본·분교를 달리하여 운영되다가 2011년 8월부터 통합되었으며 2008년 기업의 대학경영 참여 이후 총체적인 개혁 국면에 들어섰다. 이와 관련하여 학문단위 재조정을 통하여 특성화를 추구하였으며 2011년에 기존의 본·분교 부총장제도에서 5개 학과 계열별 부총장이 책임 운영하는 행정조직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19) C, D대학의 제공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기술함

2008년 새 학교법인 영입 이후 기존의 발전계획안을 보완하여 2018년 이후 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대학 교육 선진화를 위하여 대규모 학문 단위 구조 조정 조직 개편을 포함한 교육 제도 개혁을 시행하였다([부록 그림 1] 참조). 또한 2014년에는 기능형 부총장제 및 책임형 학장제 실시를 통해 대학 및 학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발전계획안에 따르면, 대학교육의 3대 핵심 과제로 교육 경쟁력 강화, 연구 경쟁력 강화, 최적의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에 행정 시스템 선진화를 추가 보강하여 3+1 체제를 완성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하였다([부록 그림 1] 참조).

특히 이 대학은 고졸 취업자가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능력 중심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2010학년도부터 국내 최초로 재직자 특별 전형을 도입하여 별도의 특성화 모집 단위(지식경영학부)를 신설한 후 5년간 운영하여 왔다. 국내 최대 규모(145명) 모집 정원의 학부를 신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정원을 확대하였고, 2014년 2월에 94명(2013년 8월 조기 졸업자 포함)의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2015학년도에는 255명 정원을 모집할 예정이다(〈부록 표 15〉 참조).

한편, D대학교는 지방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컴퓨터 및 IT 융합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후 일정 기간 취업한 근로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2년 3월부터 컴퓨터공학과에서(모집인원 60명), 2013년부터는 농업생명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모집인원 60명)에서 재직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부록 표 16〉 참조). 지역거점 국립대학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활용, 사회 전반의 교육열을 수용하면서도 현장인력 부족과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 재직자들에게 취업을 유지한 채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기회균등 전형제도 정책을 확대, 발전시켜 운영하고 있다.

2) 대학(기관 차원)의 문제 인식 및 요구 분석

가) 대학의 입학생 모집 및 선발

C대학교 지식경영학부는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고교 졸업 후 입학하는 시점에서 재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모집하고 있다. 학년도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모집인원은

2010년 145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학년도에 185명을 선발하였다.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평균 입학경쟁률은 1.4에서 1.9정도를 보이고 있다(〈부록 표 17〉 참조). C대학 교무처장과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전형방법은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활용하고 있고, 첫해에만 서류평가 100%를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였고 이후에는 면접을 포함한 종합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C대학교에서 재직자전형을 최초로 실시한 만큼 이 대학 재직자과정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고, 이 대학이 일반적으로도 선호도가 높은 서울에 소재한 상위수준의 대학이라서 학생 모집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에 2015학년도에는 모집정원을 더욱 늘려서 255명까지 선발할 계획이다(〈부록 표 15〉 참조).

> "우리나라의 인력구조가 좀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한 40퍼센트 정도만 되면 충분한데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니까 이제 산업현장에 뛰어드는 연령도 너무 늦어지고 또 이제 다들 고급, 어떤 진로탐색, 직업만 원하게 되니까 상당히 인력구조와 안 맞는다는 그 당시에, 분위기였어요. 사회에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우리대학이 최초로 제안을 한 거죠." (C대학 교무처장)

D대학교의 경우,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 후 산업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C대학교와 달리 모집인원에 비하여 지원자 수도 적었고, 이후 등록한 재학생 인원도 매우 적었다. 2014학년도의 경우 2개 학과 모집인원이 총 120명인데 지원자 수는 41명이었고, 이들 중 등록인원은 28명이었다(〈부록 표 16〉 참조). 학생모집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 학교 관계자는 이 대학이 지역에 위치한 만큼 입학자원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 "자원이 없는 거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고졸 인원이 대학 진학률을 따지면 한 70 몇 %에서 80%, 많이 80% 라고 쳐도 그럼 나머지 20%는 사실은 그게 가용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냥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만 할 게 아니고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가서 재직을 하다가 뒤늦게 대학에 가야 되겠다는 필요성 있는 사람들을 다 풀어줬음 좋겠다는 게 대학의 입장입니다." (D대학 교무처장)

나) 교육과정 및 학사 지원

(1) 재직자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C대학교는 재직자 특별전형 재학생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행력을 제고하였다([부록 그림 2] 참조). 반면, D대학교의 경우에는 재직자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간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학생들이 정해진 교과만 딱 하게 되면 너무 단조롭고 불만족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교과과정도 다양하게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똑같이 다 향유할 수 있게 해주고. 모든 조건을 일반 우리 대학생들하고 똑같이 다 제공을 해줘요. 다만 수업을 야간하고 주말에 해주고. 그리고 대부분의 강의를 전임교원들이 주로 담당합니다." (C대학 교무처장)

> "이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MBA의 속성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실무 교육이 어떤 거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Pre-MBA 프로그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공해주고 이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C대학 교무처장)

(2) 수준에 맞는 공통 교양 및 전공 기초 과목 운영

C대학교의 교무처 및 재직자 운영학과 내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C대학교는 공통교양(영어) 수업의 경우 재직자 특별전형 재학생을 위한 별도반을 운영하고, 전공 기초(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회계학원론 등) 수업도 재직자 특별전형 재학생을 위한 별도의 반을 운영함으로써 재학생 수준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교양 과목은 일반 재학생과 함께 수강을 허용하여, 재직자 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이 자칫 느낄 수 있는 괴리감을 해소하였다.

>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반 대학생들이, 그 학생들을 같은 동료 학생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직장인인데 적당히 나와서 학점 받고 이렇게 가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커리큘럼도 빡빡하고 또 조금은 정규교과과정보다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도 저런 거 하고 싶은데 좋은 프로그램 있다 해서 애들(일반학생들)이 또 가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고..." (C대학 교무처장)

D대학교의 교무처 및 재직자 운영학과 내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D대학교의 경우에는 현장 실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4학년 1학기와 2학기, 3학점 기준으로 현장 학습 강좌를 개설하여 강의 수강을 위해 학교에 상주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학업에 대한 시간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또한, 원격 교육을 통하여 강의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양과목 강좌를 사이버강의 형태로 운영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재직자 재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블렌디드 러닝 강좌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3)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20)]

C대학교는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교육과정의 체계적 보완을 통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수역량 강화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러닝 콘텐츠 제작 및 보급, 이러닝 강의 인프라 구축 및 관리 등 다양한 전문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모바일 이클래스 시스템(e-class system)을 구축하여 온라인 교육환경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및 모바일 교육수요 확대에 대처하고 있다. 2013학년도부터 PC 및 모바일기기를 통하여 교수와 학생의 양방향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블랙보드)을 도입하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2014년 1월에 커리큘럼 인증원을 설치하였다.

C대학교의 교무처 및 재직자 운영학과 내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C대학교는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 초기부터 대학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형과정 설계 및 실행 과정에 대학 본부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및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하여 현재는 안정적으로 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졌다. 재직자 특별전형을 위한 학사 조직 개편으로 학부를 신설하고 이 학부 신설에 따른 학칙도 변경하였다. 무엇보다도 특성화고 출신 재직자 특별전형 재학생과 일반전형 재학생들과의 학업여건의 차이점을 고려한 별도의 학사관련 지침을 마련하였다. 예컨대 재입학이나 휴학, 졸업 기준 등에서 재직자전형 재학생 특성에 맞는 학사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첫 학기의 휴학은 군 입대 및 질병휴학에 한하나, 재직자 전형 입학생의 경우 근무지

20)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C대학의 경우 Ⅳ장에서, D대학의 경우 부록 3의 D대학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동 등의 예외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부장의 승인 하에 휴학이 가능하다. 또한 학칙에 따른 졸업 인증 기준 중 영어 능력, 원어강의 이수, 한자능력 기준 등을 면제하고 현장실습(총 6과목)을 하계/동계 계절 학기에 학기별로 개설하여 재학 중 총 18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업은 평일 야간과 주말(토요일) 시간대에 운영하여 직장 근무와 학교생활의 병행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D대학교의 교무처 및 재직자 운영학과 내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D대학교 역시 재직자 과정 재학생들의 학업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 학칙을 개정하여 재직자 과정 학생들의 졸업이수 기준 학점을 120학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기초학력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기초 학력 보완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고졸 직원들의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관리 능력", "직무 수행 지식 및 기술",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의사소통 능력, 직장 적응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는 "애니어그램(심리적 성격유형 분석)","리더십 향상 프로그램","기술 작문법, 논문 및 문서 작성법"등과 같이 자기 개발이 가능한 다양한 교육 강좌를 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다) 향후 과제 인식 및 제도 건의 사항

C대학교의 제도 건의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제도적으로 재직자 특별전형의 경우 정책적으로 특성화고 졸업자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계고까지도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예컨대 필수 재직 경력을 3년이 아니라 5년 정도로 연장하면 특성화고가 아니라 일반계고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이 전형을 통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일반적으로 졸업 후에 5년 지나면 그 사람이 뭐 5수까지 해가면서 뭘 하겠어요? 조금은 제도를 이것보다는 조금 오픈해서 열어 놓으면 일반계고니 마이스터고니 뭐 그런 실업계니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C대학 교무처장)

둘째,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 재직자들은 야간과 주말에 학교에 와서 수업에 참여

하기 때문에 교과 외에도 다양한 비교과 차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면이 있다. 부족한 학습 시간과 기본 학습 역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 외에도 다양한 보충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멘토링 시스템을 통한 학습 멘토를 붙여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학원생들과 연결해서 그룹스터디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방안도 있다. C대학교에서는 휴먼라이브러리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 즉, 도서관이 책을 대출하는 곳이라면 휴먼라이브러리는 사람을 대출해 준다는 아이디어이다. 관심 분야의 직업인, 전문가를 연결해 줌으로써 지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진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어떤 멘토링 시스템이라고 할까. 학부생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 경영학과 학생이 다 이러면 대학원생이 있으니까 대학원생들하고 연계를 통해서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해소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과지만 대학원생들하고 스터디도 하고 뭐 이런 이제 하면서 자신들의 역량을 기르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습 멘토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까 하는 거고. 또 이제 주로 야간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학교의 여러 기구들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교수학습 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활용을 못 하죠. 또 학생생활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야간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상담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야간에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충분치 않아요. 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까 하는 거죠. 등록금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강의실 들어가 앉아서 강의 받는데 다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시설 같은 거라든지 이런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습도, 그 교과, 비교과에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 분들한테 해결을 해서 이 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죠." (C대학 교무처장)

셋째, 학습 시간에 제약이 있기에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는데, C대학교에서는 코세라(Coursera)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 코세라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기존 온라인 교육은 면대면 수업에 비하여 효과성이 떨어지고, 강좌의 다양성 차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 자체 개발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보다는 코세라에서 제공되는 수준 높은 수업을 듣고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시간적인 제약사항을 극복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하다가 온라인 교육을 상당히 폐쇄를 했어요. 온라인 교육이 실제 그 교실 교육의 효과가 40퍼센트가 안 넘어요. 이 사람들이 야간에 와야 되는데 다양한 학과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이 좋은 방법인데 온라인의 그런 현장교육의 효과보다, 이제 강의실 교육의 효과보다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온라인 교육은 한계가 있다...(중략).. 코세라는 거의 준비 단계만 10년 했고 온라인 강좌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수준이 당장 되면 괜찮지만 지금 우리가 강의실의 그 강의하고 온라인강좌 하고 아까 4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90퍼센트 넘는다고 봐요. 실제로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러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우리가 조금 학과를 점차적으로 다양화 할 수 있게 해보자." (C대학 교무처장)

넷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여와 규제가 훨씬 적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지금은 고등교육이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과감하게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자율성 부여와 더불어 대학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대학이 목표로 하고 있는 현장교육, 개방 교육, 융합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이 아니라 인력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 즉 교수가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결국 대학의 변화는 교수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대학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고등교육을 국가에서 관장을 하게 되면 대학이 성장을 못합니다...(중략).. 우리나라의 미래의 국가 경쟁률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 간섭이라든지 어떤 정책 방향의 설정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손을 떼어야 됩니다. 또 그럴 때가 됐다 이런 거죠... (중략).. 이제 대학의 내부적인 구조나 지나친 안정성 이런 것들도 조금은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C대학 교무처장)

D대학교는 정부 차원에서 재직자 전형에 대한 홍보 강화, 대학 평가 시 재직자전형 운영에 대한 가점 부여 등과 같은 인센티브제도, 선취업-후진학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학금 제도 시행, 편입학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재직자 전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물꼬를 텄으니까 장사가 안 될수록 사실은 국립대학에서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또 거점국립대니까 그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이제 그 좀 자원이 이제 우선 적다고 생각을 하고. 높은 진학률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런 건데 점점 어쨌건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D대학 교무과장)

3) 학생의 문제 인식 및 요구 분석

가) 입학

C대학교 지식경영학부 입학자들은 재직자 전형을 통한 대학 입학 동기는 주로 고졸자로서 직장에서 받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데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즉, 승진이나 이직 시 고졸 학력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입학을 결정한 것이다. 이 외에도 실무 관련 전문 지식을 쌓고 학문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입학한 경우, 학사 학위 취득 후에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 생활을 통하여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나 고졸자에 대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대학에 진학한 경우도 있었다.

"우선 회사에서 고졸 사원이기 때문에 만년 사원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졸 사원은 그러니까 만년 사원밖에 안 되는 거에요."(C대학, #21 학생)

"대학 종류도 2년제나 뭐 다른 타 대학도 있고 아니면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도 있는데 굳이 4년제를 택해서 간 이유는 어차피 돈 내고 다닐 거 확실하게 배우고 말지, 2년제나 학점은행제 다녀가지고 돈 낭비만 한다고 저는 생각 밖에 안 들거든요."(C대학, #21 학생)

"그래서 목표는 석사학위를 따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왔고 또 제 꿈이 뭐냐면 나중에 교수를 하고 싶거든요. 회계학과 교수를.."(C대학, #7 학생)

"대학교는 사람들 여러 명 두루두루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쌓으러 온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C대학, #7 학생)

C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교의 인지도가 영향을 미쳤고, 타 대학 커리큘럼과 비교했을 때 더욱 만족스러워서 선택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재직자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선택 폭도 좁은 편이고, 직장과의 거리 등 위치상의 고려도

있었다.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보통 상업계열 학생들이 직무관련 지식과 이론을 쌓기 위해서 진학하고 있었다.

> "네임밸류는 OO대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간 이유 같은 거는 OO대는 생긴 지가 1년 밖에 안됐고, OO대 같은 경우는 면접 자체도 좀 면접관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커리큘럼 자체가 내용이 좀 뒤죽박죽 섞여 있더라고요."(C대학, #21 학생)

> "저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과가 많이 없어요. 경영, 경제, 그 다음 이런 경영 관련된 것만 있어서 사실 회사 관련된 것만 갈 수 밖에 없으니까 거기서라도 제일 좋은 데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있었다면 좀 폭이 넓었을 것 같아요."(C대학, #16 학생)

대학 입학을 위한 지원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전형에 대한 정보와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학비 부담이 입학을 결정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D대학교 재학생들은 전문성 신장, 자기계발, 학위 취득,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적으로 입학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입학 경로는 인터넷과 지인의 소개, 현수막 광고 등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지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학과 개설이 다양하지 않아서 선택권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 과정

(1) 교육과정[21)]

재직자 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들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등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에 대한 이해도와 실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본과목에 대한 보충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C대학교는 응답자 25명 가운데 9명이, D대학교는 16명이 보충 교육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유용성 정도는 5점 척도에서 3.56과 4.13으로서 보통 내지 약간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습 관련 상담 및 지원 경험은 C대학교는 5명이, D대학교는 12명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유용성 정도는 4.4와 4.5로서 높은 수준이었다(〈표 Ⅲ-14〉 참조).

21) C대학 및 D대학의 교육과정 관련 전체 항목 분석 결과는 〈부록 표 18〉에 제시함.

교육과정과 관련된 경험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항목은 C대학교의 경우 교육 및 학습 지원 시설 사용, 신입생 프로그램이었고, 이들 항목의 유용성 정도에 대한 평가도 각각 4.35와 4.04로서 높은 편이었다. 그 다음으로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을 18명이 경험했는데 만족도는 4.61로서 가장 높았다. 외국어 강의 수강 경험자도 25명 중 14명이었으며 만족도는 3.79였다(〈표 Ⅲ-14〉 참조).

D대학교의 경우 경험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장학금, 교육 및 학습 지원 시설 사용이었다. 장학금에 대한 만족도는 4.76으로서 매우 높았고, 교육 및 학습 지원 시설 사용에 대한 유용성 인식은 3.95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표 Ⅲ-14〉 참조).

교육과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경험자가 5명 이하인 항목으로는 복수 전공제, 멘토 프로그램, 튜터링 프로그램, 복수 학위제, 교환 학생 프로그램, 산학 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 건강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취업 및 진로 상담 서비스가 있었다.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빈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주경야독을 해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복수전공제, 복수학위제, 교환 학생 프로그램, 산학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다. 그러나 멘토 프로그램, 튜터링 프로그램, 건강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실제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자가 적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 대학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D대학교는 상대적으로 멘토 프로그램은 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관련 상담 지원도 빈도가 높았다.

〈표 Ⅲ-14〉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의 활용과 유용성: C대학교 및 D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항목	C대학				D대학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	9	3.56	2	2	16	4.13	4	0
대학의 복수전공제 (이중 전공 포함)	0	–	0	0	1	– (미응답)	0	2
대학의 멘토 프로그램	5	4.40	1	0	8	4.75	4	1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	3	4.00	0	0	3	4.67	0	1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0	–	0	1	0	–	0	1
교환학생 프로그램	0	–	0	2	0	–	0	1
외국어 강의 수강	14	3.79	6	2	12	4.25	2	1
대학연계 산학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	1	4.00	0	0	1	– (미응답)	0	1
학습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	5	4.40	3	1	12	4.50	1	2
교육 및 학습 지원시설	23	4.35	6	4	20	3.95	2	4
신(편)입생 프로그램	23	4.04	4	3	13	4.08	1	2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18	4.61	6	2	21	4.76	10	0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4	2.75	0	0	4	4.75	3	1
취업 및 진로관련 상담 및 서비스	1	5.00	0	3	5	4.40	4	4

(2) 교수학습[22)]

C대학교 및 D대학교 재직자전형 재학생 각 25명의 교수학습 경험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Ⅲ-15〉 참조), 수업은 대체로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동영상과 피피티 등 다양한 학습 매체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만족도는 C대학교의 경우 5점 척도에서 3.63 및 3.67, D대학교는 3.91 및 4.04로서 보통보다 약간 유용한 정도임을 알 수 있다(〈표 Ⅲ-15〉 참조). C대학교 학생들은 수업에서 그룹 프로젝트와 질문 토론 등의 활동을 대다수가 경험하였는데 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유용성이 보통 수준이고 가장 도움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7명이나 되어 야간과 주말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그룹 프로젝트 수행이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D대학교는 그룹 프로젝트 경험의 빈도가 다소 낮았고, 불만요인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 외에 온라인 강의, 사이버상에서의 학습준비, 사이버공간의 자료 공유, 교수의 피드백, 동료의 피드백, 외부 콘텐츠 활용 및 공유, 프로젝트 수업 등 모두 17명 이상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학습준비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통 이상으로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중 온라인 강의가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C대학교는 7명이나 되었다. 이는 온라인 강의의 효과가 면대면 수업보다 훨씬 낮다는 이 대학 관계자의 인식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따라서 재직자로서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치밀한 계획 없이 온라인 강의를 확대 제공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22) C대학 및 D대학의 교수학습 관련 전체 항목 분석 결과는 〈부록 표 19〉에 제시함.

〈표 Ⅲ-15〉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과 유용성: C대학교 및 D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항목	C대학				D대학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대학 온라인 강의(사이버강의)	18	3.11	2	7	20	3.95	4	1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 준비	20	2.45	3	3	19	3.79	1	0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관련 자료 공유	22	3.95	3	0	21	3.95	1	1
수업내용과 관련한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21	3.95	4	0	17	4.35	1	0
수업내용과 관련한 동료학생의 피드백	19	3.95	3	0	19	4.26	0	1
수업에서의 질문이나 토론활동	23	3.61	3	2	21	4.43	7	0
수업과 관련하여 그룹 프로젝트 진행	23	3.04	3	7	14	4.29	1	1
수업과 관련한 외부 콘텐츠 활용과 공유	17	3.70	2	0	18	4.06	1	1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ex. 동영상, 피피티 등)	24	3.67	7	0	23	4.04	3	1
강의중심 수업	24	3.63	1	0	23	3.91	4	3
프로젝트중심 수업	18	3.56	3	1	16	4.25	1	1

(3) 교육 지원

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직장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에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실제로 응답자 대부분이 회사생활과 학교생활을 병행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체력적인 한계로 나타나기도 하고,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하여 정시퇴근을 할 때 직장상사의 눈치를 본다는 응답도 있었다. 즉, 재직자전형이 기관(회사) 대 기관(대학)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입학을 결정하고 대학은 이들 개인에 대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서 제도적인 도움 및 인정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C대학교 학생들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이론 위주 수업보다는 실무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임교수가 부족하고 시간강사의 수업이 많은 점도 불만족 요인이었다. 같은 등록금을 지불하고서도 주간 학생에 비하여 학교시설 및 다양한 학생지원 서비스 이용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점에 대하여도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었다. D대학교의 경우 주간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고 수업 선택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 "등록금이 똑같아요. 근데 시설 같은 면에서 정말 차별을 느끼는 게 6월 달에 수업을 듣다보면 여덟 시에 에어컨이 꺼져요. 그러면 왜 우리는 똑같은 등록금을 냈고, 다 그랬는데 왜 이런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까."(C대학, #16 학생)

> "저희도 똑같은 학비를 내는데, 계절 학기 때 저희가 야간반 같은 수업 한 두 개만 열어서 한 학기만 들어도 저희가 얼마나 편한데요. 그게 뭐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그게 한 두 개 정도 만들면 효과가 클 텐데, 많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C대학, #7 학생)

> "기본적으로 교환학생이 왜 안 되냐면 졸업할 때까지 재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죠. 그게 걸리기 때문에 해외나 이런대로 교환학생 제도 자체가 안 되는 거고."(C대학, #18 학생)

다) 성과

(1) 학생 역량 발달[23)]

학생이 인식한 학습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표 Ⅲ-16〉 참조))에 의하면. 우선, C대학교 학생들은 전공분야 관련 지식과 기술 및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이 대학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응답하였고, 외국어 구사 능력, 종합적 사고력이 그 뒤를 이었으며, 진로 준비, 자기 관리 역량, 대인관계 역량, 의사소통 역량 및 글로벌 역

23) C대학 및 D대학의 성과(역량 변화)에 대한 관련 전체 항목 분석 결과는 〈부록 표 20〉에 제시함.

량, 그리고 자원·정보·기술 활용 역량 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역량에 대하여 입학 전에 비하여 현재 역량점수를 10점 만점 중 표시하게 한 결과, 향상도가 가장 높다고 인식한 역량은 전공 지식과 기술, 인문학적 지식과 교육, 종합적 사고력, 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 진로 준비, 자기 관리 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인관계 역량이나 의사소통 역량은 향상도가 낮은 편이었다.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통하여 기대하는 역량과 그들이 인식한 향상도 간의 상관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외국어 구사능력은 중요도에 비하여 향상도는 낮은 편이었다.

D대학교 학생의 경우, 전공 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많았고(19명), 이어서 대인관계 역량(9명), 그리고 인문학 지식과 교양, 자원정보 기술 활용 역량, 글로벌 역량이 중요하다는 학생이 5명으로 동일하였다. 나머지 역량은 5명 미만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입학 전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향상도를 보인 역량은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2.8), 그리고 전공 지식과 기술(2.76)이었다(〈표 Ⅲ-16〉 참조).

〈표 Ⅲ-16〉 학생들의 역량 발달: C대학교 및 D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항목	C대학				D대학			
	기대 역량 (명)	입학 전 역량 (평균)	현재 역량 (평균)	역량 변화 정도 (평균)	기대 역량 (명)	입학 전 역량 (평균)	현재 역량 (평균)	역량 변화 정도 (평균)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11	4.36	6.8	2.44	5	4.40	7.20	2.80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14	4.20	6.8	2.60	19	3.36	6.12	2.76
외국어 구사 능력	9	3.28	4.68	1.40	4	3.00	4.40	1.40
종합적 사고력	9	5.64	7.68	2.04	4	5.24	7.00	1.76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3	5.32	7.24	1.92	5	4.76	6.44	1.68
대인관계 역량	5	6.80	7.84	1.04	9	6.16	7.44	1.28
의사소통 역량	4	6.68	7.72	1.04	2	6.32	7.56	1.24
자기관리 역량	6	6.32	8.08	1.76	3	5.48	7.16	1.68
글로벌 역량	4	5.16	6.76	1.6	5	4.64	6.32	1.68
진로에 대한 준비	7	5.16	7.00	1.84	3	4.52	5.96	1.44

(2) 계속학습 요구

① 진학 목적 및 요구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다수가 학사학위 취득 후에 재취업 및 이직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일부 응답자는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사이버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서 평생교육을 받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진학의 이유는 전문 지식의 획득, 자격증 취득, 재취업과 이직이었고, 실무 위주의 전공 수업을 원하고 있었다.

> "팀장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이직해야지, 이직 준비해야지 하시거든요, 똑같아요. 이게, 초기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연봉도 안 오르고 직급도 안 오르고 만날 똑같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직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C대학, #21 학생)

> "경영학사 따면 뭐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경영학에 관심이 없었는데 기회가 되면 배워보고 싶었는데, '팀장님이 이끌어주셔야 가능한 일이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안 된다면, 만약 지금 직장에서 기회를 얻으면 하고 싶지만, 그게 한계에 부딪히면 진짜 슬플 거 같아요. 진짜 그게 사회의 한계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직보다 공부를 더 할 것 같아요. 경영 더 공부할 거 같아요, 석사 딸 것 같아요."(C대학, #16 학생)

② 제도적 지원에 대한 요구

재직자 전형의 경우 직장 재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학생신분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재직자 전형의 취지가 일과 학업의 병행인 만큼 재직요건 완화 내지 폐지로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음도 이해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위 취득 후 재취업 또는 이직을 희망하고 있어 취업지원 및 상담에 대한 요구도 있었으며, 학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 추가적인 장학금 지원을 바라기도 하였다. 즉, 국가가 직접 장학금을 주지 않더라도 회사가 후진학자에게 등록금 경비를 보조하고 국가는 이들 회사에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 "연초에 교육부에서 나왔을 때 건의 좀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자기계발을 하면서, 도움을 주면 주었지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국가차원에서 이

학생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거나 공론화 시켜서, 회사에서 C대 ○○과를 다니는 친구들에게 몇 프로 지원을 해주면, 나라에서는 회사에게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그런 어드벤테지를 주면, 그런걸 좀 주면은... 현실적으로 동상이몽인거죠."(C대학, #18 학생)

"등록금 자체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C대학, #21 학생)

나. 경력 연계형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본 연구가 조사한 재직자 전형 및 과정이 정부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에 대학이 부응한 프로그램이기는 하나, 사립대학인 C대학교와 국립대학인 D대학교는 재직자 과정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소 상이하였다. 즉 C대학교에서는 재직자 과정이 본부 차원에서 정원 외 학생 모집을 통한 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고, D대학교는 국립 거점대학으로서 정부 정책에 일조한다는 관점으로 재직자 과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해당 학과 교수들의 열정이 없으면 이 과정이 운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1) 학과 차원

두 대학 모두 학과 조교 등 전임 행정 직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별도의 전임 교수를 두기보다는 겸직을 활용하고 있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담 교수가 없다는 데서 오는 상대적인 결핍감이 있었다. C대학교는 주간 과정인 경영학과와 별도로 지식경영학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직자 수요를 고려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D대학교는 주간 과정과 동일한 명칭 하에서 야간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두 대학 모두 주간 과정 학과의 교수가 야간에 강의를 개설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사 또는 겸임교수의 강의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2) 대학 본부 차원

C대학교교는 재직자 과정 모집 정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하여 대학의 재정확충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었다. 즉, 교육의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주간과정과 동일한 대학생활 경험 기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반면, D대학교는 추가적인 정부 재정 지원이 없는 상황 하에서 재직자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립대로서 등록금이 주요 수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더 소요되는 재직자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학 본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본부 입장에서도 이들에 대한 추가지원은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의 축소를 의미하므로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

3) 유관 기관 차원

재직자 특별전형은 기관 대 기관이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개인이 재직자 특별전형 및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여 지원하고 등록하여 수학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체 등 유관 기관의 역할은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학생은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장/기업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애로가 있었다. 근무 시간 이후 이루어지는 학업에 대하여 직장에서 인식하고 이를 장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4) 법/제도적 차원

첫째, 2015학년도 기준 전국 70여개 대학에서 재직자 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C대학교와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낮은 상황이다. D대학에서 모집자원이 부족함을 호소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였다. 따라서 계약학과나 편입 등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정부는 2016학년도에는 재직자 전형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였는데,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2016학년도 재직자 전형 지원 자격 확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출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둘째,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재직자 전형 정부지원 사업은 2012년 18개 대학에 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총 3년간 진행하였고 올해 만료될 예정인데,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 없이 프로그램 운영에 난색을 표현하고 있었다.

두 대학의 사례에서 드러난 시사점은 무엇보다도 경력 연계형 고등교육 수요자에 대한 교육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예컨대 전담 교수 인력, 특성화된 교육과정,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대학의 노력과 교육 당국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신입생의 학업 차이에 따른 단계별, 수준별 과정을 마련하고, 복수전공, 부전공, 동아리, 시설 사용 등 일반 학생과의 혜택의 차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 및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 학사 연계형

가. E대학교

1) 대학 개요 및 편입생 현황[24)]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E대학교는 대구광역시에 있는 대규모 사립 종합대학교

24) E대학 제공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기술함.

(1978년 승격)로서 세 개의 캠퍼스로 구성되어있다. 국제대학을 포함해서 14개의 단과대학(이부대학 제외, 62개 전공)과 10개 대학원에 약 2만3천명의 학부생과 2천명의 대학원생이 재학하고 있다.'지역과 세계를 향해 빛을 여는 교육중심대학'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우수한 교육역량을 인정받아 교육부의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 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에 선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대학 기관 평가 인증을 획득하였다.

E대학의 교무처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특히 E대학교는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 한 단계 높은 고등교육의 전문 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입학 자원의 질 관리를 위해서, 1999년부터 29개 전공에 대해 대구, 경북, 경남지역의 여러 전문대학들과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리고 2000년대 초 교육부의 연계 교육 강화 운영 방침에 따라 연계 편입 교육과정이 활성화되어 지난 5년 동안 전체 편입생 가운데 연계 편입생이 20% 이상을 차지해오고 있다(〈부록 표 21〉참조).

한편 E대학 교무처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E대학교와 연계 편입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고 있는 I대학교(전문대학)는 2014년 현재 인근 지역 3개 대학교 47개 학과와 협력을 체결하고 있다(A대학교 40개 전공, J대학교 5개 전공, K대학교 2개 전공). 지난 5년간 I대학교의 연계 편입생 비율은 약 5%(졸업생 대비)였고(〈부록 표 22〉 참조), 연계 편입을 지원한 I대학교 학생 가운데 최종 합격한 학생의 비율은 최저 70%, 최고 90%였다. 즉 경쟁률은 최저 1.13에서 최대 1.42 정도였다(〈부록 표 21〉과 〈부록 표 23〉 참조).

2) 대학(기관 차원)의 문제 인식 및 요구 분석

가) 대학의 편입생 모집 및 선발: 편입생의 학업 준비도 미흡

연계 편입생들은 대학 간 협약이 맺어진 전문대학의 학과에 소속되어 있어야 선발될 수 있는데, 연계 교육과정 편입학 대상 학생은 매 학년도 1학기에 선발하고 지원 자격은 E대학교와 연계 교육 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에서 연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전공에 대한 기본 소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E대학교에의 연계 교육 실시 학과에서 인정할 수 있는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출신 대학장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편입학 응시의 자격이 주어진다. 선발 절차는 연계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학 내규에 따르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적 대학의 성적과 편입 대학에서의 면접을 통해서 편입이 결정된다. 일부 학과의 경우 입학 자원의 질 관리를 위해서 영어 공인 성적 최소 규정을 두기도 한다.

> "이러한 연계편입 절차에 불구하고, 입학자원의 질적인 관리를 우려하는 학과의 경우는 추가로 편입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행정학과의 경우 입학생의 토익점수를 2014학년도부터는 최소 500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대학, 교무부장)

이하 E대학 교무처에서 제공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연계 편입과정을 통해서 편입학 하는 학생들은 편입을 위해서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하고 등록률도 80%로 높은 편이다(학사 편입 등록률 60%, 일반 편입학 등록률 80%). 또한 E대학교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매년 100~120명(전체 편입생의 약 20%)의 연계편입생들이 진학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여학생이 약 60%이며 24세 미만의 학생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공별로는 지난 5년(2010~2014)동안 경영학과(53명)의 편입생 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회계학과(34명), 컴퓨터공학과(33명), 경찰행정학과(33명), 패션디자인과(24명), 체육학과(24명), 사회복지학과(22명), 행정학과(20명), 패션마케팅학과(20명) 순이었다.

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오고 있지만 학부 3학년에 비해서 전문대학 편입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다소 부진한데, 특히 이론중심의 학부과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학부생들과의 이질감도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편입이 확정된 전문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대학에서 수행 중인 재정지원사업(LINC, ACE,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서 기초학력 신장 및 멘토링 지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 연계교육 협약을 맺은 대학 간에 교육 인프라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타 소속 대학 학생에게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나) 교육과정 및 학사 지원

학사 연계형 학생들은 고교성적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문대학에서는 편입학사 연계형 입학을 목적으로 수학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 요건(연계 교육과정 이수 과목 및 어학 성적)을 위해서 전문학사 과정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및 목표에 있어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이 달라서 투자하는 시간대비 편입학을 위한 준비의 내용이 부실하다. 결과적으로 실제 편입 후 전공과목 수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과 대학별 편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기초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 등 정부의 각종 교육역량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더불어 연계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수들이 공동으로 진로지도를 하고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정보 공유를 통해 기초 학력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사 제도 측면에서는 연계 편입생들의 경우 연계 전공과목의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해주고 있으며, 학과별 연계 교육 시행 계획서를 통해서 학사 연계 진학자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과 대학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연계 교육 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과정 공동 개발, 교수학습 자료 공동 개발, 실험 실습 기자재 공동 사용, 교원 학생 상호 교류, 연계 연수 및 벤치마킹, 각종 대회 지원을 비롯한 편입학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학과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편입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부진해서 연계편입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제한적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실기 및 직업 교육 중심의 전문대학 편입생들이 이론 중심의 학부 전공과목을 수학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또한 이러한 편입생들을 위한 특화 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 및 학사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연계 전공이 개설된 학과의 경우 일부 학과에서는 전문대학 소속 학생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

> "학부 3학년에 비해 전문대학 편입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으로 수업의 어려움 발생합니다. 또한, 연계 전공이 개설된 학과의 경우 일부 학과에서는 전문대학 소속의 학생이 관심이 부족하여 정원 충원(150명)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E대학, 교무부장)

더불어 현실적으로 연계 편입생들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고, 전문대학 학생의 연계 편입 대학 선택의 폭이 커짐에 따라 신청 대비 최종 등록의 예측의 불확실성도 발생하고 있다.

다) 향후 과제 인식 및 건의 사항

학사 연계 진학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차원에서는 전문대학 편입생들이 학부교육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신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취득과 학점 우수자들에게 다양한 장학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과 국가 함께 노력해서 사회적 홍보를 통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학생들이 학사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교무부장과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의 수요 다변화를 고려할 때 학사 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입학정원 대비 3%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절차와 행정지원, 학사운영을 한다는 것이 대학에게는 부담이 많이 된다. 학과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편입생들이 자칫 학생지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어서 이러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에게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대학 입학 자원의 부족으로 지방 대학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교육과 경제 집중화는 이러한 지방 발전의 불균형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입학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와 졸업자의 수도권 진출로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 스스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3) 학생의 문제 인식 및 요구 분석

가) (편)입학: 편입 기회의 획일적 제한과 입시 준비의 어려움

E대학교에 편입한 학생들에게는 배움과 취업이 편입학의 주된 동기였다. 즉, 원하는 전공 공부를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더 하고 싶다거나, 기존 학력으로 인한 취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편입을 했다.

"어 회사에서 보러 나온다던가 뭐 그런 거를 학교가 2년제고 4년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기에 이쪽(4년제)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 같고, 학생들이 (취업 관련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았던 것 같고요..." (E대학, #16 학생)

그런데 편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2년제 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의 이동은 다른 유형의 편입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다 호의적인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저희 같이 전문대에서 4년제 가려는 친구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 신분상승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학력상승, 이제 좀 더 높은 취업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데 그렇게 제한해 버리면 저희의 꿈이나 희망 같은 것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너무 확 줄어들어서 오히려 저희같이 전문대 이런 애들은 그런 기회를 완전히 다 박탈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솔직히 4년제에 있는 애들은 그냥 아! 안되면 그냥 4년제 졸업하고 말지... 어차피 똑같은 학사니까 상관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되면은 전문학사니까, 만약에 편입이 안되 버리면... 그것을 완전 짓밟아 버리니까..." (E대학, #2 학생)

여러 가지 편입 경로 가운데 연계 편입 경로를 선택한 이유는, 비록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일반 편입에 비해서 경쟁이 낮고 (편입성공 가능성이 높고), 영어 학원 등 별도로 편입 준비를 위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다른 편입 경로(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검정고시 등)에 비해서 오프라인에서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 준비에 필요한 것들이 편입 유형과 대학별로 너무 다양해서 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음. 이게 가능할진 잘 모르겠는데, 좀 편입생들 편의를 위해서라면... 지금 학교마다 편입 규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뭐 보는데 있고, 뭐 이런 보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냥 애초에 이럴꺼면 수능, 정시 저희가 입학할 때에는 수능은 그냥... 수능 하나로 끝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것처럼 편입생들도 그냥 만약에 편입시험이란 것을 만들기는 그렇지만은 (웃음) 만약에 기준은 좀 그냥 통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토익을 본다면 뭐 그냥 모든 대학들이 다 토익이랑 전공 시험을 본다던가, 아니면 면접을 본다던가 이렇게 다 규정을 정해줘서 주면 저희가 그게 다 똑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저희가 여러 대학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한데,

다 규정이 달라버리니까 거의 편입생들 보면 거의 대부분 한 학교, 두 학교, 많아봐야 세 학교 기준잡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서 좀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하고...” (E대학, #2 학생)

연계 편입에 대해서는 편입 대학의 홈페이지나 전문대학 재학 중 교수나 친구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고,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계 편입생들은 성적에 의해 선발되고 편입 대학에서 최종적으로 면접을 봐야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에서 성적을 유지하고 면접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전문대학에 비해 편입 대학의 등록금이 두 배 이상(사립 전문대학에서 사립대학교로 이동) 비싸기 때문에 등록금 마련에 대한 걱정도 컸고, 학교 선택과 결정에서 정보 부족과 적응에 대한 고민 등 편입학 지원과 준비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이었다고 회고했다. 연계 편입의 경우는 학교와 전공이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선택의 이유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연계 편입도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연계 편입 부분에서는.. 딱 정해져 있어서.. 길이 정해져 있는 게.. 경영과면 경영학과, 회계학과면 회계학과.. 이렇게 길이 딱 정해져 있는데.. 네 같은 과로 가는 건데.. 어 연계니까 뭐 그런 부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같은 경영경제나 회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같은 경영대학 안에 속해 있는 학과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전체 일반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영대 지원했을 때, 제가 입학할 때보다 그 전년도에 2배가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확감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에 경쟁률도 세지고, 기회도 줄어들고.. 만약 수도권에 들어가는 걸 제한시킨다고 그렇게 한 것이라면, 지방대에서는 굳이 그렇게 했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A: 지역 내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E대학, #7 학생)

나) 과정

(1) 교육과정[25]: 의도하지 않은 참여 제한과 편입생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 부족

연계 편입생들은 전문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의 학사제도와 교육과정 등에 대한 경험이 다르고 편입대학의 3학년 학부생들에 비해서 기초학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 및 학습 지원 시설 이용과 편입생 프로그램(오티 등), 대학의 보충 교육 프로그램(영어, 수학 등)에 대한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대학 간 교육비의 차이로 인해서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경험도 많은 편이었다. 또한 학습 관련 상담

25) C대학의 교육과정 관련 전체 항목 분석 결과는 〈부록 표 24〉에 제시함.

과 멘토링과 튜터링 등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 있었으나, 교육 프로그램(복수전공, 교환 학생, 복수 학위 등)에 대한 참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대학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 2학년 이전에 참여가 결정되거나 3학년 이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편입생들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볼 수 있다.

> "...아무런 저희가, 할 수 있는, 학교 활동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리 같은 경우도 거의 없고.,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왜냐면, 3학년인데다가, 편입생이고. 일단, 그러니깐, 학교 교칙 상으로는 안 되는 건 없을 건데, 암묵적인." (E대학, #2 학생)

편입생들에게 제공된 프로그램이나 지원서비스 가운데 교육 및 학습 지원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학습 상담 및 지원과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은 다소 유용하다고 보았으나, 편입생 프로그램(오티)과 기초 보충교육 프로그램, 튜터링, 건강 및 심리, 취업 및 진로상담 등은 상대적으로 유용성이 낮았다. 유용성이 대체로 낮게 나타난 영역들의 경우, 편입 대학에서 편입생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수적으로 적은 편입생들에게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일단 아까 말한 오티나 이런 데서 쓸데없는 그런 종이로만 해도 되는 내용들은 그냥 종이로만 주고, 저희가 뭐 바보도 아니고, 설명서만 주면 저희가 웬만한 것들은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종이로만 주고, 그런 학생 대표, 과대표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길을 열어주고, 일단 오티때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좀 편입생들이 이제 학과 생활을 할 수 있게 아니면, 뭐 학생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알 수 있게 ... 그런 길들 그런 프로그램? 아니면 편입생끼리라도, 편입생 끼리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대학, #2 학생)

〈표 Ⅲ-17〉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의 활용과 유용성: E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항목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	10	3.92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	5	3.80
외국어 강의 수강	9	4.25
대학연계 산학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	4	4.38
학습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	11	4.38
교육 및 학습지원시설	27	4.73
신(편)입생 프로그램	24	3.80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21	4.22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6	3.82
취업 및 진로관련 상담 및 서비스	7	3.85

(2) 교수학습[26]: 수업 방식에 대한 적응과 인적 네트워킹의 필요성

전문대학에서 편입한 학생들에게는 수업 방식도 새로운 점들이 많을 것이다. 전문대학에서는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많고 내용도 다소 기계적이어서, 생각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수업보다는 내용전달과 실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이 실제로 편입 대학에서 경험한 수업 방식을 보면,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강의 중심 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다양한 학습 매체를 활용한 수업, 프로젝트 수업, 토론식 수업, 교수 피드백, 사이버공간 활용 수업 등에 대한 참여가 많았는데, 이러한 수업 형식은 최근에 학부 교육에서 전체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편입생들도 이러한 수업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전에 학교는 그냥 교과서 강의, 책 중심으로 그냥 빨리빨리 하자는 주의로 그냥.. 중요한 시험에 나올 것들을 그냥 찍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컴퓨터 다 활용해서 ppt

26) E대학의 교수학습 관련 전체 항목 분석 결과는 〈부록 표 25〉에 제시함.

같은거 활용해서 조금 천천히 나가더라도 좀 심도 있게 배운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중략) 네.. 정말 수박 겉 핥기 식! 과목은 이렇게 많은데 2년 안에 다 끝내야 하니까 아무래도 빨리 빨리 나가야지 다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4년이고, 그만큼 시간도 많고 천천히 나가도 되니까.. 교육하는 부분에서도 약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이 차이 난다고..." (E대학, #17 학생)

교수학습 방법에 관련해서 두드러지는 점은 편입생들이 이전 대학에서와 같은 교수학습 방법(강의 중심 수업)에 대해 경험은 많이 하지만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반면 다양한 학습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교수나 동료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등 역동적인 수업 방식과 인적 교류를 통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편입생들의 경우 대학 생활 중간에 3학년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동료 학생 간에 형성된 선후배나 동료 관계가 만들어지기 어렵고 교수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학업에서 교수나 동료 학생들과 교류가 편입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점을 보여준다.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같은 과인데도... 다 이렇게 다 친해져 있더라고요... 끼기도 그렇고 해서 같이 편입한 학생들이랑 거의 다니게 되는... (중략) 교수님들은.. 분위기가 좀.. 전에 학교에는 이렇게 연구실 찾아가기에도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저기 다가가기 좀 어려운... 그래서 따로 찾아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E대학, #17 학생)

〈표 Ⅲ-18〉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과 유용성: E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항목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수업내용과 관련한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27	4.35
수업내용과 관련한 동료학생의 피드백	19	4.44
수업에서의 질문이나 토론활동	26	4.08
수업과 관련한 외부 콘텐츠 활용과 공유	23	4.24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ex. 동영상, 피피티 등)	27	4.36
강의중심 수업	28	3.69

(3) 교육 지원: 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과 보이지 않는 구별

전문대학에서 편입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생들에 비해서 취업과 학업에 관한 보다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지만, 대학 간 교육과정과 학사제도 및 운영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편입대학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편입생들에게 맞는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은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전 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폭넓고 다양하게 배우는 데서 오는 만족감과 강의의 질적 수준과 궁금한 점들에 대한 답변이 잘 이루어지는 점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해했다. 반면, 편입생들은 이전 학교에서와 다른 점들(수강신청, 시험, 조교와의 관계 등)에서 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편입생들을 향한 시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대체로 편입생들을 위한 제도와 기회가 부족하고 정보의 공유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에 친구가 있어서... 이제 처음 수강 신청할 때나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계속 다 정해져서 나오다가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다 정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몰랐는데... 이런 친구가 없었으면 계속 듣고 싶었던 과목을 못 듣고 있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E대학, #17 학생)

> "선후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만약에 뭔가, 이 교수님에 대한 사전 정보? 만약에 무슨 과제를 내준다거나 그러면, 만약에 선배나 이런 걸 안다면, 했던 걸 받아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정보나. 아무래도 제일 큰 차이는, 저희가 그런 선후배 그런 게 없으니까. 정보가 일단 제일, 저희가 엄청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E대학, #2 학생)

더불어 재학 기간 중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일반 학생들과 구별되는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가 갖추어지고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사례 대학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입학년도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구분은 편입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

>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편입생들의 학번은 편입학년도를 기준으로 –2년을 한 학번(예:2014년 입학 → 12학번)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편입생에 대한 학번 언급은 없었고 학생 고유번호로 쓰이는 학번(홈페이지 로그인 용 또는 출석부 기록된 번호)은 이번 연도 신입생들과 같은 숫자로 시작하는 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학번 누구가 아닌 편입생 누구라

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것이 아닐 수 있지만 편입생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점도 껄끄러운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E대학, #2 학생)

다) 성과

(1) 학생 역량 발달[27)]

편입생들이 대학 교육을 통해서 가장 많이 기대하는 역량은 전공 분야 관련 지식과 기술이고, 다음으로 대인관계 역량, 진로에 대한 준비, 외국어 구사 능력,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순이었다. 비록 편입 후 한 학기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학생들은 전공 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에서 가장 많이 성장했고, 진로에 대한 준비와 다른 역량들도 의미 있게 나아졌다고 보았다. 그런데 주목할만한 점은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기대가 두 번째로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기가 지난 후에 이 역량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보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편입생들이 중간부터 대학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생기는 문제로 '외딴 섬'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아무래도 저희가 진짜 학교를 다니는데... 군중 속의... 정말 외롭다는 느낌이 많이 드니까, 그냥 이제는 정말 그냥 외롭습니다. 연애를 못해서 이런 외로움이 아니고 정말 얘기할... 만약에 제가 이런 날이 있습니다. 편입하는 친구들끼리 수업이 정말 안 맞을 때는 저희가 아예 안 볼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수업이 다 다르고, 밥 먹는 시간이 다르고, 그러면 정말 저 같은 경우, 그냥 학교 나온 하루 웬 종일 아무 말도 안하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냥 와서 아 그냥 교수님 출석 부르면 네! 공부하고 뭐 교수님 뭐 물으면 네! 뭐 그런 대답만 하다가 사람끼리 이런 대화는 한 번도 못하고, 그냥..." (E대학, #2 학생)

무엇보다 편입 대학에서 기대하는 바는 학업 측면의 성과와 더불어 다양한 인맥의 형성이 중요한데, 편입 후 첫 한 두 학기 동안 편입생들은 '군중 속의 고독'을 더 뼈저리게 느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7) E대학의 성과(역량변화)에 대한 관련 전체 항목 분석 결과는 〈부록 표 26〉에 제시함.

〈표 Ⅲ-19〉 학생들의 역량 발달: E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항목	기대역량 (명)	입학전 역량 (평균)	현재 역량 (평균)	역량변화정도 (평균)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7	4.54	5.61	1.07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21	5.36	7.39	2.04
대인관계 역량	12	6.86	6.61	-0.25
의사소통 역량	4	6.57	6.68	0.11
글로벌 역량	4	3.96	5.11	1.14
진로에 대한 준비	9	5.75	7.04	1.29

(2) 계속학습 요구

연계 과정을 통해 편입한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 후 다시 대학에 진학한다면 일반대학에 다시 진학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전문대학에 다시 진학하거나 사이버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편입생들이 재학하고 대학이 지방 대학이고 보다 나은 일자리와 학업(학위)을 위해서 더 나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배우고 싶은 분야는 다소 실용적이고 전공과 취업이 일치되는 분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패션디자인, 간호 의료, 마케팅, 건축, 교육, 경영 등). 한편, 편입생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제도적 지원들로는 장학금, 해외연수, 등록금 인하,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업 및 생활 적응 지원, 취업지원, 상담 등이었다.

(3) 기타 교육 성과

편입생들의 교육성과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연계 편입생의 평균 재학기간, 중도이탈, 취업률 등을 분석하였다. 이는 연계 편입생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수학연한이 더 길지 않은지, 편입한 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하는지, 취업 성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함이다.

먼저 연계 편입생들의 평균 재학 기간을 보면 지난 4년(2010~2013) 동안 연계과정을

통해 편입한 학생 235명 가운데 78%(183명)가 편입 후 2년 만에 졸업을 했고, 19% 학생은 3년(45명), 나머지(10명)는 4년 만에 졸업을 했다(〈부록 표 27〉 참조)

연계편입생의 중도 이탈률은 지난 3년(2011~2013) 평균 약 30%였는데, 2010년의 중도탈락이 매우 많았고 이후 급격히 줄어서 2013년에 20% 수준을 유지했다. 이러한 중도탈락률을 대학 전체 비율(3.9%, 2013년)과 비교해 보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취업률의 경우는 일반 학생들의 경우와 연계 편입 취업자의 비율이 45%와 47%로 연계 편입생의 취업률이 다소 높았다(〈부록 표 28〉 참조). 이러한 결과는 연계 편입생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놓고 보면, 연계 편입생들의 수학 연한이 다소 길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재학기간의 연장은 다른 일반 학생들에게도 나타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편입생들의 학업 역량과 관련된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중도탈락생 비율이 다소 높은 이유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후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부록 표 28〉 참조).

나. F대학교

1) 대학 개요 및 편입생 현황[28)]

F대학교의 기획예산처장이 제공한 내용에 따르면 F대학은 2001년에 디지털대학으로 시작해서 2009년부터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으로 전환되었고, 2014년 현재 10,000명 이상의 재학생과 11,000명에 이르는 졸업생을 배출한 대학으로 성장하였다. 2014년도 대학정보공시자료(대학 알리미[29)]에서 F대학 자료 추출)에 따르면 학생 충원률 115.8%, 정원내 신입생 충원률 98.3%, 정원내 경쟁률 2:1이다. F대학교의 설립목적은 '평생교육의 선도적인 역할,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기여, 고등교육의 개혁'이다. 이하 F대학 기획예산처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F대학교는 '창조와 봉사'를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추진해온 장기발전전략을 2010년 '비전 2020'으로 확대해서 '대한민국 대학브랜드 TOP 10'을 비전으로 5개의 목표와 7개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학과의 구성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경영 계열과 다양한 자격증과 연계된 사회복지, 상담 심리 분야 및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어학 분야에 집중되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전기전자, 기계제어, 정보 보안 등

28) F대학 제공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기술함.
29) www.academyinfo.go.kr, 2014년 10월 29일 검색.

공학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F대학교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일반 편입생(2/3학년제 대학졸업)이 약 30%, 학사편입생이 약 20%(4년제 일반 대학과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 포함),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생 40%와 기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표 29〉 참조). 학사 연계의 관점에서 F대학교의 특징은 편입생들의 구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선은 일반편입생들의 경우 일반대학들과 달리 4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편입하는 학생들은 없고 편입생 전부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편입하는 학생들이다(〈부록 표 29〉 참조). 또한 F대학 기획예산처장과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학사 학위를 갖고 이 대학으로 편입하는 학사 편입 비율이 높은 편이며, 편입생들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 이전 대학의 전공과 다른 경우가 90% 이상이다.

2) 대학(기관 차원)의 문제 인식 및 요구 분석

가) 입학: 대학의 신입생 모집 및 선발: 학습자 특성의 변화와 대응 전략

F대학 기획예산처장과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F대학교에 진입하는 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대학원 석사이상이 6%정도 되고 서울 소재 출신 4년제 대학 학사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학생 평균 연령이 감소하고 있다. 이 대학의 초창기 재학생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이었으나 현재 30세 초반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정보화 역량이 높고 온라인 학습에 대한 적응성도 증대되고 있다(〈부록 표 30〉 참조).

> "학령기에 있는 18세 이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정고시 쓰신 분들 법대 같은 경우는 14세 애들도 한 7, 8명 되고요. 검정고시로 대학, 고졸을 딴 친구들은 일반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느니 사이버대학 오는 게 나아서 18세 이하 학생을 포함한 학령기 한 21세까지 정도가 10프로 정도 되고요. (중략) 그 다음에 20대가 한 20퍼센트. 그리고 30대가 40퍼센트 정도 되고요. 40대가 한 20퍼센트 그리고 50, 60대가 나머지 10퍼센트 정도. 근데 사실은 지난 5년 동안에 5살 정도 낮아진 거예요. 원래는 평균이 37.8세 정도 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거의 30대 초반 31세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F대학, 기획예산처장)

F대학 기획예산처장과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F대학교 입학생의 50%는 편입생이고 재교육이 필요해서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선발 방식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

다. 즉, 편입생의 경우 입학 후의 학업 계획서와 인적성검사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전문대나 학사 출신들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죠. 선발제도 자체가 학습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최종학교의 성적을 봤어요. 최종학교 성적이라 하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는 고등학교 성적, 전문대나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각 대학의 성적을 봤는데 이게 평생교육이다 보니깐 중간에 공부를 안했던 기간들이 10년씩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를 안 한건데 그 성적을 가지고 뽑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는 없앴죠." (F대학, 기획예산처장)

F대학교는 사이버대학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대학들과 달리 중도탈락률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학생 선발에서 학업 지속 가능성을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 "매 학기 등록률의 전쟁이에요. 이게 일반대학과 차이가 나는 거죠. 일반대학은 한번 들어오면 대부분 90퍼센트 이상이 졸업하는데 사이버대학은 30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1학년으로 들어온 친구가 4학년까지 남아 있는 비율이 30프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매 학기 15퍼센트 20퍼센트 로스가 생기는 거죠."(F대학, 기획예산처장)

나) 교육과정 및 학사 지원: 유연성과 맞춤형 지원

사이버대학의 경우 과거에는 몇 개의 전공에 편중되는 현상이 많았다. 학과의 경우 사이버대학의 경우 학생의 연령과 학력 구성이 일반 대학과는 다르고, 사회적 수요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는 사이버대학의 역할 중 하나가 평생학습사회의 재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3년도 문화 및 미디어 관련 3개학과를 융합경영학과로 통합하여, 교양과정의 강화와 학제적 교육으로 보완하게 되었다. 가장 잠재적인 수요가 많은 전기전자공학과와 기계제어공학과를 신설하였고, 상당히 많은 학생의 지원과 성과를 가져왔다. 학과의 신설과 통합은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사회적 변화, 학생의 변화 및 수요 분석을 통해 학내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 "사이버대학이 그동안에 인문사회계열에 너무 집중을 해서 인문사회계의 수요는 끝났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전기전자공학과, 작년에 기계제어공학과 만들어서 저희는 엄청

난 학생들이 온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사이버대학이 커버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폐과를 하나 했어요. 문화예술, 미디어 관련된 학과들을 다 폐과 했어요. 뭐 난리 났죠... 결국엔 설득을 했죠. 왜냐하면 시장수요가 없는 학과는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다. 왜냐하면 졸업하고 나서 학위를 가지고서 나중에 쓸 데가 없는 거를 사이버대학이 가르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학생들한테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폐과를 하고 공학계열을 신설을 한 거죠."(F대학, 기획예산처장)

"그리고 다른 사이버대학이 잘 못하고 있는 거는 시장을 분석을 할 때 융합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가 있어요. 자동차정보통신학과, 글로벌융합미디어학과 뭐 이런 학과들은 여러 분야에 다리를 걸치는데요. 공부할 사람이 보면 뭘 해야 될지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상이 30대, 40대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대학에서 수업을 했던 때의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름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어요. 왜 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디자인공학과로 하자고 했더니 학생들은 명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전기부분에 대한 자격증 이런 게 필요하니까 전기전자공학과. 근데 다른 사이버대학의 학과소개를 보면 자꾸 자동차융합비즈니스학과 이렇게 하면 자동차도 안 되고 비스니스도 안되고 융합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모바일융합학과 이런 데는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차라리 프로그래밍학과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너무 패셔너블한 제목을 찾다 보니까 실제 수요자인 3~40대들한테는 안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적 미스라고 봐요."(F대학, 기획예산처장)

사이버대학교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대학으로서의 엄격한 학사 관리라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적용을 해왔다. 사이버대학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관리 요소는 시험 평가이다.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 중에 시험평가는 성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부정행위나 표절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가의 신뢰성을 잃기 쉽다. 이를 위해 강의평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험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였고,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였다. 이러한 학사관리는 50%에 가까운 전문대학 이상의 경험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향후 사이버대학이 일반 대학과 교육의 질에 있어서 경쟁을 할 때 핵심이 되는 분야라 생각된다.

"그래서 사이버대학의 퀄리티 컨트롤은 다른 거 답 하나도 없고요. 리포트 형식의 주관식 서술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F대학, 기획예산처장)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이버대학은 편입생이 많다는 점 때문에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교양과정에 있어서도 일반 대학과는 달라야 한다. 이미 편입생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교양과정에 대한 요구가 없다. 하지만 편입생의 경우 역시 다양한 교양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교양교육과정이 필요하였고 F사이버대학교의 경우 6개 분야에 걸쳐 이론 기반의 교양과목과 실무 중심의 교양과목을 개발하게 되었다.

전공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교육 체계는 유지하지만 실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2013년도 700여개의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으로 재편하고 교과목의 내용 또한 실무 내용을 강화하도록 개편하였다. 이와 더불어 강의평가 방식을 바꾸어서 수업 개편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 "일단 편입생들이 선택하는 과목들이 중요해요 저희한테는. 편입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은 어려워도 프랙티컬(practical)한 부분이 있어서 선택을 해요. 근데 이 과목 절대 어려운 일이 없는데 학생들이 편입생이 안택한다고 하는 거는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이론적이거나 실무적이지 않거나 현실에 안 맞거나. 그러면 저희는 과목 리노베이션(renovation) 할 때 저희가 3년 단위로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하는데 3년 동안 수강생의 구조를 봐요. 그러면 편입생이 몇 퍼센트, 신입생이 몇 퍼센트. 편입생이 계속 많이 택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없는 과목이니 그냥 가고, 편입생이 한 15프로 정도만 택한다고 그러면 과목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해요. 과목 내용을 바꾸든지 커리큘럼을 바꾸든지."(F대학, 기획예산처장)

> "강의 평가도 다른 데하고 저희가 좀 다를 거예요. 다른 대학은 강의평가를 척도평가로 하기 때문에요. 5점 척도 중에 4점 평균으로 다 나와요. 아니 성적 보기 전에 강의 평가를 하는데... 나쁘다고 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희는 작년에 제가 다 바꿔서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좋지 않다. 이 4점 척도로 바꿨고요. 이 4점 척도에 매우 좋다와 좋다를 택한 친구들은 그 다음 문항이 좋은 이유를 물어요. 왜 좋았냐. 실무적이어서 좋았냐, 이론적이어서 좋았냐, 실무적, 이론적 다 좋았냐. 그러면 학생들 패턴이 나와요. 교수들한테 피드백을 줘야 하는데 교수들은 4점으로 주면요.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저희가 강의를 할 때 당신의 강의는 이론적 강의입니까, 실무적 강의입니까 질문을 해요. 교수는 실무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좋다고 한 사람들이 다 이론적이 좋아서 좋다고 하면 그건 미스매치잖아요. 그러면 교수자한테 피드백을 주죠.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수자가 생각을 바꾸든지 아니면 교육내용을 바꾸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예 평가 방식도 바꾼 거죠."(F대학, 기획예산처장)

학습 지원의 경우 직장인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PC가 아닌 모바일 시스템으로 전환했고 동영상과 더불어 스크립트를 함께 제공해오고 있다. 또한 2014년도부터는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학업계획을 제시해 주는 러닝디자이너라는 학습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학생이 전공만을 마치고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전공과 복수 전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적으로는 40%이상의 학생이 전공이외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고 있고, 1개 이상의 이수형 자격증에 도전하는 학생은 60%가 넘고 있다.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년별 과목 선택의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과거 학생들의 과목 수강 데이터와 각종 이수 요건 및 자격증 수여 요건을 반영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 "학생들이 PC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게다가 직장인들은 직장PC로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뭘 깔아야 하고. 그래서 직장인들 쉬는 시간에 패드나 스마트폰으로 강의 듣고 싶다는 사람도 많고 또 현재로는 장애인을 위한 스크립트 서비스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100프로 스크립트를 서비스를 해서 강의 듣기 싫으면 읽으라고 하려고요. (웃음) 동영상 강의라는 게 여러 가지 뭐 면대면을 대신하는 장점이 있지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대나 대학을 나온 친구들은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계속 강의를 반복해서 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안하고 동영상 강의를 주지만 동영상 강의 스크립트를 MP3로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풀 스크립션해서 제공을 하려고 읽을 수 있으니까."(F대학, 기획예산처장)

>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에 러닝디자이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업 계획이 세워져요. 내가 자격증 3개와 전공과 부전공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뭐 9학기 정도는 들어야 되고 각 학기에 이 정도 과목들은 들어야 된다고 시뮬레이션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언제든지 자격증을 하나씩 없애볼 수 있고 부전공을 바꿔 볼 수 있고 그러면 다니는 동안 그러면 졸업에 대한 플래닝을 계속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매학기 지나면서 왜냐하면 들은 과목과 들어야 되는 과목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러닝디자이너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물어 봤던 거기 때문에 아예 저희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죠."(F대학, 기획예산처장)

상담에 있어서도 전화 상담, 이메일 상담 등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매 학기 35,000통 이상의 전화 상담과 20,000개 이상의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담의 양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상담이력과 데이터

를 분석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2014년도 2학기부터 가이딩허브라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 지원 조직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어 30%이상의 상담량의 감소를 가져오고 학생 지원의 효율화를 이루고 있다.

다) 향후 과제 인식 및 제도 건의 사항: 소비자로서의 학습자와 규제 합리화

이미 대학시장은 경쟁의 심화를 넘어 생존의 과정으로 가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는 향후 20년 안에 대학 및 교수의 역할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전통적인 대학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 변화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학생 특성의 변화와 학습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교육의 소비자로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다.

> "대학의 구조나 대학 시스템이 바뀌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교수자의 능력이나 교수법의 변화도 필요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의 변화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중략) 이미 현대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수요자들은 과거의 학습자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소비자인거죠. 그게 현재 대학들이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F대학, 기획예산처장)

고등교육의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나 기관들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대학을 바라봐야 한다. 대학은 과거와 같이 안정적인 교육 기관이 아니다. 이미 인터넷세계에서는 소수의 기관이 대부분의 서비스를 장악하고 있고, 교육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어쩌면 미래에는 극단적으로 1개의 대학만이 존재하고 분야별 스타 교수 1명만이 존재할 수도 있다.

> "...학생이 변하고 있는데 자꾸 교육부는 대학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F대학, 기획예산처장)

사이버대학의 경우 일반 대학과는 다른 지원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학기제의 변화가 절실하다.

> "15주내지 16주 강의는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단위로는 길다고 생각됩니다. 8주에서 10주로 구성된 4학기제, 심지어는 언제나 시작이 가능한 선택학기제, 대학 강의의 질 관리를 투입보다는

성과로서 관리하는 강의방식의 자율화(현재 사이버대학의 경우 1주 75분이상의 강의의 경우 3학점으로 인정), 대학과정의 이수에 따라 자격증을 부여하는 이수형 자격제도의 폐지(이러한 이수형 자격제도에서는 교과목을 지정하고 있어 다양한 교과목의 운영 및 새로운 시도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 3년제 학사제도 등 모든 대학에는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을지라도 다양한 혁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F대학, 기획예산처장)

3) 학생의 문제인식 및 요구분석

가) 입학: 평생교육 통로로서의 사이버대학

F대학교에 편입한 학생들에게는 일과 연계된 이론 습득과 자기 개발과 학위 취득이 편입학의 주된 동기였다. 즉,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가 더 필요했거나, 자기 계발 및 발전을 위해서, 또는 기존 학력으로 인한 취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편입을 했다. 사이버대학에 편입해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편입에 대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 지인 추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광고를 통해 얻었다. 대학 지원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늦은 나이에 학업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멘토의 부재, 직장 및 육아 및 가사와의 병행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연령의 편입생들에 비해서 사이버대학에 편입한 학생들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4년 기준으로 입학생 가운데 24세 이하는 15%에 불과하다(〈부록 표 30〉 참조).

나) 과정

(1) 교육과정[30]: 출구 지원 서비스의 확대 필요

사이버대학의 편입생들은 전문대학이든 4년제 대학이든 이미 다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온라인으로만 모든 교육과정과 지원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경험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났다. 즉,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오티 등 편입생 프로그램(19명), 대학의 복수전공(10명), 멘토 프로그램(10명), 학습상담과 지원(11명) 등이 있었고, 장학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자 하는

30) F대학의 교육과정 관련 전체 항목 분석 결과는 〈부록 표 31〉에 제시함.

학생들도 많은 편(16명)이었다. 대학이 제공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영어와 수학 등 기초 보충교육(3.67)을 제외하고는 만족도가 대체로 높았다. 특히 편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등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반면, 취업 및 진로 관련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편입생이 가장 많았다.

〈표 Ⅲ-20〉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의 활용과 유용성: F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항목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	3	3.67
대학의 복수전공제	10	4.70
대학의 멘토 프로그램	10	4.40
학습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	11	4.42
신(편)입생 프로그램	19	4.21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16	4.71
취업 및 진로관련 상담 및 서비스	7	4.22

(2) 교수학습[31]: 오프라인의 특성이 반영된 교수학습과정 필요

사이버대학교에서의 수업 활동은 온라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을 통한 교류가 활발한 것은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 비해서 교수나 학생 간 상호교류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다만 온라인교육의 특성 때문에 그룹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경험한 학생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만족도도 낮은 편이었다. 특히 수업과 관련된 그룹 프로젝트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사이버대학의 편입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학과 선배나 학우들의 도움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교수나 인터넷 등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 방법에 관해서는 속도 조절이 되지 않는 강의 중심의 교육을 개선하고 프로젝트 형태의 수업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31) F대학의 교수학습 관련 전체 항목 분석 결과는 〈부록 표 32〉에 제시함.

〈표 Ⅲ-21〉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과 유용성: F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항목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수업내용과 관련한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27	4.35
수업내용과 관련한 동료학생의 피드백	19	4.44
수업과 관련하여 그룹 프로젝트 진행	27	3.76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	27	4.36
강의중심 수업	28	3.69

(3) 교육 지원: 온라인 전용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원 시스템 필요

사이버대학의 편입생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연령의 대학생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고 모든 교육과 의사소통이 컴퓨터나 모바일 기계를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자 수업을 듣는 문제, 나이 들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서 오는 불편함, 시간적 여유 부족, 학우들과의 소통 부족, 리포트 작성의 어려움 등으로 사이버대학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상담이나 강의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도서관 이용의 한계, 온라인으로만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평가제도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 성과

(1) 학생 역량 발달[32]: 의사소통과 글로벌 역량 개발 필요

편입생들이 대학 교육을 통해서 가장 많이 기대하는 역량은 전공 분야 관련 지식과 기술(13)이고, 다음으로 대인관계 역량(8), 자기 관리 역량(6), 자원, 정보, 기술의 활용 역량(6), 글로벌 역량(5) 순이었다. 편입생들은 전공 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에서 가장 많이 성장했고,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및 진로에 대한 준비 등도 향상 정도가 컸다. 다른 역량들도 의미 있게 나아졌다고 보았으나 외국어 구사능력, 글로벌 역량, 의사소통 역량 등이 상대적으로 덜 개발되었다고 보았다. 대체로 편입생들의 경우 대부분의 영역에서 긍정적

32) F대학의 성과(역량변화)에 대한 관련 전체 항목 분석 결과는 〈부록 표 33〉에 제시함.

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표 Ⅲ-22〉 학생들의 역량 발달: F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항목	기대역량 (명)	입학전 역량 (평균)	현재 역량 (평균)	역량변화정도 (평균)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2	4.36	7.00	2.63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13	4.74	8.26	3.52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6	5.27	7.43	2.29
대인관계 역량	8	6.00	8.39	2.39
의사소통 역량	3	2.50	1.69	1.91
글로벌 역량	5	4.30	5.83	1.52

(2) 계속학습 요구

편입생들은 대학을 졸업 후 다시 대학에 진학한다면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오프라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을 더 선호했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을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충족시키려는 욕구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본다. 계속교육의 동기(학위와 재취업 기회 탐색)는 편입 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도 대체로 실용적인 분야(마케팅, 부동산, 경영학, 법학, 정보 보호 등)를 선호했다. 한편, 편입생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제도적 지원들로는 장학금, 해외 학업 지원, 학업 적응 지원 등이었다.

(3) 기타 교육성과

편입생들의 교육성과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연계 편입생의 평균 재학 기간과 중도이탈률 등을 분석하였다. 이는 사이버대학 편입생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수학 연한이 더 길지 않은지, 편입한 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함이다.

먼저 F대학에 요청하여 조사한 자료 결과에 따르면 편입생들의 평균 재학 기간을 보면 지난 5년(2010~2014) 동안 편입한 학생 6,039명 가운데 57%(3,436명)가 편입 후 2년 만

에 졸업을 했고, 35%의 학생은 3년(2,087명), 나머지 9%(516명)는 졸업까지 4년 이상 소요되었다(〈부록 표 34〉 참조).

연계 편입생의 중도이탈률은 지난 4년(2010~2013) 평균 약 10%였는데, 2011년에 15%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대체로 10%이내를 유지했다. 이러한 중도이탈률은 고등학교졸업 후 바로 진학한 학생들에 비해서 많이 낮은 수준이다(〈부록 표35〉 참조).

다. 학사 연계형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1) E대학교

가) 학과 차원

연계 편입과정은 학과의 필요에 따라 배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생을 선발하는데, 연계 편입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과에서는 대학과 전문대학 해당 학과에서 상호 인정하는 과목들(12학점 인정)을 정하고,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교육과정 공동 개발, 교수학습 자료 공동 개발, 실험 실습 기자재 공동 사용, 교원 학생 상호교류 연계 연구 각종 대회 지원, 연계교육위원회 등)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편입생이 선발되면 학과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교수들에게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편입생들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편입생들은 수업내용과 교수학습 방식에서 전문대학과 큰 차이를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나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학과 수업이나 모임 등에서 교수나 동료학생들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통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대학생활의 중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소외감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었다.

나) 대학 차원

E대학교의 많은 학과에서 연계 편입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계 편입생의 등록률과 교육성과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연계 편입생들은 4년제 대학과는 다른 교육환경에서 생활하다가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 간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대학 본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편입생들의 학교 적응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편입생들도 대학에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얻고 대학 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취업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며 학습 지원 시설과 서비스 등에 만족하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학업과 동아리 활동 등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교육비용 측면에서도 전문대학과 대학의 등록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이 더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규모가 더 큰 대학에 다니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나 동료 학생들과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대학생활을 하는 편입생들이 적지 않다. 대학 차원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어려움이 한편에서는 학업능력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수적으로 많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2) F대학교

가) 학과 차원

사이버대학의 편입생들은 전통적인 학습자라기보다는 소비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전공분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및 지원에서 이들이 원하는 바를 조사 분석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즉, 수업 내용이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실무적이도록 하고 질 관리를 위한 시험제도를 도입하며 온라인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1:1처럼 느끼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교육과 지원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비전통적 연령의 학생들이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면대면의 상호작용 없이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나) 대학 차원

사이버교육을 통한 재교육은 편입생들의 성장과 교육성과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재취업 기회를 탐색하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학 본부 차원에서도 사이버 교육의 특성상 전통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재취업이나 재교육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 선발에서 비전통적인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얻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방적이면서 효과적인 제도를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 학과의 신설, 폐과, 통합 등도 학생들과 시장의 요구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교육내용의 적합성과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 제도와 교수 강의 평가 제도 등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학생들이 복잡한 학업 계획을 쉽게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사례대학은 전통적인 학생들보다는 비전통적인 연령의 편입생들이 보다 잘 적응하고 교육적 성취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례대학에서 학생들이 불만족스러워 하는 부분은 사이버 교육만으로 대학교육이 이루어지는데서 오는 문제들로서, 오프라인 교육으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기술의 발전과 재정적 자원이 보다 많아져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국가 연계형

가. G대학교와 H대학교

1) 대학 개요 및 유학생 현황[33]

G대학교는 1960년에 설립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으로, 현재 8개 대학, 26개학과로 운영되고 있다. G대학에서 제공한 교무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월 1일 기준 전체 학생 수는 11,516명이다. 외국인 학생 수는 학부 118명, 일반대학원 93명, 전문대학원 137명, 특수대학원 1명으로 총 340명이다. G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랑스러운 대학”이라

33) G, H대학의 제공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기술함.

는 비전과 “지구촌 캠퍼스” 구축이라는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수 국내 학생만이 아닌 우수 외국인 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글로벌 캠퍼스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대내외 글로벌 교육환경 변화 즉, 전 세계적인 유학생 이동(student mobility) 증가와 교육부의 Study Korea 2020 프로젝트 및 이와 관련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환경 변화, 국내외 외국인 유학생 평가 관련 국제화 지표 개선 요구 등의 변화에 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한편, H대학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학은 1994년 개교한 지방 소재 대학으로, 철도물류대학, 디지털미디어대학, 서비스융합대학, 보건복지대학, 국제경영대학, 호텔외식대학 등의 6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입생 2,200여명을 매년 모집하고 있다. 이 대학은 “1년 4학기제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자”는 기치를 내걸고, “아시아 최고의 특성화 대학”이라는 2020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GPS’라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외국어 집중 교육, 한·중·일 해외 공동교육체, 해외 자매 대학과의 인적, 정보 교류를 통한 ‘국제화(Globalization)’ 전략이다. 둘째, 전략적 산학협력, 기업체 맞춤형 교육 등의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산학협력(Partnership)’ 전략이다. 셋째, 아시아지역 서비스 산업 특화, 1년 4학기제 등의 ‘특성화(Specialization)’ 전략이다. 아시아 시대에 대비한 아시아 인재 양성이라는 전략적 교육 목표를 위하여 아시아권 유학생 유치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H대학교는 지리적 여건과 지명도에서 열세인 지방 대학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학생 캠퍼스 생활 만족도 극대화 전략을 추진하는 특징이 있다.

〈표 Ⅲ-23〉 G대학교와 H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증감 추이(명, %)

연도		2009				2010				2011			
대학교		G대학		H대학		G대학		H대학		G대학		H대학	
학생(명)		96		1,203		121		1,219		123		1,060	
여	남	45 (46.9)	51 (53.1)	626 (52.0)	577 (48.0)	64 (52.9)	57 (47.1)	611 (50.1)	608 (49.9)	66 (53.7)	57 (46.3)	560 (52.8)	500 (47.2)
증감률 (전년대비)						20.70%		1.30%		1.60%		−13.00%	
연도		2012				2013				2014			
대학교		G대학		H대학		G대학		H대학		G대학		H대학	
학생(명)		144		925		142		772		118		764	
여	남	78 (54.2)	66 (45.8)	487 (52.6)	438 (47.4)	79 (55.6)	63(44.4)	421 (54.5)	351 (45.5)	64 (54.2)	54 (45.8)	423 (55.3)	341 (44.7)
증감률 (전년대비)		14.60%		−12.70%		−1.40%		−16.50%		−20.30%		−1.00%	

G대학교 집계에 의하면 2009년 외국인 유학생은 96명이었고, 2012년까지 연간 11.1% 꾸준히 증가하다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118명이 되었다. 2009년 H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1,203명을 기록하였다(〈표 Ⅲ-23〉 참조). 2010년 외국인 유학생은 전년 대비 1.3% 소폭으로 증가하여 1,219명을 기록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도에는 764명에 도달하였다. 두 학교 모두 외국인 학생이 초반에 증가하다 2012~2013년을 기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G·H대학교 모두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H대학교에서 제공한 이하의 관련 내부자료에 의하면 G대학교의 연령별 분포는 2014년에 24세 이하 (65.2%), 25세~30세(31.4%), 31세~40세(3.4%) 순으로 30세 이하가 96.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H대학교는 24세 이하가 대부분으로 평균적으로 96.7%를 차지한다. 외국인 학생의 출신 국가 및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G대학교의 경우 2014년 아시아 출신 학생이 80.5%이고 그 중 중국 학생은 36.4%이다. 전반적으로 북미 출신 유학생이 감소하면서 유럽·아프리

카 출신 유학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유학생 유치 다변화 현상을 보여준다. 반면에 H 대학교는 2014년 아시아 출신 학생이 96.8%이고 그 중 중국 학생이 80.5%이다, 베트남, 몽골 등 다른 아시아지역 유학생이 증가하여 아시아 국가 내에서 유치국가 다변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지만 오세아니아 출신 유학생은 전무하다. 북미·유럽 출신 유학생 수는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2) 대학의 문제 인식 및 요구 분석

가) 대학의 입학생 모집 및 선발

G대학교의 주요한 관심사는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보다는 우수한 학생의 '선발'에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유학생 선발 전담 조직인 입학팀과 선발 지원조직인 국제팀, 한국어교육원 등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선발 전략 수립 및 선발 과정에 있어서 학생의 한국어 능력, 학습능력, 기타 학부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습 능력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선발 하고 있다([부록 그림 3] 참조).

> "... 그러니까 이게 항상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하다보면, 딜레마가 항상 있습니다. 이게 다수의 학생을 유치할 것이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것이냐. 다수 쪽에 비중을 두다 보면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어떤 그 수업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연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우수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풀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초점은 그래도 우수쪽에. 왜냐면 우수한 학생 뽑지 않으면 학생들이 학업과정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픽의 경우, 4급이라고 교육부에서 (기준을) 정했는데, 위에서 기준을 내렸잖아요. 지금은 2급까지도 하도록 해놨지만, 사실상 4급, 5급을 데려와도 학업단련과정을 한국어만 가지고 한다면 따라오기 어렵거든요." (G대학, 국제팀 팀장)

'선발'보다는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H 대학의 경우, 입학 자격 기준 완화와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또한, 해외 대학 교류와 해외 IT센터 건립 등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일정 수의 유학생을 안정적으로 유치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본교는 러시아, 월남, 파키스탄 등의 해외 유학생 유치국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국 유학생 유치에 상당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교류하고 있는 중국 학교기관은 S대학교, M예술대학교, A의대학원, W대학교 등의 총 171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현지 대학과의 선발 기준을 공유하고 있어 학업에 뜻을 둔 학생만을 선발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교에 진학한 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탈자가 거의 없습니다." (H대학, 글로벌 자유전공학부 학과장)

나) 교육과정 및 학사 지원

G·H대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사 및 학적 관리, 학습 지원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1) 학사 및 학적 관리

G대학교는 엄정한 학사과정 이수 및 학생 관리를 위해서 지정 좌석제와 FA제도를 학칙 시행세칙에 명시하여 내·외국인 구분 없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 출결관리 시스템 운영과 확장 수업 계획서를 전면 시행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이행하고 있다.

"... 뭐 FA제도라고 혹시 아시나요? 몇 번 이상 빠지면 아예 학점을 안 줘버려요. 과목낙제입니다. 이런 것, 엄격한 학사관리제도에, 그러니까 보통 뽑아놓고 학사관리 별로 안 하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G대학, 국제팀 팀장)

H대학교의 경우, 학사 및 학적 관리 서비스는 유학 지원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유학생 관련 학사 업무 중 장학금 관련 지원 업무는 유학지원실 학사 업무 담당 직원이 맡고 있으며 학생의 수강 신청 및 졸업 관련 업무는 교무 업무 담당 직원이 돕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의 각종 비자 업무, 학사 업무 등에 중요한 정보를 입학 첫 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학생들이 3회 이상 결석할 경우, 학과장은 유학생 지원실에 통보하게 되며, 유학생 지원실 직원이 학생과 직접 면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학습 지원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

(가) 학습 지원 프로그램

G대학교는 유학생의 조기 학업과정 적응 및 지속적인 이수를 위하여 글로벌 튜터링, 글쓰기 센터 튜터링, 평생 지도교수제도, 학사 지도 전담 교수 및 전인 지도교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과목 멘토링은 전공 학부생과 유학생을 연결하여 유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체계적인 멘토링 형태를 통해 유학생들의 수강 과목, 성적 관리, 학교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우리학교에 교수학습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과목 멘토링을 해요.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일단 멘토, 멘티의 리스트를 쭉 뽑구요, 신청을 받습니다. 과목 멘토링이 필요한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여기를 오면 외국인 학생들이 뭐가 필요해요, 무슨 과목 필요해요 하죠. 그러면 이제 멘티의 리스트에 의해서 멘토를 이제 모집을 합니다. 다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매칭을 다 시켜주죠. 그런데 멘토의 자격이 뭐냐면 3, 4학년 이상 학생으로서 그 과목에 A학점 이상 받은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그 전 학기나 그 이전에. 이제 그 학생들 대상으로 1대1로 매칭을 해줘가지고 서로 오리엔테이션 해주고, 뭐 직접 만나서,..." (G대학, 국제팀 팀장)

H대학교의 경우, 학과의 인턴 조교와 유학생 지원실 직원을 통하여 유학생의 수강신청을 돕고, 유학생을 위한 지도교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도교수제는 학업, 학교생활, 졸업 후 진로 등을 지도한다. 또한 유학생의 모국어에 해당하는 전공별 사전을 개발·배포하여 원활한 전공수업의 진행과 전공학습능력 향상을 계획하여 준비하고 있다. 유학지원실에서는 수업 부적응자인 유학생의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해 유학생 지원실 실장이 참여하는 특별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 "외국인 유학생들에게서 발견 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은 학업에 큰 흥미가 없으나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 유학을 선택하여 전공 수업 등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유학생 스스로가 방황하여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향후 졸업 등에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교에서는 학점 2.75 미만인 학생은 필수적으로 유학생지원팀 실장과 면담을 진행해야 하며 학생을 개별적으로 관리하여 각 학과의 지도교수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H대학, 글로벌 자유전공학부 학과장)

(나) 생활 지원 프로그램

G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의 조기 유학생활 적응 및 정착 유도와 안정적인 유학생활 영위를 위해서 국제팀을 통해 학교의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 지원 동아리를 통해 유학생들의 생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생 지원단(Student Supporters for International Affair: SSIA) 제도를 시행하여 유학생들에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수강신청 지원, 교내 관련시설 투어, 학교 주변 근린시설 동반 투어, 서울 시티투어, 영화 및 스포츠 관람 등을 제공하고 있다(〈부록 표 36〉 참조).

한편, H대학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는 유학생을 위한 다문화 개인/집단상담, 다문화 학생위기상담, 다문화 학생 심리검사, 다문화 민감성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H대학은 외국학생들을 위한 생활적응지원 서비스는 유학생 지원실의 학사업무 담당 직원이 유학생들의 학생회 및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의 인터십 및 아르바이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 유학생들의 적응력 제고를 위해 한국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유학생과 한국 학생을 1:1로 연결하는 솔메이트 프로그램 활성화, 사회봉사(멘토링) 활성화, 유학생 지원팀 웹사이트를 통한 소통 강화, 미니홈피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 향후 과제 인식 및 제도 건의 사항

G대학교 관계자는 교육부의 대형 대학 위주의 정책과 양적인 결과물에 의한 대학 서열화 때문에 G대학교의 미래는 밝지가 않다고 전망했다. 다시 말해, 장기적 관점에서 G대학교는 미래에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중소형대학인 G대학교는 학부교육 중심의 특성화대학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학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미래의 어두운 전망을 극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10년 후에도 교육부가 이런 정책을 계속 피면 저희 대학교가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작지만 강한 특성있는 대학이라는 말을 저희는 많이 염두에 두었는데, 점차 정부는 크고 강한 대학들을 모델로 사실 대형 대학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죠, 지원 자체가... 이게 대형화되면 아웃풋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 의대가 있으면 아웃풋이 더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아웃풋 위주로 이제, 그 아웃풋도 양적인 아웃풋을 가지고 자꾸 이제 지원을 하니까 저희는 양적인 아웃풋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G대학, 국제팀 팀장).

G대학이 제안하는 제도 건의사항은, 첫째,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대학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 상, 대학의 미션과 비전에 따라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대학별 특성에 따른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 교육부에서 인증제 등을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학의 정책을 유도하고 있으나, 일괄적인 지표 적용보다는 보다 세분화된 지표를 마련하여 대학별 특성에 맞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적 차원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Study Korea 2020 프로젝트를 통하여 교육부에서는 법무부, 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고등교육분야에 있어서 정책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환경을 적극 개선해나가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핵심이 되는 학사과정 개선 및 장학금 재원 마련, 기숙사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미미하다. 따라서 향후 각 대학의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핵심 요소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H대학교의 관계자에 의하면, 10년 후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H대학교의 특성화전략 때문에 밝은 미래를 기대하였다.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H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 유학생들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고객으로 인식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맞춤형 전공 수업을 진행하거나 혹은 생활 방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기숙사 확충, 식당 개선, 각종 민원 원스톱 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우리의 고유문화 혹은 장점이 되는 우수한 민족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체계화된 '외국인 상대 교양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단지 한류에 흥미를 가지고 유학을 오는 것에는 향후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기에, 한국에 유학을 오면 우수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신 한류 콘텐츠'를 대학과 국가가 함께 준비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것이 '흥문화(興文化)' 혹은 '최첨단 디지털 문화'든 아니면 '효문화(孝文化)'든 간에 인류보편성과 한국만의 특수성이 고려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외국인 교양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학생의 문제인식 및 요구분석

가) 입학

(1) 대학교육에 대한 동기 및 기대

본 면담 조사의 분석 결과, G대학교에 입학한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 입학 동기는 (1) 한국 학위를 통한 사회적 지위의 상승, (2)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학의 위계화 환경 속에서 한국의 우수한 교육체계를 통해 좋은 취업과 직업에 대한 개인적 기대와 열망을 유학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유학을 결정하는 또 다른 동기로 작용했다. G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이 학교가 갖고 있는 국제적 인지도와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경영학과와 컴퓨터 공학에 대한 명성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본 면담 조사의 분석 결과, G대학과 H대학의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유학 동기는 응답자의 90%이상이 한국 문화와 한국어 학습이라고 대답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유학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여 교육적 진로개발과 더 좋은 직업을 얻는 기회로 삼고자 하며 많은 학생들이 유학 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보여 주고 있었다. H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지인의 소개, 졸업생의 권유, 특정 학과의 인지도, 중국대학과의 연계, 학교 간 교류 프로그램, 경제적 이유, 좋은 유학생 지원체계 등 다양했다.

> “외국유학은 제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중국에는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한국노래를 들으면서 한국문화와 아름다운 경치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국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H대학, #11 학생)

(2) 대학 입학 과정 전반의 애로 사항

두 대학의 유학생들에게 유학 지원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입학에 필요한 서류 준비, 유학 관련 정보의 부족, 부족한 한국어 실력 및 시험, 등록금·생활비 등의 경제적 여건 등이었다.

"대학에 입학을 결정하고 나서 전공을 선택할 때 전공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보거나 개설과목을 보면서 결정해야 됐기에 정보가 부족했고 전공을 이수하고 나서 직업관련 사안에 대해 알기 어려웠다." (G대학, #14 학생)

"대학에 지원했을 때 서류 준비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서류를 필요한지 알려주지만 특수 상황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학하기 전에 관심이 많은 분야의 정보를 못 얻었습니다. 장학금제도, 교육과정 등 충분히 알 수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H대학, #12 학생)

나) 과정

(1) 교육과정[34)]

한국 대학에 유학 온 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일 것이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함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G대학교는 응답자 16명 전원이, H대학교는 응답자 27명 가운데 21명이 '한국어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어 강의'가 갖는 유용성 정도는 G대학교와 H대학교 응답자들은 각각 3.63과 4.64이라고 대답했다. G대학교의 경우는 한국어가 일정 수준인 학생이 입학하여 한국어 강의의 유용성이 낮은 반면, H대학교는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다수여서 한국어 강의의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G대학교에서 경험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교육 및 학습지원시설', '한국어 강의 수강', '외국어 강의 수강', 그리고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 순으로 유용성은 각각 4.06, 3.63, 3.73, 3.38로 평균 이상이었다. 특히, 교육 및 학습지원시설의 유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H대학교는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 '한국어 강의', '교육 및 학습 지원 시설',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이 경험 빈도가 높고 유용성은 각각 4.08, 4.64, 4.38, 4.62로 높은 편이다. G대학교의 경우, 경험 빈도가 낮은 것은 '외국대학과의 복수 학위제', '교환 학생 프로그램', '대학의 복수전공제' 등으로 외국 학생을 위한 외국대학과의 체계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대학교의 경우,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이 적은데 비해 대부분의 항목의 경험 빈도가 높아서 대학 차원의 외국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제기한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G대학교는 영어강의 확대 및 개선, 취업 및 유학생 관련 상담, 실용성 있는 지식 전달, 불편한 수강 신청 시스템,

34) G대학 및 H대학의 교육과정 관련 전체 항목 분석 결과는 〈부록 표 37〉에 제시함.

교수님의 수업 준비 부족 등이었고, H대학교는 실용적이고 실습 중심의 수업, 교수와의 더 많은 소통 시간, 학생 의견 적극 반영, 교수들의 일방적인 수업 방식, 취업 관련 내용 강화 등이 있었다.

"영어 강의가 더 많이 생기고, 특히 필수 강의가 영어 강의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G대학, #7 학생)

"학교에 외국인 대상으로 취업특강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G대학, #6 학생)

"시험보기 보다는 전공에 대한 연습이나 실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대학, #2 학생)

"교육과정 중에서 학생과 교수님 간에 소통할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H대학, #5 학생)

〈표 Ⅲ-24〉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의 활용과 유용성: G대학교 및 H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항목	G대학				H대학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	13	3.38	2	0	21	4.08	3	2
대학의 복수전공제	3	4.00	2	1	13	3.90	1	1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1	1.00	0	1	12	3.94	1	1
교환학생 프로그램	2	2.00	0	0	9	4.33	1	0
외국어 강의 수강	15	3.73	3	2	20	4.40	3	0
한국어 강의 수강	16	3.63	1	3	21	4.64	8	1
교육 및 학습지원시설	16	4.06	0	0	21	4.38	5	0
(13)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12	4.50	3	0	21	4.62	5	0

(2) 교수학습[35)]

〈표 Ⅲ-24〉는 G·H대학교의 유학생 각 16명, 27명의 교수학습 방법을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교수학습은 강의·토의 중심의 수업을 기본으로 인터넷과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등 학습 활동의 다양성을 보여 주고 있다. G대학교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 준비',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 관련 자료 공유', '수업에서의 질문이나 토론 활동', '다양한 학습 매체의 활용' 등에서 유용성이 높게 나타나 정보검색 및 의견 교환 활동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대학 온라인 강의',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상호작용 중심의 쌍방향', '수업과 관련한 외부 콘텐츠 활용과 공유의 유용성은 각각 2.43, 3.25, 및 3.25로 보통보다 약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닝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대학교의 경우, 가장 도움이 된 것이 '수업에서의 질문이나 토론 활동'으로, 수동적 학습 형태가 아닌 학생과 교수 간 활발한 교수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는 유학생들은 '강의 중심의 수업'을 꼽았다.

〈표 Ⅲ-25〉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과 유용성: G대학교 및 H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항목	G대학				H대학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대학 온라인 강의	7	2.43	1	2	12	3.83	0	0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 준비	11	4.18	3	0	14	4.00	1	1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관련 자료 공유	16	4.14	4	0	17	4.05	2	0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 상호작용 중심의 쌍방향 수업(MOODLE)	9	3.25	0	1	8	3.94	0	1
수업에서의 질문이나 토론활동	13	4.08	1	2	22	4.38	10	1
수업과 관련한 외부 콘텐츠 활용과 공유	10	3.25	0	0	15	3.80	2	0
다양한 학습 매체의 활용	16	4.07	2	0	22	4.26	4	0
강의 중심 수업	12	3.36	0	1	20	3.64	2	5
프로젝트 중심 수업	12	3.45	2	1	19	3.74	4	4

35) G대학 및 H대학의 교수학습 관련 전체 항목 분석 결과는 〈부록 표 38〉에 제시함.

G대학과 H대학의 심층면담 결과, 교수학습 및 방법과 관련된 개선점으로는 공급자(교수) 측면에서 수요자(학생) 중심으로, 이론보다는 사례 및 현장 중심의 실용적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수와의 피드백, 재미있는 수업, 인터넷 강의, 교재의 통일성, 다양한 학습 매체 활용, 암기 위주의 교육 시스템 탈피. 실용적인 내용, 더 많은 실습 경험 등이다.

> "대학의 교수학습 및 방법과 관련하여 바뀌어야 하는 부분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재 가르치는 방법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항상 교수님들이 그냥 강의실에 들어가서 칠판의 앞에 서 있고 이것저것 설명하고 벨소리가 들리면 수업을 끝냅니다." (G대학, #3 학생)

> "저는 교수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더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론만 배워서 왜 이건 공부해야 되는지 가끔 질문이 떠올라요. 저는 현재 인턴하고 있는 중인데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5% 밖에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H대학, #11 학생)

(3) 교육 지원

유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언어와 문화적 차이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사소통의 장애로 강의를 듣는 것이 어렵고, 교수와 한국인 학생들과도 원활한 소통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대답했다. 언어문제 외에도 G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이 갖는 불편함은 암기식 위주의 수업과 시험, 한국식 위계적 선후배 관계, 인종차별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학생을 위한 지원서비스는 대체적으로 만족하지만, 강의가 일방적이고 지루한 수업방식으로 이루어져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외국인 학생만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을 원했다. H대학교 학생들은 H대학교가 제공하는 강의, 교육시설, 상담 및 심리 서비스, 장학금, 아르바이트 등전반적인 교육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고, 언어 문제로 인한 수업준비 및 수업 참여의 한계, 한국 음식 적응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었다.

> "한국 문화가 이해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너무 closed- minded 또 학생들이 너무 group oriented이고, 서양 사람들 말고 다른 아시아 사람들을 racism 인종차별하고 또 사람의 외모, background에 따라 차별 많이 합니다." (G대학, #8 학생)

"장학금 : 언어적 문제로 인해 장학제도가 따로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면 더욱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G대학, #13 학생)

"적응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한국어입니다. 생활용어는 괜찮지만 전공용어가 어렵습니다." (H대학, #9 학생)

"한국의 대학에서 교수님들은 지식이 아주 깊고 넓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의 교류는 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학생들은 사회적 실천에 관한 수업이나 활동이 없습니다. 대학교는 학생들의 자기 개발 쪽에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H대학, #12 학생)

다) 성과

(1) 학생 역량 발달[36)]

〈표 Ⅲ-26〉은 외국인 학생이 인식하는 학습 성과의 결과이다. G대학교의 학생들은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의사소통 역량', '종합적 사고력'을 가장 중요한 학습 성과 항목으로 대답하였고, '한국어 구사능력',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대인관계 역량', '자기 관리 역량' 등을 그 다음으로 들었다. 이 대학 학생들은 대학의 기능으로 일반 핵심 능력보다는 전공 기반 능력의 향상을 더 중시하고 있었다. 10점 만점 기준으로 역량의 정도를 입학 전과 비교해 볼 때, 학습 성과의 발전 정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전공 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한국에 대한 이해', '자원·정보·기술의 활용 역량' 순이었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는 중요도에 비해 향상도는 높은 편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과 한국인과의 교류가 기본 소양의 능력 배양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H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어 구사 능력',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이고, 그 뒤를 이어 '의사소통 역량', '한국에 대한 이해', '종합적 사고력', '글로벌 역량' 등이었다. 역량의 향상 정도를 살펴보면, '한국에 대한 이해', '한국어 구사 능력', '진로에 대한 준비', '전공 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H대학교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기본 소양으로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뿐만 아니

36) G대학 및 H대학의 성과(역량변화)에 대한 관련 전체 항목 분석 결과는 〈부록 표 39〉에 제시함.

라 특성화 교육 목표에 의거하여 직업 교육 및 진로 상담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성취하게 될 학습 성과 수준을 비교하면, G대학교는 기초 단계를 넘어서서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한 심화 단계 내지 응용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고, H대학교는 기초 단계와 심화 단계의 혼합적인 형태에 도달했다고 구분할 수 있다.

〈표 Ⅲ-26〉 학생들의 역량 발달: G대학교 및 H대학교 학생 응답 결과

항목	G대학				H대학			
	기대 역량 (명)	입학전 역량 (평균)	현재 역량 (평균)	역량 변화 정도 (평균)	기대 역량 (명)	입학전 역량 (평균)	현재 역량 (평균)	역량 변화 정도 (평균)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2	4.36	7.00	2.63	2	4.36	7.00	2.63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13	4.74	8.26	3.52	13	4.74	8.26	3.52
한국어 구사 능력	6	5.27	7.43	2.29	6	5.27	7.43	2.29
종합적 사고력	8	6.00	8.39	2.39	8	6.00	8.39	2.39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3	2.50	1.69	1.91	3	2.50	1.69	1.91
대인관계 역량	5	4.30	5.83	1.52	5	4.30	5.83	1.52
의사소통 역량	8	5.94	6.94	1.0	7	4.41	7.15	2.74
자기관리 역량	3	5.69	6.31	0.62	4	4.63	7.04	2.41
글로벌 역량	2	5.63	7.19	1.56	5	4.19	7.23	3.08
진로에 대한 준비	2	4.50	5.19	0.69	4	3.26	6.74	3.48
한국에 대한 이해	2	4.00	6.44	2.44	7	3.22	7.48	4.26

(2) 계속학습 요구

G대학교 유학생의 서면면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학사 학위 취득 후 56.3%가 일반대학을, 37.5%는 전문대학을, 6.3%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 한다. 진학하고 싶은 이유는 학위취득과 전문적인 지식의 획득을 통하여 구직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는 것이었고, 적성에 맞는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특히, 배우고 싶은 분야는 언어, 컴퓨터, 의대, MBA 등과 같은 좀 더 실용적인 분야로서 졸업 후 취직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획득하기를 원했다.

H대학교의 경우에는, 응답자 중 졸업 후 진학하고 싶은 대학 유형은 일반대학 (47.8%), 전문대학 (43.5%), 사이버대학(8.7%) 순이었다. 진학이유는 전공 지식, 취업 준비, 종합적 사고력, 글로벌 역량,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제2 외국어, 컴퓨터 활용 등 다양하다.

> "우리나라에서 친구들에게 들어보니까 전문대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다른 졸업생들보다 직장을 쉽게 얻었습니다." (G대학, #3 학생)

> "한국의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화장품과 향수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G대학, #4 학생)

> "예상되는 진학 이유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중국에서 취업은 너무 힘듭니다. 학위는 높을수록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사 졸업한 후에 석사를 진학하고 싶습니다." (H대학, #11 학생)

나. 국가 연계형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1) 대학(단과대/학과) 차원

외국인 학생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학업 도전이나 수업에 대한 능동적 참여가 쉽지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수 및 같은 과의 한국인 학생들과 상호작용 등의 인간적 관계가 취약하였다. 유학생들은 학과, 교수, 학생의 관계에 일정한 거리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심한 경우, 유학생과 국내학생 간의 괴리 및 갈등, 유학생과 담당지도교수 간의 인간관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외국인 학생이 많은 학과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이 적은 학과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유학생이 많든 적든 간에 유학생을 위한 학과차원의 배려와 학과 조교의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외국인 학생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수 및 학생 대상 워크숍을 지원하거나, 외국인 학생과 교수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많은 유학생들이 교수들에게서 수업내용과 관련된 피드백, 유학생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수업방식, 질문과 토론이 있는 쌍방향 수업,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교수법, 이론 중심이 아닌 실습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배우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대

학은 교수들의 일방적인 수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외국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교수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심이 있는 최신 매체를 활용한 교수법과 외국인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2) 대학(본부) 차원

외국인 학생들이 대학 차원에서 지원되기를 바라는 부분은 기숙사 환경개선, 장학금 확대, 학비 감면, 동아리 지원, 인터넷 강의 증설, 의무실 신설 및 체육시설 이용시간 등과 같은 생활 지원 시설 및 서비스 확대이다. 이 중 기숙사와 장학금과 관련된 요구가 가장 높았는데, 비싼 기숙사비, 한국 학생 중심의 식단, 학기제 운영에 따른 불편, 공평한 장학금 지급, 외국인 전형 장학금 신설의 필요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불만들은 외국인 학생 수용 환경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숙사 문제는 유학 장소인 한국의 문화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대학이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외국인 학생을 고려하는 기숙사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자비 유학생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을 고취시키고 공평한 장학금 혜택을 위한 학교 차원의 장학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G·H 대학교 모두 대학 본부 차원의 외국인 학생 전담 부서가 있고 다양한 노력 또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생 수용을 위한 환경 정비가 필요한 것은 대학 본부 차원의 외국인 학생을 위한 개선과 정책이 교직원, 학생 등의 대학 전체의 공동체 차원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3) 법/제도적 차원

유학생에 대한 정책이 유학생 유치에만 초점을 가졌던 것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졸업 후 취업 등 사후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고, 유학생 유치의 국내 및 국외 대학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투자 및 제도 개선(기숙사 확충, 장학금 지원 등)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유학생들의 취업 지원이 부족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취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거나 취업연계 장학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유학생들과 지속적인 연계 활동을 하는 사후 관리(follow-up) 프로그램을 잘 구축하고 있다. 한국 대학도 이처럼 사후 관리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학 간 외국인 학생에 대한 유치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교류하는 상호 협력적인 체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대학 간 경험의 공유와 확산을 높일 수 있는 포럼이나 지속적인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시스템 제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대한 우수 모델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교류가 가능해지도록, 재정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외국인 학생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거나 한국 대학들의 성공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모범사례를 배우는 워크숍 및 교류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의 운영 리더십과 핵심 직원들의 외국인 학생에 관한 문제 인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대학의 관련 행정가 및 주요 교원들을 위한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6. 진학 유형 간 비교 분석: 차이점과 공통적 과제

가. 유형 간 차이점

이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4개의 진학 유형은 엄밀하게 말하면 비교 가능한 대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우선 고교-대학 직선형은 대학 구성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데 반해, 나머지 세 유형의 구성원은 소수 그룹으로, 이들 네 유형은 서로 다른 규모와 수준이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네 개의 유형을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이러한 규모와 수준 간 차이를 인식한 후에 각각이 보여주는 문제 인식과 요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간 연계형, 즉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문제는 국적과 사회 문화적 배경, 교육제도와 학습경험, 유학의 목적, 그리고 학업과 한국어 수준 등이 매우 다양한 구성원들이어서 앞의 세 유형과는 또 다른 차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네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는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유형

간 차별성을 전제한 위에 각 유형별 내용을 종합적으로 비교·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유형별로 학생과 대학 관계자의 문제 인식과 요구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Ⅲ-27〉와 같다.

〈표 Ⅲ-27〉 진학 유형별 대학 관계자 및 학생의 대학 교육운영에 대한 문제 인식 및 요구

구분		투입 / 접근	과정 및 지원 / 학습경험
고교 대학 직선	대학	○입학자원 다양화 -학업능력 격차 -학생배경 다양화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교수학습지원부서 강화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학생	○입학정보 부족 -전공결정 어려움	○ 다양함과 소통의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교육 경험 -교수와의 긴밀하고 즉각적인 상호작용 -튜터링, 교환학생, 개별지도 등의 확대 -전 과정의 보충과 심화 프로그램 운영
경력 연계	대학	○입학자원 제한 ○선발조건의 규제 (특성화고졸자로 제한, 입학 후 재직조건 유지 등 경직된 조건) →일반고졸자로의 확대, 선발 조건 규정 완화 필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필요
	학생	○접근기회의 제한 -재직 조건 등 선발조건의 제한 (재직 조건 등) -지역의 접근성 문제	○ 개방과 배려의 교육과정 운영 -일반 학생과 구별 없는 학사운영(시설, 교육과정, 교수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온/오프 융합의 교육과정 운영(일-학습 병행의 제약 대응) -산학협력체제 필요
학사 연계	대학	○특화된 진학경로, 기준 마련 -연계 편입 -학업계획서 중심 선발	○특화된 교육과정의 필요 -학업지원 프로그램 -실용적 교육과정
	학생	○배움과 학습을 위한 도전 -편입 연계과정 필요	○교육프로그램의 개방 -구별 없는 학사 운영 -일반학생과의 교류 기회 확대 ○교수, 동료학생과의 소통에 대한 요구 -관계 중심 교육과정과 인적네트워크 필요
국가 연계	대학	○유학생 선발 정책 자율화	○유학생을 위한 학업 및 생활 지원의 중요성
	학생	○입학조건의 완화 (한국어 능력 등)	○상호 이해와 교류의 교육과정 운영 -한국인 학생과의 교류 기회 확대(수업, 멘토링제 등) -유학생의 요구 분석에 기초한 맞춤형 교육 -주입식, 강의중심 교육에서 토론식,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의 변화 필요

먼저 네 유형 간 차이점에 주목하여 보면, 고교-대학 직선형 학생들은 교육과정 운영면에서의 다양한 운영, 학생 맞춤형에 대한 요구, 교수와의 소통과 피드백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편 학생들의 관심과 수준이 다양하고 기대나 요구, 각자마다 경험하는 내용이나 요구 사항이 달라서 한두 가지로 수렴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에 대한 대응이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접근되어야함을 시사한다. 여기에 ICT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학업 패턴과 소통의 방법, 흥미의 범위가 달라진 학습자들에 맞는 ICT 등 다양한 학습 매체의 활용, 온-오프라인 상의 상호작용적 교수학습방법, 학습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온-오프라인의 강의, 교양과 전공의 재구조화 등등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력형이나 학사형은 목적이나 상황 등이 비교적 동질적인 소집단이어서 직선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일반학생과의 차별성 없는 학사 운영, 일반학생과의 교류, 교수와의 교류를 중요한 문제로 제시하였다. 경력형 학생들이 지적하는 학비 부담 문제는 일반학생과 차별적인 대우에도 불구하고 동액의 등록금을 내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력형은 조사대상자가 재직자 전형의 학생들이어서 자격 조건의 완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상황에서의 요구, 즉 직장으로부터의 접근성, 공간의 제약 없는 온-오프 융합의 수업 방식, 직장의 이해, 주말 수업 운영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학생과의 교류가 없이 별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에 대해 차별과 소외 문제를 제기하고, 일반학생과 차별 없는 수업이나 교육환경을 요구하였다. 학사 연계형 학생도 이전 이수한 수업에 대한 인증 요구와 이에 따른 학비 경감, 이전 학생과 융화되지 못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소외감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소수 그룹이라는 점에서는 앞의 경력형, 학사형과 유사성을 갖지만, 유학생이라는 특성에서 오는 차이점도 나타나고 있다. 모국에 따라 교육제도가 다르고, 유학의 목적이나 배경, 학력 수준, 한국어 수준도 다양해서 앞의 세 유형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전공의 심화나 대학원 진학이 목적인 학생, 전문기술 습득이나 취업이 목적인 학생, 한국문화이해나 한국어 습득이 목적인 학생 등 다양하며, 나라나 개인에 따라 경제 수준도 크게 달라서 장학금 등의 학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고려되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국내 학생과는 다른 대학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 유학생 교육을 특화한 학교도 있어서 대학에 따라 경력형이나 학사형보다 큰 그룹을 형성하기도 한다.

한편, 대학 관계자와 학생들 간에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교-대학 직선형의 경우, 대학 관계자는 입학 자원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비해, 학생들은 입학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교수들은 이전과는 달라지고 다양해진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려움을, 학생들은 진학 단계에서 대학이나 전공 등의 선택에 대해 각각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정작 대학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측면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경험, 교수와의 긴밀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중시했지만 이에 대한 대학 관계자의 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력 연계형이나 학사 연계형의 경우, 대학 관계자는 주로 입학자원의 확보 문제나 부족한 학력에 대한 보충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다른 교육과정이나 교류의 부재 등 대학 생활에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차별감 등 대학 생활에서의 적응 문제를 학업 적응이나 성과보다 우선적인 과제로 꼽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끝으로 국가 연계형(글로벌형)을 보면, 선발 단계에서 대학관계자, 학생 모두가 입학 조건과 관련 규정의 완화 문제를 과제로 들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생만의 수업이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불만하고 있었다.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유학생들은 현지에서의 학습과 경험, 한국 학생과의 교류, 전공 분야의 심화, 한국어 학습 등에 자신들이 유학을 온 고유한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 밖에도 질문이나 학생 참여가 없는 이론 중심의 강의가 한국어가 미숙한 이들에겐 적응하기 어려운 저해 요인의 하나라는 사실도 지적되었다.

나. 대학의 공통적 과제

앞에서 구분한 4가지 진학 유형의 학생들과 면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학의 교육운영체제와 관련된 과제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표 Ⅲ-28〉을 보면, 교육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 면에서 학생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꼽은 것은 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것이었다. 등록금이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 다음으로 꼽은 것은 교육 및 학습 지원시설, 학습 관련 상담과 지원, 취업 및 진로 관련 상담 및 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튜터링 등이다. 이 항목들은 대체로 개별 대응을 포함한 것이다. 또

한 도서실, 컴퓨터 환경 등 교육 및 학습 지원 시설에 대해서도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들은 대학 구성원이 대중화되면서 다양성이 커진 학생들, 디지털 문화가 일상화된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시사하고 있다. 다만 동일 항목에 대해 상반되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관리, 운영해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Ⅲ-28〉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의 활용과 유용성: 전체 학생 응답 결과

항목	경험자[37] (명)	유용성 정도[38]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39] (명)	도움 안됨[40] (명)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	98	3.73	12	9
대학의 복수전공제	40	2.97	10	5
대학의 멘토 프로그램	93	4.10	21	10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	57	4.00	7	7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15	1.94	2	4
교환학생 프로그램	18	2.93	4	7
외국어 강의 수강	119	4.02	22	16
대학연계 산학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	39	3.56	10	4
학습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	87	4.18	10	8
교육 및 학습 지원시설	163	4.34	38	10
신(편)입생 프로그램	155	3.81	24	26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154	4.50	42	5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62	3.90	8	11
취업 및 진로관련 상담 및 서비스	68	4.12	11	23

37) 전체조사대상자 194명 중 경험자 수 (이하 표 동일)
38) 전체조사대상자 194명에 대해 학교 별 평균값에 대한 전체평균을 계산한 것임 (이하 표 동일)
39) 전체조사대상자 194명 중 응답한 학생수 (이하 표 동일)
40) 전체조사대상자 194명 중 응답한 학생수 (이하 표 동일)

〈표 Ⅲ-29〉의 교수학습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다양한 학습 매체의 활용이나 학습 자료의 활용, 수업과 관련한 질문이나 토론, 수업 관련의 교수나 동료의 피드백 등이 도움된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교수 중심, 이론 중심의 강의보다는 다양한 학습 매체를 활용하거나 교수와의 상호작용, 개별적 관심과 코멘트, 지도 등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강의 중심의 수업, 온라인 강의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수학습, 프로젝트 수업 등에 대해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학생의 수강 목적, 학습 수준과 같이 개인에 따라서도 나타나겠지만, 교수자의 운영 방식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29〉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과 유용성: 전체 학생 응답 결과

항목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대학 온라인강의	93	3.48	9	19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 준비	137	3.72	14	11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관련 자료 공유	172	4.06	31	8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 상호작용 중심의 쌍방향 수업(MOODLE)	66	3.78	5	13
수업내용과 관련한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164	4.15	35	5
수업내용과 관련한 동료학생의 피드백	141	4.11	19	9
수업에서의 질문이나 토론활동	177	4.12	28	7
수업과 관련하여 그룹 프로젝트 진행	172	3.73	21	37
수업과 관련한 외부 콘텐츠 활용과 공유	147	3.94	9	1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ex. 동영상, 피피티 등)	187	4.19	38	2
강의중심 수업	182	3.70	14	22
프로젝트중심 수업	152	3.77	22	23

〈표 Ⅲ-30〉은 학생들이 기대하는 역량과 변화 정도를 종합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대인관계 역량, 외국어 구사 능력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에 대한 기대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 대상이 다소 제한적이고 학년의 차이도 있어서 엄밀한 조사 결과라고 보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면대면 조사를 포함하여 종합해 볼 때 대학교육을 통해 습득된 핵심 역량의 크기가 기대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학사 연계형 경우, 대인관계 역량이 입학 전보다 오히려 낮아졌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다. 이는 특이 사례일 수도 있지만 대학 내 소수 그룹이 학업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형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학습자 맞춤형 교육은 특히 비전통적 경로를 통해 진학한 대학 내 소수 그룹에게는 더욱더 절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30〉 학생들의 역량발달: 전체 학생 응답 결과

항목	기대역량 (명)	입학전 역량 (평균)	현재 역량 (평균)	역량변화정도 (평균)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48	4.33	6.53	2.23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121	4.01	6.96	2.97
외국어 구사 능력	56	3.80	5.34	1.55
종합적 사고력	39	5.17	6.97	1.86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26	4.85	6.75	2.01
대인관계 역량	58	6.01	7.36	1.37
의사소통 역량	35	5.56	6.62	1.40
자기관리 역량	36	5.70	7.31	1.64
글로벌 역량	37	4.53	6.45	1.92
진로에 대한 준비	43	4.52	6.70	2.18

이상의 종합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학이 공통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선발 체제가 고졸 직후 입학하는 학령기 학생을 중심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으며, 입학 정보가 제한적이다.

둘째,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교수 방법이 학생보다는 교수나 대학의 여건 위주로 편성·운영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 요구나 변화된 학습 패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방법, 교과 운영 등에 대해서 학생들의 만족도, 요구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 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ICT 기술 발달과 함께 성장한 학생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학습 패턴이나 소통의 방식도 교수 세대와는 다르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대학 교육에 대한 기대도 달라지고 있다. 이 연구 조사에서도 학생들은 교양과 전공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대부분 교육과정은 개별 교수의 권한이나 영역으로 간주되면서 과목 간 연계도, 체계적인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전반을 학습자 중심의 관점에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교수방법도 마찬가지이다. ICT 기술의 발달로 모바일을 통한 정보 수집과 소통에 대한 디지털 세대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이전 세대의 교수들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그 크기의 증가로 상호간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교육효과도 떨어지고 있다. 교수학습 환경이 디지털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대학의 교육과정이 이론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학습자의 요구에도, 사회적 요구에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과의 면담 결과,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실제 현장과 연계된 이론과 실제와 융합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최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대학교육과 노동시장과의 미스매칭 문제를 풀어가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넷째, 대학교육의 성과는 학생들이 입학 시점에 가지고 있는 역량의 성장 수준은 졸업 시점에서는 물론, 학년 단위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 추수지도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미래 고등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이라면, 핵심역량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성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다섯째, 선발과 교육, 졸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대학의 책임의식이 약하다. 학생 선발 이후 학생들의 추수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졸업 시점의 학습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학은 많지 않았다.

여섯째, 대학의 입학자원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소수 그룹의 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의 교육적 배려나 지원이 미흡하여 대학 안에서 소외되거나 중도탈락하는 문제로 발전함에 따라 만족도뿐만 아니라 교육성과의 저하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 부담을 늘리고 있다. 선취업 후진학, 학사편입이나 일반 편입, 다양한 특별전형 등을 통해 입학하게 되는 소수 그룹의 학생들은 학습 공백기로 인한 학업 적응의 어려움, 다른 배경으로 인한 인적 네트워크로부터의 소외 등 학내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들로 인해 당초 진학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증가하는 유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상과 같은 대학의 대응 과제를 2장에서 살펴본 교육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과제는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업 배경, 학업 패턴, 수준, 관심 등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대학의 교육운영체제를 학습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수학습방법, 학습 성과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선발에서 졸업,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학습자 맞춤형으로 재구조화 하는 과제이다. 이는 본문에서 제시한 4가지 유형 중 고교-대학 직선형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과제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유형의 학생들에게 해당된다.

두 번째는 대학의 운영 체제를 평생학습체제로 재구조화해야 하는 과제이다. 학령기만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진입을 원하는 성인학습자에 대해서 학습동기와 목적, 입학 전 경험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개방된 선발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일과 학습이 병행이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 체제, 그리고 졸업과 취업, 다시 학습의 과정으로 선순환 되도록 대학의 운영체제를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재구조화하는 일이다. 이는 모든 진학 유형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체제이지만 4개의 유형 중 경력 연계형, 학사 연계형 학생들과 같은 사회인 학습자(성인학습자)에게 우선 대응이 필요한 과제이다.

세 번째 과제는 대학의 교수학습방법이나 소통 방식을 ICT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성장한 디지털 세대의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고, 지식기반의 산업구조에 부합한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이는 내용적으로 앞의 두 과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진학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유형에 해당된다.

끝으로 대학 내 소외되기 쉬운 소그룹 학생들에 대해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적 배려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 내 소그룹의 하나이지만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들 교육의 중요성이 비례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 과제는 4유형 중 비전통적인 유형, 즉 경력 연계형, 학사 연계형, 국가 연계형과 관련되며, 특히 국가 연계형 경우, 다른 문화와 접촉, 교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 체제가 필요할 수 있다.

Ⅳ. 국내 대학 운영 사례 분석

1. 기초 학력 증진 및 동기 유발 프로그램: A대학교 사례
2.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학습자 맞춤형 교육지원체제: B대학교 사례
3. 재직자 학생을 위한 교육운영체제: C대학교 사례
4. 전문대 연계 편입 프로그램: E대학교 사례
5.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제도: G대학교 사례
6. 사례별 특징과 과제

Ⅳ. 국내 대학 운영 사례 분석[41)]

1. 기초 학력 증진 및 동기 유발 프로그램: A대학교 사례[42)]

가. 신입생의 진로 목표 설정을 위한 동기 유발 학기[43)]

A대학교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동기유발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동기유발학기란, 다양한 체험 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학생들이 향후 4년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취업 진로를 설계할 강력한 학습동기유발을 유도하고, 대학 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학기이다. 이는 개인별 진로 목표를 가급적 조기에 설정하고, 4년간의 대학 생활에 걸쳐 학습활동과 진로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학 초기 신입생 단계부터 적극적인 동기유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림 Ⅳ-1] 동기 유발 학기 구성

*출처: A대학 내부자료: 동기유발학기 구성.

41) 4장 국내 대학 운영 사례 분석에서는 A대학, B대학, C대학, E대학, G대학 사례의 내용을 담았으며 D,F,H 대학의 사례는 부록 3에 제시하였음.
42) 이하 A대학교의 사례는 오도창(A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원고를 연구진이 수정하여 제시한 것임.
43) http://www.acec.or.kr/korean/viewtopic.php?t=518(2014.11.01. 검색)을 참조하여 내용 작성.

동기 유발 학기의 구성은 설정된 핵심 과제 목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입학과 동시에 4주간 운영하고, 이후 12주간의 일반 학기 교육과정을 몰입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그림 Ⅳ-1] 참조). 신입생은 동기 유발 학기 기간 동안 일반적인 교양 또는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대신 전공 및 진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동기 유발 학기의 세부 프로그램은 대규모 집체 교육 중심의 대학 본부 주도 프로그램과 학과별 특성을 반영한 학과 주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기 유발 학기의 세부 교육 프로그램은 〈표 Ⅳ-1〉과 같다.

〈표 Ⅳ-1〉 동기 유발 학기 세부 프로그램 내용

추진 주체	프로그램	운영 내용
대학 본부	미래비전특강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각계의 인사를 초청하여 미래 탐구, 인성 함양 및 도전정신 배양
	미래직장방문	미래직장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취업동기 유발 및 단계적 준비내용 확인
	3일간의 자아발견캠프	신입생들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성공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역점 적으로 시행하는 핵심프로그램
	학력진단	신입생들의 기초학력평가 및 학습스타일 검사를 통한 효율적인 교육방안 마련
	성격검사	MBTI 검사를 통한 신입생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대학생활 지도
	동기유발경진대회	신입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검증 및 발전방향 모색
학과	전공몰입교육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흥미유발을 통한 학습동기유발
	PBL project	신입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한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 배양
	멘토를 찾아서	학습과 취업에서 오는 불확실성과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대학생활 자리매김
	지도교수 면담	신입생별로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최초면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 도모, 대학적응력 강화 및 미래설계 지원
	내 인생 로드맵 작성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등을 함양하여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설계
	앉아서 하는 여행	역할분담을 통한 독서토론 및 간접 체험 공유
	사회봉사	함께 하는 사회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사회적 책임감 배양
	평생family와 함께	선배, 교수 및 재학생과 함께 전공학습 및 진로에 대한 준비 공유

*출처: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4). 2013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집에서 발췌.

동기유발학기의 이수체계는 30시간의 전공몰입교과목을 통한 전공 2학점과 60시간의 동기유발 프로그램 수행을 통한 일반선택 2학점으로 구성된 총 4학점 규모의 정규교과목으로 운영한다. 동기유발학기 운영과 관련된 인적, 재정적 자원의 투입규모는 〈표 Ⅳ-2〉와 같다.

〈표 Ⅳ-2〉 동기유발학기 투입 인적, 재정적 자원

교내 인력	교내 시설	소요 예산
학과별 전담교수 40명 프로그램 참가교수 150명 지원인력(직원, 조교) 50명	학과별 전용 강의실 41개소 강당 6개소 도서관, 체육관 2개소 개방	본부 프로그램 : 2.2억 원 학과 프로그램 : 1.8억 원 기타 경비 : 0.2억 원
교직원 240명	교내 시설 48개소	총 420백만 원

*출처: A대학 내부자료: 동기유발학기 관련 자료.

나. 1:1 대면 지도 기반의 기초 학력 증진실 운영

신입생의 학력 편차와 대학생의 기초 학력 부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10년 전국 대학 중 최초로 기초 학력 증진실을 설치하여 기초 과학 분야인 수학, 물리, 화학 분야 전담 교원을 채용, 다양한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교과목별 전담 교수의 집무실에는 지도 학생에 대한 소규모 그룹지도가 가능하도록 강의 시설을 겸비하여 두고 비교과 중심의 과목별 학력 증진 프로그램, 정규 교과 위탁형 교육프로그램, 1:1 맞춤식 대면 지도로 운영하고 있다(〈표 Ⅳ-3〉 참조).

〈표 Ⅳ-3〉 기초 학력 증진실 교육 프로그램 유형 및 내용

유형	운영방식
1:1 대면학습	상시 개방(09:00~21:00)을 통해 학생의 개별방문 허용 교과목별 전담교수실에서 면담지도 시행
교과 위탁 교육	전공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수강학생 중 학력저조자를 위탁받아 지도 인원에 따라 전담교수실 또는 일반강의실에서 시행
단기 집체 강좌	방과 후 과정으로 주 2회 정기 프로그램으로 운영 일반 강의실에서 시행

*출처: A대학 내부자료: 기초학력증진실 교육 프로그램 내용.

특히 1:1 맞춤식 대면 지도는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운영 방식이자 소규모 지도 방식으로 참여 학생의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은 전공 교과 운영 계획을 참조하여 편성되고 있으며, 연도별로 교과목별 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2012년도부터는 기초 학력 증진 우수 사례 공모 시행, 기초 학력 수기집 발행, 기초 학력 증진 커뮤니티 등장,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등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있다.

다. 전교생 대상 핵심 역량 진단 평가 시스템

대학교육 전반에 걸친 재학생의 교육성과를 진단하여 환류하는 통합형 진단도구인 핵심역량진단평가(Core Competencies Evaluation, 약칭 CoComE)시스템을 구축하여 2014년 5월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의 대학생활 생애주기에 작용하는 학습능력, 교육 투입, 자기 수행 노력 등을 측정하고 각 요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환류하도록 구성된 새로운 관리 체계이다.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재학생의 대학생활 생애주기와 관련한 다양한 영향 요인과 역동을 분석하는 전문 부서로서 고등교육평가연구원을 2014년 9월에 새롭게 설립하였다.

역량 진단을 위해 A대학교 K-CESA에 비견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자체 개발하였다. 표준화된 대학생 핵심 역량 진단 도구인 K-CESA는 그 공신력에도 불구하고 보편화된 역량 요소로 구성되어 A대학교 핵심 역량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였고, 특히 전체 학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운영하기에는 운영 예산 및 물리적 여건(시간, 장소) 제한이 극복하기 곤란한 요소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육목표가 정합된 핵심 역량 진단 검사 도구를 개발한 것이다(〈표 Ⅳ-4〉 참조).

〈표 Ⅳ-4〉 A대학교 핵심 역량 검사 도구 구성

핵심역량	세부역량	문항수	검사형식	소요시간
자기관리능력	생애설계 정서조절 생활태도	42	자가진단형 (Likert형)	15분
대인관계능력	협동정신 사교성 리더십 상생적 태도	79	자가진단형 (Likert형)	20분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습동기 학습전략 자기평가	52	자가진단형 (Likert형)	20분
스트레스관리능력	스트레스인식 스트레스대처	52	자가진단형 (Likert형)	5분
글로벌능력	국제화 인식 및 국제화 시도 외국어능력	47	자가진단형 (Likert형)	15분
자원활용능력	정보자원 습득과 활용능력 내·외적 자원활용	45	자가진단형 (Likert형)	15분
문제해결능력	문제 민감성 문제 개념화 문제해결 방법구성 과제분석 평가능력	5	수행평가형	20분
의소소통능력	사실적 정보 이해력 감정·주장의 추론·표현능력 비판적 이해와 명료화 능력 의사소통 예절	10	수행평가형	20분
합계		332	총소요시간	130분

*출처: A대학 내부자료: 핵심역량검사도구 구성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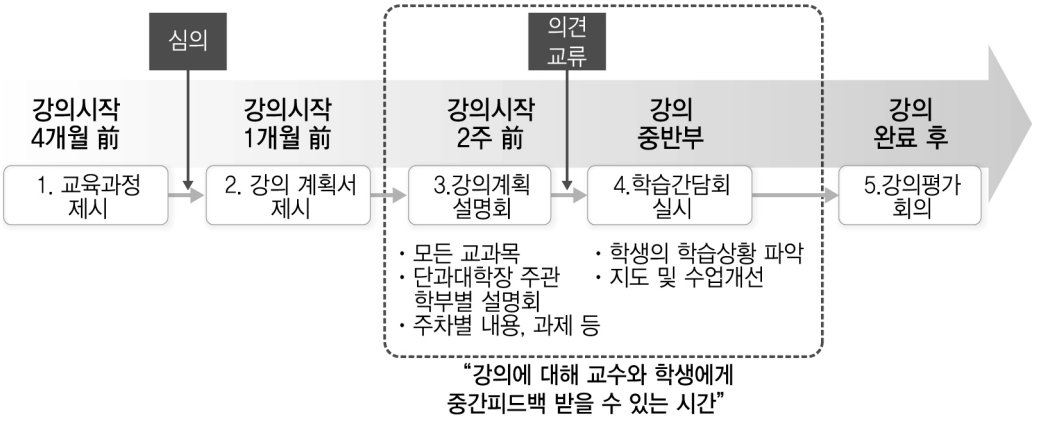
핵심 역량 진단 검사는 연 1회 시행되며 학생은 졸업시까지 4회에 걸쳐 역량진단을 받게 된다. 핵심 역량 진단 검사 결과는 학생 개인별로 교부되며, 개인역량 진단 결과지에는 부족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의 상세 정보를 수록하여 제공된다. 진단 검사 결과는 비교과 프로그램별 주관 부서에도 제공되어 측정 결과를 통해

얻어진 특정 수강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에 활용되는 환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 평가팀에 제공되어 학과의 교육과정 개편에 준거 자료로 활용되며, 교수학습 지원을 수행하는 교육력 강화 센터에 제공되어 교과 단위의 교수법과 학습법 개발에도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라. 전공 강의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제도 운영

A대학교는 상술한 기초 학업 능력 강화 및 학생의 동기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더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유지하기 위해 "교육품질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전공교육 품질관리위원회를 단과 대학별로 설치하여 전공 교육의 지속적인 질 향상(CQI)을 도모하고 있다. 전공교육 품질관리위원회는 학내 동의를 얻어 2013년 3개 학과에 대하여 강의계획서 사전 분석 및 강의 내용 공개 토론을 중점 활동으로 하며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2014년도 전체 대학으로 확산하였다.

전공교육 품질관리위원회의 일반적인 활동과 그 주기를 설명하면, 강의 시작 4개월 전에 위원회 운영을 개시하여 학기별 교육품질관리 대상 교과목을 선정한다. 강의 시작 1개월 전에 강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강의 시작 2주 전 위원회별 소속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학기 품질관리대상 교과목에 대한 1~8주차 강의 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의가 시작되면 품질관리위원이 참여하는 학기별 2회의 수업 참관을 시행한다. 강의 시작 8주차에 9~16주차 수업계획 발표를 위한 강의 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의가 종료되면 강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목 품질관리 최종 회의를 시행한다([그림 Ⅳ-2] 참조). 교육품질관리위원회는 단계별로 해당 교과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 담당 교수와 강의 운영의 내실화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한 상호 적극적인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한다. 학기말에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피드백이 아닌, 교과목의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강의 평가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그림 Ⅳ-2] 교육품질위원회 활동 내용과 일정

*출처: A대학 내부자료: 교육품질관리위원회 활동 내용.

이상과 같이 학생의 기초 학력 증진과 동기 유발, 강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을 통해 A대학은 학생의 전공 및 진로 인지도에 있어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기 유발 학기의 효과를 분석한 학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동기 유발 학기 전후 전공 분야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2.91에서 3.89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개강 직후 4주간의 과정이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인적 교류를 증진하여 지도 학생에 대한 조기 파악과 진로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 외에도 기초학력증진실 프로그램의 경우 단기강좌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1 지도 및 소규모 집단 지도 프로그램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신입생을 위한 특화된 강좌를 개설하였고, 이공계열의 경우 교과담당교수가 전공 관련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과 개별 상담 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핵심역량진단검사 및 교육품질 관리제도를 통해 재학생의 학습성과와 강의의 질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교육과정 개선에 환류하는 정책 기반이 확보되었다.

2.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학습자 맞춤형 교육지원체제: B대학교 사례[44)]

가. 학습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스마트 러닝 환경

B대학교는 무들 시스템 활용과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두어 학습자 맞춤 교육을 지향한다. B대학에서 지향하는 교육시스템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수업 장면에 국한하여 교수매체를 활용하던 것을 확장하여 대학입학에서 졸업에 이르는 전 과정의 학습 행동과 경험 관련 정보를 축적, 분석하여 학습자는 물론 교수, 대학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교수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환류하여 교수학습의 질적 개선은 물론이요, 학생의 학습성과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대학교의 학습자 맞춤형 교육체제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온-오프라인 학습의 융합이다. 국내 대학 최초로 무들 기반의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인 사이버캠퍼스를 구축하여, 오프라인 학습을 온라인으로 확장하여 교수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온-오프라인 학습 융합을 위해 스마트 디바이스 친화적 강의 환경 개선을 하고 있다. 즉, 교수들에게 아이패드 및 기본 어플리케이션을 보급하고, 아이패드 화면을 강의실의 프로젝터로 전송하는 무선투사(Mirroring) 환경을 구축하였다. 중형 강의실은 스마트 강의실로 바꾸고 컴퓨터·전자 교탁·유무선 마이크·스피커·프로젝터 등을 설치하였고, 28개 강의실을 A형(녹화강의실), B형(화상강의실), C형(능동학습강의실, Active Learning Classroom: ALC)으로 세분화하여 첨단 강의실로 만들었다([그림 Ⅳ-3]참조). 또한 콘텐츠 관리 시스템인 CORE(Content Organization and Resource Extension)를 구축하여 강의실 및 온라인 영역에서 생성된 콘텐츠를 편집, 공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4) 이하 B대학교의 사례는 조일현(B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장)에게 의뢰한 원고를 연구진이 수정하여 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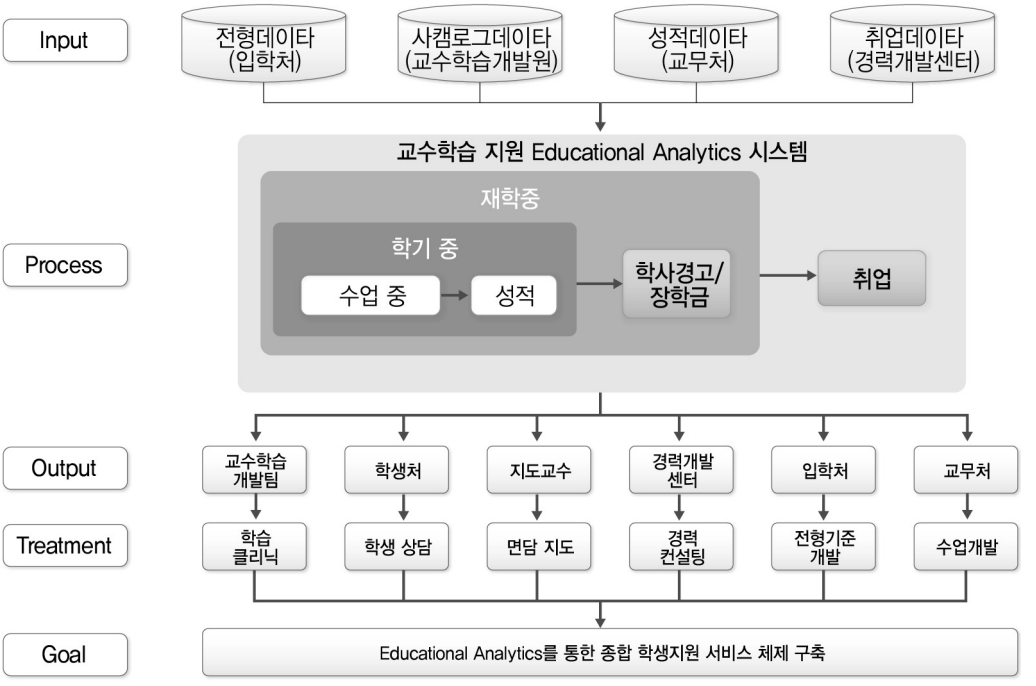
A형	B형	C형
· 스마트 강의실 + 강의녹화시스템 강사추적 카메라 · 강의 현장 녹화 가능	· 첨단 강의실 A형 + 학생 추적 카메라 강사 추적 카메라 · 화상강의, 컨퍼런스용	· 첨단 강의실 A형 + 강의실 사면에 LED 모니터 이동이 용이한 책걸상 · 토론, 실험, 협력수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교수학습 모형을 구현

[그림 Ⅳ-3] B대학교 유형별 스마트 강의실 교육기자재 지원 현황

*출처: B대학 내부자료 : B대학 교수학습개발원(2013). 스마트강의실 추진계획.

둘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오픈코스웨어(Open Course-Ware: OCW)인 공유 캠퍼스(Share Campus)를 구축하여 교내 행사, 특강, 수업 중 생성되는 교수·학습 자료를 지식 콘텐츠화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강의 공개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관련 프로그램(iTunes University(Apple), YouTube EDU(Google))들을 개발하여 학내 교육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셋째, 학생의 학습행동 분석(Learning Analytics)을 토대로 한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모든 교수·학습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학습자용, 교수자용, 기관용 대시보드를 개발하고 일부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학습자용 대시보드, 교수자용 대시보드, 학교 기관용 대시보드가 포함된다. 학습자용 대시보드는 총 접속 시간·접속 횟수·접속 간격의 규칙성·게시판 이용 횟수·자료실 이용 횟수 등의 학습자 본인의 학습활동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본인의 학습활동을 객관적으로 관찰, 성찰,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이와 병행하여 사이버캠퍼스에 남겨진 로그 기록(온라인 활동 정보, 교과목 특성 정보)을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학업 성과와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예측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교내에 분산된 각종 데이터를 종합하여 분석하여, 학생들이 입학에서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첨단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그림 Ⅳ-4] 참조).



[그림 Ⅳ-4] B대학교 교수학습지원 시스템 모형

*출처: B대학 내부자료 : B대학 교수학습개발원(20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수학습체제 선진화 방안.

상기의 노력을 통해 사이버캠퍼스 개설 과목 수가 2011년에 3,432개에서 2013년에는 4,759개로 증가하였으며, 교수자 중 스마트미디어 활용자 수는 2012년에 583명에서 2013년에는 768명으로 증가하였다. 사이버캠퍼스 이용자 중 모바일 접속자 비율은 2012년 26%에서 2013년 35%로 늘어났고, 무선투사(Mirroring) 스마트 강의실을 활용한 수업은 2012년에 169개에서 2013년 270개로 증가하였다. 시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성과는 스마트 러닝의 빠른 확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운영 체제

B대학은 현재까지 구축한 체제를 기반으로 분야별 특화 인재양성 트랙을 개발하고 이를 상기 체제로 활용하여 개별로 제시할 계획이다. 학생, 교수, 기관이 개인의 트랙별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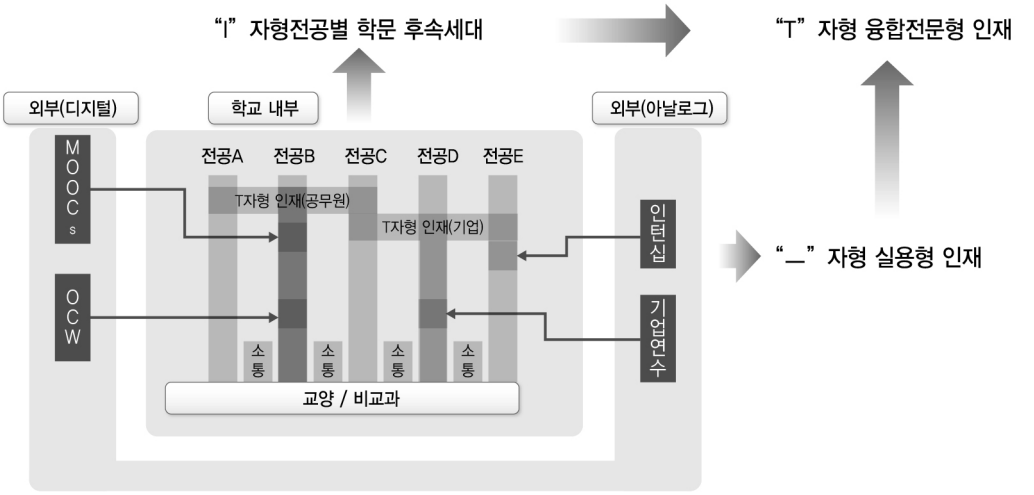
육 진행 상황을 동시 모니터링 하여, 현재 상황 파악과 미래 예측, 성과 피드백을 자동으로 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삼고 있다.

1) 맞춤형 트랙을 위한 모듈 기반 교육 체계 구축

맞춤형 트랙을 위한 모듈기반 교육 체계의 핵심은 교양, 전공 및 비교과교육 과목을 탈착하여 표준화가 가능한 블록 형태의 모듈로 변환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강의계획서를 표준화된 모듈별 메타데이터(Metadata) 색인 체제로 개혁하고, 여기에 관련 전공, 관련 직무, 난이도, 선-후 순위 연계 수강 모듈, 유형(전공/교양/비교과, 디지털/아날로그 등)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교내외 비교과 프로그램(각종 행사, 연수, 인턴십 등)과 외부 선진대학 및 전문기관 콘텐츠(MOOCs, OCW 등)도 모듈화 하여 학습 자원으로 관리 및 활용할 계획이다.

모듈기반 교육체제 구축을 통해 「'T'자형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트랙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T'자형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트랙제」는 학과와 학과, 학교 내부와 외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아우르는 통합형 학사관리 시스템이다.

'T'자형 전문 인재란 전통적 학과 중심 심화교육과정을 의미하는 'I'자형 교육과정과 학생 개인의 목표에 부합한 학제간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자형 교육과정의 융합을 통해 양성된 인재를 의미한다. 예컨대, 특정 전공에 입학한 학생이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공무원이 되고자 희망할 경우, 학교에서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시한다. 이 때, 제공되는 교육과정은 전공과의 경계를 넘어서 모듈화 되어 있는 교육과정이다.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는 입학한 학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함은 물론, 전공과 무관하다 할지라도 진로와 관련한 타 학과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공 학과의 수직적 심화 학습과 더불어 타 학과와의 수평적 융합 학습을 의미한다.



[그림 Ⅳ-5] B대학교 "T" 자형 모듈기반 학습체제

*출처: B대학 내부자료 : 2014 B대학 학부교육선진화 사업 계획서.

2) 상시 성과 측정·환류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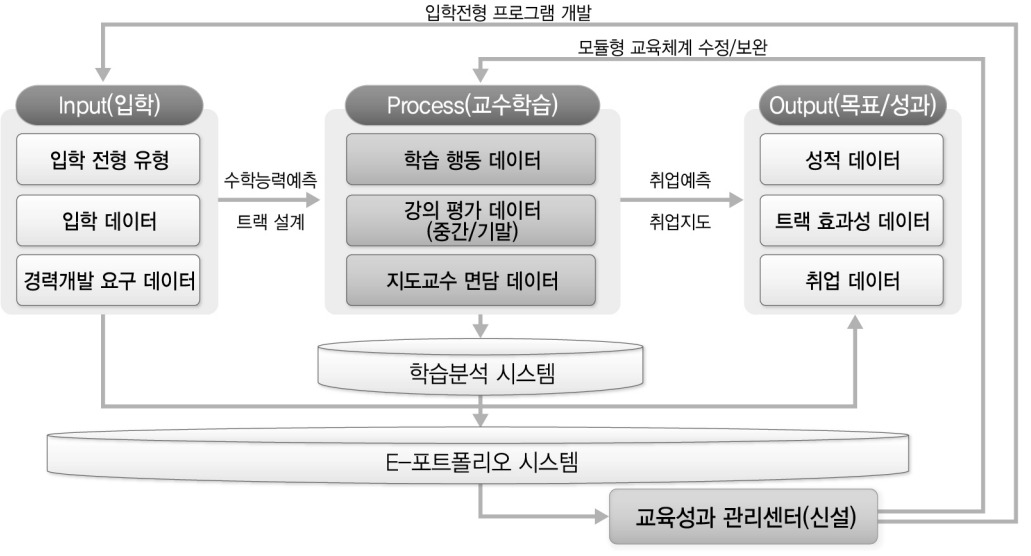
B대학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학습성과를 조기에 예측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측정·환류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Ⅳ-6]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개요

*출처: B대학 내부자료 : 2013 B대학 교수학습개발원 교무회의 월별 보고 자료.

사이버캠퍼스에서의 로그 기록, 강의평가 결과, 과제·중간·기말 성적과 관련한 정보를 집적하여 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학부교육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수, 경영자의 정보 요구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 교육을 촉진한다. 학생에게는 성과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의 학습을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물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수에게는 강의평가, 온라인 학습 활동, 학습 성취도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위험군 학생집단을 조기에 인식하여 학생처나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예방 클리닉을 실시할 수 있고,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정보를 활용하여 적절한 취업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입학처에서는 성과가 높은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기초한 전형 기준 수립할 수도 있다. 또한 모듈별 성과 평가(예, 취업에 기여도가 높은 과목 인식), 트랙별 성과 평가(예; 글로벌 역량 개발에 가장 효과적인 모듈 이수 순서 규명)를 실시하여 역량개발 기여도가 높은 모듈 및 트랙은 확대-강화하고, 낮은 모듈 및 트랙은 통합 또는 축소하는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림 Ⅳ-7]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성과 측정·환류 시스템

*출처: B대학 내부자료 : 2014 B대학 학부교육선진화 사업 계획서.

3. 재직자 학생을 위한 교육운영체제: C대학교 사례[45)]

C대학교는 고졸 취업자가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제공하여 창조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2010학년도부터 국내 최초로 재직자(특성화고 졸업자로써 졸업 후 입학하는 시점에서 재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특별전형을 도입하여 별도의 특성화 모집 단위를 신설하여 5년간 운영하고 있다. 모집 단위는 독립된 학부로 편제하여 학부장 및 주임교수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처음 학부가 개설되어 모집정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255명의 모집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표 Ⅳ-5〉 참조).

〈표 Ⅳ-5〉 연도별 모집 정원 현황(2010~2015)

학년도	모집 정원			비고
	정원내	정원외	계	
2010	13	132	145	
2011	13	132	145	학과명 변경
2012	3	146	149	모집단위 통합
2013	3	184	187	
2014	1	184	185	
2015	1	254	255	예정

*출처: C대학 내부자료: C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과의 연도별 모집정원 현황.

가. 일-학습 병행자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C대학은 재직자 특별전형 재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위원회·교육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재직자 특별전형 재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과 비교하여 어학 등 기초학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반면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가 크고, 일-학습 병행에 따라 학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뚜렷하다. 이에, 우선 교육과정 개발위원회에서는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학년별·수준별 학생

45) 이하 C대학교의 사례는 이계백(C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학지원팀)에게 의뢰한 원고를 연구진이 수정하여 제시한 것임.

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영어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외연수(실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비즈니스 상황에 맞추어 맞춤형 교양과목을 개발하고, 학점과 연계한 특강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교육자문위원회에서는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게 자문단 역할을 수행하며, 졸업생을 위해서 졸업 후 CDP(경력개발계획, Career Development Plan)를 제공하고 있다.

일-학습 병행에 따른 시간적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교양(영어) 수업과 전공기초수업은 재직자 특별전형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별도 반으로, 주로 야간과 주말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수준에 맞추어 탄력 있게 강의를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학습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별도로 편성된 교과목만을 수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외감, 괴리감과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교양과목은 일반 학생과 함께 수강을 허용하며 학생회 조직을 적극 장려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나. 선진화된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 경쟁력 제고 및 교육과정의 체계적 보완을 통해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수역량 강화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 및 보급하고 있으며, 이러닝 강의 인프라 구축 및 관리 등 다양한 전문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이클래스(e-Class)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교육환경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및 모바일 교육수요 확대에 대처하고 있다. 2013학년도부터 PC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교수와 학생의 양방향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학습관리시스템(블랙보드)을 도입하였다. 2014년 1월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커리큘럼인증원을 설치하였다.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한 학내 전반의 교육지원 인프라 강화는 일-학습 병행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커리큘럼인증원을 활용하여 재직자의 요구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여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활용하고, 교육 사전/사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의 교육만족도와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전문대 연계 편입 프로그램: E대학교 사례[46)]

가. 연계 편입 프로그램 운영 배경

E대학교는 동일 재단 소속 그리고 인접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실무능력과 심화된 전공지식을 겸비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대학 연계편입 프로그램은 1999년 10월, 29개 전공에 대해서 '연계교육 운영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고, 2001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방대학과 전문대학 연계교육강화 운영 지침'이 전달되면서 활성화 되었다.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입학자원 고갈에 따라 기관의 존속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였고, 이에 인근 4년제 대학과 2+2 연계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2+2 프로그램은 전문대학 학생들이 협약을 체결한 4년제 대학으로 학사 편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전 대학에서 수강한 전공과목의 학점 인정 등을 통해 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은 교무처 교무교직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팀 내에 전담직원 1명이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협약의 체결과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과에서 주도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의 효율적이면서도 탄력적 운영을 위해 2003년부터 학과별로 연계편입 담당교수를 중심으로 연계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계교육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요약하면 〈표 Ⅳ-6〉과 같다.

〈표 Ⅳ-6〉 연계교육 운영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구분	주요 의결 사항
교육대상인원	대상인원 선발 및 우선 입학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과 연계운영과목 선정에 관한 제반사항
강좌관련	강좌개설과 교육기간 결정에 관한 사항
교재개발	공동교재개발과 학점인정 방안에 관한 사항
인적물적 인프라	교원상호간 지원계획과 시설, 설비 공동활용
기타	그 밖에 교육과정 연계운영에 필요한 사항

*출처: E대학 내부자료: 연계교육 운영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46) 이하 E대학교의 사례는 최해운(E대학교 교무부장)에게 의뢰한 원고를 연구진이 수정해서 제시한 것임.

연계편입 모집정원은 제도 시작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기준 149명이다. 연계편입생의 경우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E대학에 진학하는 학사편입생에 비해 등록률이 79.87%로 높은 편이다(〈표 Ⅳ-7〉 참조).

〈표 Ⅳ-7〉 전문대 연계 편입학생 모집 및 등록인원

전형구분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률
일반편입학	337	270	80.12
연계편입학	149	119	79.87
학사편입학	34	20	58.82

*출처: E대학 내부자료: 연계편입학생 모집인원 및 등록인원.

나. 연계 편입 프로그램 운영 내용

연계편입학생의 선발은 매년 1학기에 실시하며, 협약이 맺어진 전문대학의 학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연계편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협약에 의해 E대학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받는 연계 전공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출신 대학장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응시 자격 조건이 부여된다. 이는 학업 연계성을 높이고 일반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해 필요한 전공 기본소양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다.

선발절차는 연계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학내규에 따르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적 대학의 성적과 편입 대학에서의 면접을 통해서 편입이 결정된다. 일부 학과의 경우 입학자원의 질 관리를 위해서 영어 공인성적 최소 규정을 두기도 한다. 전술하였듯이, 학사 연계 편입학 대상자로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에서 연계 전공과목을 일정 기준 이상 수강해야 하며, 이는 편입 후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받는다. 이는 오직 연계 편입생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예를 들어, 경찰행정학과에서는 경찰행정학개론, 형법총론, 법학개론 및 형사소송법연습을 포함한 4과목을 주요 상호 인정과목으로 협정하였으며, 패션디자인학과의 경우는 패션디자인의 이해, 기초 봉재, 패션일러스트레이션, 디지털디자인 스튜디오 및 디자이너 컬렉션 분석을 포함한 5과목을 상호 인정과목으로 협정하고, 이중 4과목을 대학에서 인정키로 협약하였다.

상대적으로 전공 기초와 수학능력이 부족하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편입생들을 위해 E대학교에서 보충교육, 멘토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국책사업에 선정된 E대학교는 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 특히 ACE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지도 One-stop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맞춤형 학생지도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지원프로그램의 대부분은 3~5인 규모의 소집단 기반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및 전공능력강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학생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개별화된 학습지도를 골자로 하는 이와 같은 제도와 지원 프로그램을 편입생을 대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부차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와 재학생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편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E대학교는 학사행정시스템(웹정보시스템)에서 학생들의 진로, 졸업 및 취업에 대한 지도를 일원화하여 상시로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시스템에는 전적 대학에 대한 자료와 학생상담 기록(졸업 후 계획 포함)을 함께 탑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편입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제도: G대학교 사례[47)]

G대학교는 대내외 글로벌 교육환경 변화 즉, 전 세계적인 유학생 이동(Student Mobility) 증가와 교육부의 Study Korea 2020 프로젝트 및 이와 관련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환경 변화, 국내외 외국인 유학생 평가관련 국제화 지표 개선 요구 등의 변화에 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G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핵심은 보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에 있다. 2014년 1학기 현재 정규 학부과정 유학생의 비율이 재학생 대비 1.47% 수준이지만, 향후 4년 안에 5% 수준으로 상향시키고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47) 이하 G대학교의 사례는 정강용(G대학교 국제처 팀장)에게 의뢰한 원고를 연구진이 수정하여 제시한 것임.

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선발 과정

외국인 유학생 선발전형은 내국인 학생 선발시점과 맞추어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기 및 후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신입학전형(3월 및 9월)과 편입학전형(3월)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인 지원 자격 기준은 〈표 Ⅳ-8〉와 같다.

〈표 Ⅳ-8〉 외국인 유학생 지원 기준

구분	신 입학	편입학(2, 3학년)
지원 자격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본인만 외국인인 학생은 재외국민전형으로 모집함)	
학력 기준	국내, 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국내, 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2학기(1년) 이상 수료(예정)자/4학기(2년) 이상 수료(예정)자 또는 국내, 외 정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어학 기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자 ▪ G대학교 한국어교육원 4급 이상 수료자 ▪ 국내 4년제 정규대학 부설교육기관 한국어 정규과정 4급 이상 수료자 ※ G대학교 자체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4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 영미문화계 지원자의 경우에는 상기 관련 급수 3급 이상 성적 취득자	

*출처: G대학 내부자료: G대학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자료.

우수학생 선발을 위해 한국어 능력, 학습능력, 기타 학부과정 이수에 필요한 능력 등을 엄격하게 고려하여 선발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류와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 개인적, 사회적 역량 등을 〈표 Ⅳ-9〉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원자의 기본적인 언어능력 및 본교에 대한 관심과 학업에 대한 열정도 그리고 수학능력을 검증 항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표 Ⅳ-9〉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한 평가기준

구분	평가 기준 및 내용	주평가자료
서류 (70%)	▪ 언어능력: 한국어 및 기타외국어 구사능력	자기소개서 추천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기타 지원자 제출서류
	▪ 학업능력 - 수학능력 및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 - 관심 학문분야에 대한 지적 성취도 등	
	▪ 개인적, 사회적 역량 - 일반적 자기계발 활동 및 참여도 - 자기관리 및 성실감, 책임감	
면접 (30%)	▪ 지원동기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지원모집단위(또는 전공)에 대한 이해도 등 ▪ 논리적 답변능력 등 전반적인 면접 태도 ▪ 언어(한국어 등) 구사 능력 ▪ 한국어에 대한 이해 정도	서류평가 자료 자기소개서 등 기타 지원자 제출 자료

*출처: G대학 내부자료: G대학 외국인 유학생 입학관련 자료.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선발 업무는 입학팀에서 전담하고 있다. 입학팀에서는 대학의 인재상에 걸맞은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각종 전략을 수립하고, 선발 전형을 개발·실시하며, 관련 홍보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교내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입학 이후 유학생의 학업성취도 등의 관련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보다 우수한 학생 선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제처 산하 국제팀과 국제문화교육원 산하 한국어교육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선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제팀은 국제교류 활동을 주로 하는 '국제교류파트'와 외국인 유학생 및 교원을 지원하는 '국제지원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국제지원파트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및 관련 행사 참석 지원을 시행한다. 특히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업무를 총괄하고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장학생의 학사행정, 생활과 법무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문화교육원 산하 한국어교육원에서는 2014년 4월 현재, 55개국 586명의 외국인 어학연수생이 수학하고 있으며, 연간 약 2,400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G대학교에서 한국어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원은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입학팀과의 연계를 통해서 학부입학의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외국인 유학생 관리

1) 엄정한 학사 및 학적 관리

G대학교는 내국인 일반 학생에게 적용하는 엄정한 학사관련 규칙을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지정좌석제와 결석으로 인한 낙제제도(Failure because of Absence: FA)를 학칙으로 명시하여 엄격하고 체계적 출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확장수업계획서를 전면 시행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이행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정좌석제의 경우 매 학기, 각 과목별 첫 수업시간에 지정좌석을 정하면 해당 학기동안 계속 지정 좌석에서 수강을 해야 하는 제도이다. 조교는 지정좌석을 통해 출결 상황을 체크하여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학생들은 휴대폰 메시지 통지 및 각 개인별 포털 사이트 게시를 통하여 각 과목별 출결상황(결석, FA 경고, FA확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A제도를 실시하여 한 학기 동안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결석 허용 한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을 과목낙제로 처리하고 있다.

둘째, 확장수업계획서(Extended Syllabus)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각 과목별로 학생들이 수강 신청 이전에 과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주교재 및 참고서, 학습 일정, 수업 진행 방식, 평가 방식 등)를 확장수업계획서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효율적인 학업이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엄정한 학적관리를 하고 있다. 성적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엄중하고 공정한 성적평가를 위하여 성적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내・외국인 학생 구분 없이 적용하고 있다.

2) 외국인 유학생 학습 지원

유학생의 조기 학업 적응 및 이탈 방지를 위하여 학습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교수학습센터가 주관하여 재학 중인 외국인학생의 학교 수업 적응, 지원을 위해 해당 수업을 함께 듣고, 학습에 도움을 주는 내국인 학생 튜터를 두는 글로벌 튜터링제를 매 학기 시행하고 있다. 내국인 학생 튜터의 수업지원에 더하여,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학습지원 미팅을 제공하고 있다. 도우미로 참여하는 내국인 학생의 경우 〈표 Ⅳ-10〉과 같이 엄격한 자격기준을 갖춘 학생 선발을 통해 튜터링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Ⅳ-10〉 글로벌 튜터링 제도 개요

구분	내용
튜터 참가자격	▪ 정규과목: 학부 재학생 중 해당과목 성적 A학점 이상인 자 ▪ 비정규과목(영어, 컴퓨터, 한국어 등): 학부재학생 모두(성적제한 없음) ※ 대학원생도 신청 가능하나 과목이수 및 사회봉사 인증 혜택 없음
튜터링 교과목	▪ 정규과목: 모든 개설과목 중 지원자(튜터/튜티) 가 한 과목 선택 ▪ 비정규과목: 정규과목 이외에 학습지원이 필요한 과목
튜터 혜택	▪ 학부생의 경우 인증절차를 걸쳐 사회봉사실천 과목 1학점 인정 및 사회봉사인증서 발급 ▪ 튜터링 지원금: 과목당 50만원 지급
튜터 인증요건	▪ 튜터링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참가 ▪ 30시간 이상의 튜터링 활동: 학업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각 1회 제출 ▪ 에세이형식의 최종 보고서 제출
교수학습센터 지원 사항	▪ 튜터-튜티 간 매칭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 학습계획 점검 및 매주 주간 보고서 제출 확인 ▪ 중간점검 진행(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및 점검) ▪ 튜터 장학금 지급(과목당 50만원)/ 튜터 인증서 발부 및 우수팀 시상

*출처: G대학 내부자료: G대학 글로벌 튜터링 제도.

둘째, 글쓰기 센터에서 별도의 튜터링을 제공하고 있다. G대학은 정부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교내 글쓰기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는 물론 영어로도 수업과제물을 작성하는 방법과 취업관련 서류 작성 등에 대하여 일대일 튜터링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평생지도 교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대학 입학생 전원에게 소속 학부 교수 또는 전공 교수를 지도교수로 배정하여, 재학 중 학업, 개인 신상, 진학 및 취업 등의 진로에 대하여 지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졸업 이후에까지 확장하여 평생지도교수제라는 G대학교 고유의 교수-학생 상담지도체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받을 수 있게 하였다. 각 학부행정팀에서는 지도교수-학생 간 상담 내용 및 이력 관

리를 학교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도를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학사지도 전담교수 및 전인 지도 교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학사지도교수는 신입생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전공 및 진로지도, 수강지도, 장학금 등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고 있으며, 전공 선택을 완료한 2~4학년의 경우에는 전인지도 교수제를 통해서 전공 배정 이후 수업, 교과, 취업 등 맞춤형 학생지도 체계를 구성하였다. 특히, 외국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신입생세미나'를 학사지도교수 책임 하에 개설하고, 학사지도교수가 직접 상담 등을 통해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3) 생활 및 기타 지원

G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의 조기 적응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팀이 주관하여 다양한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팀은 산하에 국제지원파트를 2011년부터 구성하여 교내관련부서와의 협력하여 입학에서 졸업까지 생활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학내 학생 동아리와 연계하여 생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 동아리인 HUG(Hands Up for Gathering)는 공항 픽업, 일반 생활 지원, 한국어 개인교수, 한국문화체험 행사에 공동 참여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HUG는 내국인 학생 뿐 아니라 외국인 학생도 정회원으로 가입을 유도 하고 있다. 둘째, 국제 교류 프로그램 학생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국제팀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생지원단(SSIA)"은 외국인 신입생들의 학사 및 학교생활 조기정착을 위하여 〈표 Ⅳ-11〉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표 Ⅳ-11〉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생지원단 활동내역

구분	SSIA 활동 내역
학사지원	▪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동반 참가 ▪ 수강신청 및 정정 지원 ▪ 과목 정보 등 학사관련 정보 제공
교내활동	▪ 교내 관련 시설 투어(도서관, 컴퓨터 랩, 동아리방 등) ▪ 동아리 거리제 등 학교 행사 동반 참가
생활 및 문화적응	▪ 학교 주변 근린시설 동반 투어(은행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등) ▪ 서울 시티투어(고궁 등) 및 한국영화 관람, 스포츠 관람 등
기타활동	▪ 국제팀 주요 행사 지원 등

*출처: G대학 내부자료: 국제교류 프로그램 학생지원단 SSIA활동 관련자료.

마지막으로 외국인 학생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 대학의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는 상담 분야의 전문성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개인상담, 다문화 집단상담, 다문화 학생 위기상담, 다문화 학생 심리검사, 다문화 민감성 교육 및 관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6. 사례별 특징과 과제

빠르게 변화하는 고등교육환경에서 다변화하고 있는 고등교육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등교육 주요 수요 유형별 국내 대학의 교육운영 우수사례들을 검토하였다. 사례 대학들은 공통적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며, 수요 유형별 특징에 맞춘 교육과정과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표 Ⅳ-12〉 참조). 각 수요별 대학의 대응 전략의 장점과 특징에 주목하되, 이를 하나로 종합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Ⅳ-12〉 국내 사례 대학 개요

구분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	E대학교	G대학교
유형	고교-대학 직선형	고교-대학 직선형	경력 연계형 (재진학/선취업후 진학)	학사 연계형	국가 연계형
특징	동기 및 기초학력 증진 교육품질관리	스마트 러닝 학습분석	재직자 특화 교육	지역전문대학연계 편입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주요 내용	-수학능력, 동기 수준 다양화에 대한 대응방안 -교육품질관리를 위한 중앙 행정 부서 배치	-휴대용 기기 친화적인 교수학습 환경의 구축 -첨단 학습분석시스템 도입(계획)을 통해 학습자 맞춤형 피드백 제공	-새로운 수요 창출에 따른 맞춤형 진학경로 및 프로그램 마련	-지역 내 전문대 -4년제 대학 연계 -상호인정과목 설정 등 교과과정 연계	-학업,생활 등 총체적 지원, 관리 시스템 -엄격한 학사운영을 통한 교육의 질 관리

첫째, 국내 우수사례 대학의 경우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운영체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대학의 교육운영은 교수자 1인 또는 소수의 교수집단이 다수의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일방향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교육운영은 과거 학생집단의 학습준비도와 개인적 배경에 동질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거나, 동질성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학생의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 교육운영 방식의 한계와 문제점을 사례 대학들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 속의 각 대학은 학생 개인 단위를 교육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었다. A 대학의 경우는 학생들간의 학력 격차를 고민하고 있었으며 이에 1:1 대면지도 기반의 기초학력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전공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C대학 역시 이들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즉, 대학들은 동일한 수업과 교육서비스로는 다양한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과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 각 대학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IT기술을 활용하여 전교적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정보시스템과 분석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프라는 다양한 학생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맞춤형 대응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데, 대학들은 학생들의 수강패턴, 성적 뿐 아니라 온라인 학습공간 접속 횟수와 같은 학습행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빅데이터 분석(Big Data Analytics)을 통해 학생 혹은 교수에게 제공되며, 기관연구(Institutional Research)의 틀에서는 대학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우수사례 대학들은 새로운 IT기술을 활용하여 구축된 정보인프라를 통해 교수학습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축적하여 이를 분석, 가공하여 학생과 교수에게 환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교수학습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셋째, 우수 사례 대학들은 기존의 학과 중심의 교육과정의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되,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학과 간 혹은 학교 간 연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흐름을 꾸릴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개방화, 유연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B대학은 학생들의 과거에 비해 다양해진 학생들의 진로관심사를 수용하기 위해 전공의 틀을 넘나들며 개별적 진로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T'자형 모듈 기반 학습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었다. E대학의 경우는 지역사회 소재 2년제 대학들과 협약을 통해 연계과정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용이하게 4년제 학교로 편입학하여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학습과정의 유연화와 개방화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점 역시 다수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단일 대학 혹은 단일 학과를 넘어서서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교육경험을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Ⅴ. 주요국의 대학 운영 사례 분석

1. 다양한 수요 맞춤형 대학 교육 사례: 미국 대학
2. 학사 편입제도 운영과 지원 교육 사례: 미국 CA주의 2+2제도
3. 호주의 유학생 관리 정책
4. 사례별 특징과 시사점

Ⅴ. 주요국의 대학 운영 사례 분석

1. 다양한 수요 맞춤형 대학 교육 사례: 미국 대학[48)]

가. 미국 고등교육의 개요

1) 대학의 일반 현황

미국에는 4,295개의 학위 수여 대학이 있고 이 중 2,609개 대학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대학이다[49)]. 미국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2년 가을학기 등록생 기준으로 4년제 대학 학부과정 재학생은 약 10.6만 명이고 이중 77%가 전일제(full-time) 학생이며 전일제 학부 재학생 중 약 87%는 25세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다(NCES, 2013). 대학의 학생선발은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학교마다 전문화된 입학사정부서가 주도하여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학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데, SAT/ACT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시험 점수, 고등학교 내신 성적, 지원 대학별 에세이, 그리고 추천서 등이 기본적인 입학 서류에 포함된다. 최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경쟁의 심화로 조기 선발제도(Early Admission Policy)[50)]를 채택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수학생 비율과 이들의 입학성적이 대학 랭킹 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Avery, & Levin, 2010). 일부 대학들의 경우 선발과정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통 지원시스템(Common Application)을 도입하여 학생의 중복 지원서 작성을 최소화하고 기관 입장에서는 지원자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기도 하다.

---

48) 이하 다양한 수요 맞춤형 대학 교육 사례는 김정은(미국 미시간대학교)에게 의뢰한 원고를 연구진이 수정하여 제시한 것임.
49) 이 중 약 48%가 비영리 사립대학(1,251개교), 25%가 국/공립 대학(648개교) 이며 영리 사립대학이 약 27%(710개교)를 차지하고 있다(NCES, 2013).
50) 학생들은 일반 지원 시기(1월 경) 보다 일찍 지원서를 제출하고(10월 경) 학교는 이들 중 뛰어난 학생을 선발한다. 경우에 따라 학생들은 한 개의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거나 다수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대부분의 경우 학부(College)로 입학하여 1, 2학년을 수료한 후 학과나 전공을 결정하게 되는데 한 개의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융합 전공(Interdisciplinary or Coordinate Major)을 선택할 수도 있다. 융합 전공일 경우 각 전공에서 요구되는 학점을 줄여 학습 부담을 낮추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공교육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전공분야와 연계된 다양한 실제 경험을 교육과정에 결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학부 연구 프로그램(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과 인턴십 과정이 도입되었다(Steffes, 2004)[51].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해 많은 대학들이 필수과정으로 도입하고 있는 인턴십 과정은 관련 분야의 기업들이나 정부 기관, NGO 등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학생들과 기관을 연결하고, 학생들의 취업 준비 등을 지원한다(Callanan & Benzing, 2004).

2)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 및 보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저하가 대학 입학 후 학업준비도의 저하로 이어져 전공 학습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Arum & Roksa, 2011), 2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들에서도 학업 준비도가 낮은 학생들을 파악하여 영어와 읽기, 수리 능력 등의 기초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Perin, 2013). 일반적으로 SAT/ACT 점수, 고등학교 성적표, 진단 평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4년제 대학 입학생의 20%가 재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며, 특히 평균 입학성적이 낮은 학교 일수록 학생들 간의 학업 준비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Center for Public Policy, 2010). 이 내용에 따르면 대학들은 정해진 기준성적에 미달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전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후 시험을 통과하거나, 정규수업과 병행을 하도록 한다.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은 신입생 프로그램(First Year Experiences)에서도 드러난다. 캠퍼스 안내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들과 달리 최근의 신입생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

51) 연구심포지엄을 통해 학생들은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학점이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교수와의 깊은 학문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 학문적 글쓰기 등의 소양을 개발하고 대학원 진학 등에 있어서도 유리한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육에서 대학교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돕기 위한 한 학기 혹은 1년에 걸친 교과, 비교과 과정을 제공한다. 교과 수업은 학습 방법, 직업 진로 계획, 시간 관리 방법, 다양한 학습 주제에 관한 수업, 세미나,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영화 상영이나 견학, 봉사활동, 학생 동아리 활동, 이벤트, 소풍, 발표회 등의 비교과 과정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비교과 과정은 학부 생활 전반에 걸쳐 점차 학생들의 총체적 의미의 학습과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많은 학교들이 학생 활동 지원 센터(Student Activities Office)를 만들고 학생, 교수, 직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 문화,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 부서들은 학생회나 기숙사, 다양한 동아리, 학교 신문사와 방송사 등과 연계해 지원금이나 장소를 제공한다.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활동들에 참가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비교과 과정의 경험을 이력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안내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교과 성적표와 더불어 비교과 과정 활동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3) 고등교육환경 변화

미국 고등교육을 둘러싼 주요 환경의 변화로 크게 학생 요구의 변화, 고용주들이 인식하는 인재상의 변화, 그리고 대학교육의 비용 증가와 책무성을 꼽을 수 있다. 대학들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교수학습 과정 등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Goldstein, 2006; Futhey, Luce, & Smith, 2010; Casares et al., 2012).

〈표 Ⅴ-1〉 미국 고등교육의 변화

구분	주요 특징	변화에 대한 방안
학생 요구의 변화	• 인터넷 세대(Net Generation)인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구성 및 생산 • 모호한 개념보다 조직적이고 실제 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보 선호 • 정보 및 기술의 점유와 소모 속도가 빠름	• 정형화된 교수 계획에서 벗어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로 사고를 형성, 전개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 촉진 • 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학습과 커뮤니케이션을 적극 활용
기업의 인재상의 변화	• 지식 경제와 정보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이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도 다양해짐 • 인지적 능력 과 함께 다양성, 팀워크와 협동심, 리더십 등 타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성 등이 중요시 됨 • 직업의식과 성실성, 도덕성과 사회 책임 등 인성적 측면 역시 21세기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으로 대두됨 (Casner-Lotto & Barrington, 2006).	• 특정 상황에 집중한 지식의 전달보다 기본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함양에 초점 • Microsoft office, Wikis, Google Docs, Skype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집단 커뮤니케이션과 팀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Johnson et al., 2012).
비용증가와 책무성	• 고등교육 비용의 증가와 학자금 대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학의 책무성이 거론됨(Burke, 2004). • 고등교육의 고비용 대비 대학교육 효율성에 대한 요구 증가	• 대학들은 교수학습 시스템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탐색 • 교수자와 학생, 또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 환경 재구성 방안 탐색

*출처: Goldstein (2006); Futhey, Luce, & Smith (2010); Casares et al. (2012)의 내용을 재구성.

미국 고등교육 기관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대학의 경제적, 효율적 운영과 동시에 학생과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질 높은 고등교육을 이루기 위해 교수학습에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Christensen et al., 2011). 특히 소규모 형태의 다양한 교수 활동, 개인지도 및 전문가 영입, 다양한 교수 도구 활용 등의 필요성이 제시되는 가운데, 과학 기술이 이러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나.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과학 기술의 활용

1)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변화

미국 고등교육에서 교수학습의 관점은 '제공'하는 입장에서 학습을 '창조'하는 학생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어 왔다(Barr & Tagg, 1995). 학생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을 위해서는 기존의 강의 중심 수업보다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과 연관적 사고의 촉진, 토론 중심의 수업, 그룹 활동,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 유동적인 평가 등이 개별화된 교수학습의 주요 요소로 제시되었다(Ryan, Scott, Freeman & Patel, 2000). 변화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컴퓨터 기술의 활용은 휴먼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다양성에 맞춘 개별화 수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교수자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과 즉각적 피드백의 강조되면서 리모컨과 수신기,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Clicker"가 주목받았다(Zhu, 2007). Clicker를 이용하여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선택형 문항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각자의 선택지를 리모컨으로 제시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수신기로 들어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출결 상황이나 시험 점수의 관리 등 수업과 관련된 행정적 처리도 Clicke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Draper & Brown, 2002).

[그림 Ⅴ-1] 브라운대학교에서의 Clicker 활용 사례(Associated Press, 2005)[52]

52) http://www.nbcnews.com/id/7844477/ns/us_news-education/t/interactiveclickers-changing-classrooms/#.VFdoG_TF_jg, 2014년 8월 15일 검색.

2) 인터넷과 강의 지원 시스템 및 활용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원격 교육이나 이러닝의 등장뿐만 아니라, 변화된 학습 환경에 맞춰 다양한 교육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다(Market Data Retrieval, 2002; Warger, 2003). 특히 웹을 기반으로 한 강의 지원 시스템은 상호작용적 교수학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Lokken & Womer, 2007; Paynter & Bruce, 2013). 강의 지원 시스템은 면대면 교육을 지원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수업내용의 전달뿐만 아니라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정보의 탐색과 활용, 커뮤니케이션 및 토론, 평가, 협동적 학습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지원하며 학생 관리 등 행정적인 지원까지 총괄한다(Ryan et al., 2000). 강의 지원 시스템은 Moodle이나 Sakai 같은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들이 점차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픈 소스 시스템은 비용 절감과 유연한 시스템으로, 각 대학에서 설립 목적과 교수자들의 수업 형태에 적합한 요소들을 직접 선택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많은 대학들이 오픈 소스의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채택하였다(Wheeler, 2004).

3)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의 활용

강의 지원 시스템으로 학습자, 교수자 교육환경 등에 대하여 다방면의 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지자 대학들은 행정 분야의 효율성 증대에서부터 교수학습 환경의 개선, 교수자와 학습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하고 있다(Long & Siemens, 2011; Jones, 2012; Picciano, 2012; Griffiths, 2013). 다양한 출처에서 축적된 방대한 ‘빅데이터’(Big Data)의 분석과 활용은 최근 고등교육 정책 입안 및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Johnson et al., 2013). 특히, 새로운 학습 기회 형성과 전략 수립을 위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에 중점을 두는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기술은 주로 학생들의 과제 제출, 시험, 학점과 같이 직접적으로 학생의 학습 발달을 측정할 수 있는 정보와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활동 및 학과 외 활동, 토론 포럼에 올린 포스팅, 학생과 교수 사이의 이메일 기록 등 간접적인 데이터를 축적하여 다양한 양적,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Dietz-Uhler, & Hurn, 2013). 최근 대학들은 집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향후 성취도를 예측하고 잠재적인 문제 발견을 통해 수업

이나 학위 과정에 실패 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파악하여 이를 대비하는 방지책 마련에도 활용한다(Dahlstrom et al., 2011; Johnson et al., 2013)[53]. 많은 대학들이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학습분석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다. 과학기술 활용 사례

1) 버지니아 공대: Math Emporium & e-Portfolio

버지니아 공대는 1872년 버지니아 주 Blacksburg에 설립된 랜드 그랜트 연구 중심의 종합 대학이다. 과학 기술을 다양한 분야의 교수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대학 중 하나로 수업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 혹은 수업-과학기술 통합의 모범 사례로 대표된다.

가) Math Emporium[54]

1997년 설립된 Math Emporium은 수학 학습을 위한 교육 센터이다. 당시 재정 악화 속에서 수학 강의의 질과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해결하는 방안으로 비어있던 캠퍼스 밖의 상가 공간을 활용하여 Math Emporium을 열었다. 537개의 컴퓨터와 프로젝터가 갖추어진 다양한 크기의 미팅룸이 갖추어져 있으며, 무선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은 노트북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도 있다. 학기 중 24시간 휴일 없이 운영되며, 학생들의 장비 사용을 도와주는 전문 직원과 수학 과목의 개인 교습을 담당하는 튜터가 상주한다.

버지니아 공대 수학 교수들이 제공한 교과 내용과 평가 내용은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무료로 접속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웹 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수업 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습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퀴즈를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완전히 익힐 수 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춘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즉각적인 피드백과 개별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Math Emporium은 학생들의 만족도와 향상된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활발히

---

53) 대학들은 수업이나 학위 과정의 수료, 재등록 등에 대한 예측 모형을 설계하고, 학생의 배경이나 과거 학력, 강의 지원 시스템에의 로그인 패턴, 토론방의 작성한 글 등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위험군(at risk)", "우등생(high achiever)", "협동적 학습자(social learner)" 등으로 분류한 뒤 각 그룹의 성격에 따라 필요에 맞는 추가적인 학습 혹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심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Dahlstrom et al., 2011).

54) http://www.emporium.vt.edu/, 2014년 8월 15일 검색.

활용되고 있으며, 매 학기 8,500여명 이상의 학생이 1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수강 중이다. Math Emporium은 교수자 채용과 수업 공간에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 상황에 맞는 시공간에서 개별화된 학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개선하였다(Robinson & Moore, 2006). 또한 Math Emporium은 학생들 간, 그리고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장소로써 언제든 교수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Math Emporium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식 수업에 비해 학습자 및 교수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상호작용을 유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Ⅴ-2] 버지니아 공대 Math Emporium(Robinson, & Moore, 2006)

나) 강의 지원시스템의 활용: e-Portfolio(Electronic Portfolio)[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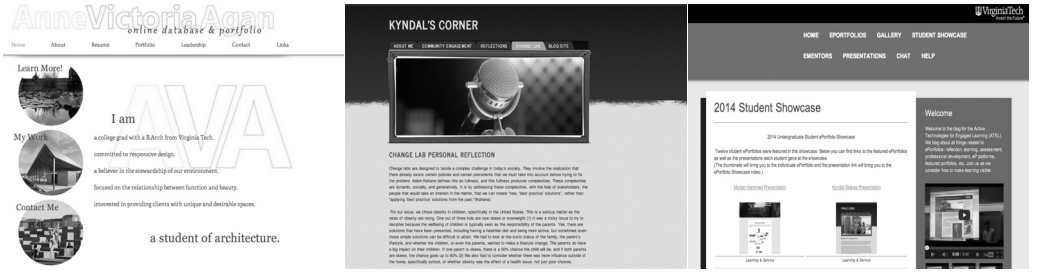
버지니아 공대는 2008년 e-Portfolio Initiatives Office를 개설하였다. 인터넷 포트폴리오(e-Portfolio)는 각 학과의 교육 과정 및 성과 측정, 인증평가(Accreditation) 준비 등에 포트폴리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며, 교수자에게는 수업 내용이나 학생들의 학습 과정 산출물을 저장하는 방법과 틀을 제시한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평생학

55) http://eportfolio.vt.edu/index.html, 2014년 8월 15일 검색.

습자로서 스스로의 학습 과정을 기록해 나가는 데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포트폴리오는 학부단계의 일반 수업, 교양 교육과정, 신입생 프로그램,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교과 외 활동 등 다양한 교육 중점 사업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이나 교육 과정 중에 수행하는 과제물이나 프로젝트의 결과물, 스스로의 학습 결과에 대한 성찰과 자기 평가 등을 포트폴리오가 제공하는 매트릭스를 통해 새로 가공하거나 배치하여 스스로 학습 과정과 자신의 변화 과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작성된 내용들을 학내외의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자신이 배운 내용들을 실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배운다. 교수자는 수업계획서, 수업 관련 자료의 개발 과정과 수업 운영에 대한 자신의 철학, 경험 등을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들이나 다른 교수자들과 공유한다. 행정가들이나 교육과정 협의회에서는 이렇게 모인 자료들을 교수 프로그램 개발이나 외부 인증 평가 등에 학생 학습의 예시나 정책 수립의 근거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버지니아의 인터넷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는 학생들 스스로 학습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켰고, 수업이나 교육 프로그램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과제들을 연속적인 학습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이전에 학습한 내용이 새로운 학습 내용, 혹은 실생활과 어떻게 새롭고 흥미롭게 연결될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학습 도구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Ⅴ-3] 버지니아 대학 학생 e-Portfolio[56)]

56) http://atel.tlos.vt.edu/studentshowcase/, 2014년 8월 17일 검색.

2) 미시간 대학교: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57]

미시간 주 Ann Arbor에 위치한 미시간 대학교는 1817년 설립된 플래그십의 연구 중심의 공립 종합대학이다. 미시간대학에서는 각 단과 대학과 행정 부서가 분권화 되어 있어 단과 대학들이 단독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학 차원의 중앙 부서에서 각 단과대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이 공유되어 중요한 정책은 대학 차원에서 지원하기도 한다. 교수학습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역시 각 단과 대학의 독립된 교수학습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대학 단위의 교수학습센터(Center for Research on Learning and Teaching, CRLT)에서 각 단과 대학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 학습분석의 필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앙의 교수학습센터(CRLT)에서는 교수, 행정가, 학생 등이 모여 각 단과 대학에서 교수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미나 시리즈를 열기 시작하였다. 학습분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물리학과에서는 인문과학대학의 과학 학습 센터(Science Learning Center), 교수학습센터(CRLT)와 함께 E2Coach (Electronic and Expert Coach)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2Coach 시스템은 기초 과목을 수강 하는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이 기초과정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돕는다. 물리학과의 경우, 전공에 대한 사전 지식 및 준비도의 차이, 학생과 교수자 간의 수업에 대한 기대와 목표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며, 학기마다 1,900여 명의 학생들이 각 과목에 등록하면서 수업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발생했다. 또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전공을 지속하지 않는 학생들이 여학생과 마이너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점도 관련 학과들의 고민으로 대두되었다(Huberth, Michelotti, & McKay, 2013).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학습분석팀은 물리학 입문 과정을 거쳐 간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학습 방법들을 모색하여 수업준비도, 자신감, 성별, 커리어 계획 등 현재 수강생들과 비슷한 조건 유형을 찾아 개인화 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57) http://crltumich.edu/slam, 2014년 8월 17일 검색.

방법을 모색했다. 우선, 학생 성과 예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14년 간 미시간 대학에서 물리 입문 수업을 수강한 48,579명의 개인 및 학습 배경에 관한 데이터(SAT/ACT 점수, 고등학교 학점, 전 학기 학점, 사회 경제적 지위, 성별)와 수업에서의 학습 상황에 대한 데이터(숙제 점수, 수업 참여도, 시험 성적, 학기 말 성적)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기대되는 학업 성적(학점)"을 구한 후 실제 성적과 비교 하여, 학생들을 "기대 이상" 그룹과 "기대 이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그룹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인터뷰하여 기존 학생들의 수업 경험이나 수업에서의 개선점, 학업지원 요청 및 학습 방법, 목표 설정과 계획 세우기, 수업 내용 복습 방법, 수업 자료 활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개별화된 학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시간대학 의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던 의사소통 관련 연구(Communications Research)의 관련 시스템(Open Source Computer-tailored Intervention System)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수업 퍼포먼스 데이터와 배경, 학습 목표, 설문 조사 응답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각 학생들에게 개인화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58].

2012년 겨울학기에 물리학 입문 과목에 처음 적용된 E2Coach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업 성과 향상을 가져왔고 E2Coach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2013년부터는 통계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등에서도 E2Coach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59].

58) 학기 초 해당 과목에 수강 신청한 학생들에게 E2Coach의 목적과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보낸 후 학생들이 E2Coach를 사용하기로 동의하고 등록하면, 자신이 수강하게 될 과목에 대한 자신감과 수강 목표(목표 학점) 등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시행한다. 첫 1주차에는 수업에의 접근 방식, 지난 수강생들의 학습 방법 조언, 추가 자료 링크 등의 내용이 이메일로 전달된다. 이후에는 학기 중 몇 주 간격으로 시험 준비 방법, 시험 결과에 따른 다음 번 시험을 위한 학습 전략, 동기화 전략, 새로운 학습 접근법 등을 학생의 희망 학점과 절대 학점 체계에 비추어 조언한다(E2Coach, n.d.) http://sitemaker.umich.edu/ecoach/about_ecoach, 2014년 8월 13일 검색.).

59) E2coach: http://sitemaker.umich.edu/ecoach/about_ecoach, 2014년 8월 13일 검색.

2. 학사 편입제도 운영과 지원 교육 사례: 미국 CA주의 2+2제도[60)]

가. 미국 고등교육 편입제도에 대한 개요

1) 편입의 증가와 중요성

최근 미국 고등교육에서는 2년제 대학(Community College)에서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61)]. 2012년 미국 고등교육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중 45%가 2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교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소수인종 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들 중 51.7%가 2년제 대학에서 대학교육에 입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Colleges, 2014)[62)]. 2010년 2년제 대학 학생들 가운데 25~35%의 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성공적으로 편입했다(WICHE, 2010). 그러나 이들 편입생들이 2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일부만이 편입한 4년제 대학에서 인정됨에 따라 편입 후 다시 비슷한 과목을 재수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곧 교육비의 추가 부담과 학위 취득 기간이 연장되는 비효율의 문제로 이어진다(Crook & Lavin, 1989; Cepeda & Nelson, 1991; Dougherty, 1992:200; Townsend & Wilson, 2006: 34-35).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경제위기로 많은 중산층 자녀들의 2년제 대학 진학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Dowd & Meiguizo, 2008). 이들은 대부분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2년제 대학에서 기본 교양과목 및 기초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한 뒤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한다(The Century Foundation, 2013)[63)]. 그러므로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이 많은 2년제 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교육 정책 및 시스템의 개발·운영은 시민 전체의 학사학위 취득률을 높이고 교육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미국 고등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의 일부분이다.

---

60) 이하 학사 편입제도 운영과 지원 교육 사례는 김수정(미국 일리노이대학교-어바나샴페인)에게 의뢰한 원고를 연구진이 수정해서 제시한 것임.

61) 미국의 2년제 대학에서 4년제로의 편입제도는 특별히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데 많은 장애물에 부딪쳐야 하는 교육소외계층에 대해 제 2의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교육평등과 교육에 있어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Anderson, Alfonso, & Sun, 2006: 423; Moore & Shulock, 2010)

62) www.pathtocollge.org/pdf/Lumina_Rpt_AACC_pdf, 2014년 7월 20일 검색.

63) The Century Foundation(2013). Bridging the higher education divide: Strengthening community colleges and restoring the American dream. NY: Century Foundation Press. retrieved from (http://tcf.org/assets/downloads/20130523-Bridging_the_Higher_Education_Divide-REPORT-ONLY, 8월 13일 검색.)

2) 미국 고등교육 거버넌스 형태 및 편입 정책 운영 방식

미국 고등교육정책 수립 및 운영 등은 연방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주마다 독자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Cohen, 1998; WICHE, 2010; Sherman & Andreas, 2012). 따라서 각 주에 따라 편입정책 및 시스템 운영 방식도 상이하여 주 별로 고등교육 규모나 교육정책에 따라 동일한 정책의 성공 여부가 달라진다(Ehrenberg & Smith, 2002; Anderson, Alfonso, & Sun, 2006; WICHE, 2010; Kisker, Wagoner & Cohen, 2012; Sherman & Andreas, 2012). 정부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편입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Smith, 2010; WICHE, 2010). 편입에 관련된 세부 정책 내용 및 세부 매뉴얼이 세세하게 수립되어 있는 경우와, 정책의 개괄적 윤곽만 있고 각 고등교육 기관이 주의 감독 대신 서로 협력하여 구체적인 편입 세부안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형태이다. 실제적으로 편입정책의 성공여부는 그 정책보다는 구체적인 정책 실천 및 운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CHE, 2010). 미국의 50개 주의 고등교육 커뮤니티는 4년제 대학교들과 2년제인 대학들은 수직적 주종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WICHE, 2010; Sherman, & Andreas, 2012)[64], 편입기관 쌍방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실제 현실에 맞게 편입제도를 구현하는 의지와 실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편입제도

미국의 2년제 대학에서 4년제 공립대학으로 학생들이 편입할 경우, 학점 인정과 관련된 편입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일반 교양교육 필수(General Education Common Core) 규정하기', '필수강의 번호 통일하기(Common Course Numbering)', 주내 모든 공

64) 주마다 공립 고등교육을 관할하는 주 교육부서는 4년제를 담당하는 교육부서와 2년제 대학을 담당하는 교육부서가 따로 있거나 통합되어 있다(Kezar, 2006: 968-969). 특히 2년제와 4년제 대학을 관할하는 주 교육부서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경향이 있다(WICHE, 2010: 5). 미네소타주나 오하이오 주가 이 유형에 속한다(Minnesota State Colleges & Universities 웹사이트, http://www.mnscu.edu/admissions/transfer.html, 2014년 7월 30일 검색.; WICHE, 2010: 5). 이와 달리, 애리조나 주는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운영, 관리, 감독 구조가 달라 한 부서가 다른 부서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는 주가 있고(Arizona State Legislature 웹사이트, http://www.azleg.state.az.us/FormatDocument.asp?inDoc=/ars/15/01824.htm&Title=15&DocType=ARS, 2014년 8월 2일 검색.; Harper-Marinick & Swarthout, 2012, : 79-81: WICHE 웹사이트, 2013, http://higheredpolicies.wiche.edu/content/policy/state/AZ, 2014년 8월 5일 검색.), 오레곤주와 아이오아주처럼 두 섹터가 서로 동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Ohio Board of Regents 웹사이트, http://regents.ohio.gov/transfer/policy/CreditTransferPolicy.pdf, 2014년 7월 20일 검색.). 후자의 경우에는 2년제와 4년제 대학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편입 문제를 다루게 된다.

립 2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정 전공 관련 전공 필수 과목 및 학점 등을 통일시키기(State Wide Major Articulation)', '블록 학점 인정하기(Block Transfer Credit)', '전문학사 학위 편입(Transfer Associate Degree)' 등이 가장 널리 이용되는 편입제도(Transfer)이다(〈표 Ⅴ-2〉 참고).

〈표 Ⅴ-2〉 편입제도

주요 편입제도	내용
일반 교양교육 필수(General Education Common Core) 규정하기	• 전공 무관 학사학위 이수 기초교양과목 학점 공통 인정
필수강의 번호 통일하기 (Common Course Numbering)	• 동일한 주 내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필수 과목의 코스 번호 동일. • 2+2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기 위한 것
특정 전공 관련 전공필수 과목 및 학점 등을 통일시키기 (State Wide Major Articulation)	• 수강한 전공과목 학점을 다른 대학으로 편입할 경우 인정
블록학점 인정하기 (Block Transfer Credit)	• 편입하기 위해 받은 일반 교양교육이나 사전이수 전공과목을 교과 내용에 근거하여 패키지로 모두 인정
전문학사학위 편입 (Transfer Associate Degree)	• 편입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여 대학 3학년 과정으로 편입 보장 • 가장 일반적인 편입 형태로 매 과목별 편입 시 이체가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제도 • 전미에 걸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편입제도

*출처: WICHE (2010). pp.5~9에서 재인용.

2+2 시스템이란 공립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전문학사학위를 딴 학생들이 같은 주 내에 있는 4년제 공립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짜인 대학교육 편입시스템을 일컫는다(Garcia Falconetti, 2009). 2+2 편입시스템은 학생들이 4년제 대학교로 편입하기 전에 2년제 대학에서 낮은 단계의 사전 필수과목들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거나, 이수하였다고 해도 편입한 4년제 대학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다시 들어야 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사전교양 필수 과목들의 강의번호와 내용을 통일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어느 2년제 대학에서 수업을 받건 통일된 수업계획안에 따라 강의를 받게 된다(Garcia Falconetti, 2009: 239; WICHE, 2010: 9).

나. 캘리포니아 주의 편입제도(Transfer) 및 편입 운영(Articulation)[65]

캘리포니아 주의 고등교육시스템은 캘리포니아 대학, 주립대학, 2년제 대학 등 크게 세 부문으로 나뉜다. 10개의 캠퍼스로 이루어진 캘리포니아 대학은 주의 관련 법안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권이 주어져있다. 23개의 캠퍼스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CSU)과 112개의 2년제 대학은 72개의 칼리지 구역에 속해있고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2년제 대학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캘리포니아 주 관련 법안에 따라 모든 것이 운영된다(Patton & Pilati, 2012: 55-56).

1) 캘리포니아 학생 편입 법안(California Student Transfer Achievement Act)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2년제 대학에서 4년제 공립대학으로의 편입은 전공과목 학점 인정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캘리포니아 대학이 요구하는 학점과 편입 전 2년제 대학에서 이수하는 전공과목 및 학점의 특성 및 차이 때문이다(Patton & Pilati, 201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학생 편입 법안이 발의되었다[66]. 이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내에 있는 2년제 대학들은 학생들이 2011년 가을학기부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에 속한 캠퍼스들로 편입이 가능한 전문학사 학위를 적어도 한 개 이상 개설할 것을 요구했고, 2년제 대학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으로 편입 가능한 전문학사 학위를 추가로 개설하기로 결정했다(Patton & Pilati, 2012)[67].

---

65) "편입제도(Transfer)"란 편입 전 다녔던 2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경우, 어떻게,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와 관련된 규정이라면 "편입운영 (Articulation)"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편입과정을 권장하고, 감독하며, 활성화시키는 개별 대학들의 학사 운영이나 관련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WICHE, 2010: 5-9).

66) 이 법안은 상원법안 1440(Senate Bill 1440)이라고도 불린다.

67) 이 법안은 편입을 위한 전문학사 학위의 경우 학기제로 운영될 경우 60학점 이하를 쿼터제로 운영될 경우에는, 90학점 이하를 2년제 대학 학생들이 편입한 4년제 대학교, 특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요구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California State University 웹사이트,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320140SB440, 2014년 7월 23일 검색.).

2)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의 편입제도

앞서 언급한 캘리포니아 학생 편입달성 개혁안에 의하여 2년제 대학의 전문학사학위 과목들의 학점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인정된다(Patton & Pilati, 2012: 56-58)[68]. 이 개혁안이 제시한 규정을 따라야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의 경우, 편입을 목적으로 전문학사학위를 딴 학생들에게 23개의 캠퍼스 중 한 곳에서는 반드시 편입허가를 주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60학점만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2년제 대학에서 이미 받은 과목과 비슷한 과목을 4년제 주립대학에서 또다시 수강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Patton & Pilati, 2012: 58)[69]. 2년제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편입 가능한 학과교수들로 구성된 교수 특별위원회는 편입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주의 아카데미 상원의원의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2년제 대학의 총장, 교육행정가, 아카데미 상원의원, 학생들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학생 편입달성 개혁안 이행 특별위원회'에서는 정규적으로 상원법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논의한다(Patton & Pilati, 2012: 65; Taylor, 2012: 11).

3) 캘리포니아 대학교(UC)의 편입제도 및 편입운영

UCLA와 UC-Berkeley를 제외한 Davis, Irvine, Merced, Riverside, San Diego, Santa Babara, Santa Cruz 등 7개 캠퍼스에서는 TAG Transfer Admission Guarantee라는 편입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 커뮤니티 학생에게 편입을 보장하고 있다. 7개 캠퍼스의 TAG 프로그램 가입 요건은 모두 다르며 TAG에 성공적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각 캠퍼스의 TAG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강의를 모두 수강하고 일정 정도의 평균학점 및 기타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특정 캠퍼스의 TAG 프로그램에 가입한 학생들의 경우, 다른 캠퍼스에서는 편입보장을 받을 수는 없지만, 정규 편입 지원서는 본인이 원하는 캠퍼스에 모두 제출할 수가 있다[70]. 캘리포니아 대학교 편입생 현황을 살펴보면, 각 캠퍼스에 편입 허가를 받는 학생 수 및 지원자 중 편입 합격자 비율 모두 큰 차이를

68) http://www.calstate.edu/transfer/degrees/, 2014년 7월 23일 검색.
69)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320140sB440, 2014년 7월 23일 검색.
70)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campuses/davis/transfer-profile/index.html, 2014년 8월 1일 검색.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편입 합격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7개의 캠퍼스에서는 40%를 웃도는 높은 편입 합격률을 보이는 반면, 대학교 평가 순위에서 상위에 오르는 LA 캠퍼스와 Berkeley 캠퍼스의 경우 앞의 7개 캠퍼스보다 훨씬 비율이 낮은 27%와 24.5%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71]. 주목할 점은 전 캠퍼스에 걸쳐 편입 합격자 중, 90%가 넘는 편입 합격생들이 캘리포니아 주 2년제 대학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캘리포니아 주의 편입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표 Ⅴ-3〉 2014년도 캘리포니아 대학교(UC) 편입 합격자 현황[72]

캠퍼스	지원자수	합격자수	합격확률	비율*
Berkeley	15,989	3,916	24.5%	94%
Davis	14,459	8,295	57%	93%
Irvine	16,093	7,316	45%	93%
Los Angeles(LA)	19,387	5,265	27%	93%
Mercede	2,407	1,602	44%	97%
Riverside	8,914	5,500	62%	96%
San Diego	16,129	7,274	45%	91%
Santa Barbara	14,191	6,917	49%	94%
Santa Cruz	8,199	4,681	57%	96%

*캘리포니아 2년제 대학 출신 합격자 비율.

71) UC-Berkely웹사이트,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campuses/specific-populations/educationalopportunity-program/index.html, 2014년 8월 1일 검색.
; UC-Davis웹사이트,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 campuses/davis/transfer-profile/index.html, 2014년 8월 2일 검색.
; UC-Irvine 웹사이트,
http://admission.universityo fcalifornia.edu/campuses/irvine/transfer-profile/index.html, 2014년 8월 2일 검색.
; UCLA 웹사이트,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campuses/ucla/transfer-profile/index.html, 2014년 8월 3일 검색.
; UC-Merced 웹사이트,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campuses/merced/transfer-profile/index.html, 2014년 8월 3일 검색.
; UC-Riverside 웹사이트,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campuses/riverside/transfer-profile/, 2014년 8월 3일 검색.
; UC-San Diego 웹사이트,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campuses/san-diego/ transfer-profile/, 2014년 8월 3일 검색.
; UC-Santa Barbara 웹사이트,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campuses/santa-barbara/index.html, 2014년 8월 3일 검색.
; UC-Santa Cruz 웹사이트,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campuses/santa-cruz/transfer-profile/index.html, 2014년 8월 3일 검색.

72) 각주 71의 각 대학 홈페이지 참조.

캘리포니아 대학교 대부분의 캠퍼스에는 편입생들을 위한 지원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편입생들에게 멘토링, 학과안내, 재정지원 및 상담, 카운슬링 등 다양한 편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모든 캠퍼스에 과목별로 튜터링을 받을 수 있는 학습센터가 있어 학습방법에 대한 워크숍, 1:1 튜터링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수업에 대한 학습을 무료로 보완할 수 있다. 알바인 캠퍼스의 경우, 편입생 센터(Transfer Student Center)가 있어 편입생들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편입생들이 센터에 자유롭게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서로의 경험 등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73].

4) 남가주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편입 시스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해 있는 남가주 대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중 편입 학생의 비율은 9%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와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Ⅴ-4〉 남가주 대학교 학부학생구성[74]

등록유형	학생 수
정규(full-time) 학생	17,619
시간제(part-time) 학생	697
편입생	1,658

편입 학생 구성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2년제 대학 출신이 58%를 차지하고 그 밖의 편입생들은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 다른 주의 4년제 대학교 23%,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11%, 캘리포니아 소재 사립 대학교 7%, 그리고, 외국 대학교 출신 1%로 되어 있다(USC, 2014)[75]. 사립대인 남가주대가 공립대학으로서 2년제 대학 출신 학생의 편입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편입학에 대한 차이점을 드러낸

73) 그러나 적극적인 편입생을 위한 특정 지원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알바인 학생들의 학업 지속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 여건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방해하는 중요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74) http://www.usc.edu/admission/undergraduate/docs/USCFreshmanProfile.2014.pdf, 2014년 8월 16일 검색.
75) http://www.usc.edu/admission/undergraduate/transfer/prospective/transferprofile.html, 2014년 8월 16일 검색.

다고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편입 성적 사정 시 2년제 대학에서의 성적만을 요구하는 반면, 남가주 대학교의 경우에는 2년제 대학에서 받았던 성적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성적과 대학교 입학시험인 SAT나 ACT점수도 필요하다[76].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캘리포니아 주 2년제 대학 학생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과는 달리, 남가주 대학교는 캘리포니아 주 칼리지 학생들에게 편입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 한편, 남가주 대학교에는 편입 및 재향군인 학생 프로그램(Transfer & Veteran Student Program)이 설치되어 있다. 보다 원활하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성공적으로 편입, 적응할 수 있도록 '편입생 및 재향군인 첫 해 경험 비디오 시리즈(TVSP First Year Experience Video Series)'와 남가주 대학교 재학생과 편입생 및 재향군인 학생을 일대일로 연결시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편입·재향군인 대사 프로그램(TV Ambassador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3. 호주의 유학생 관리 정책[77]

가. 고등교육 개요

1) 고등교육 체계[78]

호주의 고등교육제도는 전문대학(College)과 정규대학(University)으로 구성된다. 전문대학은 다시 국립전문대(TAFE)와 사립전문대학(Private College)으로 나뉘며, 정규대학교는 국립·주립 등 공립대학교와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호주의 국립 고등교육기관인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은 각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으로 직업 교육과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립전문대학(Private College)은 TAFE

76) 특히, 2년제 대학에서 편입할 경우 남가주대학교에서 인정해주는 과목들의 총 학점 중 30학점 미만을 받을 경우, 입학심사에서 고등학교 학업성적(GPA)과 SAT나 ACT 점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학점 이체가 가능한 과목에 한해 인가받은 고등교육기관에서 C이상 학점은 편입 시 인정된다(USC 웹사이트, 출처: file:///C:/Users/master/Downloads/123961_2212008121714PM_U%20of%20Southern%20CA%20Transfer %20Policy.pdf, 2014년 8월 17일 검색.

77) 이하 호주의 유학생 관리 정책 사례는 정영란(호주 시드니 민족교육문화원 운영위원)에게 의뢰한 원고를 연구진이 수정해서 제시한 것임.

78) http://www.studiesinaustralia.com/news/university-tafe-or-private-college-where-should-you-study, 2014년 8월 2일 검색.

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호주 내 수백 여 개의 민간연수기관이 정식교육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종합대학교는 40여개로 이중 2곳의 사립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립·주립 등 공립대학교로 이루어져 있다[79].

2) 고등교육의 학위 과정

호주에서는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전문학사학위(Diploma)를 받으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학위(Bachelor's Degree)가 주어진다. 호주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은 약 2년 정도이며, 호주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은 대부분 3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에 따라 엔지니어 관련 등 일부 전공은 4년 이상으로 개설되는 경우도 있다. 학사학위 이후 석사 및 박사과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석사 과정은 1~2년, 박사 과정은 3년이 소요된다.

〈표 Ⅴ-5〉 호주의 고등교육 제도

구분	학위/학력	기간	입학조건
주립전문대학 (TAFE)	Certificate 1-4급	6개월 미만	호주 10학년 수료
	Diploma	6개월 미만	호주 12학년 수료
	Advanced Diploma	6개월 미만	디플로마 수료
대학교	학사학위 (Bachelors Degree)	3년	호주 12학년 수료(우리나라 고3), 우리나라 대학 1학년 이상 수료, 호주대학 예비과정 수료, TAFE 수료 중 하나에 해당
	콤바인 학위 (Combine Degree) 우수학사 학위 (Honours Degree)	5~6년	특정과목에 한함
대학원	수료증(Graduate Certificate)	6개월~1년	학사학위
	석사(Master)	1년	학사학위
	준 석사(Graduate Diploma)	1~2년	Honor's Degree(우수학사 학위) 또는 학사학위 및 경력
	박사(Doctorate, PhD)	3년 이상	Honor's Degree(우수학사 학위) 스폰서

*출처: http://aei.gov.au/Services-And-Resources/Services/Country-Education-Profiles/About-CEP/Documents/Australia.pdf에서 2014년 8월 4일 검색하여 재구성.

79) http://en.wikipedia.org/wiki/Private_university#Australia, 2014년 8월 2일 검색.

나. 대학의 일반 현황

1) 전문대학(TAFE과 Private College)[80]

호주의 각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인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이하 TAFE)은 직업 교육과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무 중심의 국립 기술전문대학이다. 일반적인 대학 교육 과정에 비해 입학 조건과 비용이 낮고, 소요 시간이 짧은 편이다[81]. TAFE 과정을 수료한 후에는 수료증과 정규대학(University) 진학 및 편입이 가능한 전문학사(Diploma)를 취득할 수 있다. 사립전문대학인 Private College는 TAFE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이며, 국립인 TAFE와 달리 입학조건, 교육과정, 학비, 수업기간 등의 제반 조건이 학교마다 다르다.

〈표 Ⅴ-6〉 TAFE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종류

자격증 종류	특징
수료증 1급 Certificate l	- 보통 4~6개월 과정 - 직업 기술 개발을 위한 매우 기초적인 과정 - 학생들의 예비 기술과 지식을 쌓는 학습
수료증 2·3급 Certificate ll & lll	- 보통 6개월~1년 과정 - 기존의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을 토대로 구체적인 교과 과정학습
수료증 4급 Certificate lV	- 보통 1년~1년 6개월 - 학생들의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학습 능력 요구 - 업무의 평가 및 분석능력, 지도력 포함
전문학사 (Diploma)	- 보통 1년 6개월~2년 과정 - 업무에 대한 경영 능력과 판단 능력, 전문적인 지식습득 목적 - 한국의 2년제 전문대학 학위에 준함
고급 전문학사 (Advanced Diploma)	- 보통 2년~3년 과정 - 전문적인 단계. 이해력과 응용력, 고도의 기술과 기획에 중점 - 전문학사학위보다 한 단계 상급과정

*출처: http://aei.gov.au/Services-And-Resources/Services/Country-Education-Profiles/About-CEP/Documents/Australia.pdf에서 2014년 8월 7일 검색하여 재구성.

80) http://www.tafensw.edu.au/, 2014년 8월 2일 검색.
81) http://www.studiesinaustralia.com/news/university-tafe-or-private-college-where-should-you-study, 2014년 8월 1일 검색.

2) 종합대학교(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

호주의 대학교는 총 40개이며, 넓은 국토 면적에 비해 대학교의 수가 적은 편이다. 사립 대학교는 2개이며, 나머지는 모두 국립대학교이다. 호주를 대표하는 8개의 명문 대학을 Go8(Group of 8)이라고 한다. Go8에 해당하는 대학교들은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들로 뛰어난 인재 구성과 우수한 연구기관과 연계되어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82].

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및 사례

1) 유학생 유치 전략 및 지원체계

호주 유학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6억 달러(16조 원 상당)로 추정되며, 자원산업, 농축산업, 관광산업과 함께 호주의 4대 주요 산업이다[83]. 2013년 기준 연간 약 52만 명의 외국학생들이 학업을 목적으로 호주를 찾으며, 이들의 국적은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인이 대부분이고, 한국 학생도 2만 7천여 명에 달한다[84]. 2013년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은 총 53만 여명에 이른다[85]. 이는 영어연수기관인 ELICOS(English Language Intensive Courses for Overseas Students)와 초·중·고등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인 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기타 비학위 수여기관(Non-award)을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

호주 당국은 '신 콜롬보 계획(New Colombo Plan)'[86], 국가 간 학위 연계, 워킹홀리데이 및 인턴십 등과 같은 국가 간 연계 고등교육 체제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 호주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인 '신 콜롬보 계획(New Colombo Plan)'은 아시아 학생이 호주로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던 '콜롬보 계획[87]'을 역으로 전환해 구상한 것으로, 호주

82) Go8에 해당하는 대학교는 아들레이드 대학교(University of Adelaide), 캔버라 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ANU), 멜번 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 모나쉬 대학교(Monash University),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 브리즈번 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 시드니 대학교(University of Sydney),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s, UWA) 등이며, 이 대학들에서 호주 내 노벨상 수상자들을 전원 배출했다. 또한 호주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네 개의 아카데미에 70%가 넘는 기여를 하고 있다. (http://go8.edu.au/page/go8-indicators, 2014년 8월 8일 검색.)

83)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 &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2134733, 2014년 8월 2일 검색.

84) http://www.aei.gov.au/research/International-Student-Data/Documents/Monthly%20summaries%20of%20international%20student%20enrolment%20data%202013/12_December_2013_MonthlySummary.pdf, 2014년 8월 7일 검색.

85) http://aei.gov.au/research/International-student-data/pages/default.aspx, 2014년 8월 7일 검색.

86) http://www.dfat.gov.au/new-colombo-plan/about.html, 2014년 8월 2일 검색.

87)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협동적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약으로 1950년 1월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학생들을 선발해 아시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호주와 아시아 학생들의 '쌍방향적 교류'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2015년부터 한국을 포함하여 점차적으로 더 많은 국가로도 확대할 예정이다[88].

호주 정부는 외국인 학생을 소비자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유치 조건 마련과 추수 관리, 전반적인 생활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직적으로 유학생 유치 체계를 관리 및 시행하고 있다.

〈표 Ⅴ-7〉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및 지원

구분		내용
유치 전략	기본 조건	- ESOS(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법 개정[89] - 비자 간소화 정책과 졸업 후 근로권(Post-study Work Visa)[90] - 기술 이민 프로그램(General Skilled Migration Program)[91]
추수 관리	차별 대처 방안	- 인종차별법(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 외국인혐오법(Racial Hatred Act 1995)[92] - 호주 유학생 전략(International Students Strategy for Australia, ISSA)[93]
	교육서비스	- CRICOS를 통한 관리와 ESOS 법률에 의거한 교육 서비스[94] - 유학생 등록금 보증기금(ESOS Assurance Fund)[95]과 수업료 환불 서비스(Tuition Protection Service)[96]
지원 정책	생활 지원[97]	- 학위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 훈련이나 실습 등 인턴 장려 - 학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이 학기 중에 일주에 20시간까지 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의료 서비스[98]	- 유학생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의료보험(OSHC)으로 의료 서비스 및 병원 치료비용과 대부분의 처방약의 혜택을 제공
	장학금[99]	- 엔데버프로그램(Endeavour Program)* 운영 - 외국의 우수한 학생, 연구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호주에서의 장단기의 학업, 연구 및 전문성개발을 하도록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장학금
대학별 지원 정책	적응 지원 (멘토링)	- 애들레이드 대학교: 선배 멘토(Peer Mentors) 프로그램[100] - 시드니 국제경영대학 O-week[101], PALS 프로그램[102]
	기타	- 스터디 투어(Study Tour)[103] : 호주 학교생활을 짧은 기간 동안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TAFE NSW의 스터디 투어는 다채로운 활동들을 포괄함.

영연방 외무장관회의에서 캐나다의 제안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콜롬보계획이라고 한다. (http://www.colombo-plan.org/index.php/about-cps/history/, 2014년 8월 7일 검색).

88) 한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소재 대학들과 학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호 학점 인정이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호주 대학으로 편입 시 이전 학교에서 받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 멜버른에 소재한 모나쉬 대학은 말레이시아에 캠퍼스를 운영하며, 실제 모나쉬 말레이시아 캠퍼스에서 학업을 마친 학생들이 호주 본교로 편입하는 방법으로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http://www.buseco.monash.edu.my/for/Inter-campus-Exchange-Program.html, 2014년 8월 7일 검색.

2) 유학생 선발과 교육 시스템 정비 우수 사례

가) 국립 서호주 대학교(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1) 개요

호주 최고 대학 그룹인 Go8(Group of Eight)의 일원으로 한국의 서울대와 서강대 등 전 세계 유명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로 인해 서호주 지역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진학 희망 1순위로 꼽히기도 한다. 입학하려면 4년제 대학교 1년 수료(학사) 및 전문대학 졸업에 해당하는 학위(Diploma)가 필요하며, 영어 조건으로는 학사 과정의 경우 IELTS 6.5 이상 또는 일부 학사 및 석사 과정은 IELTS 7.0~7.5이며, 영어나 학력조건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UWA 영어교육센터(CELT)에서 파운데이션과정을 통하여 조건부 입학을 할 수 있다.

(2)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서호주대학교에서는 외국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신입생들을 위해 매 학기마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해 두고 있다. 유학생 지원책으로는 신입생을 위한 Unistart·Uniskill·Unimentor 프로그램과 유학생의 현지 적응을 지원하는 LACE (The Language and Cultural Exchange)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

89) http://www.aei.gov.au/research/International-Student-Data/Pages/InternationalStudentData2014.aspx, 2014년 8월 7일 검색.
90) http://www.immi.gov.au/Study/Pages/study-work-arrangements.aspx, 2014년 8월 7일 검색.
91) http://www.immi.gov.au/Work/Pages/SkillSelect/SkillSelect.aspx, 2014년 8월 7일 검색.
92) 이준형·오세혁(2006. 11). pp.110~111 참조.
93) http://aei.gov.au/About-AEI/Current-Initiatives/International-Students-Strategy-of-Australia/Pages/default.aspx, 2014년 8월 7일 검색.
94) http://prisms.deewr.gov.au/Main/External/TPSLevy/TpsLevyIOSDeclarationLogin.aspx, 2014년 8월 7일 검색.
95) http://www.comlaw.gov.au/Details/F2011L02798, 2014년 8월 7일 검색.
96) http://tps.gov.au/StaticContent/Get/FaqsForProviders, 2014년 8월 7일 검색.
97) http://www.studyinaustralia.gov.au/global/live-in-australia/working, 2014년 8월 7일 검색.
98) http://www.health.gov.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nt/Overseas+Student+Health+Cover+FAQ-1, 2014년 8월 7일 검색.
99) http://aei.gov.au/scholarships-and-fellowships/pages/default.aspx, 2014년 8월 7일 검색.
100) http://www.adelaide.edu.au/volunteers/opportunities/intstudentcentre/peermentor.html, 2014년 8월 7일 검색.
101) http://www.icms.edu.au/future-students/getting-started/oweek, 2014년 8월 7일 검색.
102) http://www.icms.edu.au/future-students/student-life/student-support-and-facilities, 2014년 8월 7일 검색.
103) http://www.studyinaustralia.gov.au/korea/australian-education/more-study-options, 2014년 8월 7일 검색.

〈표 Ⅴ-8〉 UWA의 유학생 지원

구분	목적/특징	내용	비고
Unistart[104]	새로운 환경 적응	• First Year Coordinator가 일대일 상담을 실시- 수강 과목을 신청 시 도움	신입생
Uniskill[105]	일상적 관계 형성	• 행사나 study group에 참여하여 만남의 기회 제공 • 일상의 문제 상담(금전 문제, 향수병, 학업에의 영향 등)	영어실력 부족 학생
Unimentor	멘토링	• 배정받은 멘토의 조언과 문제해결 시 도움	모든 신입생
LACE	친교를 통한 문화 다양성 이해	• 유학생들과 호주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행사를 통해 문화를 주고받으며 친분 형성 • 스태프 및 호주학생, 유학생이 음식, 언어 등의 상호이해 경험을 통해 커뮤니티 적응	모든 유학생

*출처: http://www.student.uwa.edu.au/learning/studysmarter/writesmart/lace, 2014년 8월 7일 검색하여 재구성.

나) 사립 본드 대학교(Bond University)

(1) 개요[106]

호주 최초의 사립종합대학교로 2013년 기준 약 6,500 여명의 재학생 중 전 세계 80여 개의 나라에서 온 유학생이 40%를 차지한다[107]. 전공분야 중에서 스포츠 사이언스 학과에 대한 지명도는 호주 대학교들 중에서도 높은 편이다[108]. 본드 대학교의 입학 조건은 학부생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과정의 경우 IELTS 6.5(no less than 6.0) 또는 일부 학사 및 석사 과정은 IELTS 7.0~7.5이며[109], 영어나 학력조건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UWA 영어교육센터(CELT)에서 기초과정을 통하여 조건부 입학을 할 수 있다[110].

104) http://www.unistart.uwa.edu.au/, 2014년 8월 9일 검색.
105) http://www.student.uwa.edu.au/new/uniskills/, 2014년 8월 9일 검색.
106) http://bond.edu.au/about-bond/introducing-bond/how-bond-rates/index.htm, 2014년 8월 7일 검색.
107) http://myuniversity.gov.au/Bond-University/3003#!uni-stats/tables, 2014년 8월 7일 검색.
108) http://bond.edu.au/research/research-news/BD3_022880, 2014년 8월 7일 검색.
109) http://www.studyat.uwa.edu.au/undergraduate/requirements/english, 2014년 8월 7일 검색.
110) http://www.celt.uwa.edu.au/courses/pathways, 2014년 8월 9일 검색.

(2)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고급형 사립대학교로서 본드 대학교가 추구하는 유학생 유치 전략은 호주 학생과 유학생의 학비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Good Universities Guide에서 호주의 최고 대학에 선정될 정도로 높은 교육의 질을 자랑하는 본드 대학교의 학비는 호주 내에서도 상당히 비싼 편이다. 높은 학비와 그에 따른 높은 교육품질 보장, 이러한 조건에서 유학생과 국내 학생의 학비가 동등하다는 점은 고급형 사립대학교로서 유학생에게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드 대학교의 유학생 유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산업과의 연계가 가장 잘 되어 있어 학내 거의 모든 학과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호주 내 유수 기업[111]에서 인턴십을 경험한다. 본드대학교는 탄탄한 산학협력을 통하여 모든 전공 분야에서 충분한 실습경력을 쌓을 수 있는 산학협동 및 인턴십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다) 국립 시드니 테잎 TAFE NSW

(1) 개요

시드니 TAFE NSW는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의 호주 주립 기술학교이다. 시드니 지역의 10개의 대학과 130개의 캠퍼스에서 300여개가 넘는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NSW주 내의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 TAFE NSW는 NSW주의 모든 TAFE 교육 기관들이 TAFE NSW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디플로마 과정 후 대학 편입을 위한 연계과정도 비교적 잘 되어있다. 시드니 TAFE NSW 대학 입학조건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며 영어는 IELTS 5.5점(각 밴드 5.0이상)이다. 전공에 따라 영어 조건이 더 높을 수도 있다[112].

111) 미국의 회계전문 기업 KPMG, 금융기업인 JBWere과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등에서의 인턴 경험으로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http://bond.edu.au/about-bond/introducing-bond/10-reasons-why-bond/index.htm, 2014년 8월 9일 검색.

112) http://www.decinternational.nsw.edu.au/study/tafe/entry-requirements, 2014년 8월 10일 검색.

(2)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① 여학생을 위한 특별 지원 서비스

TAFE NSW는 여학생을 위한 지원 서비스 및 전문 과정이 특성화 되어 있다. 특히 여성들의 봉사 활동이나 가정생활 등 인생 경험에서 얻은 기술들은 선행 학습으로 간주되어 여학생들은 이를 기반으로 유아교육 등 해당 전문 과정에 등록할 수 있다. 캠퍼스마다 유아 교육을 기반으로 아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TAFE NSW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다문화 접근 센터(MAC)

TAFE NSW는 캠퍼스 마다 다문화 접근 센터(Multi-cultural Access Centre) 및 다문화 교육 코디네이터(IMEC)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 주거 비율이 높은 그랜빌(Grandvill) 캠퍼스에는 다문화 전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영어, 성인 언어 및 수리, 인종 차별을 다루는 문화 다양성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다문화 교육, 현장 훈련, 이주 연구에 관한 도서와 자료를 제공한다.

③ 유학생을 위한 코디네이터(International Students Coordinator)

TAFE NSW의 유학생 코디네이터는 단순히 학습에 관한 조언뿐만 아니라 호주에서의 삶과 경험을 즐기는 데 전반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학습과 기타 전공 학습에 관한 조언 및 시험 불안, 학습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에 관한 상담 지원을 진행한다. 또한 구직 활동 시 인터뷰 기술 등 직업 조언 및 향수병, 금융, 법률 및 건강 문제, 또는 비상사태에 직면한 유학생들에게 NSW 주 지역사회 및 정부 기관의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④ 스터디 투어(Study Tour)

스터디 투어는 외국 학생들이 호주 학교 전반에 대해 짧은 기간 동안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나 대학에서 학생 그룹을 초청하는 특별한 행사를 의미한다. TAFE NSW는 스터디 투어를 통해 NSW의 학교 교육에 대한 고유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여행뿐만 아니라 NSW주의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실시하는 특별 행사에 참여하는 고유한 교육 프로그

램을 진행한다. 학생과 성인 그룹으로 나누어 한 팀당 10명으로 구성하여 그룹의 특성과 관심 분야에 맞게 2시간부터 12주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표 Ⅴ-9〉 TAFE NSW의 스터디 투어

구분	학생[113]	성인[114]
대상 및 인원	- 최소 10세 이상의 학생	- NSW 교육 시스템에 관심 있는 국제 교육자, 교장, 교사, 공무원 및 공공 교육 종사자
내용	- 시드니 또는 NSW주 공립학교 방문 - 정규 수업에서 호주 학생들과 함께 학습 - 영어 수업 참석 - 호주인 친구 만들기 - 호주 가정 기숙학교에서 지내기 - NSW주의 중요한 역사 및 문화 유적과 국립공원, 해안 지역 여행	- NSW주 학교 클래스 및 교육 기술 관찰 - 정책 관리 및 교사 지원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 NSW주 정부 학교 양질의 교육 방법 관찰 - 영어 프로그램 참여 - NSW주의 중요한 역사 및 문화 유적과 국립공원, 해안 지역 여행
세부 프로그램[115]	- 반나절 프로그램, 종일 프로그램 - 한 주 프로그램, 두 주 프로그램 - 크리켓 프로그램, 댄스 프로그램 - 환경 프로그램, 축구 프로그램 - 거주 프로그램, 럭비 프로그램 - NEW 영어 속성 프로그램	- 학교 방문 프로그램 -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 학습자(TELL) 영어 교육 - TESOL영어 교육 수료증 - NEW 리더십 학습 프로그램

*출처: http://www.decinternational.nsw.edu.au/study/study-tours, 2014년 8월 10일 검색하여 재구성.

4. 사례별 특징과 시사점

국제적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그에 따른 대학 교육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하여 실제 적용가능성, 제도적 근접성, 고등교육 미래지향성 등을 고려하여 국외 사례를 탐색하였다. 각국의 고등교육 현황 및 특징에 의거하여 고교-대학 직선형(미국), 학사 연계형(미국), 국가 연계형(호주)으로 구분하고, 고등교육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각 사례별 특징에 주목하여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13) http://www.decinternational.nsw.edu.au/study/study-tours/student-groups, 2014년 8월 10일 검색.
114) http://www.decinternational.nsw.edu.au/study/study-tours/adult-groups, 2014년 8월 10일 검색.
115) http://www.decinternational.nsw.edu.au/study/study-tours/documents-and-forms, 2014년 8월 10일 검색.

〈표 Ⅴ-10〉 주요 국외 사례 개요

구분	미국	미국	호주
유형	고교-대학 직선형	학사 연계형	국가 연계형
특징	교육과정/교수학습방법	편입 등 학사시스템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주요 내용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호작용적 교수학습 실천 -수학능력, 진로 다양화에 따른 대학의 적극적 대응	-전문대-대학 연계의 고등교육 체제 운영 -전문대 졸업 후 4년제 대학 편입자 수요 대응	-국가 간 연계 고등교육 체제 -유학생 선발과 교육 시스템 정비 -유학생 추수 관리, 지원 시스템

첫째, '고교-대학 직선형' 대응 교육 사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고교-대학의 교육과정 보완 및 실질적 연계를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116]. 버지니아 공대와 미시건 대학교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러닝 강좌, 온라인 가상시스템 등 다양한 학습 환경 및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쌍방향 의사소통과 참여를 통해 개별 학습 지원이 실현되었다. 학생맞춤형 개별 교육 지원 시스템은 다양한 고교 수준의 학습 준비도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많은 학생들에 대한 상시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호작용적 교수학습 실천 사례는 고등교육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점차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고등교육 현장의 적용 사례는 다양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교육과정 및 학생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 창출과 기존 교육과정의 연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다각적인 고등교육 전략으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편입제도를 중심으로 살펴 본 '학사 연계형'은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업과 시간제 노동을 병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존재하는 한국의 대학 현실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학사 연계형이 활성화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2년제 전문대학에서 학업을 시작함으로

116) 접근성(Access)과 교육의 질(Quality) 향상, 그리고 비용(Cost)의 절감이라는 고질적인 과제 해결을 위하여 미국 고등교육이 찾아낸 적극적 대안은 과학기술의 활용이다.

써 교육비용을 절감하고, 편입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즉, 전문대학의 편입프로그램을 확대하고 4년제 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위 취득의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학사 연계형은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단순히 4년제 대학교로의 진학 실패에 대한 차선책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진로 선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과열 학력 경쟁 문화와 학벌 거품을 제거하고 국제적인 산업 경쟁 사회에서 실질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발전 방안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호주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여 고등교육의 활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 연계형 모델은 고등교육의 국제화 제고라는 현 고등교육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제공한다. 호주의 사례에서 유학생 지원을 위한 법체계와 지역커뮤니티, 대학 당국과 다양한 교육기관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유학생 유치에서 대학생활 지원, 졸업 후 취업 및 정착까지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다각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유학생 유치 현실은 대학평가의 지표 향상을 위한 단기적인 방안과 일시적이고 파편적인 정책 마련에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라는 실질적인 틀 속에서 세계인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연구한 결과를 교육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총체적인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반영한 새로운 유학생 유치 및 추수 지원 전략이 사회 각 단위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재검토되고 기획될 필요가 있다.

Ⅵ. 대학 진학 유형별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1. 고교-대학 직선형
2. 경력 연계형
3. 학사 연계형
4. 국가 연계형

Ⅵ. 대학 진학 유형별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1. 고교-대학 직선형

가. 개선 방향

대학의 학생 구성에서 고교-대학 직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이나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전통적인 메인스트림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과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전통적 고등교육수요자인 고교-대학 직선형에서는 진학동기, 학습준비도, 학업성취도, 생활적응도의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이 증가하고 학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학생유형별, 나아가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둘째, 입학 초기부터 졸업, 졸업 이후까지 학생 개인별 필요와 경험,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증거 기반형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학과 및 교수, 전체 대학 차원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는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실현한다. 넷째,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관리·분석하고 교수와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조직 및 행정직원의 전문적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다섯째, 다양한 교수방법 및 교수매체를 활용하고 교수와 학생, 학생 간 상호작용과 공유, 협력에 초점을 둔 교수학습을 촉진한다. 여섯째, 대학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학습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나. 문제 진단

1) 선발 측면

고교-대학 직선형의 경우, 선발, 교육, 성과의 여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선발 측면에서는 대학 진학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 고교-대학 직선형의 경우 대학 및 학과 결정과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정보 제공 및 진학 지도를 받고 있으나, 그 구체성과 충분성은 학교별, 학생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은 고교, 대학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적, 수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고등학교의 진로-진학교육이 체계화되어야 하나, 대학 차원에서도 대학, 학과와 관련된 정보를 고등학생의 관점에서 알기 쉽도록 가공하여,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교육과정 측면

신입생 간, 재학생 간 격차 및 부적응이 확대되고 있다. 동일 대학, 동일 학과 내에서도 신입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학생 간 성적의 격차뿐만 아니라, 입학동기, 대학 및 학과 선택 이유 등도 다양하다. 입학전형이 다양화되고, 학생의 학업 준비도에서 차이가 커짐에 따라 전공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학 직후(혹은 직전)부터 기초능력을 갖추도록 학업준비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학 및 학과 선택 시 불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대학생활 적응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학업동기 측면에서도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재학생의 경우 상당수의 학생들이 생활뿐만 아니라 학업 적응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 전공과목의 성공적 이수를 위해서는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보충프로그램(remedial program)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성과 측면

학습경험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효과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학생들이 대학 재학기간 동안 경험하는 학습경험은 매우 다양하다. 대학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과 및 전공,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등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방법 측면에서도 강의수업 이외에 토론, 프로젝트, 온라인, 쌍방향 수업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습매체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습에 유용성 정도는 대학, 학과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특성별로도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예컨대 팀 프로젝트, 온라인 학습 등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가장 유용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수 및 동료 학생의 피드백과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이므로 학과별 전공교육에 적합한, 더 나아가서 수강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부적응학생을 위한 보충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수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학 초기부터 학생 특성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자료, 정보의 분석과 축적, 그리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다. 개선 방안

1) 선발 측면

선발 및 입학 차원에서는 대학별로 진학수요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예정자를 유치·지원한다. 첫째, 대학별, 전공별로 진학수요를 파악하여 특화된 정보와 자료를 이해하기 쉽고 접근활용성이 높게 제공해야 한다. 고등학생들이 대학, 학과를 선택하는 기준과 동기는 자신의 성적과 주변의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대학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대학진학과 관련된 특화된 자료,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둘째, 대학은 고등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대학, 학과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대학진학

이후 전공이수과정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중도탈락하기도 한다. 대학, 학과의 특성과 프로그램을 충분히 파악하고 자신의 적성을 감안하여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중도탈락률이 낮고, 학업 및 생활 적응도, 성취도가 높으며,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설립목적, 교육목표 달성과 대학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가능성도 높다.

2) 교육과정 측면

가) 교육과정

교육과정 차원에서는 학생의 학습준비도를 고려하여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내용의 수준과 적합성을 제고한다. 첫째, 대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학생들이 학업적, 정서적 측면에서 충분히 준비를 갖추도록 지원하여 대학 학업 및 생활 적응도를 높여야 한다. 고졸 직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대학, 학과에 관한 불충한 정보, 부정확한 자료에 의존하여 다소 불안한 선택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또 동일 학과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서로 다른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어서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다. 출발점에서 학습 및 생활 준비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여 한 학생도 낙오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둘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전공별 교육목표, 특성을 기반으로 하되 학생들의 진로, 미래 직업, 학업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유연화하고 지속적으로 재구조화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전공, 자기설계전공 제도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융합전공, 무전공 제도를 도입, 확대한다. 기초교양과정은 물론 전공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수준과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수준과 분량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한다. 많은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흡과 학습시간 부족으로 원하는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 대학 졸업 이후 학생들의 진로도 매우 다양하다. 전공 내 진로별 트랙을 세분화하고 트랙별 교육과정 이수모형을 제시하고, 수준별 과목 편성을 확대한다. 교육과정에서 현장 연계를 위해 인턴십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기존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학생들은 교환학생 등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되기를 원한다.

셋째, 학생 구성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모든 대학들이 높은 학업 수준을 가진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학업 지원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파악하여 보충 프로그램(remedial program)을 제공한다. 또 우수 학생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나) 교수학습 및 교육 환경

교수학습방법 및 교육환경 차원에서는 다양한 교수매체를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진로 및 취업 탐색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첫째, 전공별, 과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강의, 실험·실습·실기, 토론, 프로젝트, 팀 학습, 온라인학습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 확충한다. 어떤 형태의 교수방법을 사용하든지 교수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교수와 학생, 학생 간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 공유, 협력을 통해 학생의 만족감, 성취도, 역량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도교수제와 멘토링을 활성화하여 학생 개인별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진로 및 취업 탐색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과 삶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형태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학시부터 학생이 이수하는 교과, 비교과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경력개발에 연계한다. 학생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학년별로 적절한 진로 및 직업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학생별 정보 분석을 통해 고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예방 및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3) 성과 측면

교육성과 차원에서는 학위, 학점과 같은 대학교육의 성과가 취업과 계속학습으로 연계되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도록 하며, 중도탈락 및 졸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첫째, 대학교육의 성과가 졸업 이후 취업, 진로, 진학 등에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통해서 학위와 학점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제고한다. 학생의 역량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장래 고용주들이 원하는 인재와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재정립한다. 필요한 경우, 전공별로 핵심역량을 체계화하여 교육목

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편,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 등을 총체적으로 추진하여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고(최상덕 외, 2013), 나아가 교수학습역량 진단기준을 설정하여 대학교육을 질 관리하고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유현숙 외, 2013b)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 졸업증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경험, 역량, 성취, 자격 등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사업 참여를 통해 우리 대학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점검·제고하고(유현숙 외, 2013a), 국제기구 및 고등교육관련기관, 해외 유수 대학과의 긴밀한 연계·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진학률, 중도탈락률, 졸업률 등을 더욱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 취업 등을 이유로 대학 재학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도탈락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학교,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다시 준비하는 경우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부담과 손실은 막대하다. 재학 기간이 늘어나면 학생 개인적으로 비용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대학 차원과 국가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규모의 유지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는 입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학업, 생활, 경제 등 학생들이 중도탈락하는 원인별로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앞으로는 신입생 충원률보다 2학년 진학률, 중도탈락률과 6년 이내 졸업률 등에 관심을 갖고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 실천 전략

1) 대학 차원

최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에 입학하는 전통적인 유형의 고등교육수요와 대학진학행동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학은 이러한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고등교육체제를 지속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기업 등 대학졸업 이후 고등교육 수요자들과 협력을 통해 대학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수요자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학생들은 더욱 다양한 경로로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시 그들이 원하는 모습도 다양화될 것이므로 대학은 설립이념과, 비전, 교육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것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대학은 중등교육과 직업, 이후 평생의 삶과 학습을 연결하는 핵심주체로서 중등학교의 교원과 학생,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연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때 대학별로 진학수요가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해당 대학, 학과를 선택한 요인(매력요인, 유인요인)을 고려한 정보 제공 및 학생유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학생유형별로 진학 정보의 내용과 제공 형식을 달리하여 대학, 학과, 진학, 진로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일관된 정보시스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학운영 차원에서 보면, 개인별, 학과별, 대학 전체 차원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조직 및 인력을 확대하며, 대학별 교육체제의 비용 효과성과 책무성을 제고한다. 첫째, 전교적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입학 초기부터 학생특성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자료, 정보의 분석과 축적, 그리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습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상시적 성과 측정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전문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학생, 교수, 직원, 행정가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방안을 조언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확대하고, 직원의 지원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교수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질 관리, 인증, 평가를 담당한 전문조직을 확보한다. 앞으로 대학의 발전은 직원이 전문적인 지원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이 학생, 교수, 행정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아울러 다양하고 개별화된 교육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수의 교육 및 학생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교수의 책임시수 산정방식, 책임범위, 보수 및 승진 등 교직원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셋째, 대학의 교육체제와 교수학습활동의 비용 효과성을 제고하고, 대외적 책무성을 확보한다. 각 대학들은 교육과정, 교수학습, 생활적응, 진로 및 직업탐색 등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시설·설비를 도입하여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다양하고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학이 제공하려는 프로그램과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

램,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효과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별로 참여도, 만족도, 유용성, 효과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대학들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대학교육에는 막대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학별 교육체제의 성과, 비용 효과성, 학생의 성장과 성취 등에 관한 정보를 정부, 국민, 학부모에게 적절한 형태로 공개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한다.

2) 정부 차원

정부는 대학이 특화된 교육목표, 교육내용으로 수준 높은 교육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정비한다. 학사운영,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에서 학생별 수요를 반영한 유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대학-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고, 학생, 학부모, 기업, 국민의 대학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고등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고등교육체제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면서 그들이 설립이념과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교수들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해 표준화된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수자로서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단기 교수학습 자격과정, 박사과정 이수시 교수학습 관련과목 필수이수 등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국내 대학들은 서로 모방을 통해서 대학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므로 대학교육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 간 경쟁보다는 협력이 강화되도록 정부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선도적인 대학들의 아이디어와 성공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연구성과보다는 교육과정, 교육성과에 초점을 두고, 잘 가르치는 대학, 잘 가르치는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채재은 외, 2009)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학 간 경쟁보다는 협력을 촉진하고, 선도적인 아이디어를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또 학생유형별로 진학정보의 내용과 제공형식을 달리하여 대학, 학과, 진학, 진로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일관된 정보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유관 기관 차원

고등학교, 기업 등은 전통적 고등교육수요에 맞게 대학들이 교육체제를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 진로에 가장 적합한 대학,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진학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업성적 우수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가장 적합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교류를 확대하고 고교와 학생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한다. 기업은 고등교육의 최종 수요자이자 수혜자이다. 대학에 필요한 인재와 역량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기업에 필요한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지원하며, 대학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수학습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인력과 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전통적 학생유형을 위한 교육체제는 대학별로, 전공별로 달리 설계되어야 한다. 이때 참고할 수 있는 고교-대학 직선형의 개선과제를 선발(입학), 교육(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환경), 성과(학교적응, 교육성과)의 측면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주체별 실천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1〉 고교-대학 직선형 개선 방안 및 실천 전략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고교-대학 직선형</th></tr>
<tr><th>현황 진단</th><th>개선 방안</th><th>실천 전략</th></tr>
<tr><td>선발</td><td>• 입학자원 다양화
• 진학정보 부족
• 고교 진학지도 미흡</td><td>• 대학 진학수요 대응 적극적 정보 제공
• 고교연계 프로그램 강화</td><td rowspan="3">[대학 차원]
•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 수요 특화를 통한 학생유치 및 교육
• 관련조직 및 직원 역량 강화
• 비용효과성 및 책무성 제고
[정부 차원]
• 교육이해당사자 간 협력 및 신뢰 촉진
• 대학 및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 지원
• 대학, 학과, 진학 관련 정보 제공
[유관기관]
• 고교: 진로진학교육 강화
• 기업: 교육과정운영, 교육환경개선 지원</td></tr>
<tr><td>교육과정</td><td>• 학생간 편차 확대
• 학습 및 생활 부적응 증가
• 교수학습방법 다양화 및 첨단화
•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특성화
• 학생선택권 확대
• 즉각적 상호작용 선호</td><td>• 학생준비도 제고 (학업, 생활)
• 교육과정 및 학사 제도 유연성 강화
• 개별화된 학업지원 (보충, 심화)
• 교수학습 방법 및 매체 최적화
• 상호작용 및 공유 협력 학습 촉진
• 진로취업 탐색 지원 (학생별 포트폴리오)</td></tr>
<tr><td>성과</td><td>• 학습경험의 다양성 증가
• 집단별 학습 효과성 차이</td><td>• 취업 및 평생학습 연계 역량 강화
• 중도탈락 및 졸업률 적극 관리
• 국제적 통용성 제고</td></tr>
</table>

2. 경력 연계형

가. 개선 방향

경력 연계형의 대상이 되는 성인학습자는 Ⅲ장에서 살펴본 재직자 과정 외에도 다양하다[117]. 이 절에서는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경로를 통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를 주요 논거로 하면서 대학이 학위과정에서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계약학과와 시간제 등록제의 경우를 가미하여 교육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경력 연계형 교육체제 운영을 위한 개선방향은 첫째, 직업경력을 갖고 있는 성인학습자라는 특성에 부합하도록 대학 진입부터 교육과정, 교육성과 및 졸업 후까지 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성인친화적인 대학 체제(진입-과정-성과활용경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성인학습자를 교육대상으로 상정할 때 대학은 개인 수요 외에도 지역사회와 지역산업의 요구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전통적인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력 연계형의 활성화는 정원감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나. 문제 진단

1) 선발 측면

정부가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이 추진한 특성화고졸 재직자특별전형은 기존 특성화고졸 전형을 1.5%로 축소하고 2015학년도부터 5.5%까지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Ⅲ장 참조). 그러나 2015학년도 기준 전국 70여개 대학에서 재직자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나(모집정원 약 5천여 명), 아직까지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낮은 상황이다[118].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입경로로서 강력한 대안은 시간제 등록제(개별 학점 이수를 통한

117) 성인학습자는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 시간제 등록, 학점 등록, 사내대학, 사이버대학 등의 제도를 통하여 학위과정 고등교육에 진입한다(이희수 외, 2014, pp.34~35 참조). 각 제도의 근거법령이 고등교육법(시간제 등록, 산업체 위탁교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사이버대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계약학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은행제), 평생교육법(사내대학)으로 다양하고, 각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도 제도별로 차이가 있다.

118) http://univ.kcue.or.kr/에서 2014년 10월 25일 자료 검색하여 작성.

학위 취득)인데, 제도적으로 시간제 등록제는 고등교육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대학이 운영하지만, 시간제 등록학생은 대학의 정규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일반 학습자의 자격으로 대학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이수 실적을 학점은행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위를 받을 수 있다(박상옥 외, 2012).

한편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하여 대학 등이 국가, 지자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 교육기관 간 또는 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 유형은 산업체가 향후 채용을 조건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대학에 두고 운영하는 채용조건형과 소속 직원이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대학에 교육을 의뢰하는 재교육형의 2가지이다. 교육경비의 50%이상을 산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정원은 재교육형의 경우 별도 제한이 없고, 채용조건형의 경우 정원의 10% 이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2013년 현재 대학 학사과정 수준의 계약학과 재교육형은 9,127명, 채용조건형은 1,160명으로서 전체 10,287명이 재학 중이다(엄문영, 2014).

2) 교육과정 측면

첫째, 학습준비도 측면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업능력 수준이 전통적 학습자에 비하여 낮을 수 있다. 재직자 과정의 경우 특성화고졸 취업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국어, 영어, 수학 등 기본과목에 대한 심화학습이 부족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을 갖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론과목 학습을 위한 기본소양은 다소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실무경력을 통하여 쌓은 지식과 기술이 있다는 점이 전통적 학습자와 다른 점이다.

둘째, 경력 연계형 학습자는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시간상의 애로가 있다. 재직자 과정 사례조사 결과 주중 야간과 주말 토요일로 수업시간이 편성되어 있어 수업 후 그룹 프로젝트 활동 등을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주말의 경우에도 하루 종일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매우 피로함을 호소하였다.

셋째, 경력 연계형 학습자는 학비 부담을 큰 애로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산업체에서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5항) 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경로지만, 재직자 특별전

형의 경우 여타 대학생과 동일한 학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직장을 가진 재직자이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주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의 혜택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현재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더라도 지출수준 역시 높은 성인학습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인 셈이다.

넷째, 재직자 과정의 경우 전공이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현장과 괴리된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사례조사의 경우에도 C대학교는 경영학과만을, D대학은 컴퓨터공학과 지역건설공학과라는 2개 전공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대학이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성인학습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은 자칫 과목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다섯째, 경력 연계형 학습자는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전통적 학생과 다른 요구가 있다. 예컨대 강의 전달식 보다는 토론 위주의 수업방법이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학습방법으로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룹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시간상의 애로로 인하여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재직자 과정의 성인학습자는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심리상담, 복수전공, 교환학생, 진로취업지원 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제적인 제약이 있다. 학교에 있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제약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직요건에 의하여 직장에서의 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다.

3) 성과 측면

사례조사에 의하면 재직자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통하여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주요 역량은 전공분야 지식 기술과 인문학적 지식 및 교양이라고 보고 있다. 입학 이후 향상도가 높다고 인식한 역량도 동일하였다. 다만 외국어 구사능력은 중요한 역량이라고 인식하면서도 향상도가 낮았다.

경력 연계형 학습자는 대학교육을 통하여 전공분야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이직, 전직 또는 승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성인학습자가 대학교육 이수 결과로 기대하는 성과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사례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동일 회사에서의 전직 또는 승진은 쉽지 않은 편이다.

다. 개선 방안

1) 선발 측면

재직자 전형의 입학경쟁률이 낮고, 등록인원이 적은 이유는 우선 자격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즉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일정한 기준을 가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입학자격이 제한되고, 입학한 이후에도 학업과 동시에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입학자격 요건을 일정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선택하여 직장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더 오랜 재직기간(예컨대 5년)을 요구함으로써 입학가능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간제 등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학점을 모듈화하고 대학 자체의 학위를 제공하되, 대학이 스스로 질 관리를 하도록 책무성을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결국,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학전형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벽들이 제거될 필요가 있다. 대학 입장에서도 앞서 제시된 시간제 등록, 재직자 특별전형 외에도 학점단위 등록, 만학도 전형, 농어촌 성인 전형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교육과정 측면

첫째, 성인학습자의 경우, 학습준비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보충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동기부여 및 학력신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력 연계형 학습자에 대하여는 고교졸업 이후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하거나 학점을 취득하는 등 이전의 경력을 선행학습으로 인정할 필요도 있다. 2013년 7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은 학습, 연구, 실습, 또는 근무경험을 선행학습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4년제 일반대학에도 선행학습인정제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동시에 고등교육의 질 관리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직업현장에서의 경험을 무조건 선행학습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선행학습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학사운영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성인학습자를 위해서는 수업연한을 단축하거나 단기 집중이수제, 파트타임제, 학점당 등록제 등 학사운영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강좌시간의 유연화(야간, 주말), 장소의 유연화(원격강의, 이동교육) 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성인학습자의 대학 입학을 진작시키고 재학 중 중도탈락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비학위 과정에만 적용되는 고용보험환급 적용을 학위과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도가 학령기 학생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재직자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성인학습자가 일과 학업의 병행으로 인하여 전일제 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학점을 이수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학자금 대출시 이수학점 요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직자 전형이나 계약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공 및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러나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공 및 교육과정 다양화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C대학교 사례와 같이 코세라(Coursera) 등 다양한 온라인 강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력 연계형 학습자는 전통적인 학생과는 차별화된 교수학습방법이 필요하다. 즉 성인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식 토론식 수업을 지향하고, 교육과정도 이론보다는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에 관심이 많으므로 이러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

여섯째, 경력 연계형 학습자에게 대학의 다양한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 진로취업지원을 위하여 대학의 관련 기관에서 추가적인 시간을 할애하고, 교환학생 제도나 복수전공 등 성인학습자의 경험 및 전공 다양화를 위하여 현존하는 제도적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예컨대 재직자의 경우 학업과 직장의 병행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교환학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 경우 교환학생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재직요건은 어느 정도 완화하여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성과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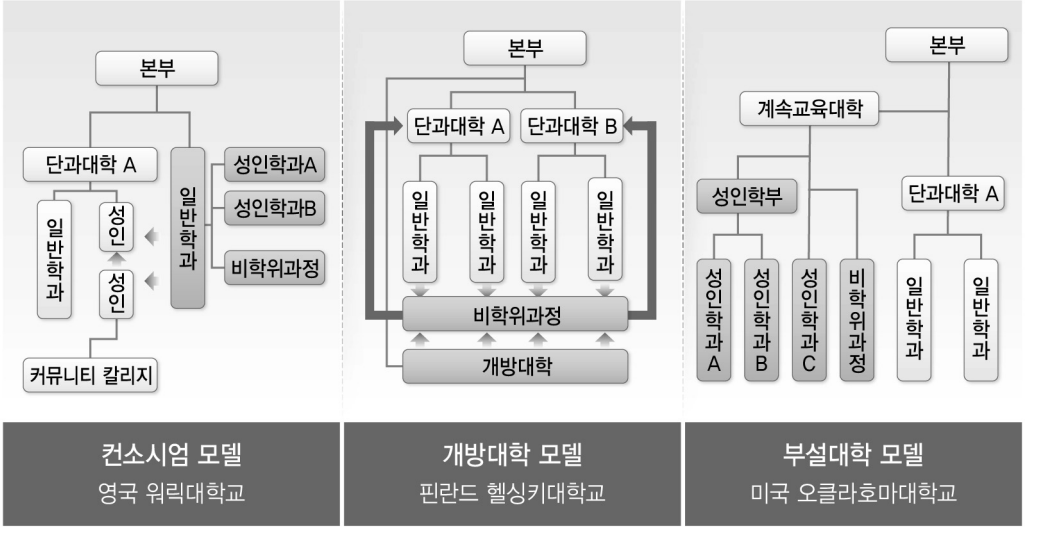
학위취득 이후 이직, 전직, 승진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경력 연계형 학습자에게 부합하는 맞춤형 진로지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인학습자의 경우에는 고등교육기관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과정을 마치고 나가는 전 과정에 있어 산-학-관 연계 협력이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라. 실천 전략

1) 대학 차원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라 전통적인 학생 입학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대학은 경력 연계형 학습자를 주요 교육대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경력 연계형 학습자를 대안적인 입학자원으로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한 대학은 재직자전형을 활성화하고, 지역산업체와 연계하여 계약학과 설치, 시간제등록제 학생을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입학전형을 다양화하고, 입학자원 모집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지자체, 지역산업체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투입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산업의 대학교육 수요를 읽어내는 노력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이 성인학습자 모집을 확대하여 입학시킨 후에 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적인 노력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즉, 재정 확충의 대상으로서만 인식하고 이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때 오히려 장기적으로 대학의 평판과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와 지역산업체와의 연계 협력은 필수적이다. 지역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산업체의 재교육 수요를 정확하게 읽어내어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대학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대학 또는 평생교육학부(가칭)를 신설하고, 주말/야간반 편성, 집중이수제, 시간등록제 등 업종별 후진학자의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후진학 트랙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Ⅵ-1] 해외대학에서 운영 중인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육운영모델

*출처: 정광희 외(2014).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 운영 체제 개선방안 탐색. KEDI 정책토론 자료집, P.94 참조

[그림 Ⅵ-1]은 해외대학에서 운영 중인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육운영모델이다. 첫째, 영국 워릭대학교의 경우 컨소시엄 모델로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성인을 위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타 학부에 재학하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행정서비스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경우 개방대학 모델로서 일반학과의 교과목을 비학위 프로그램 형태로 개방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의 부설대학 모델은 별도의 계속교육대학을 두고 이 단과대학 내에 성인학과와 비학위과정까지 총괄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여전히 전통적인 학령기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체제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경력 연계형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지원체제를 대학행정조직 안에서도 구현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재직자 중심의 개방형 학부 체제인 평생교육학부 또는 대학(가칭)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성인학습자 과정인 선취업 후진학과정, 계약학과, 시간제 등록제를 관리 운영하는 학사조직으로 평생교육대학을 설치하고 일원화된 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성인친화형으로 대학체제를 개편하는 방안

으로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학습지원 등을 위한 성인학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2) 정부 차원

우리 사회의 인구고령화, 저출산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정부는 포화상태에 놓여있는 고등교육기관을 평생교육에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8년부터 대학중심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고, 2013년 현재 34개 대학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참여대학이 주로 비수도권과 전문대학이었고, 지금까지 이들 대학의 재정문제 해소 기여 차원에서 이해되었던 것이 사실이다(이희수 외, 2014).

첫째, 정부는 현행 운영되고 있는 후진학자 대상의 입학전형을 더욱 다양화하고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정부는 제도적으로 다양한 근거법에 의거하여 성인학습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따라서 현재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진입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에 선취업 후진학을 강조하고 특성화고졸자의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3년 이상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 전형의 경우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경쟁률이 저조한 상태라서 입학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자격요건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이외의 고교 졸업자를 배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예컨대 일반계고를 졸업하고 5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요건으로 한다면 추가적인 자원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학기간 중 재직요건 부분은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일제 입학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자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데, 재학과 재직의 동시 병행을 엄격하게 운영하는 취지는 살리지만 제도가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도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의 정원 문제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이희수 외, 2014). 다만 재직자전형에서와 같이 성인학습자의 경우에는 정원 외로 인정하는 것이 당분간은 대학 간 이해관계의 충돌문제를 피하는 방법일 수 있다. 즉, 모집정원을 다 채우면서 정원 외로 성인학

습자를 모집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대학은 이를 허용하고, 충원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에도 정원 외로 인정하되, 정원 외 인원의 비율을 신입생 충원률에 역비례 하도록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즉, 전통적 학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에 성인학습자 충원 가능성의 폭을 상대적으로 확대하여 열어줌으로써 대학 간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정보공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학공시지표에서 학령기 학생과 후진학자(재직자 및 성인학습자)를 이원적으로 분리하여 대학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후진학자 관련성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공시항목을 추가할 필요성도 있다. 예컨대 학위과정의 경우 시간제 등록제 운영실적, 학점인정 실적, NCS 등 현장중심형 교육과정 개발 노력,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제도 운영 실적 등의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대학이 보다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교육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정광희 외, 2014: 91-95).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대학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학이 성인학습자 친화형으로 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유관기관 차원

경력 연계형 성인학습자는 지역사회 주민 또는 지역산업체 재직자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력 연계형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의 일련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산업체와의 연계 협력은 필수적이다. 대학은 입학자원을 발굴하는 데서부터 지자체 요구, 지역주민 수요, 산업체 수요를 조사하고 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 입장에서 강점을 가진 프로그램을 세일즈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자체와 산업체의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자체와 산업체도 지역주민과 재직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을 적극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산업체는 대학에 계약학과 설치 등을 통하여 재직자 재교육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체와 지자체, 대학이 취업박람회를 함께 실시하는 등 학위취득 이후 이직, 전직을 모색하는 성인학습자의 취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가 일과 학업을 보다 용이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서는 학습휴가제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을 받고 취득한 학위 또는 자격증이 승진에 가산점이 되도록 기업 내 인사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표 Ⅵ-2〉 경력 연계형 개선 방안 및 실천 전략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경력 직선형</th></tr>
<tr><th>문제 진단</th><th>개선 방안</th><th>실천 전략</th></tr>
<tr><td>선발</td><td>• 엄격한 재직자전형 요건(특성화고, 마이스터고졸, 3년이상 재직경력) → 모집경쟁률 저조</td><td>• 지원 자격요건 완화
• 시간제등록제도의 대학학위 수여를 통한 활성화
• 계약학과 활성화</td><td rowspan="3">[대학 차원]
• 지역사회, 산업체 수요조사
• 성인학습자 입학전형 다양화
• 유연한 학사운영
• 평생교육학부(대학) 등 설치
• 성인학습지원센터 설치 운영
[정부 차원]
• 입학전형 요건 완화
• 대학정보공시제도 개선:학령기 학생과 후진학자 분리하여 지표 구성
[유관기관]
• 지역산업체: 계약학과 개설, 취업박람회 공동개최
• 기업: 학습휴가제 허용, 인사제도 개선</td></tr>
<tr><td>교육과정</td><td>• 학습준비도 미흡
• 일과 학습 병행으로 인한 시간상의 제약
• 학비 부담
• 전공의 비다양성
• 이론위주 교육과정
• 성인맞춤식 교수학습방법 부족
•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불가</td><td>• 학습보충 프로그램
• 학사 제도 유연성 강화
• 다양한 학자금지원 방안 마련
• 실무를 충분히 가미한 교육과정 마련
• 상호작용 및 협력 학습 촉진
•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td></tr>
<tr><td>성과</td><td>• 전공지식과 기술, 인문학적 소양 향상 기대
• 학위 취득후 경력 발전</td><td>• 진로취업지원 강화, 산-학-관 연계 강화</td></tr>
</table>

3. 학사 연계형

가. 개선 방향

보다 바람직한 학사 연계를 위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편입학제도가 편입학과 관련된 해묵은 과제(지역대학 공동화, 대학서열화 심화, 학사운영 부실, 사회적 비용 증가 등)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학생의 입장에서 고등교육기회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둘째, 대학은 편입생들의 선발과 더불어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대학 재학 중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편입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편입생들이 대학 안팎에서 일반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문제 진단

1) 선발 측면

지난 30년 동안 고등교육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7명 정도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a: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입학한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옮기려고 하는 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 입학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2010년 편입학 전형 지원자 약 27만 명, 교육과학기술부, 2012.4.17)[119]. 이러한 편입학에 대한 잠재수요에도 불구하고 현재 편입제도(2012년 개선안)는 편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비록 편입을 통한 학생 이동은 지역인재의 유출과 편입학 준비를 위한 사회적 비용(2010년 편입학 사교육비 약 4천3백억 원)[120]의 발생과 함께 지역대학의 면학분위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교육과학기술부, 2012.4.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을 학생 관점의 형평성, 즉 새로운 기회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앞서 살펴본 연계편입과정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들의 상향적 학교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이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연계편입과정을 통해서 편입을 계획하는 학생들도 전문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성적에 따라 졸업시점에 연계편입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수인 연계편입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취업과 진학 사이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

2) 교육과정 측면

편입생들은 일반적으로 이전에 다니던 대학과는 다른 환경에 노출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문대학에서 4년제 일반대학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환경의 차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119) http://kess.kedi.re.kr/index, 2010년 고등교육기관 입학자수 : 817,225명, 2014년 10월 23일 검색. 교육과학기술부(2012.4.17). 붙임자료. p.2, 2010년 편입학 전형 지원자 수: 273,622명, 2014년 10월 23일 검색.

120) 교육과학기술부(2012. 4. 17). 교과부,「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발표. 보도자료

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에 비해서 교육프로그램과 대학생활에서 중요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제약이 많다.

재학 중이나 졸업 후에도 편입생이기 때문에 차별을 경험하거나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대학은 전반적으로 엘리트 중심이면서 진입시점 중심의 사고와 시스템을 갖고 있다. 즉,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성적에 기초해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들은 오랫동안 학생들의 대학 진입시점을 중심으로 모든 학사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번도 입학년도에 따라 달라진다. 편입생에게는 일반학생들과 구별되는 학번이 부여된다. 또한 학생들의 대학 진입시점에 따라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위상도 달라지고 처우도 다르다. 수시, 정시, 편입학생들은 이러한 진입시점의 차이에 따라 다른 대접을 받는 대표적인 분류방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적이나 진입시점의 어떤 측면에서도 편입생은 대학생의 여러 유형 가운데 맨 나중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 내 위상 때문에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도 크다.

3) 성과 측면

편입생들은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 안팎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어렵다. 우선 편입생들이 대학 내 일반학생들과의 교류가 어려운 것은 학업능력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고 대학생활 중간에 진입해서 새롭게 친구나 선후배 관계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수들과의 교류도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편입생들과의 교류와 지도를 위해서는 교수들의 추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 더 나아가서 대학에서 소수의 학생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더 배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편입생들은 한국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대학에서 구축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의 성과가 일반학생들에 비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다. 개선 방안

1) 선발 측면: 연계편입 과정의 확대와 대학 간 협력 강화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우리나라 편입학 제도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공생이라는 명분으로 대학 간 학생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러한 제한을 완화할 경우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학생 이동의 회오리가 휘몰아치고 남아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이동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비록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학력 세탁으로서의 이동과 사회적 이동을 구분해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공생이라는 명분 때문에 고등교육기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까지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연계편입과정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연계편입과정의 출발점인 전문대학은 단기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직업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1979년부터 시작되었다[121]. 연계편입과정은 2000년부터 도입되어 최근(2009~2011)에는 약 800명의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고 있다[122]. 편입의 여러 유형 가운데 연계편입과정은 전문대학을 종점교육기관이 아닌 순환교육기관으로 보는 것이다. 한편 2008년부터는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도 운영되고 있다[123]. 이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연계편입과정에 비해 훨씬 많은 약 9천명(2014년 현재 70여개 대학 입학생)에 이르고 있다[124]. 전문대학에서 실시하는 전공심화과정은 비록 학사학위를 수여하기는 하지만 전문대학교육의 틀 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종점교육기관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전공심화과정이 연계전공과정을 통해서 추구되는 고등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자는 여전히 학생들을 전문대학의 울타리 속에 가둬 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계편입과정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연계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이 교육과정 공동운영과 학생 관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121) http://www.kcce.or.kr/college/college_history.jsp, 2014년 10월 23일 검색.
122) 교육과학기술부(2012. 4. 17).「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 붙임자료 p.4.
123) http://www.kcce.or.kr/college/college_deep.jsp,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내용. 2014년 10월 23일 검색.
124) http://www.kcce.or.kr/college/college_deep.jsp,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신입생 모집 현황(2014년도). 2014년 10월 23일 검색.

2) 교육과정 운영 측면: 벽 없는 교육제도, 구별 없는 학사 운영

편입생들이 전문학사과정을 마치고 편입을 하지만 전문대학과 4년제 일반대학의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실질적 차이를 고려해서 편입생들이 편입한 대학에서 기대하는 교육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4년제 대학들은 기초교양교육을 1-2학년 시기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대학에서는 수학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기초교양교육보다는 실습중심의 전공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학제 간 교육과정의 차이 때문에 편입생들은 기초교양교육의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기초교양교육이 필요하다. 다만 대학 입장에서는 편입생들의 규모가 크지 않고 전공별로 흩어져 있는 경우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생들과의 통합식 교육 또한 과정적 측면에서의 형평성은 제고할 수 있지만 교수학습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기대하는 교육성과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편입생들이 일반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사제도와 대학 생활 참여에 제한과 차별이 없도록 교육 및 학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 편입생들에게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운영 시기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교환 학생, 복수 전공(부전공), 장학금, 동아리 활동 및 학생 단체 활동 등은 3학년 이전에 신청과 선발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고 제도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편입생들에게 부여되는 학번도 신입생을 기준으로 하는 학번 체계가 아닌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을 고려한 새로운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편입생들은 3학년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동료 학생이나 선후배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교수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편입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하거나 편입생들에게 부적절한 제도나 운영 방식을 바꾸려는 경우에 대학은 차별과 역차별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편입생들에게는 일반학생들에 비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의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는 경우 편입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응당 받아야 하는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편입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들에게 부족한 지원이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3) 교육성과 측면: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성과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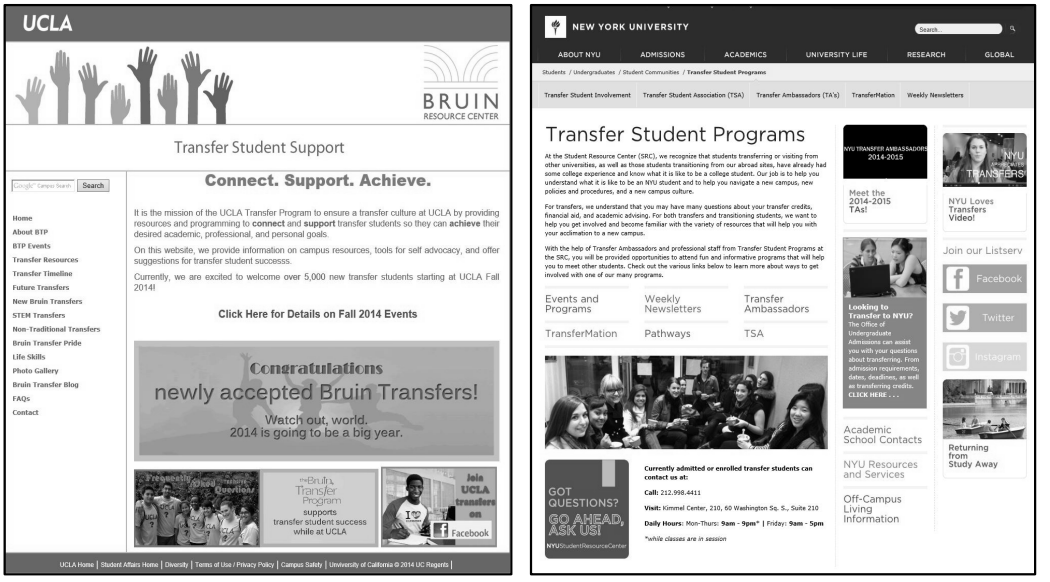
대학교육의 성과는 매우 다양하고(이병식 외, 2012; Bowen, 1997) 학생 개인의 기대와 노력에 따라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 편입생들에게는 중요하지만 흔히 간과되고 있는 교육성과 중의 하나로 동료학생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들의 교육성과(학업성취도, 학업중단, 취업과 진학 등)에서 일반학생들과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들의 이러한 성과들이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적절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대학자체평가에서 편입생 관련 핵심 성과지표(예: 만족도, 2년 내 졸업생 비율, 취업률 등)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 실천 전략

1) 대학 차원

전문대학과 4년제 편입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과정 측면에서 호환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대해 연계가 가능한 교과목들에 대해서 공통과목을 개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Ⅳ장의 미국의 편입제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연계대학 간에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공통필수 교양과목을 지정하고 과목 확정번호를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전문대학에서 편입한 학생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교양교육(특히 글쓰기)을 보다 강화하고 기초과목에 대한 교육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동아리활동 같은 대학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제도적으로 진입 장벽이 있는 영역을 찾아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그림 Ⅵ-2] 참조).



[그림 Ⅵ-2] 미국대학들의 편입생 지원 프로그램 예시(UCLA와 NYU 사례)

* 출처: 1) UCLA 편입생 지원 홈페이지 http://www.transfers.ucla.edu/, 2014년 10월 23일 검색.
2) NYU대학, 편입생 지원 홈페이지 :
http://www.nyu.edu/students/undergraduates/student-communities/transfertransitioning.html, 2014년 10월 23일 검색.

편입생들의 특별한 상황 – 3학년으로 진입 – 으로 인해서 일반학생들과 구별되고 그러한 구별이 대학 재학 중만이 아니라 졸업 후에도 지속되어 대학의 일원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제도들도 고칠 필요가 있다. 대학의 많은 제도들이 진입시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번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학번부여 방식과 학번에 따른 학생들의 구분이 일상화되는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서는 편입생들은 대학재학 중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일반학생들과 구분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대학의 학사제도와 문화를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학번도 재학 중에는 입학시기가 아니라 무작위로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학번이 의미 없는 숫자로 구성되면 학과와 학년으로만 구분하면서 대학생활을 하게 되고, 졸업 후에는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차원에서 편입생들이 대학에서 학교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학교동문을 비롯한 외부 관계자들과도 깊이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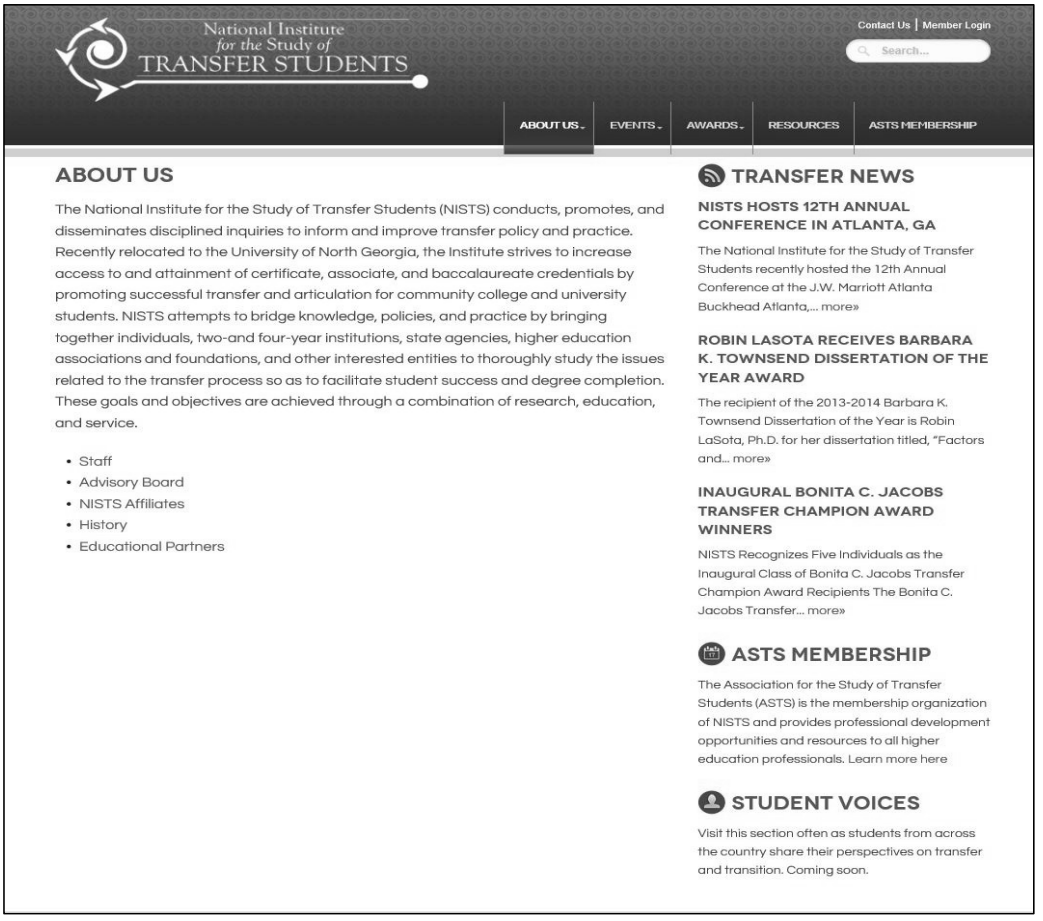
편입대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 센터를 통해서 보충교육, 학업 및 심리상담, 학자금지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원센터를 통해서 파악된 학생들의 고충과 요구들은 교수학습과정에 반영하도록 본부행정부처 및 해당 단과대학/학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2) 정부 차원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지방과 수도권 대학의 공생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획일적으로 편입을 제한하는 정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편입의 경우 학생 이동의 유형에 따라 그 동기와 대상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수평적 이동(4년제 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이동: 지방에서 수도권이 일반적 유형)의 경우보다 수직적 이동(2년제 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이동)이 고등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형평성 제고(사회이동 관점에서)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이동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편입제도를 편입유형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여건이 되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편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특히 2년제에서 4년제 대학으로 이동을 상대적으로 더욱 활성화시키는 차별화된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연계편입과정을 통한 이동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E대학교의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연계편입과정을 통해서는 편입과 관련된 기존의 문제들이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연계과정 제도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모든 전문대학 재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연계편입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의 수를 더 늘려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편입대학(인근지역에 제한토록 함)이 많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대학 내에서 4년제 대학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과 직업교육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학술트랙과 취업트랙)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다. 특히 연계편입과정(학술트랙)을 통해 이동하는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도 늘릴 필요가 있다. 대학이 학생들을 더 선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외에도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대학이 할 수 있도록 편입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편입생들을 추적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함께 학생들의 학교 이동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는 대학정책 중점연구소의 설립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림 Ⅵ-3] 연계편입학에 대한 대학의 지원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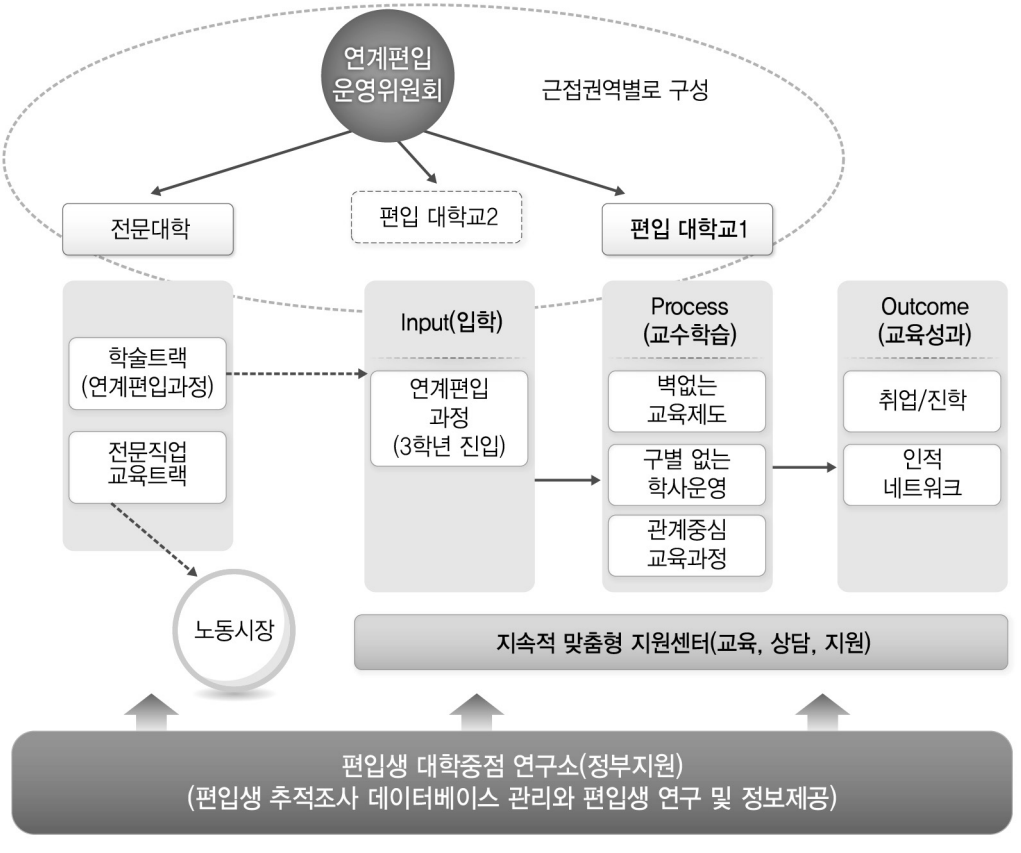
* 출처: http://transferinstitute.org/about-us/, 2014년 10월 23일 검색.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 수에 비해서 실제 편입을 통해 학교를 옮긴 학생의 규모는 크지 않다. 대학알리미의 공시자료에 따르면[125], 2013년에 약 9만 1천 명 정도가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으

125)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관련 자료에 대해 2014년 10월 29일 검색

로의 편입을 제외하면 편입생 규모는 약 3만 3천명(35%) 정도이다. 그리고 소수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500명 미만이고 100명 미만인 대학도 100여개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각 대학별로 이들을 추적조사하고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대학입학생 기준으로 약 30%에 이르기 때문에[126] 편입제도와 정책은 국가적으로 볼 때 폭발력이 있는 잠재적 정책 의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잠재된 편입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입생들을 조사하며 대학 수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편입생 조사와 연구를 위한 대학중점연구소 지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실천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Ⅵ-4] 연계편입과정을 통한 학사연계 실천 전략 모형

126) 각주 114 참조.

학사연계형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실천 전략을 대학 교육운영체제의 단계(선발, 교육과정, 성과)에 따라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3〉 학사연계형 개선 방안 및 실천 전략

구분	학사연계형 (연계편입 중심)		
	문제점	개선방안	실천 전략
선발	• 편입학의 일괄적 규제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기회 제약 • 연계편입 선발인원의 불확실성과 전문대학 학생들의 진로 갈등(취업과 진학)	• 편입의 목적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도입(학력세탁과 사회적 이동 구분) • 연계편입과정의 확대 •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 협력 강화	• 연계편입가능대학 풀 확대(인근대학 중심) • 연계대학 간 공통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운영(과목코드쉐어링) [장기전략] • 전문대학 프로그램의 이원화(학술트랙, 직업트랙) • 연계편입과정(학술트랙) 이수자 전원 진학기회 부여
교육과정	• 맞춤형 지원 부족 • 보이지 않는 차별(진입시점 중심의 제도 운영)	• 벽 없는 교육제도 • 구별 없는 학사운영	• 편입생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운영(홈페이지 구축) • 대학진입시점에 따른 장벽이 없는 개방형 제도 설계(Universal Access) [장기전략] • 졸업시점 중심 학사제도 운영
성과	• 인적 네트워크(동료 학생, 교수, 동문 등) 구축의 어려움 • 교육성과의 미흡	•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성과 진단	• 대학자체평가에 편입생 관련 핵심 성과지표 포함 장려 [장기전략] • 편입생 연구와 정보제공을 위한 대학중점연구소 운영

4. 국가 연계형

가. 개선 방향

외국인 유학생 학습 향상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은 학습역량 강화, 한국생활의 적응능력 강화, 졸업 후 진로·취업 시스템 강화를 통해 한국 유학 만족도를 높이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여 유학생의 지속적인 유입을 통해 한국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의 요구와 대학 운영의 일치, ICT 등 과학 기술 발달에 따른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그리고 격차가 심한 유학생들 간의 학습능력의 향상 등을 위하여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둘째, 여러 부서가 외국인 유학생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생기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유학생 교육 및 관리를 위하여 입학에서부터 진로·취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원스톱 서비스체제(one stop service system)를 구축한다. 셋째, 유학생도 대학의 공동 구성원이라는 인식 전환을 도모한다.

나. 문제 진단

1) 선발 측면: 양적 성장 강조 및 체계적인 온라인 정보서비스 부족

첫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대학재정 보충수단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전략적 접근이나 인식이 부족하다. 둘째, 유학생의 입학 및 한국 대학 정보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체계적인 온라인 정보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 대다수의 외국인 학생들이 대학 선정 및 지원 과정에서 모두 입학 및 학사 진행 과정 등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부분 홈페이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홈페이지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유학 지원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아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2) 교육과정 측면: 체계적인 관리 부족 및 소외 심화

유학생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다.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면, 첫째, 유학생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가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각 부처의 담당 행정 직원 및 교직원의 전문성에 따라 책임 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었다. 또 각 대학의 유학생 선발 방법 및 학적, 학사 관리, 교육과정,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평가를 바탕으로 관련 시스템 및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유연성이 부족하였다. 둘째, 외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 및 교직원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내 학생과 외국인 학생 간 학습 격차가 확대되고 있었다. 또한,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의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하며, 유학생을 학교와 강의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유학생을 위한 눈높이 수업 및 쌍방향 교수학습 방식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고 있다. 대학의 주입식, 교수들의 일방적인 수업방식 등에 대한 유학생들의 불만이 높았으며, 이러한 강의 방식은 한국어가 부족한 유학생들에겐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3) 성과 측면: 취업률 저조 및 사후 관리 체제 부족

첫째, 유학생의 저조한 취업률을 들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는 연간 약 1만여 명의 외국인 학생 중 국내에서 취업하는 사람은 100명 미만이다(강진구 2013: 29 재인용). 매년 열리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도 채용 실적이 높지 않아 그 효과가 크지 않다. 둘째, 대학 당국 및 국가 차원에서 졸업한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follow up)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귀국 유학생에 대한 활동 상황 점검 및 유학생 DB 구축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다. 개선 방안

1) 선발 측면: 유치정책의 목표·전략 재정립

유학생 유치정책의 목표·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 유치정책의 목표를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 대비 차원의 해외 우수 인재의 확보, 국내 대학의 국제화(외국학생과의 교류, 국제대학과의 파트너쉽 구축, 국제적 감각의 향상 등)를 증진시킨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한국의 유학생 유치정책의 목표는 수의 양적 증대를 통해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고 정부의 국제화정책에 부합하는데 있다 보니 효과적인 유학생 관리의 부재, 유학생의 아시아지역 편중 심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여 고등교육 국제화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저해하였다. 또한 유학생 수 중심의 유치정책은 대학별 특성과 환경에 대응하는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을 위한 다양한 모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학의 국제화는 대학제도, 대학 구성원, 대학활동 등의 모든 측면들이 국제적 차원에서 고려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교육과정 측면: 유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운영 체제 구축

언어문제, 상이한 교수학습 방식 등에 기인한 외국 학생의 학업적응 및 학습역량의 성공적인 증진과 효과적인 유학생 관리를 위해 유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운영체제를 구축한다.

첫째, 외국인 학생의 언어능력, 지적 능력에 따라 학업적응기간을 설정하여 유학생의 능력과 필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축한다. 예컨대 언어능력의 증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일정 기간 한국어 중심의 교육 적응기간을 설정하여 한국어 몰입교육(immersion education)을 실시하고,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는 실용적인 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시한다.

둘째, 교수와 학생 간의 쌍방향 수업을 실시한다. 학생들의 문화적 차이로 수업참여, 교수와의 관계 등에 일정한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 학생들의 다른 문화와 학습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적 쌍방향 수업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유학생들의 학업능력 평가에 있어서 국내 학생들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는 그들의 다른 언어, 교육,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절대평가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학생들 간 협력을 도모하는 학습자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필요한 요소이다. 단, 출결석 관리 및 객관성 있는 평가의 원칙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학업 수행 및 성공적인 생활 적응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튜터링, 한국어 학습센터 등의 운영을 들 수 있다. 단과대나 전체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들의 자치 모임을 활성화하여 그룹 안에서 서로를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와 함께 행정직원, 교수 등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강의실 및 캠퍼스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당국은 사이버 공간을 포함해서 인종차별의 언행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 및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대응책 등을 구축해야 한다.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지도교수제와 별도로, 학과 차원이나 단과대학 차원에서 유학생 전담교수를 임명하여 유학생들과 의사소통하고 이들의 학업과 대학생활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3) 성과 측면: 취업률 제고 및 졸업 유학생 인적 네트워크 구축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를 보면, 취업, 혹은 졸업 후 취업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노동시장 편입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는 지금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우수 인재 유치 및 관리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가전략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적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자국 내에서 한국 이해를 대변하는 인적자원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상위 교육기관 및 국내외 기업체 등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유학생의 지원과정을 돕는 직원을 전담 배치한다.

라. 실천 전략

1) 대학 차원

첫째, 대학 내 유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두도록 하되, 유학생 교육으로 특성화된 대학이라면 유학생센터를 설립 운영하도록 한다. 유학생센터는 학생들의 비자문제, 한국 내에서의 법적 체류문제, 학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부서이다. 유학생센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및 지원을 받도록 대학 내 관련 부서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연결해주는 정보제공 부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유학생 신입생들을 위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매 학년도 초반에 1, 2, 3, 4학년의 학생들의 학업 진행과정이나 중요한 이슈 등에 대하여 해당 부처와 공동으로 중요 워크샵 등을 제공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관련 부처로는 입학처, 학적과, 학생생활 상담 연구소, 취업 및 진로 상담 연구소, 학생 자치기구 담당부서, 한국어학원, 개별 단과대학 및 학과 사무실, 튜터링 센터 등이 있다. 각 관련 부서에는 이중 국어 이상이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 전담직원을 배치한다.

둘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과정, 학사 및 학적 관리 규정, 장학금 제도,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학생, 학교 담당 교사 및 학부모 등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에 영어 및 기타 외국어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학생들과 주로 접촉하는 교직원, 행정지원 및 조교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관한 교육을 확대, 강화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외국인 학생이 한국 학생과 동등한 권한이 있음을 주지시킨다. 즉 유학생은 해당 대학의 손님같은 비주류 학생이 아니라 국내 학생들과 동등한 학교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넷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에 있어 윤리적 측면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중시해야 한다.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 간 비윤리적 경쟁 행위는 국제 고등교육 커뮤니티 안에서 한국 대학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한국 대학의 졸업장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 한국 대학들의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 취업, 대학원 등 상위 교육기관으로의 진학, 혹은 다른 외국 대학으로의 편입 등 유학생의 진로지도를 강화한다. 각 개개인의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최종 결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3학년 때부터 지도교수 및 외국인 전담교수와 진로상담을 본격화한다. 이때

지도교수 및 외국인 전담교수는 정기적으로 학생진로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졸업 조건을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다른 부처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학생과 해당 부처 담당 직원을 연결하여 준다.

여섯째, 기업체와 연결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인턴십, 산학연계 장학금 프로그램, 취직 상담 창구 개설 등 산학협력을 통한 유학생 취업 지원을 활성화한다. 원활한 취직을 위하여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기업의 다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의식의 변화를 촉구한다.

일곱째, 유학 졸업생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유학생 졸업자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학생 동문회 조직을 장려하고, 유학생 동문회의 모임 등을 국내외에서 개최하며, 이메일을 이용한 해외 동문회 소식지 등을 발간한다.

2) 정부 차원

첫째, 교육부 및 관련기관의 대학평가에 있어 유학생 교육과 성과에 대한 획일적이고 양적인 면만을 절대적 기준에서 평가하는 현행 대학평가를 개선한다. 각 대학들 간 교육목표, 대학 규모, 그리고, 운영 방식 등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대학교육의 다양성을 헤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 학생의 교육권 및 인권을 보호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곧 고등교육 국제화 측면에서 한국 대학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현재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만드느냐는 향후 가속화될 고등교육의 국제화 추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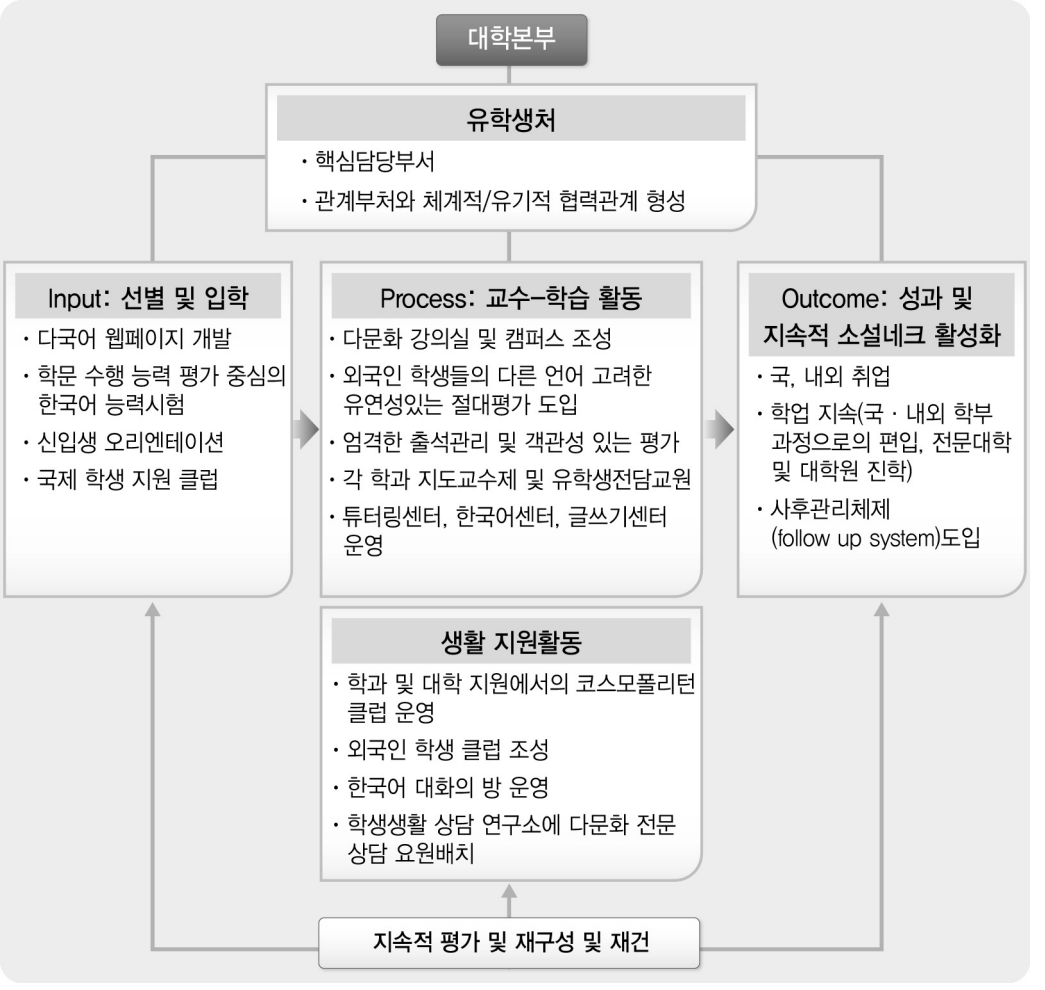
셋째, 한국어 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평가 내용 및 평가 회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G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픽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국어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습능력 측면에서의 한국어 능력 측정을 강화한다. 또한, 외국에서 치를 수 있는 토픽 횟수를 4회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수학, 과학 등 선수학습 능력이 중요한 단과대학의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뒤 다시 한 번 배치시험을 받아 기초 실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 대학과정보다 낮은 단계의 수업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 기초과목에 대한 시험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혹은 주요 외국어로도 실시하여 그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한국어 실력의 저조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다. 다른 한편, 주요 도시별로,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교육 거점대학 등을 선정하여, 유학생 수가 많지 않은 다른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들 또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유관 기관 차원

유학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기업들과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고급 두뇌를 적극적으로 선발하여 한국 내 기업체나 외국에 소재해 있는 한국 혹은 자국 기업체로의 취업이나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과 기업과의 협조 체제를 증진시키는 반면, 학생들의 전문 분야에서의 창의력을 향상시켜 창업 등을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진로모형을 개발,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국가 연계형 실천 전략 모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Ⅵ-5] 국가 연계형 대학운영 모형도

국가연계형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실천 전략을 대학교육 운영체제(선발, 교육과정, 성과)에 따라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4〉 국가 연계형 개선 방안 및 실천 전략

구분	국가연계형		
	문제점	개선 방안	실천 전략
선발	• 지나친 양적 성장 강조로 대학 교육의 국제화의 다양성 및 자율성 침해 • 체계적인 온라인 정보서비스 부족	• 한국 특성에 적합한 유치정책의 목표·전략 재정립 • 대학 모델 개발의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 • 최신의 입학 정보, 교육과정, 교수진, 졸업진들의 졸업생 진로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 한국 특유의 고등 교육의 국제화 모델 개발 •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국제화 평가방식 개발 • 다국어 대학별 학과별 홈페이지 개발
교육 과정	• 관련 부서 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부족 • 유학생의 소외 심화	• 유학생의 법적, 생활적응, 학업 수행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 유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운영 체제 구축 • 다문화 교육 강화 및 다문화 캠퍼스 조성	• 유학생 전담 부처 설립, • 학원 내 인권 차별 금지법 재정 및 운영 •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워크샵 및 문화행사 개최 • 다문화 카운슬링 및 유학생 전담 교수 배치 • 유학생 자치 기구 활성화
성과	• 취업 제한 • 유학생 사후관리 체제 부족	• 진로 및 취업지도 강화 • 졸업 유학생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졸업 유학생 사후관리 프로그램 실시	• 체계적인 유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지도 • 국외로의 진학 및 취업을 지원하는 전담 직원 배치 • 유학생들의 인턴쉽 보장 • 소셜 미디어 및 해외 동문회 등을 통한 졸업 유학생 네트워크 구축 • 졸업 유학생 현황 조사 및 사후 지원 서비스 제공

Ⅶ. 종합 논의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종합적 논의: 단위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 방안

3. 정책 제언

Ⅶ. 종합 논의 및 정책 제언

1. 요약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 목적 및 내용·방법·연구 과제

제 Ⅰ장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 방법, 내용과 한계 등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대학의 운영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선발에서부터 졸업, 취업에 이르는 대학교육의 전 과정을 학습자에게 적합한 대학운영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서,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의 대학교육을 설계하는 종전의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면담 조사 및 사례 분석, 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이 병행되었다. 조사 여건을 고려하면서 조사의 구체성을 위해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면 조사와 면대면 조사를 단계적으로 거쳤다.

이 연구에서 다룬 구체적인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을 둘러싼 중요한 교육 환경 변화가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 고등교육에 대한 대학 관계자 및 학습자의 문제의식과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3) 다양한 학습자 특성과 요구에 대한 학습자 맞춤형 고등교육을 위해 대학의 교육운영체제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가?

□ 교육 환경 변화 속의 대학교육의 과제 진단 및 연구 분석틀

제 Ⅱ장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문헌 분석을 통해 교육 환경 변화와 교육과의 영향 관계를 밝히고, 현재 대학의 과제를 진단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개념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는 미시적 관점에서 IPO(투입, 교육, 성과)모델을 채용하여 대학 차원에

서 교육의 전 과정을 다루었다. 투입은 입학 자원에, 과정은 교육과정 요인과 교수학습 방법적 요인에, 성과는 학습 성과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구체적인 내용은 58쪽의 〈표 Ⅱ-14〉 참조).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개인적 수요의 다양화에 주목하고, 진학 시점의 이전 경험과 입학 요건의 차별적 특징을 중심으로 진학 경로별 수요를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1)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전통적 진학 유형인 '고교-대학 직선형', 2) 고교 졸업 후 일정 경력을 거친 후 그 경력이 입학 요건의 하나로 활용되는 '경력 연계형', 3) 대학 졸업 후 학사 편입이나 재진학(유턴진학)의 형태로서, 학위(전문학사 포함)가 입학 요건의 하나로 활용되는 '학사 연계형', 4) 외국 국적자로 자국의 교육제도를 통해 이수한 교육이력을 활용하여 국내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국가 연계형(글로벌형)'이 그것이다.

□ 진학 유형별 교육에 대한 대학 관계자 및 학습자 요구 분석

제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유형화한 4개의 대학 진학 경로별 사례별로 정부정책 지원 수혜대학 중 각 2개 대학씩을 선정하여 해당 대학의 관계자와 학생들과 면담(서면 포함)하고, 그들의 요구를 조사·분석하였다.

첫 번째 유형인 '고교-대학 직선형'에 대한 대학관계자의 인식은 학생모집 및 선발과 관련하여 과거에 비해 입학자원이 다양화되고 편차가 확대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학생들은 대학입학과 관련하여 진학정보의 부족, 전공 선택과 대학생활 적응 곤란, 교육성과 불확신과 취업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학생들은 교수 및 동료 학생으로부터 받는 피드백과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을 학습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큰 것으로 꼽았다.

두 번째 유형인 '경력 연계형' 진학자 교육은 '재직자 전형'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 관계자들은 입학자원의 확보,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으며, 학생들은 일반학생과의 동등한 대우와 그들과의 교류를 희망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재직자 전형 학과의 제한성, 일과 학습 병행에 따른 제약, 이로 인한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곤란(복수 전공제, 멘토링, 튜터링, 복수학위제, 교환 학생 프로그램, 산학 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 취업 및 진로 상담 서비스 등), 주말이나 야간 수업에 따

른 대학 시설 이용의 제한 등을 과제로 꼽았다.

세 번째 유형인 '학사 연계형'에 대해서는 전문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일반대학에서 찾기 어려운 학위취득자의 편입 사례는 사이버 대학을 통해 조사, 참고하는 것으로 하였다. 앞의 사례와 공통된 점도 많았지만,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단기의 전문대학 특수 조건을 고려한 이론 중심의 학부 전공과목 운영의 필요성을, 사이버대학에서는 실무교육의 필요성을 각각 강조하였다. 한편, 이 유형의 학생들은 대학의 경우 등록금 부담, 학교 선택과 결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사이버대학의 경우 늦은 공부에 대한 두려움, 멘토의 부재나 직장 및 가사와의 병행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특히 두 대학 모두 학습과정에서 교수와 동료학생(전통형 학생)들과의 교류 요구 등 다양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유형인 '국가 연계형'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은 외국인 유학생 모집과 선발에 대한 자율권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과 경제적 부담, 교수위주의 주입식 교육방식에 대한 불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각 유형별 요구를 종합해 본 결과, 대학이 공통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로는 학습자 진학 수요에 맞는 입학 정보의 제공과 경로 부족, 대학편의적이고 이론중심의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교수와 동료 간 소통 없는 일방적 교수학습 방법, 비전통적·비학령기 학생의 소외, 기대에 못 미치는 학습성과 등으로 나타났다.

□ 국내외 특정 대학 운영 사례 분석

제 Ⅳ장에서는 제 Ⅲ장의 조사 대상 대학의 운영 사례들을 유형별로 조사, 분석하였다. 이들 대학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대학들은 유형별 수요자들의 요구를 분석, 대응하기 위한 대학 자체별 교육프로그램과 체제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단과대학별 학문 특성에 최적화된 액티브러닝(Active Learning) 모델 개발, 핵심역량 진단검사와 주기적 진단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학습자의 학습패턴 분석과 자료 제공 등은 학습자 수요에 맞는 핵심역량교육에 좋은 사례로 삼을 수 있다.

둘째, 비전통적 진학 형태 중, 소수 그룹의 선발과 학업 연계 등을 위한 대학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주목된다. 예컨대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위원회·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사례(경력형 사례), 전문대학과 사례대학 간의 연계협력 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정한 입학생 선발, 입학자원의 질 관리 및 편입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사례(학사형 사례) 등이다.

셋째, 대학차원의 조직적인 대응과 교과–비교과 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다. 면담조사에서 요구가 강했던 교수, 선후배 간의 멘토 프로그램 개발 등 비교과활동에 대한 다양한 실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 Ⅴ장에서는 진학 유형과 관련된 미국의 대학들과 호주의 대학 운영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들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와 미시건 대학교는 수요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과 방법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학생중심으로 한 인터페이스 IT기술의 개발, 이러닝 강좌, 온라인 가상시스템 등 다양한 학습 환경 및 시스템의 활용, 시공간을 초월하여 쌍방적 의사소통과 참여를 가능하게 한 개별 학습 지원시스템 사례가 주목된다.

둘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2+2제도는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의 학사편입제의 운영 방식으로, 전문대학과 대학의 연계 진학에 대한 관점과 방법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진학 방식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비 절감과 학위 취득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4년제 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함으로써 전문대학 진학이 단순히 4년제 대학교로의 진학실패에 대한 차선책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진로선택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셋째, 호주의 유학생 지원은 법체계와 지역커뮤니티, 대학 당국과 다양한 교육기관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유학생 유치에서 대학생활 지원, 졸업 후 취업 및 정착까지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 진학 유형별 교육운영체제 개선 방안

제 Ⅵ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대학의 요구 분석과 진단된 유형별 과제들에 대해 국내외 사례들을 참조하면서 진학 유형별 교육체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전통적인 진학 유형인 고교-대학 직선형의 학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준과 관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체제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빅데이터 활용의 학습분석 서비스 체제 구축을 강조하였다.

둘째, 경력 연계형과 같은 비전통형의 소수 구성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센터 운영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 센터는 선발, 교육과정, 그리고 과정 이수 후 취업지원에 이르기까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대학 차원, 혹은 대학 간 연계협력 조직으로도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셋째, 학사 연계형의 경우, 전문대학을 종점 교육기관이 아닌 순환 교육기관이라는 관점에서 편입과정을 확대하고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계 가능 대학의 풀 확대, 연계 대학 간 공통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운영(과목 코드 쉐어링), 편입생을 위한 통합 지원 센터 운영, 차별없는 개방형 제도 설계, 동문이나 외부 관계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도입, 운영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전문대학-대학 연계는 자칫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유의가 필요하지만 고등교육 기회 확대 관점에서 전문대학 프로그램을 학술 트랙과 직업 트랙으로의 이원화 방안도 장기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국가 연계형의 경우, 우선 다양한 유학 목적에 대응할 수 있는 입학 정보의 제공과 대학 특성별 유학생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졸업 후 취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전략적으로 외국인 고급인력 양성교육, 실용인력 양성교육, 한국어교육과 같이 목적별, 진로별로 유학생 교육을 특화하고, 이에 따라 입학 자격 조건을 조정함으로써 유학 목적별 진학 경로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2. 종합적 논의: 단위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이 연구는 최근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현안 과제들에 대해 단위 대학의 교육운영체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대학 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비전통적 진학 경로의 소수 진학자들에 대한 문제에 주목, 진학의 경로를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들 각 유형별 진학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학 교육의 문제와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실태 및 요구분석을 실시하고, 이 결과에 기

초하여 각 유형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제 Ⅵ장). 이 개선 방안은 대학의 교육이념이나 여건 등에 따라 모두 참고가 될 수도 있고, 선택적, 혹은 조합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학생 개별 요소 외에도 대학 운영상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이 있어서 이들 간의 균형과 최적점을 모색하면서 최종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학의 몫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이러한 대학별 특수 여건이 있고, 그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Ⅲ장 6절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진학 유형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항들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를 중심으로 대학 교육의 운영 전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가. 개선 방향과 원칙

먼저 고등교육을 둘러싼 교육환경의 변화로는 고등교육 보편화, 학령기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평생학습사회, ICT 등 과학기술의 발달, 글로벌화의 진전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수요 변화(개인적, 사회적 수요)에 대한 대응(선발과 교육, 성과 활용 측면), 이른바 디지털 세대의 등장과 함께 학습 및 의사소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그에 부합한 교수학습방법의 변화 필요(즉시적인 피드백, 쌍방향적 교수학습시스템 등의 구축), 학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평생학습적, 글로벌적 학습환경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온-오프라인 강의, MOOCs 등 강의의 오픈 등) 등 21세기적 미래형 고등교육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진단한 진학 유형별 문제점과 대학들이 각기 직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들에 대응하면서 미래형 대학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체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할 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개선의 방향과 원칙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앞에서 검토한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과제, 대학의 관계자 및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통한 문제 진단을 토대로 하였으며, 진학 유형별 개선 방안에서 제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운영체제로 개선한다(학습자 중심의 원칙).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대학들이 대학 중심의 교육체제로 운영되어 왔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여기서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선발 후 학습자에 대한 계속적인 이해, 요구 파악 등을 통해 적

합한 교육과 피드백을 주는 선순환 구조의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둘째, 전 과정 책무성 기반의 교육운영체제로 개선한다(책무성의 원칙). 여기서 전 과정이란 대학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선발에서부터 각 학년을 거쳐 졸업, 그리고 졸업 후 계속적인 교육 서비스에 이르는 과정이다. 또한 대학의 교육 책무성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의 학습 성과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형평성에 기반한 교육운영체제를 구축한다(교육 형평성의 원칙). 이는 지금까지의 대학운영체제가 전통적인 진학 경로로 진학한 학생을 위주로 한 교육체제로 운영되어 왔다는 문제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전 교육과정에서 비전통적인 소수 그룹에 대한 교육적 배려의 교육운영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외적인 제약 조건으로 고등교육으로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계층, 성별, 연령, 국적 등에 대해 유연하면서도 지원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선발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교육, 졸업의 전 과정에서 형평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 안에서 모든 학생의 평등한 학습권이 존중되는 교육운영체제로 개선한다(평등한 학습권 존중의 원칙). 이는 대학이 전통적 학생 위주의 교육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비전통적 진학의 소수 학생들이 소외되면서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대학 안에서 모든 학생들은 평등하며, 누구도 대학의 이해 대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는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평생학습의 원칙). 현재의 대학교육체제는 학령기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취업자나 비학령기 학생에게는 크게 제한적인 체제이다. 선발에서부터 교육, 졸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비학령기 대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

여섯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는 이론과 실제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균형성의 원칙). 이는 지금까지 대학교육이 과도하게 이론 중심으로 편향되어 운영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실용적 가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그 동안 이론 편향에 대한 반동적 현상으로 실용성에 대한 강조가 과도하게 되는 경우, 이번엔 자칫 대학의 고유 기능 중의 하나인 학문 연구의 가치가 소홀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은 대학 스스로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대학

이 지향하는 바를 단계적,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자발성과 지속가능성의 원칙). 이는 대학의 운영이 자체적인 문제의식에 기반한 개선 노력보다 상당 부분 사회나 정책 등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의해 성과위주로 진행되어 온 데에 대한 반성을 포함한다.

나. 단위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제 VI장에서 제시한 유형별 개선 방안을 대학의 투입, 교육과정, 성과의 체제(IPO)에 따라 종합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Ⅶ-1〉 대학의 교육운영체제에 대한 문제 진단 및 개선 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실천 전략
선발 (I)	• 입학자원의 다양화 대응 미흡 • 수요별 입학정보 부족 •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제한(비전통적 진학자의 자격요건 엄격)	• 맞춤형 입학 정보 제공(유학생 포함) • 수요 대응의 진학경로 다양화 • 비전통형 진학목적별 자격조건 조정(장벽 없는 형평한 교육기회 제공)	•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 교육이해 당사자 간 협력체제 구축(고교, 대학, 산업체 간 연계 협의 체) • 진학목적별 자격조건 규정 완화
교육 과정 (P)	• 학생 간 학습준비도 및 학업 편차 확대 •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및 첨단화 속도 대응 지체로 인한 교수-학생 관계 및 소통 간격 증대(학생: 즉시적 피드백과 상호작용 선호) • 교양과 전공, 전공간 관계성 미흡 •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전통적 진학자 중심의 교육운영체제(유형, 무형의 차별로 인한 비전통형 학생 소외)	• 수요 맞춤의 핵심역량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상호작용의 교수학습방법으로의 개선(다양화, 첨단화, 개방화) • 교양과 전공, 전공 간 융합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이론과 실제 연계의 교육과정 운영 체제 구축(교육내용 재구성, 인력 및 공간 등의 현장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강화 등), • 비전통적 진학자 배려의 교육운영체제로의 재구조화	• 학습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운영체제(교육빅데이터 활용의 분석 서비스 시스템 구축) 구축 및 지원 • 대학 및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체제 구축(대학별, 대학 간 협력 체제 지원) • 현장과 인적·물적 자원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지원(일·병행 시스템, 인턴십 확대, 교수채용조건 완화 등) • 비전통형 진학자 배려의 교육운영체제 구축(차별 없는 교육운영체제 구축)

	문제점	개선방안	실천 전략
성과 (O)	• 학습 및 대학생활 부적응 학생 증가 • 학습성과 미확인 및 사회적 수요와의 불일치로 인한 진로 불안(취업 곤란에 따른 개인별 취업 준비 사교육 증가) • 졸업 후 진로지도 미흡(전통/비전통적 진학자별 대응 미흡, 유학생의 취업 제한)	• 교과-비교과 연계의 학생 지원 체제 구축(멘토링, 동아리,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 학습분석 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중간성과 확인 등 추수지도 체제 구축 • 목적별, 상황별 맞춤형 진로지도 체제 구축(비전통형 진학자 지원센터 운영)	• 학습자 맞춤형 교육지원체제를 활용한 전 과정 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 입학시점 체제에서 졸업시점 체제로 전환 • 교육과 성과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 • 산업계와의 협력 시스템 구축 • 맞춤형 진로지도를 위한 대학별, 대학 간 협력의 성인학습자·유학생 지원 센터 운영

본 연구에서 제시한(제 VI장) 유형별 문제 진단 및 개선 방안은 특정 대학을 대상으로 한 요구분석에 기반한 것이며, 재직자 전형이나 학사연계 등 특정한 진학자 사례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 따라서는 미해당 내용도 있고, 대학의 교육이념이나 여건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학 유형별로 짚어본 대학 운영의 과제들 대부분은 대학이 교육운영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위의 〈표 VII-1〉는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중심으로 각 내용을 좀더 상세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선발 측면

선발 측면에서는 (1) 입학정보 제공, (2) 진학 경로와 조건 관련, (3) 이해관계자 협력 관련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입학정보 측면을 보면, 이 연구에서 다룬 특정 사례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에 기초한 입학정보를 수요자에게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가에 대해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사자 상당수가 입학정보의 부족을 언급한 것은 양적인 입학정보의 부족이라기보다 그들이 기대하는 입학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학이 진학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에 알맞은 내용과 형태의 정보 제공 노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대학이 선발 단계에서 좀더 세심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진학 경로와 입학 조건과 관련한 대응 방안이다. 이는 대학 진학 수요가 고교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령기의 전통적 진학 형태만이 아니라 취업 후 진학, 편입이나 재진학, 외국인 유학생의 진학 등으로 그 경로와 방식이 크게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제기되는 필요성이다. 과거와는 달리 진학 동기나 목적, 상황 등도 다양화되고 있어서 전통형 중심의 선발 조건이나 체제는 이들에게는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과 사회변화에 따라 진학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유학생을 포함한 비전통형 소수의 진학수요자들에게도 고등교육기회가 형평성 있게 주어질 수 있도록 선발 체제와 조건 등을 조정 내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대학의 교육이념이나 특성화 방향에 따라 어떤 유형에 보다 초점을 둘 수 있다. 예컨대 유학생 교육을 특화하고 있는 대학이라면 이들이 국내 학생들보다 더 다양한 진학 동기와 배경,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유학생 교육을 다시 특화하여 그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자격 조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이해관계자 간 협력 강화 방안이다. 대학이 학업과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부적응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진학 선택이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고교-대학 직선형 경우는 고교와 대학 간 연계, 비전통형 진학자 중 경력 연계형이나 학사 연계형의 진학자 경우라면 지역사회와 산업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연계형, 즉 유학생 경우라면 외국 대사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협력이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재학 중(멘토, 실습 등)이나 졸업 후 취업 기회를 위해 산업체와의 협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2) 교육 측면

교육 측면은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진 것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왜 하는가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교육 공간, 시설 등의 환경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교과만이 아니라 비교과적 범위도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대학 교육운영체제에서 핵심적 내용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측면에서 유형별로 진단한 과제 중 대학 공통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학생 간 학습 준비도 및 학습 편차의 확대, 교수와 디지털 세대인 학생 간의 관계방식과 학습 패턴의 차이, 교과목 간의 관계성 미흡,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 전통적 진학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다음에서는 교육과정 편성(내용), 교수학습 방법, 교육 환경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교육과정 편성 관련

우선 교육과정의 편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첫째, 수요 맞춤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표 Ⅶ-1〉에서 제시된 수요 맞춤의 핵심역량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과-비교과 연계의 학생 지원 체제 구축, 교양과 전공, 전공 간 융합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본문의 제 Ⅲ장의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대학들이 정책 지원을 받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진학 수요나 수준, 기대와는 다른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이 교수자의 전공이나 대학의 여건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면서 제기된 문제로, 학습자의 상황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불만으로 보여진다. 학생들의 학습준비도가 다르고, 학업 편차도 커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심화과정이, 다른 한편으로는 보충과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학의 교과목과 운영은 종전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과정이 대개의 대학에서처럼 교무처의 부분 업무로 운영되는 방식으로는 학생 요구는 물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핵심역량 교육이나 교양과 전공, 전공과 전공간의 연계 등의 과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은 이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칭 '교육과정(지원)처'와 같이

대학에 따라 적합한 형태와 명칭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인데,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의 기능과 학생들의 학습 수요,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역량의 교육과정 운영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 있으며, 교양, 전공과 관련되고 졸업 이후 진로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과대학, 학생처를 비롯한 관련 부서 등과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소한 처수준의 위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로,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통로가 다양해지면서 비전통적 진학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학습 경험이나 상황 등이 전통적 진학자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에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즉 교과목 개설, 교양과목과의 연계, 보충교육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사이버 학습 공간으로의 확대 등과 같은 것이다. 이를 대학의 교육과정 전담 부서에서 다룰 수도 있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비전통적 진학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위해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혹은 대학 간 협력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필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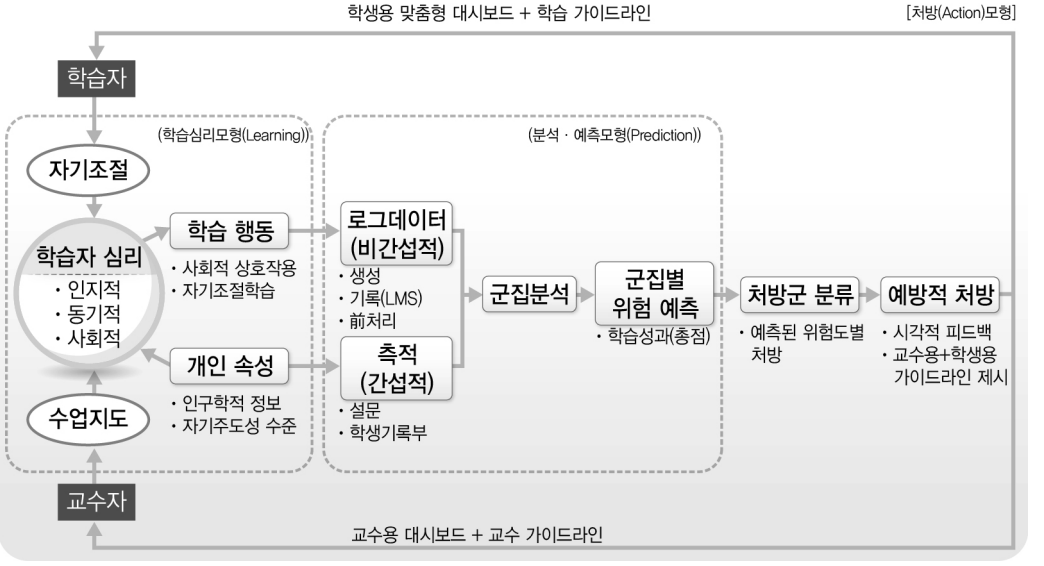
나) 교수학습 관련 측면

첫째,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ICT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상호작용의 교수학습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IC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장해 온 이른바 디지털 세대들의 학습 양식과 선호 방식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교수 세대와는 다른 소통 방식과 학습 패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 방식과 환경도 학생들의 이러한 변화 특성이 교육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체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으로는 상호작용 없는 교수 일방의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질문과 토론의 양방향 수업,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피드백 등 다양하고 수시적인 상호작용의 통로 마련, 미국 대학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플립트 러닝, 블랜디드 러닝과 같은 교수학습방법, 온-오프라인 융합의 수업 방식의 개발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ICT와 결합하여 쌍방향 교수학습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요구와 학습패턴을 이해하는 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교육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작업이며, 이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선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Ⅲ장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진학 유형과 관계없이 많은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교수의 피드백이 매우 도움적이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교수 개별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좀 더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데이터 활용의 학습분석에 기반한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학생과 교수의 관계를 중간매개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교수학습 코디네이터를 두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습 빅데이터의 구체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참고로 그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① 대학은 온라인 강의나 학교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학생들의 학습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고, ② 축적된 빅데이터를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에 기반하여 분석한다. ③ 분석된 결과를 대학, 교수, 학생 등 해당자에게 제공한다. ④ 분석 결과를 받은 학생, 교수, 대학은 각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 변화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피드백된 내용에 기초하여 강점에 박차를 가하거나 약점을 보완, 혹은 새로운 계획이나 도전하는 등 자기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다음 그림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Ⅶ-1] LAPA(Learning Analytics for Prediction & Action, 조일현(2014).)

셋째,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이론과 실제의 융합적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학의 교육과정 구성이나 운영 방식이 이론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는 문제는 학생 개인적 수요만이 아니라 사회적 수요, 즉 인력 시장 수요와 미스매칭 되는 문제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학생들과의 면담에서도 현장과의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처럼 교육과정 편성에서부터 실습 등 현장과의 연계를 다각적인 방향에서 도모할 필요가 있다. 대학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현장 전문가와 함께 협력적으로 구성하는 방안, 현장 전문가를 교수 혹은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 수업 공간을 교실에서 캠퍼스 밖 현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ICT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현장 수업의 도입 방안, 인턴십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이 중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 교육 환경과 비교과 활동 등

교육 환경의 재구조화이다. 디지털 세대 학생들의 소통 방식과 학습 패턴 등이 수업이나 캠퍼스생활 속에서 학습 효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 캠퍼스 환경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오프라인의 수업과 연계하여 사이버상에서 가상 실험이나 실습을 경험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 상의 도서관만이 아니라 사이버 도서관이 활용 가능한 환경, 캠퍼스 공간이 언제든지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 교육 환경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교육 환경이나 교육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최근 사이버 대학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 속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물론 이미 스마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대학도 있지만, 아직 교육 환경이 정비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미 환경이 정비된 학교라고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교육 환경 정비와 교수학습 방법 개선, 그리고 실제 적용을 위한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Faculty Development: FD) 등을 상호 연계 선상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교과 활동에 대한 대학의 지원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과활동만이 아니라 비교과 활동도 대학 생활의 한 부분으로 학습성과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학의 교육운영이 학령기 학생중심 체제, 입학시점중심 체제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비학령기 학생들이나 편입이나 재진학과 같은 특수한 조건의 학생들, 외국 유학생들에게 유형, 무형의 차별적 대우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평생학습사회, 고등교육의 보편화,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혹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다연령층, 다배경의 소수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 과정에 걸쳐 평등하고 형평성 있는 교육운영체제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입학시점 중심의 운영체제를 졸업시점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그 중의 하나이다.

3) 교육성과 측면

대학 교육의 성과는 대학에서의 학업과 생활 적응 등 중간성과, 졸업시점에서의 학습성과(핵심역량 성장), 진학과 취업, 그리고 졸업 후 계속교육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 유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중간성과에 대한 주기적 확인을 통한 적응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학습 및 생활 부적응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은 중간성과 단계에서의 개선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이러한 개선은 전통적 진학자에게만이 아니라 비전통형 진학자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포함해야 한다. 학업 및 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응은 입학시점에서부터 진행하여 졸업, 취업 등 전 과정에 걸친 추수 관리, 지원이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지원은 앞에서 언급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분석 서비스 시스템이 뒷받침된 것인데, 이러한 서비스는 학생 스스로 주기적인 학습성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기주도적으로 보충학습, 심화학습, 학점관리 등 진로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교과-비교과 활동을 연계한 학생지원체제 구축 방안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한국인 학생과의 교류를 희망하였는가 하면, 학사편입학생이나 재진학 학생 경우는 학교 내에서의 소외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학교 내외의 관계와 인적 교류가 학업 적응과 학습성과를 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대학은 동아리활동, 교사-학생 간, 선후배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 재학 내, 졸업 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적응과 성과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구체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성과의 확인은 졸업 후 진학이나 취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목적별, 상황별 맞춤형 진로지도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상황이나 조건이 특수한 비전통형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진로지도가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입학에서부터 교육과정 지원, 성과 등 전 과정을 추수 관리하는 별도의 지원센터를 두거나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지원 센터 운영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통형 진학자든 비전통적 진학자든 종래와는 다른 패턴의 다양한 수요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학은 대학 본연의 교육 목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진학자들의 변화된 수요 양태와 사회적 수요를 균형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의 개선'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은 고졸의 학령기만이 아니라 경력과 학력, 연령층이 다양한 비전통적 경로의 학생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지금의 학생들은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즉시적, 수시적 피드백을 선호하고 시공간의 경계를 거부하는 인터넷 세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제 대학은 종래적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환경의 메가트랜드와 그 안에서의 학습자 변화 특성을 고려하면서 학령기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층에도 부합한 선발과 교육, 성과의 운영 체제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와 함께 학습을 '창조'하는 교육의 운영체제로, 교실과 캠퍼스 중심의 교육환경이 아니라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온-오프라인의 융합된 교육환경으로, 점수로 종결되는 평가가 아니라 '역량'보장을 위한 수시적, 주기적 평가체제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연구를 진행하면서 확인하게 된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는 이 연구에서 채용한 교육운영체제, 즉 선발(Input)-과정(Process)-성과(Output)은 일직선상에 있는 일방형의 직선 진행과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 과정은 순방향 진행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적 관계 과정이며, 또 그러해야 한다. 선발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성과는 선발체제를 재정비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대학이 학습자 중심의 운영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선발과 과정, 과정과 성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적 과정'을 가지면서 개인 수요와 사회 수요가 결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선발 중심의 운영 체제가 아니라 역량 보장의 성과 중심 체제임을 의미한다.

3. 정책 제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학습자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학과 정부가 해야 할 과제들을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 개별 대학의 운영 체제에 주목한 이 연구의 특성상 대학, 정부 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 단기 과제[127)]

1) 대학에 대한 제언

가) 선발체제 측면(Input)

제언 1

기회 균등과 평생학습 관점에서 진학 수요자 맞춤형의 다경로 선발체제와 정보제공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1) 진학 수요 맞춤형의 입학 정보 제공

조사 결과, 4가지 진학 유형 학생들 모두 공통적으로 진학 시 필요한 입학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사실은 대학이 진학 수요의 변화와 수요자 요구, 조건, 상황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적 이해가 필요하고, 이에 기초한 맞춤형 입학 정보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대학의 편의나 이해의 관점이 아니라 진학 수요자 및 관계자(본인, 학교, 학부모 등)의 관점에서 정보를 구성하고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진학수요자가 고교생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대학의 메시지와 이해자 간의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시점만이 아니라 졸업시점에 대한 전 과정 정보 안내를 명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하며, 누구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입학처를 중심으로 단과대학과의 협력

127) 여기서 단기 과제는 시급성의 의미를 포함한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전문 조직 설치, 상시 진단과 결과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과 학습분석 시스템, 사이버 교육환경 정비 등 하드웨어 측면 모두 일정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지만 시급성을 고려하여 단기 과제로 분류하였다.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교와의 연계,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입학정보의 제공방식도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 제한 없이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언어 서비스 제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다양한 진학 목적별 맞춤형 다경로 선발 체제의 구축과 운영

본문에서 다룬 바와 같이 교육 환경이 변화하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목적과 상황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고졸 후 학령기에 대학에 진학하던 전통적인 패턴에서 선취업 후진학이나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시 대학을 진학하는 등 다양한 진학 패턴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학 희망자의 조건도 진학 동기가 형성된 시점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포함하게 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학은 이들의 동기와 조건, 상황 등에 맞게 고등교육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원하는 누구나가 고등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어야 하는 것은 고등 보편화 사회, 평생 학습 사회 속에 있는 우리의 대학들의 공공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대학에 지원하기 전의 경력, 현장에서 습득한 경험적 지식, 기술, 학습계획서 등 전통적 진학자들과는 다른 경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학 목적별 맞춤형 선발체제로의 개선은 특히 유학 목적이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 더욱 필요하다. 유학생 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동기, 목적, 한국어 수준, 교육배경, 사회 문화 경험 등이 지나치게 다양하여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심화된 전공지식 공부, 전문기술, 한국어, 혹은 한국문화 이해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대학이 교육을 특화하고 그에 따라 입학 조건, 한국어 수준을 다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유학생 교육을, 지금처럼 대학마다 백화점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인재 양성교육', '실용기술인재 양성교육', '한국어 교육' 등과 같이 대학별로 특화하고, 각 특화된 대학이나 학과별로 자격 조건, 교육, 교수방법, 평가 및 활용, 진로지도 등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대학, 유학생 모두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이 때 각각의 입학 홍보자료는 대학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성과에 대한 보장을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잠재적 유학생들에 대한 유학 동기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과정(Process)과 성과(Output)를 가지고 선발(Input)로 접근하는 역방향 전략이다.

나) 교육과정 운영 측면(Process) : 학습자(개인 수요)·역량 중심(사회 수요)의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학습자 맞춤형 교육체제는 투입, 교육, 성과의 전 과정에 관련되는 것으로 선발을 위한 입학 홍보, 교수학습 방법, 중간성과에 대한 주기적 확인 지원, 학습 성과의 보증과 맞춤형 진로지도 등을 포함한다. 이 중 과정 단계인 교육 측면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커리큘럼) 구성과 교수학습 방법으로 구분하여 제언한다.

제언 2

학부교육을 '핵심 역량' 관점에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처 수준의 전문 조직 구성, 운영을 제안하다.

현재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대학과 교수 인력, 전공 등에 따라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며, 따라서 학생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에서 누가, 누구에게(요구, 수준, 기대, 학습패턴, 사전 경험 등의 다양한 학습 관련 요인 포함), 무엇을(교육내용), 어떻게, 언제, 어디서 가르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 맞춤형과 맞물려 있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은 개설되는 교과목과 그 내용 구성은 물론, 기초 교육과정과 전공, 전공 간의 융합, 교과와 비교과의 융합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학습자 맞춤형 핵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 운영할 것인가는 사실 거대 담론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단과대학, 학과, 교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지만 그들의 이해를 초월해야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전체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교무처의 한 가지 업무로 다루어지기 어려우며(일부 대학 제외), 학과나 교수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과제들을 담고 있다. 이 과제들은 핵심 역량의 개념에 기반하여 기초 교양 교육과정, 전공 교육 과정, 이들의 융합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조직이면서도 단과대학, 학과, 교수, 교무처, 그리고 교수학습지원센터나 빅데이터 관련 부서 등 대학 내 교수, 전문 인력, 관련 부서들과의 협력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대학교육에서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의 중요성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이 부분

이 핵심적 위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조직은 적어도 처 수준의 위상을 가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제언 3

개인별, 학과별, 대학 전체 차원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조직과 인력을 확대한다.

여기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란 단순히 학습자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추상적인 의미 이상의 것을 말한다. 학습자의 개인적인 특성, 현재 수준, 기대 요구 등을 이해한 뒤에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대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학습 배경에 대한 데이터(입학시점의 정보, 고교 학업성취, 전 학기 학점, 사회경제적 상황, 성별, 등), 수업에서의 학습상황에 대한 데이터(과제 점수, 수업 참여도, 시험 성적 등) 등을 축적하여 분석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체제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는 데에는 대학의 총장 등 리더그룹의 인식이 선행 조건이지만, 그 다음은 전교적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입학 초기부터 학생 특성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자료, 정보의 분석과 축적, 그리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데, 이를 위해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빅데이터 분석(Bigdata Analysis) 등을 활용한 상시적 성과 측정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언 2]에서 제안한 전담부처가 필요한 것이다.

일단 전담 처 수준의 조직이 구성되면 전문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학생, 교수, 직원, 행정가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안을 조언할 수 있는 하위 조직을 구성,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직원의 지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SD: Staff Development 프로그램 운영). 교수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질 관리, 인증, 평가를 담당한 전문 조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학의 발전은 직원이 전문적인

지원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또한 다양하고 개별화된 교육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수의 교육 및 학생 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교수의 책임 시수 산정 방식, 책임 범위, 보수 및 승진 등 교직원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제언 4

학습자의 다양한 학업 수준, 학습 이력, 관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교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제 Ⅲ장에서 조사되고 논의한 바와 같이 대학 진학율을 70% 수준을 유지한 이래 동일 대학 내에서도 대학생의 학습 준비도의 차이가 커지고 있고, 대학이나 분야에 따라서는 대학교육에 지장이 될 만큼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선발 시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재학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생들 간의 배경특성이 다양해지고 편차도 커지고 있다. 향후 선발구조가 다원화, 다양화되고,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학습자 간의 다양성의 폭과 깊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비전통형 진학자들 경우, 연령 차, 입학시차, 직장과의 병행 등으로 인해 유형, 무형의 차별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학업과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학은 다양한 학습준비도, 입학 전의 다양한 경험, 재학 중의 학습 이력, 동기와 진로 방향(진학, 취업 등) 등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 준비도와 관련하여 보충이 필요한 경우라면,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전 과정을 통해 학생의 학습 성과와 적응 수준을 파악하고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연계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업과 생활 적응도를 높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파악하여 보충프로그램(remedial program)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력 연계형, 학사 연계형, 국가 연계형과 같이 비전통 경로를 통해 진학한 학생들은 다른 경험이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대신,

학습준비도가 미흡할 수 있고, 학습공백기가 긴 경우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특정 영역에 대한 깊은 관심이나 경험을 가진 학생, 혹은 심층적 학습이 가능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교육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들이 대학생활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거나 대학원, 연구소와의 연계 등을 통해 R&D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유의할 것은 이 과정은 단순한 수준별 강의나, 일부 대학에서 학교 명성을 위해 일부 분야나 학생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언 5

대학교육을 '제공'의 관점에서 '학습 창조'의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개념은 학교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대학교육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은 개념이다.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학생들은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에서 대체로 학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교수가 강의하는 수업을 듣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청강적'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학생들을 소극적으로 듣기만 하는 학습자가 아니라 학습을 창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의 관점을 바꾸고, 그와 관련하는 교수학습 방법, 교육 환경을 변화시키는 단계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은 기존의 강의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과 연관적 사고의 촉진, 토론 중심의 수업, 그룹 활동,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 유동적인 평가(Ⅴ장 참조, Ryan et al., 2000) 등과 같은 주요 요소를 갖춘 체제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제언 6

ICT 등 첨단의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세대의 학생과 교수 세대 간 의사소통과 학습 패턴 간의 간극을 최소화 한다.

학생들은 IC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장해온 이른바 디지털 세대들로서, 학습 양식과 선호가 크게 변화하였고, 따라서 기존의 교수 세대와는 다른 소통방식과 학습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학생들은 교수의 피드백이 학업과정에서 가장 유의미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은 즉시적이고 상시적인 피드백을 원하고 있으나 교수들은 이러한 요구에 익숙하지 않으면서 양자 간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고 있다.

디지털 세대의 학생과 교수 간에 생성된 교수학습 과정상의 간극은 교수 개인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미국 대학의 경우,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즉각적 피드백이 강조되면서 리모컨과 수신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Clicker'가 주목을 받았는데 학생과 교수 간에 메우기 어려운 차이를 Clicker라는 과학 기술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제 Ⅴ장 1절 참조). 이처럼 과학적인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생과 교수와의 상호작용, 역동적인 수업 창조를 도모하는 노력을 대학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중간 매개자적 역할은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과 프로그램 활용으로 가능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 학습분석학의 방법도 학생과 교수간의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으며, 플립트 러닝, 블랜디드 러닝과 같은 새로운 수업 방식을 통할 수도 있다.

제언 7

맞춤형 교육운영체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학 조직 간 긴밀한 협력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환경 정비, 빅데이터 축적과 학습분석 서비스시스템 등 중요한 관련 조직과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전담부서만의 노력으로는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지원센터, 학생처, 지도교수, 경력개발센터, 입학처, 교무처 등 대학의 모든 조직이 함께 협력할 때 맞춤형의 교육 체제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학습 클리닉, 학생상담, 면담지도, 경력 컨설팅, 전형기준개발, 수업 개발 등으로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이 조직과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 조건이 된다(조직 간 연계와 협력 관계는 제 Ⅳ장 [그림 Ⅳ-4]의 B대학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 모형 참조).

제언 8

이론과 실제 융합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과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면담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나 분야별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인턴십 과정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와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개인 수요가 높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개인적 수요, 사회적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고 있다. 조사결과가 아니더라도 이론중심의 교육내용과 강의는 학생들의 흥미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현장 적합성의 부족으로 인해 산업체의 불만을 넘어 사회적 비용의 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기업들의 신입사원 재교육 기간: 평균 19.5개월, 이에 투입된 재교육비: 평균 6천만원 수준, 한국경영자총협회, 2008: 1-4).

대학교육에서 이론과 실제의 융합적 운영은 교수학습 방법만이 아니라 교육내용 구성 등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무 전문가의 교수·강사로서의 활용, 현장 전문가와의 교재 공동 개발, 현장교육의 확대, 실제 공간 이외에도 가상공간을 활용한 실험, 실습의 확대, 체계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의 확대 등 다각적인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론과 실제의 융합의 방법과 범위는 분야나 단과대학, 학과별, 교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제언 9

대학은 교육 체제와 교수학습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정부, 국민, 학부모에게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제고한다.

대학은 교육체제와 교수학습 활동의 비용 효과성을 제고하고, 대외적 책무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들은 교육과정, 교수학습, 생활적응, 진로 및 직업탐색 등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시설·설비를 도입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다양하고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학의 경우, 대학 관계자와 학생들 간에 문제인식이 달랐으며(제 Ⅲ장 참조), 따라서 대학이 제공하려는 프로그램과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효과성이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심지어 대학과 학생 요구 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별로 참여도, 만족도, 유용성, 효과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교육에 막대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본다면 대학별 교육체제의 성과, 비용 효과성, 학생의 성장과 성취 등에 관한 정보를 정부, 국민, 학부모에게 적절한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은 한층 더 만족도, 유용성, 효과성이 높은 교육체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다) 학습 성과 측면(Output)

제언 10

대학은 학습자 스스로 중간성과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빅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분석 등의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목표한 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졸업 시점에서의 학습 성과 만이 아니라 중간성과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간 성과란 대학 생활의

적응과 그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역량 등을 포함한다. 무형의 역량에 대해 성장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기록상으로 한계를 갖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종전의 성적 이상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즉, 대학은 e-portfolio 등이나 데이터화된 정보들에 기반하여 학습분석한 결과들을 교육서비스 체제를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습자는 중간성과를 통해 학습 이력과 자신의 학습 습관, 변화와 성취 수준 등을 파악하여 이후 교과 수강 신청에 대한 계획에 활용할 수도 있고, 보충, 심화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학업에 대한 동기가 유발되고,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기대성과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도달하게 될 수 있다.

이 같은 중간성과에 대한 학습자 확인 시스템은 학습자만이 아니라 교수자, 대학 운영에 대한 피드백이기도 하다. 교수자의 경우, 학생에 대한 상담이나 조언, 교수 방식 등에서 보다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간성과 확인은 학습자, 교수자, 대학 모두에게 졸업시점의 학습성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네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따라서 대학은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주기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제언 11

교과-비교과 활동을 연계하여 학업 부적응,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맞춤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교과와 비교과 활동의 연계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면담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업과 대학생활 부적응 문제가 다양하게 걸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 구성원이 다원화, 다층화된 데에도 이유가 있지만 현재의 대학 교육체제가 학령기, 전통적 진학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에서도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운영구조로 인해 비학령기, 비전통적 진학 경로의 소수 그룹의 학생들은 학업 부적응으로 진행될 상황에 놓이기 쉽기 때문이다. 대학이 선발한 대학 내 모든 학생의 평등한 학습권에 대한 시스템적인 보장과 교내외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서 제기되고 있

다. 학생들이 학업 생활에 유용하다고 손꼽은 것 중에는 교수의 피드백 외에도 동아리 활동, 인턴십, 진로 상담 등의 비교과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러한 비교과 활동들을 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조건이나 배경을 가진 소수 그룹에 대해서는 입학에서 졸업(후)까지 관리, 지원하는 별도의 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소수 그룹의 학생들이나 학업 부적응 학생들이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 센터를 통해서 보충교육, 학업 및 심리상담, 학자금지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지원 센터를 통해서 파악된 학생들의 고충과 요구들은 교수학습과정에 반영되도록 본부 행정 부처 및 해당 단과 대학·학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대학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소수그룹에 대한 대응이 효율성 문제로 어려울 수 있다면 기존의 지원 센터 내에 지원 내용 등을 특화한 프로그램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는 방법, 혹은 인근 대학과의 연계적 대응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제언 12

대학의 교육운영체제를 역량 중심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학번과 같은 일상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입학 시점이 아닌 졸업 시점으로 전환하는 등 운영 전반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의 인적 네트워크 구조는 비전통형 진학자들과 같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시점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재학 중 휴학생이 늘어나면서 매우 복잡한 구조가 되고 있다. 입학의 시점이 같아도 졸업시점이 다른 경우, 편입자 경우처럼 입학 시점이 다른 경우, 여기에 중도탈락자, 휴학생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대학의 인적 네트워크가 예상하기 어려운 구조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대학의 인적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운영시스템은 종전 그대로 고졸 이후 진학자, 학령기 진학자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특히 입학 시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학번'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입학 시

점을 중심으로 부여되고 있는 대학의 학번은 편입생처럼 3학년으로 진입하는 학생들에게는 일반학생들과 구별되는 낙인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대학재학 중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대학의 일원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투명 구성원으로 만드는 지속적 효과로 이어진다. 편입생이 아닌 경우에도 군입대, 휴학, 국제 연수 등 중간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인들이 재학 중의 인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고, 그 속에서 대학 내 배회하는 소외된 그룹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의 학사제도와 문화를 졸업시점 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학번을 재학 중에는 입학 시기가 아니라 무작위로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 즉, 학번이 의미 없는 숫자로 구성되면 학과와 학년으로만 구분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되고, 졸업 후에는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졸업 시점을 중심으로 한 운영 체제는 고교에서 대학에 진학,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편입, 취업 경력으로 진학, 대학원에서 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유턴진학 등 학생들의 이전 경력이나 배경이 무한한 학벌 고리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진학의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학령기에 전통적 진학 통로를 고집하는 묻지마식의 대학 진학 풍토나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제언 13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국내외적으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조성을 지원한다.

유학생의 경우, 비전통형 유형에 포함되지만 국내 학생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각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 학생과의 교류에 대한 요구가 강하였고, 한국어로 인한 학업 부적응의 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생활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불안 등 유학생의 적응 장애 요소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2인 1조 멘토링, 혹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적 교류를 지원하는 대학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졸업 후에 대해서도

국내외적으로 관계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정부에 대한 제언

가) 선발 체제 측면(Input)

제언 14

정부는 대학의 공공적 책무성 차원에서 대학이 다양한 진학 경로 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 지원하고, 선취업 후진학 등 성인학습자 진학 경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후진학자 대상의 입학전형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제도적으로 다양한 근거법에 의거하여 성인학습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따라서 현재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진입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다만 이 연구에서 살펴본 재직자전형의 경우,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경쟁률이 저조한 상태라서 잠재적 입학자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입학자격요건의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특정 조건의 일반계 고교 졸업자 포함) 이외의 고교 졸업자를 배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예컨대 일반계고를 졸업하고 5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요건으로 하여 추가적인 자원을 발굴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재학기간 중 재직 요건 부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일제 입학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자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데, 재학과 재직의 동시 병행을 엄격하게 운영하는 취지는 살리지만 제도가 왜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 대학에게 자율적 결정권을 주는 방식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단, 제도 운영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도 운영의 악용 방지를 위해 수도권보다 선호도가 낮은 지방 대학 중 지역적 특성과 부합한 조건을 가진 대학을 지정하는 시범적 운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교육과정 운영 측면(Process)

제언 15

학습자 맞춤형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혁신하기 위한 '역량' 의 기준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주체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 대학 교육을 맞춤형으로 한다는 것은 그 준거를 '역량'에 둔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 역량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대학 개설 과목(정규교과 및 비정규, 교양 포함)을 구조 조정한 후, 각 과목을 대학의 전문성 기준(전공별 계열화)과 사회의 역량 요구 기준(융합화)에 따라 매트릭스 형태로 2차원 배열하는 작업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이 대학 자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별도의 지원을 할 수도 있으나 ACE 사업 등을 부분 조정하여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좀 더 현실적일 수 있다(대학 커리큘럼 개선 차원).

다) 교수학습 운영 측면(Process)

제언 16

정부는 대학들이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분석에 기반한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시스템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허용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학들이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분석에 기반한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도록 선도사업 등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학이 학생의 정보를 일정 조건 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입학처에는 학생의 인구학적 특성, 장래 경력계획 등에 관한 입학 시점의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으나, 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이 귀중한 입학시점(Input)의 정보가 대학교육이라는 교육과정(Process) 효율화(수강 신청 시 개인성향이나 경력계획을 고려하여 수강과목을 제안하고, 지도교수가

상담에 활용하는 등)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보안장치를 마련한다는 전제로 이 데이터를 대학이 윤리적-합목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제언 17

교수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의 강의지원 시스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1) 교수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FD)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거점대학 혹은 연구소를 지정 운영한다. 교수들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표준화된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수자로서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단기 교수학습자격과정, 박사과정 이수시 교수학습관련관목 필수이수 등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2) 대학의 강의지원 시스템은 현재 교수학습지원센터(CTL)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보다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대학들의 강의지원 시스템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학 간 교수학습 개발 센터 역할의 규모나 인프라, 운영 등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 권역별 거점대학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개별대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언 18

개별 대학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내외 대학의 다양한 실천 사례의 발굴과 보급이 필요하다.

많은 대학들은 서로 모방을 통해서 대학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조사에 협력하고 협의회에 참여한 대학 관계자들은 상호 좋은 실천 사례들을 수집하고자 하였으며 참고 사례들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대학교육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경쟁이 아니라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선도적인 대학들의 아이디어와 성공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대학의 연구성과만이 아니라 교육과정, 교육성과에 초점을 두고, 잘 가르치는 대학, 잘 가르치는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채재은 외, 2009)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글로벌 사회에서 세계적 수준의 대학들이 어떻게 교육운영체제를 갖추고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발굴하여 보급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단초로 하여 개별 실천 사례들이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의 공유장을 개설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한다.

제언 19

정부는 대학의 데이터를 축적, 이를 활용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기반하여 대학 수요와 상황에 맞는 정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대학이 학습자의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 활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대학별 교육체제의 성과, 비용 효과성, 학생의 성장과 성취 등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련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부 정책의 성과, 대학교육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대학 수요와 대학 구조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제언 20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다양한 목적, 진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성화하고 졸업 후 진로 향방 등 성과(Output)를 중심으로 홍보함으로써 인재를 동질화하는 역방향 전략의 유학생 유치 방안을 제안한다.

비전통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목적과 진로, 수준이 매우 다양하여 당초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도록 대학이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가지고 유학생 교육 중점 대학을 지정하여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유학생 집단의 다양성을 고급인력, 실용인력, 한국어 교육 등을

통해 동질화를 지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각각 대학의 학문적 특성,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 중점대학을 지정, 육성하는 정책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최근 유학생의 감소 현상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앞의 대학 특성화와 함께 그에 따른 유학생의 자격 조건의 조정, 학업, 생활, 취업 등을 지원하는 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와 취업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유학생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진로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학생의 취업 제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유인효과만이 아니라 잠재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좀 더 유연한 정책 운영과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수준에서 유학생 교육 실태와 과제를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유학생 지원 전담 부서 혹은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호주 경우, 유학생 산업은 국가 4대 산업의 하나로 간주하고 집중하고 있음. 제 Ⅴ장 3절 참조).

나. 중장기 과제

1) 대학에 대한 제언

제언 21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빅데이터 축적과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등에 기반한 교육 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

대학운영 차원에서는 개인별, 학과별, 대학 전체 차원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조직 및 인력을 확대하며, 대학별 교육체제의 비용효과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전교적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입학초기부터 학생특성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자료, 정보의 분석과 축적, 그리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빅데이터 분석(Big data Analysis) 등을 활용한 상시적인 성과 측정 및 환류 시스템이 필요하다.

2) 정부에 대한 제언

제언 22

표준화된 빅데이터 보안시스템의 규격을 제시하고 대학별 보안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여 한국 대학형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빅데이터 보안시스템의 규격을 제시하고, 각 대학별 보안시스템 구축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보안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으면 개인 정보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는 분산된 이질적 데이터를 결합하여 새로운 정보로 합성해 낼 때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 대학들은 이미 수많은 분산된 시스템들(입학시스템, 학사시스템, 도서관시스템, LMS 등)을 사용하고 있고, 이들 데이터의 통합 활용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범대학을 정하여 이 대학에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시행착오(교수학습적, 기술적, 법적)를 줄일 수 있는 한국 대학형 표준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전체 대학에 보급함으로써 대학별 각개 추진에 따르는 행재정적 비용을 줄이도록 한다.

제언 23

향후 순환교육적 관점에서 전문대-일반대 편입 등 비전통형 진학 통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사 연계과정은 소수 대학에 제한되어 있어서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연계편입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의 수를 더 늘려서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단, 인근 지역으로 제한 필요). 또한 전문대학 내에서 4년제 대학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학술트랙과 취업트랙)하여 운영할 필요도 있다.

현재 전문대학 등 학사편입에 대해서는 잠재적 진학수요가 매우 많아서 자칫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대학 교육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확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확대 방안을 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확대의 필요성과 방법,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정책을 보완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전문대학과-일반대학의 연계 편입에 대해 미국대학과 같은 형평성 개념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미국 2+2 제도, 제 Ⅴ장 2절 참조).

제언 24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체계가 실제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상대평가 등 역량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을 맞춤형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맞춤형의 목표 또는 준거를 '역량'에 두어야 한다. 대학이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역량'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는 개별 대학 수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상대평가제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인식 전환 노력과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1) '역량' 설정에 대한 공론화: '역량' 설정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 차원에서 전개하여 대학의 역량중심의 교육 체제로의 개선이 실제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미디어 활용, 공론화 할 수 있는 토론의 장 마련, 관련 연구 추진 등).
2) 상대평가 제도에 대한 재검토: 거시적인 커리큘럼 혁신 모델이 개발되면, 각 과목별 성적 산출 방식을 과목별 목표 역량 달성도를 준거 지향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교과목 차원). 현행의 상대평가제도는 역량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열화를 전제로 하는 현재의 규준지향형 평가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학습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상대평가 제도는 빅데이터 분석의 효과성에도 치명적이다. 대부분 빅데이터 분석 모형은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독립변수로 학업 성취도나 역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구성되는데 이 때 종속변수가 서열척도일 경우, 빅데이터가 주는 예측과 처방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3) 역량 평가 도구 개발 및 활용: 입학 및 졸업 시점 간 역량 변화를 측정하고, 그 차이에 기여한 과목이 무엇이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종합 역량측정도구가 반복 측정될 수 있도록 직능원의 K-CESA와 같은 표준 측정도구를 개발, 정책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를 Y로 하고, 재학 중 수강 과목별 학점(역량 준거 기준으로 개정된 점수)을 X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학 교과목의 상시 구조 조정 및 역량별 맞춤형 커리큘럼의 구성을 시스템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K-CESA의 개선 및 시행 비용 지원, 대학 교과목 구성 및 운영의 유연성 제고, 사전-사후 역량 평가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역량 총괄평가 차원).

4) 역량 성과와 취업과의 연계: 역량기반 평가제도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커리큘럼이 구축되고, 빅데이터를 통해 학생들 개인의 e-Portfolio 시스템이 개발되면, 기업으로 하여금 입사지원자의 e-Portfolio를 채용 기준으로 삼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대학 선발에서 입학사정관제 도입시 정부가 수행했던 역할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나 졸업성적표에 비해 4년간 공부하고 그 결과로 창출해 낸 산출물의 전자적 기록물을 채용에 활용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평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올라갈 것이고, 학생들은 대학 공부에 열중하게 할 실질적 동기가 생길 것이다(대학교육과 취업 연계 차원).

다. 후속 과제에 대한 제안

본 연구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지금까지의 거시적 접근과는 달리 단위 대학들이 직면한 과제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진학 경로의 유형화를 통해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 논의를 시도한 최초의 연구로, 이 연구가 단초가 되어 향후 보다 심층적인 논의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 시도되고 논의된 진학 경로의 유형화, 진학 유형별 교육운영체제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다 발전적 논의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후속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진학 경로를 크게 전통형과 비전통형으로 구분하고, 특히 지금까

지 경시 내지 외면해 왔던 비전통형 진학자들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주지시키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룬 비전통적 진학 유형과 그 요구에 부합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논의는 하나의 시도적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진학 유형을 모두 다루고 있어서 유형별 문제진단과 개선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유형별로 독립된 연구과제로 접근하여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전히 대학 구성원의 다수를 구성하는 전통적 진학자, 즉 고졸 후 대학 진학자들에 대한 논의는 미래형 대학으로의 체제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통적 진학 경로를 통한 비학령기 대학 진학자들에 대한 관심을 주지시키기 위한 의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향후 전통적 진학 경로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 간략하게 제안하고 있는 학습 빅데이터의 활용과 학습분석 기반의 맞춤형 교육 모델,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디지털세대의 학생과의 학습 소통 체제의 개선, 시공간 초월의 학습공간 재구조화,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와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의 구축 등은 후속 연구를 통해 반드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논제들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비전통적 경로를 통한 진학자들의 유형에 대해 일부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비전통적 진학 경로는 이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컨대 이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재수생(대학 입학 후, 졸업 후 재수 경우 등 다양)이나 편입생의 문제도 대학의 교육운영 과정에서 소홀히 되기 쉬운 문제들이다. 또한 최근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학사출신들의 사이버대학에의 진학 수요, 외국적자는 아니지만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국내 대학에 진학한 경우 등 대학 내 존재하는 비전통적 진학 경로와 다층적인 구성원들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여건의 제한으로 진학 유형별 요구 분석을 정부의 관련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질적 조사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재정지원 수혜대학이라는 한정된 조사 대상에 대한 질적 조사만으로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단초로 하여 향후 조사대상교를 확대하고 질적, 양적 조사를 병행하는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 대상 대학 선정 평가 기준 개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확대, 관련 법령 정비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명구·김지현(2010). 한국 대학의 학사구조 변화와 기초교양교육의 정체성 확립의 과제. **아시아교육연구**, 11(2), pp.327~361.

강진구(2013).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 인력으로서의 잠재력 봐야, LG Business Insight (12월 11일), pp.26~33.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a). **2013 간추린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b). **201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4). **2013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집**.

김병주·유현숙·백성준·홍후조·김정희·김무영·유승후(2011).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개편 방안**. 서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

김영철·손용택·이만희(2000). **교육대학원 운영 실태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박권생(2011).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 Einstein의 착각. **사고개발, 7**(1), pp.117~134.

박상옥·노경란·이은경·장환영·현영섭·엄보현(2012).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 탐색**.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박인우·박주호·김인식(2011). **고등교육 교육과정 관련요인 관계분석 연구**. 서울: 고등교육정책연구소.

반가운(2013).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제도와 교육훈련투자 성과. **The HRD Review, 16**(2), pp.102~118.

백성준·채창균·유한구·주휘정(2011). **미래 지향 고등교육체제 개편 구상 : 직업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손준종·구혜정(2007). '비전통적 학습자'의 고등교육기회 분석-대학입학전형제도를 중심으로: '비전통적 학습자'의 고등교육기회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3**(2), pp.141~163.

엄문영(2014). 계약학과의 개설 및 학생현황. **교육개발** 2014년 가을호.

유현숙·임후남·최정윤·여승수·서영인·고장완·신현석·한상임(2010).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Ⅰ).**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이정미·최정윤·임후남·권기석·서영인·류장수(2011).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임후남·서영인·신현석·고장완·박승호(2011).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연구 (Ⅱ)**.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임후남·최정윤·여승수·서영인·고장완·신현석(2013a).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최정윤·이정미·김민희·변현정·최보금·허은·김혜인(2013b).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병식·김영철·김종웅·채재은·윤신원(2005). **한국 고등교육 체제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병식·김혜림·공희정·박혜경·전민경(2012). 한국 대학효과 연구의 최근 동향. **교육과학연구, 43**(4), pp.191~219.

이성호(1992). **한국의 대학교수**. 서울: 학지사.

이준형·오세혁(2006). **2006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차별판단지침에 대한 외국사례조사(출신국가·출신민족·인종·피부색)**. 국가인권위원회.

이희수·권인탁·송병국·양병찬·이성엽·백미현(2014). **대학중심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광희·심우정·나민주·이병식·이필남·손현주·공희정(2014).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 방안 탐색, **KEDI 정책토론 자료집**(RRM 2014-05).

채재은·변기용·남수경·최정윤(2009). **고등교육 장기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최상덕·서영인·황은희·김영철·장상현·최영섭(2013).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최상덕·성낙돈·조대연·박진영·김태준(2009). **대학평생학습의 모형개발 및 지원전략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최상덕·김기수·장수명·채재은·정규열(2008).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케이엠플러스컨설팅(2012). **최신 교육훈련평가 모형을 활용한 교육성과분석.** 농촌진흥청.

한국경영자총협회(2008). 「대졸 신입사원 채용 및 재교육 현황조사 결과」, 내부자료. pp.1~4.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 (고등교육, 취업통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2). **2012년 고등교육 이러닝 현황조사 분석 보고서**. 서울: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p.3.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3). **2013년 교육정보화백서**. 서울: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 Meta analysis**.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황양주·최유성(2011). **인구변화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변화 예측**. 서울: 통계개발원.

<대학 사례 원고용역 자료>

김수정(2014).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2+2 학사 편입제도 운영과 지원 사례. 미발표원고.

김정은(2014). 미국의 다양한 수요 맞춤형 대학 교육 사례. 미발표원고.

오도창(2014). A대학교 개황 및 진학수요 맞춤형 교육운영체제 우수사례. 미발표원고.

이계백(2014). C대학교 개황 및 진학수요 맞춤형 교육운영체제 우수사례. 미발표원고.

이태우(2014). D대학교 개황 및 진학수요 맞춤형 교육운영체제 우수사례. 미발표원고.

정강용(2014). G대학교 개황 및 진학수요 맞춤형 교육운영체제 우수사례. 미발표원고.

정종욱(2014). F대학교 개황 및 진학수요 맞춤형 교육운영체제 우수사례. 미발표원고.

정영란(2014). 호주의 유학생 관리 정책 사례. 미발표원고.

조일현(2014). B대학교 개황 및 진학수요 맞춤형 교육운영체제 우수사례. 미발표원고.

최우석(2014). H대학교 개황 및 진학수요 맞춤형 교육운영체제 우수사례. 미발표원고.

최해운(2014). E대학교 개황 및 진학수요 맞춤형 교육운영체제 우수사례. 미발표원고.

<보도자료, 내부자료 등>

교육과학기술부(2011. 8. 12).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실시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위원회 발족.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9. 22).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시대,「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본격 시행.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4. 17).「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4. 30). 외국 유학생 2020년까지 20만명 유치. 보도자료

교육부(2013. 5.) 2013년도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내부자료.

교육부(2013.6.25). 2013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2014. 2).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보도자료.

교육부(2014. 6. 30). "2014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선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2014. 8.29). 2014년 교육기본통계 발표. 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1. 23).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방안(안).

A대학 내부자료 : 동기유발학기 구성, 동기유발학기 관련 자료, 기초학력증진실 교육 프로그램 내용, 핵심역량검사도구 구성내용, 교육품질위원회 활동 내용.

B대학 내부자료 : B대학 교수학습개발원(2013). 스마트강의실 추진계획, B대학 교수학습개발원(20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수학습체제 선진화 방안, 2014 B대학 학부교육선진화 사업 계획서, 2013 B대학 교수학습개발원 교무회의 월별 보고 자료, 2014 B대학 학부교육선진화 사업 계획서.

C대학 내부자료 : C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과의 연도별 모집정원 현황.

E대학 내부자료 : 연계교육 운영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연계편입학생 모집인원 및 등록인원.

G대학 내부자료 : G대학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자료, G대학 외국인 유학생 입학관련 자료, G대학 글로벌 튜터링 제도, G대학 내부자료 : 국제교류 프로그램 학생지원단 SSIA활동 관련자료..

Anderson, G. M., Alfonso, M., & Sun, J. C. (2006). Rethinking cooling out at public community colleges: An examination of fiscal and demographic trends in higher education and the rise of statewide articulation agreements. *Teachers College Record, 108*(3), pp.42~45.

Arum, R., & Roksa, J. (2011). *Academically adrift: Limited learning on college campuse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stin, A. W. (1993).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Astin, A. W., Keup, J. R., & Lindholm, J. A. (2002). A decade of changes in undergraduate education: A national study of system “transformation”.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25*(2), pp.141~162.

Avery, C., & Levin, J. (2010). Early admissions at selective colleg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0, pp.2125~2156.

Barr, R., & Tagg, J. (1995). From teaching to learning: A new paradigm for undergraduate education. *Change,* 27(6), pp.12~25.

Bates, A. T., & Sangrà, A. (2011). *Managing technology in higher education: Strategies for transforming teaching and learning.* John Wiley & Sons.

Berger, J. B., & Milem, J. F.(2000). *Organizational behavior in higher education and student outcomes. In J.C. Smart (Ed.),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Vol. XV, pp.268~338.). New York: Agathon Press.

Bokor, J. (2012). *University of the future: A thousand year old industry on the cusp of profound change.*

Bowen, H. (1997). *Investment in learning*. N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rennan, J. (2004). *The social role of the contemporary university: Contradictions, boundaries and change.* Ten Years On: Changing Education in a Changing World, Center for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Information(CHERI). Buckingham: The Open University Press.

Burke, J. (2004). *Achieving accountability in higher education: Balancing public, academic, and market demands.* San Francisco: Jossey-Bass.

Callanan, G., & Benzing, C. (2004) "Assessing the role of internships in the career-oriented employment of graduating college students", *Education+Training, 46*(2), pp.82~89.

Casares, J., Dickson, D. A., Hannigan, T., Hinton, J., & Phelps, A. (2012). *The future of teaching an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Rochester, NY: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Casner-Lotto, J., & Barrington, L. (2006). *Are they really ready to work? employers' perspectives on the basic knowledge and applied skills of new entrants to the 21st century US workforc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1 Massachusetts Avenue NW Suite 700,

Washington, DC 20001.

Cepeda, R., & Nelson, K. (1991). *Transfer: A plan for the futures.* Sacramento, C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 Office of the Chancellor.

Christensen, C. M., Horn, M. B., Caldera, L., & Soares, L. (2011). *Disrupting college: How disruptive innovation can deliver quality and affordability to postsecondary educa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Clark, B. R. (1986). *The higher education system: Academic organization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Univ of California Press.

Cohen, A. M. (1998). *The shaping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Emergence and growth of the contemporary system.* San Francisco, CA: Jossey-Bass.

Crook, D. B., & Lavin, D. E. (1989). *The community college effect revisited: The long term impact of community college entry on baccalaureate attainment.* Paper presented to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Retrieved from http://files.eric.ed.gov/fulltext/ED306977.pdf.

Dahlstrom. E, de Boor T., Grunwald, P., Vockley, M., & Oblinger, D.(2011). The ECAR National Study of Undergraduate Students and Information Technology, 2011(Research Report). Boulder, CO: EDU CAUS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Retrieved from https://net.educause.edu/ir/library/pdf/ERS1103/EIG1103.pdf.

Dietz-Uhler, B., & Hurn, J. E. (2013). Using learning analytics to predict (and improve) student success: A faculty perspective. *Journal of Interactive Online Learning. 12*(1), pp.17~26.

Dougherty, K. J. (1992). Community colleges and baccalaureate attainment.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3*(2), pp.188~214.

Dowd, A. C., & Meiguizo, T. (2008). Socioeconomic stratification of community college transfer access in the 1980s and 1990s: Evidence from HS & B and NEL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31*(4), pp.377~400.

Draper, S., & Brown, M. (2002). *Use of the PRS (Personal Response System) handsets at Glasgow University* (Interim Evaluation Report). Glasgow, UK: Glasgow University.

Drucker, P. F. (2002).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이재규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 (원서출판

1993).

Ehrenberg, R. G., & Smith, C. L. (2002). *Within state transition from 2-year to 4-year public institutions* (Working paper No.8792). Washington D.C.: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Retrieved from http://www. nber.org/papers/w8792.pdf.

Field, J. (2003). *Getting real: evidence on access and achievement? In M. Slowey and D. Watson(eds.)(2003).* Higher Education and the Lifecourse. London: Open University Press, pp.20~35.

Futhey, T., Luce, R., & Smith, J. M. (2010). Drivers of change in Higher Education. *Educause Review, 45*(1), pp.12~13.

Garcia Falconetti, A. M. (2009). 2+2 statewide articulation policy, student persistence, and success in Florida Universities.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33*(3-4), pp.238~255.

Goldstein, P. J. (2006).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A view from CHEMA.* Retrieved from http://net.educause.edu/ir/library/pdf/ECP0602.pdf.

Griffiths, D. (2013). The implications for analytics for teaching practice in higher education. *JISC Center for Educational Technology & Interoperability Standards Analytic Series, 1*(10), pp.1~23.

Harper-Marinick, M., & Swarthout, J. (2012). Developing a culture of transfer and students success in Arizona. *New Directions For Community Colleges, 160,* pp.79~89.

HERI(2014). 2015 College Senior Survey Instrument(Paper Version). Los Angeles, CA: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www.heri.ucla.edu/PDFs/survey Admin/CSS/2015/CSS2015.pdf

Hershock, P. (2012). *Information and innovation in a global knowledge society: Implications for higher education.* In D. E. Neubauer (Ed.), The emergent knowledge society and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Asian perspectives (pp.7~25.). New York: Routledge.

HERI(2014). 2015 College Senior Survey Instrument(Paper Version). Los Angeles, CA: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www.heri.ucla.edu/PDFs/surveyAdmin/CSS/ 2015/CSS2015.pdf

Huberth, M., Michelotti, N., & McKay, T. (2013). *E2Coach: Tailoring support for students in introductory STEM courses.* EDUCAUSE Review Online. Retrieved from http://www.educause.edu/ero/article/e2coach-tailoring-support-studentsintroductory-stem-courses.

Johnson, L., Adams Becker, S., Cummins, M., Estrada, V., Freeman, A., & Ludgate, H. (2013). *NMC horizon report: 2013 higher education edition.* Austin, TX: The New Media Consortium.

Jones, S. J. (2012). Technology review: The possibilities of learning analytics to improve learner centered decision making. *The Community College Enterprise, Spring,* pp.89~92.

Kezar, A. J. (2006). Redesigning for collaboration in learning initiatives: An examination of four highly collaborative campuse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7(5), pp.804~838.

Kisker, C. B., Wagoner, R. L., & Cohen, A. M. (2012). Elements of effective transfer associate degrees. New Directions For Community Colleges, 160, pp.5~11.

Lokken, F., & Womer, L. (2007). *Trends in e-learning: Tracking the impact of e-learning in higher education.* Washington, D.C.: Instructional Technology Council.

Lomas, C., & Oblinger, D. G. (2006). Student practices and their impact on learning spaces. *Learning spaces,* 5(1).

Long, P., & Siemens, G. (2011). Penetrating the fog: Analytics in learning and education. *EDUCAUSE Review, 46*(5), pp.30~32.

Market Data Retrieval. (2002). *Technology in education 2002: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state of technology in the K-12 market.* Shelton, CT: Market Data Retrieval.

Milne, A. J. (2006). *Designing blended learning space to the student experience. In D. G. Oblinger (Ed.),* Learning Spaces. Washington, DC: EDUCAUSE.

Moore, C., & Shulock, N. (2010). *Divided we fail: Improving completion and closing racial gaps in California's community colleges.* Sacramento, California State University; Institute for Higher Education Leadership & Policy. Retrieved from http://files.eric.ed.gov/fulltext/ED513824.pdf.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13).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2013.* Retrieved from http://nhttp://nces.ed.gov/programs/digest/2013 meun_tables.asp.

National Center for Public Policy (2010). *Beyond the rhetoric: Improving college readiness through coherent state policy*. Retrieved from http://www. highereducation.org/reports/college_readiness/CollegeReadiness.pdf.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US) (Ed.). (2013). *Global trends 2030: Alternative world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Oblinger, D. (2003). Boomers gen-xers millennials. *EDUCAUSE review, 500*(4), pp.37~47.

Oblinger, D. (2006). *Learning spaces* (Vol. 2). Washington, DC: EDUCAUSE.

Oblinger, D. G., & Oblinger, J. L. (2005). *Educating the Net Generation*. The College at Brockpor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EDUCAUSE.

OECD. (1987). *Adults in Higher Education*. Paris: OECD.

OECD. (2012). *Education at a glance 2012: OECD indicators*. Paris: OECD.

Pascarella, E. T., & Terenzini, P. T. (2005).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A third decades of research (2n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atton, J., & Pilati, M. (2012). Faculty reflections on implementing associate degrees for transfer in California. *New Directions for Community Colleges,* 160, pp.55~68.

Paynter, M., & Bruce, N. (2013). Case studies using Moodle for collaborative learning with university and senior secondary students. *1st Moodle Research Conference(SEPTEMBER, 14 - 15, 2012)*.

Perin, D. (2013). Literacy skills among academically underprepared students. *Community College Review, 41*(2), pp.118–136

Peterson, M. & Dill, D. (1997). *Understanding the postsecondary knowledge industry*. In Peterson, M., Dill, D. and Mets, L. (Eds.). Planning and Management Challenges for a Changing Environment. Jossey-Bass.

Picciano, A. G. (2012). The evolution of big data and learning analytics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16*(3), pp.9~20.

Prensky, M. (2001). True believers: Digital game-based learning in the military. *Digital game-based learning*.

Robinson, B. L., & Moore, A. H. (2006). Virginia Tech: The Math Emporium. In D.G. Oblinger

(Ed.) *Learning Spaces(Vol. 2) Washington D.C.:* EDUCAUSE.

Ryan, S., Scott, B., Freeman, H., & Patel, D. (2000). *The virtual university: The internet and resource-based learning.* London: Kogan Page.

Schüetze, H., & Slowey, M. (2000). Traditions and new directions in higher education: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non-traditional students and lifelong learners. *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Learner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hange,* pp.3~24.

Sherman, J., & Andreas, M. (2012). The successful transfer structure in Washington State. *New Directions For Community Colleges,* 160, pp.17~29

Sledge, L., & Fishman, T. D. (2014). *Reimagining higher education.* Deloitte University Press.

Smith, M. (2010). *Transfer and articulation policies.* Denver, Co: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Retrieved from http://www.ecs.org/clearing house/90/70/9070.pdf.

Smith, S. D., & Caruso, J. B. (2010). *The ECAR study of undergraduate students and information technology.* EDUCAUSE center.

Steffes, J. S. (2004). Creating powerful learning environments: Beyond the classroom, *Change: The Magazine of Higher Learning, 36*(3), pp.46~50.

Taylor, M. (2012). *Reforming the State's transfer process: A progress report on senate bill 1440.* Sacramento, CA: Legislative Analyst's Office.

Teichler, U. (2008). Diversification? Trends and explanations of the shape and size of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56*(3), pp.349~379.

Terenzini, P. T., & Reason, R. D. (2005). *Parsing the first year of college: A conceptual framework for studying college impacts*. In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 Philadelphia, PA.

Townsend, B. K., & Wilson, K. B. (2006). The transfer mission: Tried and true, but troubled?. *New Directions for Community Colleges,* 136, pp.33~41.

Trow, M. (1976). “Elite higher education”: An endangered species? *Minerva, 14*(3), pp.355~376.

Trow, M. (2006). *Reflections on the transition from elite to mass to universal access: Forms and phases of higher education in modern societies since WWII.* In International handbook of higher education (pp.243~280.). Springer Netherlands.

The Century Foundation(2013). Bridging the higher education divide: Strengthening Community college and restoring the Amercian dream. NY: Century Foundation Press. Retrieved from http://tcf.org/assets/downloads/20130523-Bridging-the-Higher-Education-Divide-REPORT-ONLY, 2014년 8월 13일

Warger, T. (2003). Calling all course management systems. *University Business, 6*(7), pp.64~65.

WICHE. (2010). *The promising practices in state articulation and transfer system.* Boulder, CO: Western Interstate Commission for Higher Education.

Wheeler, B. (2004). Open source 2007: How did this happen?. *EDUCAUSE Review, 39*(4), pp.12~27.

Wilson, J. M. (2001).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Reflections on the proper role of technology in higher education*(pp.202~226.). In Defence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London.

Zhu, E. (2007). *Teaching with clickers*. CRLT Occasional Papers, 22. Ann Arbor, MI: Center for Research on Learning and Teaching, University of Michigan.

Zuckerman, B. L., Azari, A. R., & Doane, W. E. J. (2013). *Advancing technology-enhanced education: A workshop report.* IDA(Institute for Defense Analyse) SCIENCE & TECHNOLOGY.

<인터넷 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대해 2014년 10월 29일 검색.

http://www.acec.or.kr/korean/viewtopic.php?t=518, 2014년 11월 1일 검색.

http://www.adelaide.edu.au/volunteers/opportunities/intstudentcentre/peermentor.html,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campuses/davis/transfer-profile/index.html, 2014년 8월 1일 검색.

https://aei.gov.au/About-AEI/Current-Initiatives/International-Students-Strategy-of-Australia/Pages/default.aspx,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s://www.aei.gov.au/research/International-Student-Data/Documents/Monthly%20summaries%20of%20international%20student%20enrolment%20data%202013/12_December_2013_MonthlySummary.pdf,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s://aei.gov.au/research/International-student-data/pages/default.aspx,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s://www.aei.gov.au/research/International-Student-Data/Pages/InternationalStudentData2014.aspx,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aei.gov.au/scholarships-and-fellowships/pages/default.aspx,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aei.gov.au/Services-And-Resources/Services/Country-Education-Profiles/About-CEP/Documents/Australia.pdf(pp.24~25.), 2014년 8월 4일 검색.
https://aei.gov.au/Services-And-Resources/Services/Country-Education-Profiles/About-CEP/Documents/Australia.pdf, 2014년 8월 4일 검색.
http://atel.tlos.vt.edu/studentshowcase/, 2014년 8월 17일 검색.
http://www.azleg.state.az.us/FormatDocument.asp?inDoc=/ars/15/01824.htm&Title=15&DocType=ARS, 2014년 8월 2일 검색.
http://bond.edu.au/about-bond/introducing-bond/10-reasons-why-bond/index.htm, 2014년 8월 9일 검색.
http://bond.edu.au/about-bond/introducing-bond/how-bond-rates/index.htm,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bond.edu.au/research/research-news/BD3_022880,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www.buseco.monash.edu.my/for/Inter-campus-Exchange-Program.html,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www.calstate.edu/transfer/degrees/, 2014년 7월 23일 검색.
http://www.celt.uwa.edu.au/courses/pathways, 2014년 8월 9일 검색.
http://www.colombo-plan.org/index.php/about-cps/history/,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www.comlaw.gov.au/Details/F2011L02798,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crltumich.edu/slam, 2014년 8월 17일 검색.
http://www.decinternational.nsw.edu.au/study/study-tours, 2014년 8월 10일 검색.
http://www.decinternational.nsw.edu.au/study/study-tours/adult-groups, 2014년 8월 10일 검색.
http://www.decinternational.nsw.edu.au/study/study-tours/documents-and-forms, 2014년 8월 10일 검색.
http://www.decinternational.nsw.edu.au/study/study-tours/student-groups, 2014년 8월 10일 검색.
http://www.decinternational.nsw.edu.au/study/tafe/entry-requirements, 2014년 8월 10일 검색.

http://www.dfat.gov.au/new-colombo-plan/about.html, 2014년 8월 2일 검색.
http://www.emporium.vt.edu/, 2014년 8월 15일 검색.
http://en.wikipedia.org/wiki/Private_university#Australia, 2014년 8월 2일 검색.
http://eportfolio.vt.edu/index.html, 2014년 8월 15일 검색.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2134733, 2014년 8월 2일 검색.
http://go8.edu.au/page/go8-indicators, 2014년 8월 8일 검색.
http://www.health.gov.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nt/Overseas+Student+Health+Cover+FAQ-1,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www.hifive.go.kr/front/bbs/bbsList.do?bbs_id=60&rootMenuId=04&menuId=040202, 2014년 11월 11일 검색.
http://www.icms.edu.au/future-students/getting-started/oweek,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www.icms.edu.au/future-students/student-life/student-support-and-facilities,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www.immi.gov.au/Study/Pages/study-work-arrangements.aspx,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www.immi.gov.au/Work/Pages/SkillSelect/SkillSelect.aspx,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2014년 11월 7일 검색.
http://www.kcce.or.kr/college/college_deep.jsp, 2014년 10월 23일 검색.
http://www.kcce.or.kr/college/college_history.jsp, 2014년 10월 23일 검색.
http://kess.kedi.re.kr/index, 2014년 10월 23일 검색/2014년 11월 11일 검색.
http://kess.kedi.re.kr/kessTheme/zipyo?survSeq=0000&survCd=933&uppCd1=030201&menuId=m_02_03_01&itemCode=03, 2014년 11월 11일 검색.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320140sB440, 2014년 7월 23일 검색.
http://myuniversity.gov.au/Bond-University/3003#!uni-stats/tables,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www.nbcnews.com/id/7844477/ns/us_news-education/t/interactiveclickers-changing-classrooms/#.VFdoG_TF_jg, 2014년 8월 15일 검색.
http://news.donga.com/3/all/20140909/66289324/1, 2014년 11월 7일 검색.

http://www.nyu.edu/students/undergraduates/student-communities/transfertransitioning.html, 2014년 10월 23일 검색.
http://www.pathtocollge.org/pdf/L umina_Rpt_AACC_pdf, 2014년 7월 20일 검색.
http://prisms.deewr.gov.au/Main/External/TPSLevy/TpsLevyIOSDeclarationLogin.aspx,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6/15/20140615002675.html, 2014년 6월 17일 검색.
http://sitemaker.umich.edu/ecoach/about_ecoach, 2014년 8월 13일 검색.
http://www.sixsigmadaily.com/methodology/input-output-model, 2014년 5월 29일 검색.
http://www.student.uwa.edu.au/learning/studysmarter/writesmart/lace,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www.student.uwa.edu.au/new/uniskills/, 2014년 8월 9일 검색.
http://www.studiesinaustralia.com/news/university-tafe-or-private-college-where-should-you-study, 2014년 8월 1일 검색.
http://www.studyat.uwa.edu.au/undergraduate/requirements/english,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www.studyinaustralia.gov.au/global/live-in-australia/working,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www.studyinaustralia.gov.au/korea/australian-education/more-study-options,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www.tafensw.edu.au/, 2014년 8월 2일 검색.
http://tps.gov.au/StaticContent/Get/FaqsForProviders, 2014년 8월 7일 검색.
http://transferinstitute.org/about-us/, 2014년 10월 23일 검색.
http://www.transfers.ucla.edu/, 2014년 10월 23일 검색.
http://www.unistart.uwa.edu.au/, 2014년 8월 9일 검색.
http://univ.kcue.or.kr/, 2014년 10월 25일 검색.
http://www.usc.edu/admission/undergraduate/docs/USCFreshmanProfile.2014.pdf, 2014년 8월 16일 검색.
http://www.usc.edu/admission/undergraduate/transfer/prospective/transferprofile.html, 2014년 8월 16일 검색.
California State University 웹사이트: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320140SB440, 2014년 7월 23일 검색.
Minnesota State Colleges & Universities 홈페이지, http://www.mnscu.edu/admi ssions/transfer.html, 2014년 7월 30일 검색.

Ohio Board of Regents 웹사이트: http://regents.ohio.gov/transfer/policy /CreditTransferPolicy.pdf, 2014년 7월 20일 검색.

The Century Foundation Task Force on Preventing Community Colleges from Becoming Separate and Unequal. (2013). http://tcf.org/assets/downloads/ 20130523-Bridging_the_Higher_Education_Divide-REPORT-ON, 2014년 8월 13일

UC-Berkely 웹사이트: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campuses/specific-populations/educational-opportunity-program/index.html, 2014년 8월 1일 검색.

UC-Davis 웹사이트: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campuses/dav is/transfer-profile/index.html, 2014년 8월 2일 검색.

UC-Irvine 웹사이트: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campuses/irv ine/transfer-profile/index.html, 2014년 8월 2일 검색.

UCLA 웹사이트: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campuses/ucl a/transfer-profile/index.html, 2014년 8월 3일 검색.

UC-Merced 웹사이트: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campuses/me rced/transfer-profile/index.html, 2014년 8월 3일 검색.

UC-Riverside 웹사이트: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campuses/rive rside/transfer-profile/, 2014년 8월 3일 검색.

UC-San Diego 웹사이트: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campuses/s an-diego/transfer-profile/, 2014년 8월 3일 검색.

UC-Santa Barbara 웹사이트: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campuses/s anta-barbara/index.html, 2014년 8월 3일 검색.

UC-Santa Cruz 웹사이트: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campuses/san ta-cruz/transfer-profile/index.html, 2014년 8월 3일 검색.

USC 웹사이트: file:///C:/Users/master/Downloads/123961_2212008121714PM_U%20 of%20Southern%20CA%20Transfer%20Policy.pdf, 2014년 8월 17일 검색.

ABSTRACT

A Study on University Education System Improvement in Response to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
: Exploring Strategies for Building a Customized Education System

Chung, Kwang Hee
Shim, Woo Jeong
Rah, Min Joo
Rhee, Byung Shik
Yi, Pil Nam
Son, Hyeon Ju
Jang, Sang Hyun
Gong, Hee Jung

Higher education is facing new challenges and demands for reformation at the time of increased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when universal access to higher education is almost achieved and lifelong learning is becoming a norm rather than an exception. The demands are not only requiring a reform at national level, but also asking a transformation at institutional level. In response to the lat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diagnosing problems in higher education system: from access, through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to outcomes. The study also explores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higher education system. To accomplish these,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case studies, and also sought expert advice. The detailed research ques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What changes should be brought to higher education in the midst of major social changes? 2) What do administrators, faculties and students point as problems of higher education in

contexts of changing demands for higher education? 3) How could the educational system be improved to meet the needs and demands of diversifying learners?

A model of I-P-O(input, education, outcome) is adopted as a conceptual framework to explore higher education system at an institutional level. In the model, I represents input which then indicates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and their access to higher education. P indicates process which represents curriculum and teaching practices including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Lastly, O represents outcomes and encompasses intermediate outcomes such as collegiate adjustment as well as learning outcomes such as motivation for lifelong learning. With special focus on diversifying demands for higher education, this study categorized students into four groups; 1) 'straight access type' which represents traditional college students who likely enter universities and colleges upon graduation from high schools; 2) 'career-based access type' where students choose to work right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and link their work experiences to get an admission; 3) 'transfer access type' where students transfer to or re-enter universities after graduating colleges. In this case, their graduation certificates are used as an admission requirement; 4) 'global access type' where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 Korean universities using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in home countries.

Needs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students and administrators of eight universities which are purposefully selected based on the type, the location, and the curricula of institutions. The findings from the interviews with 'straight access type' students and administrators showed that the gaps in academic preparation and achievement are increasing. For both career-based access type and transfer access type, the major complaints were on the lack of consideration for and support to these types of students and discrimination and isolation from traditional college students. For global access type, students mostly complained

about the lack of interaction with domestic students and also pointed that their various demands and expectations were neither seriously considered nor reflected in the curricula. Common issues which cut across four types are the lack of admission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varying demands and expectations of student, curricula that are unbalanced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faculty-centered teaching and learning void of collaboration and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and professors. Another common problems frequently cited are the isolation of non-traditional students (e.g., transfer students, adult learners) on campus, and the low quality in educational service which unmet the expectation of these students.

Cases studie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changing demands of students and the issues facing the higher education. The major findings from the case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individual learner-customized educational system is being established with the adoption of active learning models optimized for each disciplinary programs, the implementation of core-competency diagnostic testing, and the adoption of learning analytics which analyzes learners' behavioral and attitudinal patterns using big data analytic methods. Second, universities were increasing their efforts to increase the enrollment of non-traditional students. In particular, universities established a number of committees which reports to university head offices and concerns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programs according to the needs of non-traditional students. Third, co-curricula programs were being developed to complement the curricula programs. Examples of co-curricular programs include faculty mentoring, peer mentoring and tutoring, and internship programs that integrate theories and practices.

The study also examined the cases of universities abroad. First, both Virginia Tech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Michigan develop and utilize customized

curricula and learning technology. Noteworthy are such innovative learning systems as student-friendly interface, e-learning courses, and online virtual system and individual learning support system that enabled mutual communication and ubiquitous participation beyond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Second, "2+2 Transfer System" in the State of California offers implications to transfer access type. Especially, this system could reduce the college cost, thus fares well with low-income students. Going to community college is no longer a secondary choice after a failure to enter a 4-year university but a more efficient choice as the curriculum of junior college is connected to that of 4-year university. Third, the cases of Australian universities are noticeable because of practical supports that they, in collaboration with legislative system, local communities, and other educational institutes, provide in regard to settlement, cultural adjustment, and post-graduate employment as well as recruitment and admission process.

Based on the findings from case studies and needs analysis,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system improvement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educational system for 'straight access type' students, customizing educational process to students' interests and demands is necessary while building a feedback loop based on big data analysis. Second, building a specialized support system for non-traditional underrepresented students such as 'career-based access type' students is suggested. This support system is to provide non-stop, total service from the point of entry to college to graduation. This system could be built in individual universities or in a partnership of multiple universities. Third, for transfer access type, expanding transfer process and strengthening the links between universities are suggested as community colleges are no longer an institution of terminal degree but a route to advanced degrees or education. Specifically, increasing the pool of local two-year colleges

which could host joint programs in collaboration with four-year universities, increasing flexibility in academic affairs (e.g., adopting a code share system), as well as providing a non-stop total supports to transfer students are suggested.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as some students could abuse the transfer system. In the long term, dual tracks might be built in community colleges; that is, building an academic track and a vocational track might be necessary. Fourth, in case of global transfer typ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dmission information in order to assist in international students' institutional choice, as well as to set up strategies for recruiting international students well suited to institutional attributes. It is also needed to provide support to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seeking an employment upon graduation. In the long term, strategizing the focus of international education is needed because the purposes of studying abroad might differ among students who are highly academically-oriented, those who prefer practicality, and those who are mostly focused on KSL(Korean as Secondary Language) programs.

A list of common tasks with regard to improving the I-P-O(input, process, and outcome) system is suggested as follows: a customized admission which could take diversifying backgrounds of applicants into consideration, organizing a customizable curricula, adopting pedagogical methods which could foster rich interaction among peers and professors, building a coherent educational support system that connects all aspects of student experiences from curricula to co-curricula, promoting self-directed learning with feedback system that provide formative evaluation, as well as summative, establishing a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academic and social adjustment, utilizing internships as a means to bridging classroom learning to practical training, overall improvement of educational system for traditional college students, and fostering human networks inside and outside school.

Implications for institution-level policy and for state-level policy are suggested. To the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renewing admission standards in accordance to diversifying demands and backgrounds of applicants is suggested. In terms of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establishing a learner-customized education system is highly recommended. In doing so, universities and colleges could utilize big data analysis and learning analytics. Renewing the contents and the structure of curricula is also necessary in order to foster organic learning experiences that integrates curricular, co-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terms of outcome, analyzed data could be regularly provided using the big data learning analysis service system for learners to check interim outcomes, which enables for students to have self-directed learning.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upport learning and school life maladaptive by linking curriculum and non-curriculum activities.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state-level policies are as follows. In terms of selection and access, the government needs to adjust and ease the current admission standards to increase access of non-tradition students. Not only the expansion of career first and enrolling next, but also community college-university transfer system should be considered like the case of the U.S. with the perspective of social fairness. Building a customized education system is certainly a task of university; however, governmental supports are also essential. First, policy programs might be designed to strengthening the teaching capabilities of teachers and staffs in universities. Second, competency-based curricula development is to be supported at the national level. Third, policy programs could be developed to support the curricula development that combines liberal arts education and disciplinary learning. Fourth, the relaxa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the use of admission data needs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promote the cumulation and the analysis of bid data and establish a

learner-customized education system. Fifth, another relaxation of restrictions is needed regarding the international students' sojourning and employment. In terms of outcom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ool for competency evaluation of which results are used to build a customized curricula. Second, strengthening the link between curricula and co-curricula programs is needed in order to reduce drop-out rates. Lastly, the government could consider building a national data warehouse which collects student's as well as institution level data and provide data analysis in response to questions at issue.

부 록

[부록 1] 행정가 및 대학생 면담지(Ⅲ장 관련)

[부록 2] 대학 관계자 및 학습자 요구분석 표(Ⅲ장 관련)

[부록 3] D, F, H대학교 사례(Ⅳ장 관련)

[부록 1] 행정가 및 대학생 면담지(Ⅲ장 관련)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 방안 연구
대학 행정가 면담지

1. 기본인적 사항

소 속(학교명/부서)	대학교 / 부서(전공):
직 책	
현 직책 재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락처(휴대폰)	

2. 학생 모집, 선발 및 구성(각 대학의 해당 유형에 초점)

1) 현재 귀 대학의 신입생 구성의 특성 및 변화 추세는 어떠합니까? (두드러진 변화 등)
2) 귀 대학의 학생모집 및 선발제도의 강점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3. 교육과정 및 학생 지원(각 대학의 해당 유형에 초점)

1) 다양화된 구성원의 특성 및 학습 수요를 고려할 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적 지원(예: 교육내용, 교육방법, 학사제도 지원, 교육환경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각 대학의 해당 유형 학생들의 학습 수요를 고려하여,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방안은 무엇입니까?
3) 각 대학의 해당 유형 학생들의 학습 수요를 고려하여 학습자를 지원 및 관리하는 것에 있어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4) 귀 대학에는 대학 전체의 교육과정을 관리하는 전담부서 혹은 교육과정관리시스템(총괄)이 있습니까? (전담부서: 존재유무/직원 및 교원 현황)

5-1) 학생 다양화와 학생 간 편차확대(부적응)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개선한 실적,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고교-대학직선형)

5-2) 학생 다양화와 학생 간 편차확대(부적응)에 대응하기 위해 교수학습 운영이나 프로그램을 개선한 실적,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고교-대학직선형)

6) 귀 대학이 운영하는 학과제(혹은 학부제) 시스템에 대해, 운영상의 문제점 혹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각 대학의 해당 유형에 초점)

7) 각 대학의 해당 유형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학사조직이나 학사운영을 개선한 실적,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8) 복수전공, 다전공, 부전공, 무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4. 향후 과제 인식 및 제도 건의사항

1) 고등교육의 수요 다변화를 고려할 때, 대학 운영 측면에서 개선해야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2) 학생 다양화와 학생 간 편차확대(부적응)에 주목해보았을 때, 학생들의 원활한 고등교육 이행 및 효과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제도, 법령 등 국가차원의 추진과제에 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학의 환경변화와 대학의 미션,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입학생 구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고등교육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driving forces)와 불확실성(uncertainties)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10년 후 한국의 고등교육과 귀교는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①종_고교-대학 직선형 학생면담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면담조사지(학생)_고교-대학 직선형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교육정책연구본부 고등·평생교육연구실)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면담조사지(학생)_고교-대학 직선형

1 면담 목적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4년 현재'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고등교육을 둘러싼 교육환경의 변화가 기존의 고등교육과는 다른 운영 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에 대응한 미래형 고등교육 체제 구축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진학자들의 진학 목적과 유형이 크게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각각의 교육 수요에 맞는 대학단위의 교육운영 개선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 면담은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자의 유형별 요구를 분석하여 입학에서 졸업에 이르기까지 학습자중심의 대학 교육 체제 구축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면담 내용

본 조사지의 면담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투입): 진학 동기 및 대학선택

□ (과정): 교육과정의 내용 및 방법

□ (산출): 학습성과 및 계속학습요구

3 면담 조사지(학생)_고교-대학 직선형 대학코드:

※ 면담자 기본 인적사항

작성자 이름	
소 속(대학교 이름 및 학과)	
연락처(휴대폰)	
메일주소	

※ 다음은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전공계열	○ 인문계열 ○ 사회과학계열 ○ 교육계열 ○ 자연과학계열 ○ 공학계열 ○ 의약학계열 ○ 예체능계열
현재 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초과학기
연령	만 ( )세
성별	○ 남자 (○군필 ○미필) ○ 여자
입학 경로	○ 고등학교 졸업 → 현재 대학에 입학 ○ 고등학교 졸업 → 대학 입학 → 현재 대학에 입학(편입) ○ 고등학교 졸업 → 취업 → 현재 대학에 입학 ○ 고등학교 졸업 → 대학 졸업 → 취업 → 현재 대학에 재진학 ○ 기타( )
취업 경험	○ 있음 ①전공과의 상관성 __유 __무 ② __정규직 __비정규직 ③ 재직기간: ( )년 ( ) 개월 ○ 없음
이전 대학교육 경험	○ 있음 ①현재 전공과의 상관성 __유 __무 ② 이전대학의 유형 __2/3년제 ___4년제 ○ 없음
(현재대학)휴학 경험	○ 있음(① 횟수: 번, ② 휴학기간: ( )년 ( ) 개월) ○ 없음 ○ 휴학이유( )
국적	○ 한국 ○ 외국(국가명:)
출신 고등학교 유형	○ 일반계고 ○ 특수목적고 ○ 자율형고 ○ 특성화고 ○ 검정고시 ○ 대안학교 ○ 해외소재 고등학교
복수전공 이수여부	○ 이수함(복수전공명:) ○ 이수하지 않음

※ 본 면담지를 작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귀하의 입학경로(고교-대학 직선형: 고등학교 졸업 -> 현재 대학에 입학)를 고려하였을 때, 대학의 진학 동기 및 진학 경로와 방법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1) 귀하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 진학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재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혹은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대학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입학관련 정보를 어느 곳으로부터 얻었습니까?

(3) 대학에 지원(학생의 지원-대학의 입학결정-학생의 등록 결정)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습니까?

2	귀하의 대학 및 전공 선택요인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1) 현재 귀하가 재학하고 있는 대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2) 현재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학부/전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3	다음은 대학의 교육과정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항목들에 대한 경험유무 및 유용함의 정도를 표시해주십시오. (경험이 있는 경우, 유용함에 대해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매우 유용함	유용함	보통	유용하지 않음	매우 유용하지 않음
(1)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영어, 수학 등 전공 공부에 필요한 기초 보충 교육)	ⓞ	ⓧ	⑤	④	③	②	①
(2) 대학의 복수전공제(이중 전공 포함)	ⓞ	ⓧ	⑤	④	③	②	①
(3) 대학의 멘토 프로그램(동료 및 선후배 간, 교수, 기타)	ⓞ	ⓧ	⑤	④	③	②	①
(4)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동료 간, 기타)	ⓞ	ⓧ	⑤	④	③	②	①
(5)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	ⓧ	⑤	④	③	②	①
(6) 교환학생 프로그램	ⓞ	ⓧ	⑤	④	③	②	①
(7) 외국어 강의 수강	ⓞ	ⓧ	⑤	④	③	②	①
(8) 대학연계 산학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	ⓞ	ⓧ	⑤	④	③	②	①
(9) 학습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	ⓞ	ⓧ	⑤	④	③	②	①
(10) 교육 및 학습 지원시설(강의실, 도서실, 컴퓨터 환경 등)	ⓞ	ⓧ	⑤	④	③	②	①
(11) 신(편)입생 프로그램(오티, 1학년세미나 등)	ⓞ	ⓧ	⑤	④	③	②	①
(12)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	ⓧ	⑤	④	③	②	①
(13)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	ⓧ	⑤	④	③	②	①
(14) 취업 및 진로 관련 상담 및 서비스	ⓞ	ⓧ	⑤	④	③	②	①

(1) 위의 항목 중 경험하지 않았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2) 가장 도움이 되었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3)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4)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내용과 관련하여 개선점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다음은 대학의 교수학습 및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항목들에 대한 경험유무 및 유용함의 정도를 표시해주십시오. (경험이 있는 경우, 유용함에 대해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매우 유용함	유용함	보통	유용 하지 않음	매우 유용 하지 않음
(1) 대학 온라인 강의(사이버강의)	ⓞ	ⓧ	⑤	④	③	②	①
(2)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 준비	ⓞ	ⓧ	⑤	④	③	②	①
(3)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관련 자료 공유	ⓞ	ⓧ	⑤	④	③	②	①
(4)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 상호작용 중심의 쌍방향 수업(MOODLE)	ⓞ	ⓧ	⑤	④	③	②	①
(5) 수업내용과 관련한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	ⓧ	⑤	④	③	②	①
(6) 수업내용과 관련한 동료학생의 피드백	ⓞ	ⓧ	⑤	④	③	②	①
(7) 수업에서의 질문이나 토론활동	ⓞ	ⓧ	⑤	④	③	②	①
(8) 수업과 관련하여 그룹 프로젝트 진행	ⓞ	ⓧ	⑤	④	③	②	①
(9) 수업과 관련한 외부 콘텐츠 활용과 공유	ⓞ	ⓧ	⑤	④	③	②	①
(10)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ex. 동영상, 피피티 등)	ⓞ	ⓧ	⑤	④	③	②	①
(11) 강의중심 수업	ⓞ	ⓧ	⑤	④	③	②	①
(12) 프로젝트중심 수업	ⓞ	ⓧ	⑤	④	③	②	①

(1) 위의 항목 중 경험 하지 않았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2) 가장 도움이 되었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3)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4) 학습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5) 대학의 교수학습 및 방법과 관련하여 개선점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5	귀하의 입학경로(고교-대학 직선형: 고등학교 졸업 -〉 현재 대학에 입학)를 고려하였을 때, 학업 혹은 생활관련 적응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작성해주십시오.

(1) 학업 혹은 생활관련 적응과정과 관련하여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2)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교육, 지원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6	다음은 대학에서의 학습성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자신의 역량(competency)이 어느 정도 발전하였다고 인식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입학 당시와 현재 시점의 점수를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각각 표기해주십시오.	
#	〈입학 당시〉 1~10 점으로 표기	〈현재 시점〉 1~10 점으로 표기
1)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점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점
2)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점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점
3)	외국어 구사 능력: 점	외국어 구사 능력: 점
4)	종합적 사고력: 점	종합적 사고력: 점
5)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점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점
6)	대인관계 역량: 점	대인관계 역량: 점
7)	의사소통 역량: 점	의사소통 역량: 점
8)	자기관리 역량: 점	자기관리 역량: 점
9)	글로벌 역량:(※ 외국어 능력, 글로벌 환경에 대한 노출, 다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 등): 점	글로벌 역량:(※ 외국어 능력, 글로벌 환경에 대한 노출, 다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 등): 점
10)	진로에 대한 준비: 점	진로에 대한 준비: 점
11)	기타( ): ___점	기타( ): ___점

(1)	위의 1번 항목 중 대학교육을 통해 가장 얻기를 기대하는 성과 3가지를 순서대로 번호로 작성해주시고 이유도 함께 작성해주십시오(항목에 없다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7	최근 평생학습시대가 진행되면서 향후 잠재적 고등교육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대학을 졸업한 후 향후에 대학에 다시 진학한다면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 진학하고 싶은 대학의 유형(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무엇입니까?

(2) (예상되는)진학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학위, 비학위, 재취업 탐색 등)

(3) 배우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없을 경우 예상하여 작성)

(4) 필요한 제도적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선발 방식, 교육과정, 상담 등 학업과 생활 적응 지원, 장학금, 취업 지원, 해외 연수 등 지원)

8	다음은 대학교육의 운영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입니다. 본인의 입학 경로 혹은 대학에서의 생활 경험을 고려하였을 때, 다음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해 주세요.

(1) 대학에 대해 작성:

(2) 교수에 대해 작성:

(3) 제도나 행정 지원 등에 대해 작성:

면담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면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137-791)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403호

□ 담 당 : 교육정책연구본부 고등·평생교육연구실 정광희 박사, 공희정 연구원

□ 문 의 : ☏ 02-3460-0230(정광희)/02-3460-0452(공희정) Fx 02-3460-0117

■ swhite0529@kedi.re.kr(공희정)

〈제②종_경력 연계형 학생면담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면담조사지(학생)_경력 연계형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교육정책연구본부 고등·평생교육연구실)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면담조사지(학생)_경력 연계형

1 면담 목적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4년 현재'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고등교육을 둘러싼 교육환경의 변화가 기존의 고등교육과는 다른 운영 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에 대응한 미래형 고등교육 체제 구축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진학자들의 진학 목적과 유형이 크게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각각의 교육 수요에 맞는 대학단위의 교육운영 개선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 면담은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자의 유형별 요구를 분석하여 입학에서 졸업에 이르기까지 학습자중심의 대학 교육 체제 구축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면담 내용

본 조사지의 면담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투입): 진학 동기 및 대학선택

□ (과정): 교육과정의 내용 및 방법

□ (산출): 학습성과 및 계속학습요구

3 면담 조사지(학생)_경력 연계형 대학코드:

※ 면담자 기본 인적사항

작성자 이름	
소 속(대학교 이름 및 학과)	
연락처(휴대폰)	
메일주소	

※ 다음은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전공계열	○ 인문계열 ○ 사회과학계열 ○ 교육계열 ○ 자연과학계열 ○ 공학계열 ○ 의약학계열 ○ 예체능계열
현재 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초과학기
연령	만 ( )세
성별	○ 남자 (○군필 ○미필) ○ 여자
입학 경로	○ 고등학교 졸업 → 현재 대학에 입학 ○ 고등학교 졸업 → 대학 입학 → 현재 대학에 입학(편입) ○ 고등학교 졸업 → 취업 → 현재 대학에 입학 ○ 고등학교 졸업 → 대학 졸업 → 취업 → 현재 대학에 재진학 ○기타( )
취업 경험	○ 있음 ①전공과의 상관성 __유 __무 ② __정규직 __비정규직 ③ 재직기간: ( )년 ( ) 개월 ○ 없음
이전 대학교육 경험	○ 있음 ①현재 전공과의 상관성 __유 __무 ② 이전대학의 유형 __2/3년제 ___4년제 ○ 없음
(현재대학)휴학 경험	○ 있음(① 횟수: 번, ② 휴학기간: ( )년 ( ) 개월) ○ 없음 ○ 휴학이유( )
국적	○ 한국 ○ 외국(국가명:)
출신 고등학교 유형	○ 일반계고 ○ 특수목적고 ○ 자율형고 ○ 특성화고 ○ 검정고시 ○ 대안학교 ○ 해외소재 고등학교
복수전공 이수여부	○ 이수함(복수전공명:) ○ 이수하지 않음

※ 본 면담지를 작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귀하의 입학경로(경력 연계형: 고등학교 졸업 → 취업 → 현재 대학에 입학)를 고려하였을 때, 대학의 진학 동기 및 진학 경로와 방법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1) 귀하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 진학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재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혹은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대학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입학관련 정보를 어느 곳으로부터 얻었습니까?	
(3) 대학에 지원(학생의 지원-대학의 입학결정-학생의 등록 결정)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습니까?	
2	귀하의 대학 및 전공 선택요인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1) 현재 귀하가 재학하고 있는 대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2) 현재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학부/전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3	다음은 대학의 교육과정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항목들에 대한 경험유무 및 유용함의 정도를 표시해주십시오. (경험이 있는 경우, 유용함에 대해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매우 유용함	유용함	보통	유용 하지 않음	매우 유용 하지 않음
(1)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영어, 수학 등 전공 공부에 필요한 기초 보충 교육)	ⓞ	ⓧ	⑤	④	③	②	①
(2) 대학의 복수전공제(이중 전공 포함)	ⓞ	ⓧ	⑤	④	③	②	①
(3) 대학의 멘토 프로그램(동료 및 선후배 간, 교수, 기타)	ⓞ	ⓧ	⑤	④	③	②	①
(4)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동료 간, 기타)	ⓞ	ⓧ	⑤	④	③	②	①
(5)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	ⓧ	⑤	④	③	②	①
(6) 교환학생 프로그램	ⓞ	ⓧ	⑤	④	③	②	①
(7) 외국어 강의 수강	ⓞ	ⓧ	⑤	④	③	②	①
(8) 대학연계 산학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	ⓞ	ⓧ	⑤	④	③	②	①
(9) 학습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	ⓞ	ⓧ	⑤	④	③	②	①
(10) 교육 및 학습 지원시설(강의실, 도서실, 컴퓨터 환경 등)	ⓞ	ⓧ	⑤	④	③	②	①
(11) 신(편)입생 프로그램(오티, 1학년세미나 등)	ⓞ	ⓧ	⑤	④	③	②	①
(12)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	ⓧ	⑤	④	③	②	①
(13)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	ⓧ	⑤	④	③	②	①
(14) 취업 및 진로 관련 상담 및 서비스	ⓞ	ⓧ	⑤	④	③	②	①

(1) 위의 항목 중 경험하지 않았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2) 가장 도움이 되었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3)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4)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내용과 관련하여 개선점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다음은 대학의 교수학습 및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항목들에 대한 경험유무 및 유용함의 정도를 표시해주십시오. (경험이 있는 경우, 유용함에 대해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매우 유용함	유용함	보통	유용 하지 않음	매우 유용 하지 않음
(1)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영어, 수학 등 전공 공부에 필요한 기초 보충 교육)	ⓞ	ⓧ	⑤	④	③	②	①
(2) 대학의 복수전공제(이중 전공 포함)	ⓞ	ⓧ	⑤	④	③	②	①
(3) 대학의 멘토 프로그램 (동료 및 선후배 간, 교수, 기타)	ⓞ	ⓧ	⑤	④	③	②	①
(4)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동료 간, 기타)	ⓞ	ⓧ	⑤	④	③	②	①
(5)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	ⓧ	⑤	④	③	②	①
(6) 교환학생 프로그램	ⓞ	ⓧ	⑤	④	③	②	①
(7) 외국어 강의 수강	ⓞ	ⓧ	⑤	④	③	②	①
(8) 대학연계 산학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	ⓞ	ⓧ	⑤	④	③	②	①
(9) 학습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	ⓞ	ⓧ	⑤	④	③	②	①
(10) 교육 및 학습 지원시설 (강의실, 도서실, 컴퓨터 환경 등)	ⓞ	ⓧ	⑤	④	③	②	①
(11) 신(편)입생 프로그램(오티, 1학년세미나 등)	ⓞ	ⓧ	⑤	④	③	②	①
(12)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	ⓧ	⑤	④	③	②	①
(13)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	ⓧ	⑤	④	③	②	①
(14) 취업 및 진로 관련 상담 및 서비스	ⓞ	ⓧ	⑤	④	③	②	①

(1) 위의 항목 중 경험 하지 않았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2) 가장 도움이 되었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3)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4)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내용과 관련하여 개선점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5	귀하의 입학경로(경력 연계형: 고등학교 졸업 → 취업 → 현재 대학에 입학)를 고려하였을 때, 학업 혹은 생활관련 적응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작성해주십시오.

(1) 학업 혹은 생활관련 적응과정과 관련하여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2)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교육, 지원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6	다음은 대학에서의 학습성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자신의 역량(competency)이 어느 정도 발전하였다고 인식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입학 당시와 현재 시점의 점수를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각각 표기해주십시오.	
#	〈입학 당시〉 1~10 점으로 표기	〈현재 시점〉 1~10 점으로 표기
1)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점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점
2)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점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점
3)	외국어 구사 능력: 점	외국어 구사 능력: 점
4)	종합적 사고력: 점	종합적 사고력: 점
5)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점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점
6)	대인관계 역량: 점	대인관계 역량: 점
7)	의사소통 역량: 점	의사소통 역량: 점
8)	자기관리 역량: 점	자기관리 역량: 점
9)	글로벌 역량:(※ 외국어 능력, 글로벌 환경에 대한 노출, 다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 등): 점	글로벌 역량:(※ 외국어 능력, 글로벌 환경에 대한 노출, 다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 등): 점
10)	진로에 대한 준비: 점	진로에 대한 준비: 점
11)	기타( ): ___점	기타( ): ___점

(1)	위의 1번 항목 중 대학교육을 통해 가장 얻기를 기대하는 성과 3가지를 순서대로 번호로 작성해주시고 이유도 함께 작성해주십시오(항목에 없다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7	최근 평생학습시대가 진행되면서 향후 잠재적 고등교육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대학을 졸업한 후 향후에 대학에 다시 진학한다면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 진학하고 싶은 대학의 유형(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무엇입니까?

(2) (예상되는)진학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학위, 비학위, 재취업 탐색 등)

(3) 배우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없을 경우 예상하여 작성)

(4) 필요한 제도적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선발 방식, 교육과정, 상담 등 학업과 생활 적응 지원, 장학금, 취업 지원, 해외 연수 등 지원)

(5) 귀하는 졸업 이후, 직장의 이동/변경 혹은 대학원 진학 등과 관련하여 진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8	다음은 대학교육의 운영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입니다. 본인의 입학 경로 혹은 대학에서의 생활 경험을 고려하였을 때, 다음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해 주세요.

(1) 대학에 대해 작성:

(2) 교수에 대해 작성:

(3) 제도나 행정 지원 등에 대해 작성:

(4) 일과 학업의 병행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체(근로기관)의 근로 조건 및 환경에 대해 작성:

면담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면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137-791)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403호
□ 담 당 : 교육정책연구본부 고등·평생교육연구실 정광희 박사, 공희정 연구원
□ 문 의 : ☏ 02-3460-0230(정광희)/02-3460-0452(공희정) Fx 02-3460-0117
■ swhite0529@kedi.re.kr(공희정)

〈제③종_학사 연계형 학생면담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면담조사지(학생)_학사 연계형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교육정책연구본부 고등·평생교육연구실)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면담조사지(학생)_학사 연계형

1 면담 목적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4년 현재'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고등교육을 둘러싼 교육환경의 변화가 기존의 고등교육과는 다른 운영 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에 대응한 미래형 고등교육 체제 구축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진학자들의 진학 목적과 유형이 크게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각각의 교육 수요에 맞는 대학단위의 교육운영 개선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 면담은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자의 유형별 요구를 분석하여 입학에서 졸업에 이르기까지 학습자중심의 대학 교육 체제 구축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면담 내용

본 조사지의 면담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투입): 진학 동기 및 대학선택

□ (과정): 교육과정의 내용 및 방법

□ (산출): 학습성과 및 계속학습요구

3 면담 조사지(학생)_학사 연계형 대학코드:

※ 면담자 기본 인적사항

작성자 이름	
소 속(대학교 이름 및 학과)	
연락처(휴대폰)	
메일주소	

※ 다음은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전공계열	○ 인문계열 ○ 사회과학계열 ○ 교육계열 ○ 자연과학계열 ○ 공학계열 ○ 의약학계열 ○ 예체능계열
현재 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초과학기
연령	만 ( )세
성별	○ 남자 (○군필 ○미필) ○ 여자
입학 경로	○ 고등학교 졸업 → 현재 대학에 입학 ○ 고등학교 졸업 → 대학 입학 → 현재 대학에 입학(편입) ○ 고등학교 졸업 → 취업 → 현재 대학에 입학 ○ 고등학교 졸업 → 대학 졸업 → 취업 → 현재 대학에 재진학 ○ 기타( )
취업 경험	○ 있음 ①전공과의 상관성 __유 __무 ② __정규직 __비정규직 ③ 재직기간: ( )년 ( ) 개월 ○ 없음
이전 대학교육 경험	○ 있음 ①현재 전공과의 상관성 __유 __무 ② 이전대학의 유형 __2/3년제 ___4년제 ○ 없음
(현재대학)휴학 경험	○ 있음(① 횟수: 번, ② 휴학기간: ( )년 ( ) 개월) ○ 없음 ○ 휴학이유( )
국적	○ 한국 ○ 외국(국가명:)
출신 고등학교 유형	○ 일반계고 ○ 특수목적고 ○ 자율형고 ○ 특성화고 ○ 검정고시 ○ 대안학교 ○ 해외소재 고등학교
복수전공 이수여부	○ 이수함(복수전공명:) ○ 이수하지 않음

※ 본 면담지를 작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귀하의 입학경로(학사 연계형: 2/3년제 대학 졸업 → 현재 대학에 입학: 연계편입)를 고려하였을 때, 대학의 진학 동기 및 진학 경로와 방법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1) 귀하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 진학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재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혹은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대학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입학관련 정보를 어느 곳으로부터 얻었습니까?

(3) 대학에 지원(학생의 지원-대학의 입학결정-학생의 등록 결정)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습니까?

2	귀하의 대학 및 전공 선택요인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1) 현재 귀하가 재학하고 있는 대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2) 현재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학부/전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3	다음은 대학의 교육과정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항목들에 대한 경험유무 및 유용함의 정도를 표시해주십시오. (경험이 있는 경우, 유용함에 대해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경험있음	경험없음	매우 유용함	유용함	보통	유용하지 않음	매우 유용하지 않음
(1)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영어, 수학 등 전공 공부에 필요한 기초 보충 교육)	ⓞ	ⓧ	⑤	④	③	②	①
(2) 대학의 복수전공제(이중 전공 포함)	ⓞ	ⓧ	⑤	④	③	②	①
(3) 대학의 멘토 프로그램(동료 및 선후배 간, 교수, 기타)	ⓞ	ⓧ	⑤	④	③	②	①
(4)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동료 간, 기타)	ⓞ	ⓧ	⑤	④	③	②	①
(5)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	ⓧ	⑤	④	③	②	①
(6) 교환학생 프로그램	ⓞ	ⓧ	⑤	④	③	②	①
(7) 외국어 강의 수강	ⓞ	ⓧ	⑤	④	③	②	①
(8) 대학연계 산학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	ⓞ	ⓧ	⑤	④	③	②	①
(9) 학습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	ⓞ	ⓧ	⑤	④	③	②	①
(10) 교육 및 학습 지원시설(강의실, 도서실, 컴퓨터 환경 등)	ⓞ	ⓧ	⑤	④	③	②	①
(11) 신(편)입생 프로그램(오티, 1학년세미나 등)	ⓞ	ⓧ	⑤	④	③	②	①
(12)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	ⓧ	⑤	④	③	②	①
(13)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	ⓧ	⑤	④	③	②	①
(14) 취업 및 진로 관련 상담 및 서비스	ⓞ	ⓧ	⑤	④	③	②	①

(1) 위의 항목 중 경험하지 않았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2) 가장 도움이 되었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3)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4)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내용과 관련하여 개선점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다음은 대학의 교수학습 및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항목들에 대한 경험유무 및 유용함의 정도를 표시해주십시오. (경험이 있는 경우, 유용함에 대해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매우 유용함	유용함	보통	유용 하지 않음	매우 유용 하지 않음
(1) 대학 온라인 강의(사이버강의)	ⓞ	ⓧ	⑤	④	③	②	①
(2)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 준비	ⓞ	ⓧ	⑤	④	③	②	①
(3)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관련 자료 공유	ⓞ	ⓧ	⑤	④	③	②	①
(4)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 상호작용 중심 수업(실시간 토론, 질의응답 등)	ⓞ	ⓧ	⑤	④	③	②	①
(5) 수업내용과 관련한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	ⓧ	⑤	④	③	②	①
(6) 수업내용과 관련한 동료학생의 피드백	ⓞ	ⓧ	⑤	④	③	②	①
(7) 수업에서의 질문이나 토론활동	ⓞ	ⓧ	⑤	④	③	②	①
(8) 수업과 관련하여 그룹 프로젝트 진행	ⓞ	ⓧ	⑤	④	③	②	①
(9) 수업과 관련한 외부 콘텐츠 활용과 공유	ⓞ	ⓧ	⑤	④	③	②	①
(10)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ex. 동영상, 피피티 등)	ⓞ	ⓧ	⑤	④	③	②	①
(11) 강의중심 수업	ⓞ	ⓧ	⑤	④	③	②	①
(12) 프로젝트중심 수업	ⓞ	ⓧ	⑤	④	③	②	①

(1) 위의 항목 중 경험 하지 않았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2) 가장 도움이 되었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3)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4) 학습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5) 대학의 교수학습 및 방법과 관련하여 개선점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5	귀하의 입학경로(학사 연계형: 2/3년제 대학 졸업 → 현재 대학에 입학: 연계편입)를 고려하였을 때, 학업 혹은 생활관련 적응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작성해주십시오.

(1) 학업 혹은 생활관련 적응과정과 관련하여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2)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교육, 지원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6	다음은 대학에서의 학습성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자신의 역량(competency)이 어느 정도 발전하였다고 인식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입학 당시와 현재 시점의 점수를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각각 표기해주십시오.	
#	〈입학 당시〉 1~10 점으로 표기	〈현재 시점〉 1~10 점으로 표기
1)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점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점
2)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점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점
3)	외국어 구사 능력: 점	외국어 구사 능력: 점
4)	종합적 사고력: 점	종합적 사고력: 점
5)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점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점
6)	대인관계 역량: 점	대인관계 역량: 점
7)	의사소통 역량: 점	의사소통 역량: 점
8)	자기관리 역량: 점	자기관리 역량: 점
9)	글로벌 역량:(※ 외국어 능력, 글로벌 환경에 대한 노출, 다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 등): 점	글로벌 역량:(※ 외국어 능력, 글로벌 환경에 대한 노출, 다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 등): 점
10)	진로에 대한 준비: 점	진로에 대한 준비: 점
11)	기타( ): ___점	기타( ): ___점

(1)	위의 1번 항목 중 대학교육을 통해 가장 얻기를 기대하는 성과 3가지를 순서대로 번호로 작성해주시고 이유도 함께 작성해주십시오(항목에 없다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7	최근 평생학습시대가 진행되면서 향후 잠재적 고등교육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대학을 졸업한 후 향후에 대학에 다시 진학한다면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 진학하고 싶은 대학의 유형(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무엇입니까?

(2) (예상되는)진학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학위, 비학위, 재취업 탐색 등)

(3) 배우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없을 경우 예상하여 작성)

(4) 필요한 제도적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선발 방식, 교육과정, 상담 등 학업과 생활 적응 지원, 장학금, 취업 지원, 해외 연수 등 지원)

(5) 귀하는 졸업 이후, 직장의 이동/변경 혹은 대학원 진학 등과 관련하여 진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8	다음은 대학교육의 운영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입니다. 본인의 입학 경로(학사 연계형: 2/3년제 대학 졸업 → 현재 대학에 입학: 연계편입) 혹은 대학에서의 생활 경험을 고려하였을 때, 다음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해 주세요.

(1) 대학에 대해 작성:

(2) 교수에 대해 작성:

(3) 제도나 행정 지원 등에 대해 작성:

(4) 연계(편입) 교육과정에 대해 작성:

면담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면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137-791)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403호

□ 담 당 : 교육정책연구본부 고등·평생교육연구실 정광희 박사, 공희정 연구원

□ 문 의 : ☏ 02-3460-0230(정광희)/02-3460-0452(공희정) Fx 02-3460-0117

■ swhite0529@kedi.re.kr(공희정)

〈제④종_국가 연계형 학생면담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면담조사지(학생)_국가 연계형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교육정책연구본부 고등·평생교육연구실)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면담조사지(학생)_국가 연계형

1 면담 목적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4년 현재'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고등교육을 둘러싼 교육환경의 변화가 기존의 고등교육과는 다른 운영 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에 대응한 미래형 고등교육 체제 구축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진학자들의 진학 목적과 유형이 크게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각각의 교육 수요에 맞는 대학단위의 교육운영 개선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 면담은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자의 유형별 요구를 분석하여 입학에서 졸업에 이르기까지 학습자중심의 대학 교육 체제 구축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면담 내용

본 조사지의 면담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투입): 진학 동기 및 대학선택

□ (과정): 교육과정의 내용 및 방법

□ (산출): 학습성과 및 계속학습요구

3 면담 조사지(학생)_국가 연계형 대학코드:

※ 면담자 기본 인적사항

작성자 이름	
소 속(대학교 이름 및 학과)	
연락처(휴대폰)	
메일주소	

※ 다음은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전공계열	○ 인문계열 ○ 사회과학계열 ○ 교육계열 ○ 자연과학계열 ○ 공학계열 ○ 의약학계열 ○ 예체능계열
현재 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초과학기
연령	만 ( )세
성별	○ 남자 (○군필 ○미필) ○ 여자
입학 경로	○ 고등학교 졸업 → 현재 대학에 입학 ○ 고등학교 졸업 → 대학 입학 → 현재 대학에 입학(편입) ○ 고등학교 졸업 → 취업 → 현재 대학에 입학 ○ 고등학교 졸업 → 대학 졸업 → 취업 → 현재 대학에 재진학 ○ 기타( )
취업 경험	○ 있음 ①전공과의 상관성 __유 __무 ② __정규직 __비정규직 ③ 재직기간: ( )년 ( ) 개월 ○ 없음
이전 대학교육 경험	○ 있음 ①현재 전공과의 상관성 __유 __무 ② 이전대학의 유형 __2/3년제 ___4년제 ○ 없음
(현재대학)휴학 경험	○ 있음(① 횟수: 번, ② 휴학기간: ( )년 ( ) 개월) ○ 없음 ○ 휴학이유( )
국적	○ 한국 ○ 외국(국가명:)
출신 고등학교 유형	○ 일반계고 ○ 특수목적고 ○ 자율형고 ○ 특성화고 ○ 검정고시 ○ 대안학교 ○ 해외소재 고등학교
복수전공 이수여부	○ 이수함(복수전공명:) ○ 이수하지 않음

※ 본 면담지를 작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귀하의 입학 동기 및 입학 경로와 방법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1) 귀하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 진학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재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혹은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대학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입학관련 정보를 어느 곳으로부터 얻었습니까?

(3) 대학에 지원(학생의 지원-대학의 입학결정-학생의 등록 결정)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습니까?

2	귀하의 대학 및 전공 선택요인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1) 현재 귀하가 재학하고 있는 대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2) 현재 귀하의 학부/전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3	다음은 대학의 교육과정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항목들에 대한 경험유무 및 유용함의 정도를 표시해주십시오. (경험이 있는 경우, 유용함에 대해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경험있음	경험없음	매우 유용함	유용함	보통	유용하지 않음	매우 유용하지 않음
(1)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영어, 수학 등 전공 공부에 필요한 기초 보충 교육)	ⓞ	ⓧ	⑤	④	③	②	①
(2) 대학의 복수전공제(이중 전공 포함)	ⓞ	ⓧ	⑤	④	③	②	①
(3) 대학의 멘토(mentor) 프로그램(동료 및 선후배 간, 교수, 기타)	ⓞ	ⓧ	⑤	④	③	②	①
(4)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동료 간, 기타)	ⓞ	ⓧ	⑤	④	③	②	①
(5)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dual degree)	ⓞ	ⓧ	⑤	④	③	②	①
(6) 교환학생 프로그램(exchange program)	ⓞ	ⓧ	⑤	④	③	②	①
(7) 외국어 강의 수강(본인의 모국어 제외)	ⓞ	ⓧ	⑤	④	③	②	①
(8) 한국어 강의 수강	ⓞ	ⓧ	⑤	④	③	②	①
(9) 대학연계 산학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	ⓞ	ⓧ	⑤	④	③	②	①
(10) 학습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	ⓞ	ⓧ	⑤	④	③	②	①
(11) 교육 및 학습 지원시설(강의실, 도서실, 컴퓨터 환경 등)	ⓞ	ⓧ	⑤	④	③	②	①
(12) 신입생 프로그램(오티, 1학년세미나 등)	ⓞ	ⓧ	⑤	④	③	②	①
(13)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	ⓧ	⑤	④	③	②	①
(14)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	ⓧ	⑤	④	③	②	①
(15) 취업 및 진로 관련 상담 및 서비스	ⓞ	ⓧ	⑤	④	③	②	①

(1) 위의 항목 중 경험하지 않았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2) 가장 도움이 되었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3)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4)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내용과 관련하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다음은 대학의 교수학습 및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항목들에 대한 경험유무 및 유용함의 정도를 표시해주십시오. (경험이 있는 경우, 유용함에 대해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매우 유용함	유용함	보통	유용 하지 않음	매우 유용 하지 않음
(1) 대학 온라인 강의(사이버(cyber)강의)	ⓞ	ⓧ	⑤	④	③	②	①
(2)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 준비	ⓞ	ⓧ	⑤	④	③	②	①
(3)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관련 자료 공유	ⓞ	ⓧ	⑤	④	③	②	①
(4)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상호작용 중심의 쌍방향 수업(MOODLE)	ⓞ	ⓧ	⑤	④	③	②	①
(5) 수업내용과 관련한 교수로부터의 피드백(feedback)	ⓞ	ⓧ	⑤	④	③	②	①
(6) 수업내용과 관련한 동료학생의 피드백(feedback)	ⓞ	ⓧ	⑤	④	③	②	①
(7) 수업에서의 질문이나 토론활동	ⓞ	ⓧ	⑤	④	③	②	①
(8) 수업과 관련하여 그룹 프로젝트(group project) 진행	ⓞ	ⓧ	⑤	④	③	②	①
(9) 수업과 관련한 외부 콘텐츠 활용과 공유	ⓞ	ⓧ	⑤	④	③	②	①
(10)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ex. 동영상, 피피티 등)	ⓞ	ⓧ	⑤	④	③	②	①
(11) 강의형(faculty-oriented) 수업	ⓞ	ⓧ	⑤	④	③	②	①
(12) 프로젝트형(project) 수업	ⓞ	ⓧ	⑤	④	③	②	①

(1) 위의 항목 중 <u>경험 하지 않았던 항목</u>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2) <u>가장 도움이 되었던 항목</u>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3)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던 항목은 무엇입니까?

번호:

이유:

(4) 학습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5) 대학의 교수학습 및 방법과 관련하여 바뀌어야 하는 부분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5	학업 혹은 생활관련 적응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service)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작성해주십시오.

(1) 학업 혹은 생활관련 적응과정과 관련하여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외국인학생의 입장에서, 현재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교육, 지원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6	다음은 대학에서의 학습성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자신의 역량(competency)이 어느 정도 발전하였다고 인식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입학 당시와 현재 시점의 점수를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각각 표기해주십시오.	
#	〈입학 당시〉 1~10 점으로 표기	〈현재 시점〉 1~10 점으로 표기
1)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점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점
2)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점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점
3)	외국어 구사 능력: 점	외국어 구사 능력: 점
4)	종합적 사고력: 점	종합적 사고력: 점
5)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점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점
6)	대인관계 역량: 점	대인관계 역량: 점
7)	의사소통 역량: 점	의사소통 역량: 점
8)	자기관리 역량: 점	자기관리 역량: 점
9)	글로벌 역량:(※ 외국어 능력, 글로벌 환경에 대한 노출, 다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 등): 점	글로벌 역량:(※ 외국어 능력, 글로벌 환경에 대한 노출, 다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 등): 점
10)	진로에 대한 준비: 점	진로에 대한 준비: 점
11)	한국에 대한 이해(문화, 역사, 사회 등): 점	한국에 대한 이해(문화, 역사, 사회 등): 점
11)	기타( ): ___점	기타( ): ___점

(1)	위의 1번 항목 중 대학교육을 통해 가장 얻기를 기대하는 성과 3가지를 순서대로 번호로 작성해주시고 이유도 함께 작성해주십시오(항목에 없다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7	최근 평생학습시대가 진행되면서 향후 잠재적 고등교육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대학을 졸업한 후 향후에 대학에 다시 진학한다면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 진학하고 싶은 대학의 유형(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무엇입니까?

(2) (예상되는)진학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학위, 비학위, 재취업 탐색 등)

(3) 배우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없을 경우 예상하여 작성)

(4) 필요한 제도적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선발 방식, 교육과정, 상담 등 학업과 생활 적응 지원, 장학금, 취업 지원, 해외 연수 등 지원)

8	다음은 대학교육의 운영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입니다. 본인의 입학 경로(외국인 전형) 혹은 대학에서의 생활 경험을 고려하였을 때, 다음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해 주세요.

(1) 대학에 대해 작성:

(2) 교수에 대해 작성:

(3) 제도나 행정 지원 등에 대해 작성:

※ 이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어려웠던 점 혹은 느꼈던 점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면담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면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137-791)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403호
□ 담 당 : 교육정책연구본부 고등·평생교육연구실 정광희 박사, 공희정 연구원
□ 문 의 : ☏ 02-3460-0230(정광희)/02-3460-0452(공희정) Fx 02-3460-0117
■ swhite0529@kedi.re.kr(공희정)

[부록 2] 대학 관계자 및 학습자 요구분석 표(Ⅲ장 관련)

〈부록 표 1〉 A대학교 단과대학별 신입생의 입학성적 편차 현황(2010~2014)

연도	창의 융합	재활복지 교육	글로벌경영	군사 경찰	의료 공과	과학기술 융합	의과	의과학
2010	–	52.82	27.43	14.16	24.44	24.85	18.13	16.84
2011	–	30.95	21.23	25.38	21.26	18.93	18.41	19.41
2012	–	38.86	26.74	32.07	25.67	21.66	17.28	23.60
2013	21.63	37.45	29.57	19.70	24.35	26.84	33.43	21.38
2014	24.95	36.54	36.58	27.79	21.99	33.85	22.16	24.61

〈부록 표 2〉 A대학교 졸업자의 평균 재학기간(2010~2014)

연도	평균재학기간별(입학-졸업까지) 졸업자 수								비율			
	조기 졸업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4년	5년	6년	6년 이하
2010	9	774	155	272	220	98	23	2	49.8	10.0	17.5	77.3
2011	6	838	189	271	263	104	25	7	49.2	11.1	15.9	76.2
2012	2	856	165	324	223	121	21	18	49.5	9.5	18.7	77.7
2013	2	809	218	309	206	75	35	9	48.6	13.1	18.6	80.3
2014	–	819	211	331	217	75	24	16	48.4	12.5	19.6	80.4
총계	19	4096	938	1507	1129	473	128	52	49.1	11.2	18.1	78.4

* 편입생 제외

〈부록 표 3〉 A대학교 학업부적응 관련 프로그램 및 참여자 현황(2010~2014)

연도	재적 학생 수	학업부적응 지원프로그램					대학생활부적응		
		프로그램 수	학사경고자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	학사 경고자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합계	참여자 비율	프로그램 수	대학생활 적응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비율
2010	8,195	–	–	–	–	–	–	–	–
2011	7,929	–	–	–	–	–	–	–	–
2012	7,903	2	282	21	303	3.8	1	1,420	18.0
2013	8,016	2	261	56	317	4.0	1	1,737	21.7
2014	8,166	2	150	40	190	2.3	1	(9월중 예정)	–

〈부록 표 4〉 A대학교 학업부적응학생 현황(2010~2014)

연도	전체 재적 학생 수	학사경고학생수 (학사경고률)		중도이탈자 학생 수 (탈락률)	
		학사경고자수	학사경고 학생비율	중도탈락 학생 수	중도탈락률
2010	8,195	766	9.3	590	7.2
2011	7,929	695	8.8	512	6.5
2012	7,903	535	6.8	469	5.9
2013	8,016	436	5.4	551	6.9
2014	8,166	277	3.4	170	2.1
총계	40,209	2,709	6.7	2,292	5.7

〈부록 표 5〉 A대학교 신입생의 고등학교 졸업연도별 현황(2010~2014)

연도	계	비율 (%)	당해 연도 졸업생 (명)	비율 (%)	재수생 (명)	비율 (%)	삼수 이상 (명)	비율 (%)
2010	2,089	100.0	1,797	86.0	190	9.1	102	4.9
2011	2,064	100.0	1,727	83.7	240	11.6	97	4.7
2012	1,999	100.0	1,672	83.6	237	11.9	90	4.5
2013	1,954	100.0	1,876	96.0	45	2.3	33	1.7
2014	1,945	100.0	1,532	78.8	378	19.4	35	1.8
총계	10,051	100.0	8,604	85.6	1,090	10.8	357	3.6

〈부록 표 6〉 A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교육과정)[128]

항목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1)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영어, 수학 등 전공 공부에 필요한 기초 보충 교육)	18	3.50	0	3
(2) 대학의 복수전공제 (이중 전공 포함)	3	4.20	0	0
(3) 대학의 멘토 프로그램(동료 및 선후배 간, 교수, 기타)	22	4.14	5	2
(4)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동료 간, 기타)	12	4.00	0	2
(5)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2	3.67	1	0
(6) 교환학생 프로그램	2	4.75	0	2
(7) 외국어 강의 수강	19	3.95	2	2
(8) 대학연계 산학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	8	4.33	2	0
(9) 학습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	14	4.07	1	0
(10) 교육 및 학습 지원시설(강의실, 도서실, 컴퓨터 환경 등)	25	4.46	6	1
(11) 신(편)입생 프로그램(오티, 1학년 세미나 등)	23	3.86	2	3
(12)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25	4.74	8	0
(13)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12	4.42	1	1
(14) 취업 및 진로관련 상담 및 서비스	17	4.25	2	1

128) 부록 2의 모든 분석 결과표는 해당 문항의 응답자만을 포함하는 결과임.

〈부록 표 7〉 A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교수학습)

항목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1) 대학 온라인 강의(사이버강의)	17	3.53	2	5
(2)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 준비	16	3.73	0	2
(3)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관련 자료 공유	22	4.26	6	2
(4)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 상호작용 중심의 쌍방향 수업 (MOODLE)	5	3.83	0	1
(5) 수업내용과 관련한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21	4.29	4	0
(6) 수업내용과 관련한 동료학생의 피드백	19	4.28	6	1
(7) 수업에서의 질문이나 토론활동	22	4.22	1	2
(8) 수업과 관련하여 그룹 프로젝트 진행	23	4.10	4	2
(9) 수업과 관련한 외부 콘텐츠 활용과 공유	20	4.50	2	0
(10)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ex. 동영상, 피피티 등)	24	4.61	5	0
(11) 강의중심 수업	23	3.91	2	5
(12) 프로젝트중심 수업	22	4.14	6	2

〈부록 표 8〉 A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성과-역량변화)

항목	기대역량 (명)	입학전 역량 (평균)	현재 역량 (평균)	역량변화정도(평균)
(1)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3	4.24	6.24	2.00
(2)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14	3.92	7.40	3.48
(3) 외국어 구사 능력	9	3.56	5.00	1.44
(4) 종합적 사고력	5	4.96	6.82	1.98
(5)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3	4.32	6.60	2.42
(6) 대인관계 역량	12	5.84	8.20	2.36
(7) 의사소통 역량	6	5.72	8.00	2.28
(8) 자기관리 역량	5	5.28	7.24	2.08
(9) 글로벌 역량:(※ 외국어 능력, 글로벌 환경에 대한 노출, 다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 등)	4	4.04	5.92	1.87
(10) 진로에 대한 준비	5	4.16	7.29	3.17

〈부록 표 9〉 B대학교 학업부적응학생 현황(2010~2014)

연도	전체 재적 학생 수	학사경고학생수 (학사경고률)		중도이탈자 학생 수 (탈락률)	
		학사경고자수	학사경고 학생비율	중도탈락학생수	중도탈락률
2010	17,964	439	2.44%	234	1.30%
2011	17,909	395	2.21%	349	1.95%
2012	17,917	407	2.27%	339	1.89%
2013	18,145	502	2.77%	324	1.79%
2014	18,445	266	1.44%	356	1.93%
총계	90,380	2,009	2.22%	1,602	1.77%

〈부록 표 10〉 B대학교 학업부적응 관련 프로그램 및 참여자 현황(2010~2014)

연도	재적 학생 수	학업부적응 지원 프로그램 및 참여자수						
		프로그램 수	학기전학업 지원워크숍	학기 중 관리 프로그램	학습능력향 상세미나	학습개별심화 컨설팅	참여자 합계	참여자 비율
2010	17,964	4	100	117	90	18	325	1.8
2011	17,909	4	105	263	98	19	485	2.7
2012	17,917	4	94	255	74	44	467	2.6
2013	18,145	4	109	341	89	57	596	3.3
2014	18,445	4	98	120	92	69	379	2.1

〈부록 표 11〉 B대학교 졸업자의 평균 재학기간(2010~2014)

연도	평균재학기간별(입학-졸업까지) 졸업자 수								비율			
	조기 졸업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4년	5년	6년	6년 이하
2010	98	1,808	1,353	150	15	2	0	0	52.8	39.5	4.4	96.6
2011	89	1,668	1,376	126	16	3	2	0	50.9	42.0	3.8	96.6
2012	85	1,510	1,504	161	14	5	1	0	46.0	45.9	4.9	96.8
2013	80	1,280	1,525	236	24	8	0	0	40.6	48.4	7.5	96.4
2014	82	1,256	1,524	310	27	9	0	0	39.2	47.5	9.7	96.3
총 계	434	7,522	7,282	983	96	27	3	0	46.0	44.5	6.0	96.6

* 편입생 제외

〈부록 표 12〉 B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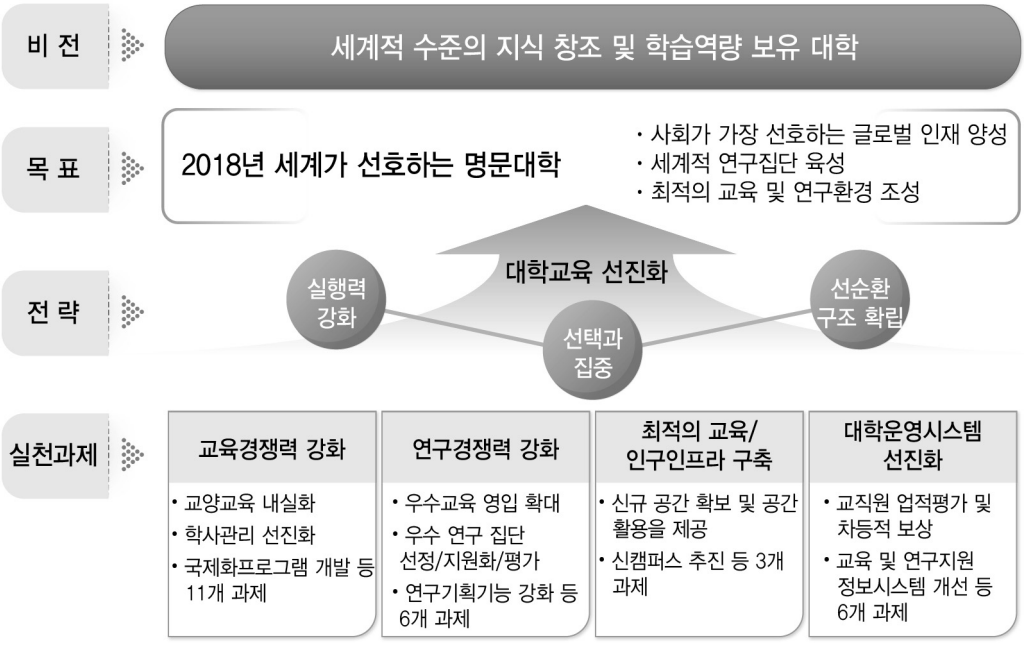
항목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1)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영어, 수학 등 전공 공부에 필요한 기초 보충 교육)	8	3.60	0	1
(2) 대학의 복수전공제(이중 전공 포함)	10	4.00	3	0
(3) 대학의 멘토 프로그램(동료 및 선후배 간, 교수, 기타)	11	3.33	1	3
(4)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동료 간, 기타)	9	3.89	1	1
(5)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0	–	0	0
(6) 교환학생 프로그램	4	4.43	3	0
(7) 외국어 강의 수강	22	3.75	2	7
(8) 대학연계 산학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	5	3.50	1	1
(9) 학습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	7	3.67	0	0
(10) 교육 및 학습 지원시설(강의실, 도서실, 컴퓨터 환경 등)	23	4.56	4	1
(11) 신(편)입생 프로그램(오티, 1학년세미나 등)	23	3.64	5	4
(12)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20	3.86	3	3
(13)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15	3.88	2	2
(14) 취업 및 진로관련 상담 및 서비스	12	3.40	1	4

〈부록 표 13〉 B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교수학습)

항목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1) 대학 온라인 강의(사이버강의)	3	3.33	0	2
(2)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 준비	21	3.95	2	1
(3)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 관련 자료 공유	24	4.13	7	3
(4)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 상호작용 중심의 쌍방향 수업(MOODLE)	15	3.46	1	2
(5) 수업내용과 관련한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22	4.24	6	1
(6) 수업내용과 관련한 동료학생의 피드백	21	4.20	1	1
(7) 수업에서의 질문이나 토론활동	24	4.09	2	0
(8) 수업과 관련하여 그룹 프로젝트 진행	24	3.09	4	8
(9) 수업과 관련한 외부 콘텐츠 활용과 공유	21	3.72	0	0
(10)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ex. 동영상, 피피티 등)	24	4.17	1	1
(11) 강의중심 수업	24	3.78	1	2
(12) 프로젝트중심 수업	21	3.05	2	8

〈부록 표 14〉 B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성과-역량변화)

항목	기대역량 (명)	입학전 역량 (평균)	현재 역량 (평균)	역량변화정도(평균)
(1)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13	3.71	6.13	2.42
(2)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18	3.08	6.17	3.26
(3) 외국어 구사 능력	4	5.25	6.38	1.13
(4) 종합적 사고력	6	4.92	7.21	2.43
(5)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3	4.63	6.71	2.09
(6) 대인관계 역량	6	5.75	7.00	1.35
(7) 의사소통 역량	1	6.33	7.21	0.88
(8) 자기관리 역량	4	6.04	7.17	1.22
(9) 글로벌 역량	8	4.33	7.21	2.88
(10) 진로에 대한 준비	9	3.75	6.67	2.92



[부록 그림 1] C대학교 2018+ 발전계획

〈부록 표 15〉 C대학교 지식경영학부 학년도별 모집정원 현황(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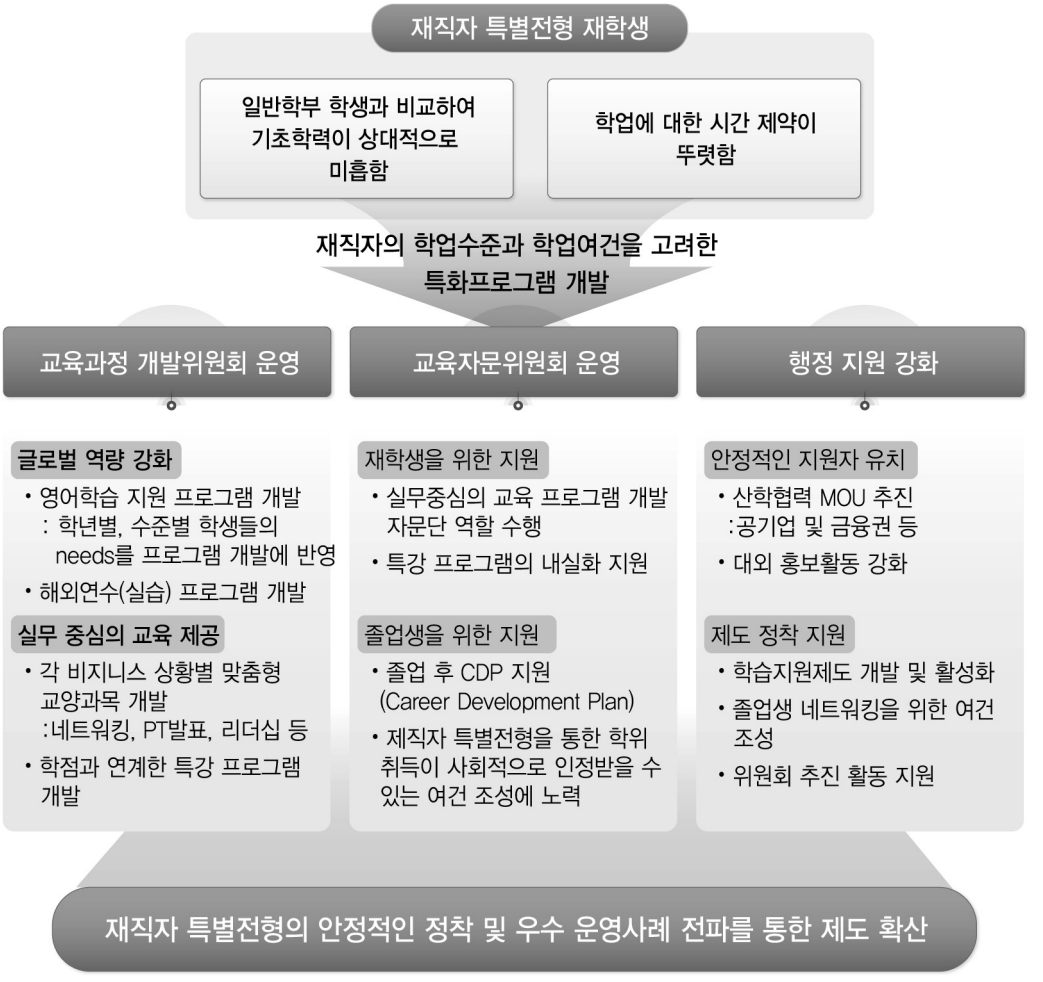
연도	재직자특별전형 모집단위	모집 정원			비고
		정원내	정원외	계	
2010	글로벌지식학부(서울/안성)	13	132	145	
2011	지식경영학부(서울/안성)	13	132	145	학과명 변경
2012	지식경영학부	3	146	149	모집단위 통합
2013	지식경영학부	3	184	187	
2014	지식경영학부	1	184	185	
2015	지식경영학부	1	254	255	예정

〈부록 표 16〉 D대학교 재직자전형 모집전형(2010~2014)

연도	모집단위	모집 인원	지원자수	등록 인원	재학생 인원
2012	전자정보대학 컴퓨터공학과(야간)	61	15	12	11
2013	전자정보대학 컴퓨터공학과(야간)	61	11	6	6
	농업생명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60	15	8	8
2014	전자정보대학 컴퓨터공학과(야간)	60	20	12	12
	농업생명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60	21	16	16

〈부록 표 17〉 C대학교 재직자전형 모집전형(2010~2014)

연도	계열	모집단위	모집 인원	지원자 수	등록 인원	재학생 인원	전형방법
'10	상업	글로벌지식학부	145	258	136	9	서류평가 100%
'11①	상업	지식경영학부	145	279	142	114	서류 및 면접 종합평가 100%
'12②	상업	지식경영학부	139	249	133	109	우선선발: 서류평가 100% 일반선발: 서류 및 면접 종합평가 100%
'13	상업	지식경영학부	187	260	182	165	서류 및 면접 종합평가 100%
'14	상업	지식경영학부	185	289	175	170	우선선발: 서류평가 100% 일반선발: 서류 및 면접 종합평가 100%
합계			801	1,335	768	567	



[부록 그림 2] 재직자의 학업수준 및 학업여건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C 대학교 사례

〈부록 표 18〉 C대학교 및 D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교육과정)

항목	C대학				D대학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1)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영어, 수학 등 전공 공부에 필요한 기초 보충 교육)	9	3.56	2	2	16	4.13	4	0
(2) 대학의 복수전공제(이중 전공 포함)	0	–	0	0	1	–	0	2
(3) 대학의 멘토 프로그램(동료 및 선후배 간, 교수, 기타)	5	4.40	1	0	8	4.75	4	1
(4)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동료 간, 기타)	3	4.00	0	0	3	4.67	0	1
(5)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0	–	0	1	0	–	0	1
(6) 교환학생 프로그램	0	–	0	2	0	–	0	1
(7) 외국어 강의 수강	14	3.79	6	2	12	4.25	2	1
(8) 대학연계 산학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	1	4.00	0	0	1	0	0	1
(9) 학습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	5	4.40	3	1	12	4.50	1	2
(10) 교육 및 학습 지원시설(강의실, 도서실, 컴퓨터 환경 등)	23	4.35	6	4	20	3.95	2	4
(11) 신(편)입생 프로그램(오티, 1학년세미나 등)	23	4.04	4	3	13	4.08	1	2
(12)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18	4.61	6	2	21	4.76	10	0
(13)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4	2.75	0	0	4	4.75	3	1
(14) 취업 및 진로 관련 상담 서비스	1	5.00	0	3	5	4.40	4	4

〈부록 표 19〉 C대학교 및 D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교수학습)

항목	C대학				D대학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1) 대학 온라인 강의(사이버강의)	18	3.11	2	7	20	3.95	4	1
(2)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 준비	20	2.45	3	3	19	3.79	1	0
(3)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관련 자료 공유	22	3.95	3	0	21	3.95	1	1
(4)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 상호작용 중심의 쌍방향 수업 (MOODLE)	4	3.75	0	1	7	4.14	0	3
(5) 수업내용과 관련한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21	3.95	4	0	17	4.35	1	0
(6) 수업내용과 관련한 동료학생의 피드백	19	3.95	3	0	19	4.26	0	1
(7) 수업에서의 질문이나 토론활동	23	3.61	3	2	21	4.43	7	0
(8) 수업과 관련하여 그룹 프로젝트 진행	23	3.04	3	7	14	4.29	1	1
(9) 수업과 관련한 외부 콘텐츠 활용과 공유	17	3.70	2	0	18	4.06	1	1
(10)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ex. 동영상, 피피티 등)	24	3.67	7	0	23	4.04	3	1
(11) 강의중심 수업	24	3.63	1	0	23	3.91	4	3
(12) 프로젝트중심 수업	18	3.56	3	1	16	4.25	1	1

〈부록 표 20〉 C대학교 및 D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성과-역량변화)

항목	C대학				D대학			
	기대 역량 (명)	입학전 역량 (평균)	현재 역량 (평균)	역량 변화 정도 (평균)	기대 역량 (명)	입학전 역량 (평균)	현재 역량 (평균)	역량 변화 정도 (평균)
(1)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11	4.36	6.80	2.44	5	4.40	7.20	2.80
(2)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14	4.20	6.80	2.60	19	3.36	6.12	2.76
(3) 외국어 구사 능력	9	3.28	4.68	1.40	4	3.00	4.40	1.40
(4) 종합적 사고력	9	5.64	7.68	2.04	4	5.24	7.00	1.76
(5)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3	5.32	7.24	1.92	5	4.76	6.44	1.68
(6) 대인관계 역량	5	6.80	7.84	1.04	9	6.16	7.44	1.28
(7) 의사소통 역량	4	6.68	7.72	1.04	2	6.32	7.56	1.24
(8) 자기관리 역량	6	6.32	8.08	1.76	3	5.48	7.16	1.68
(9) 글로벌 역량:(※ 외국어 능력, 글로벌 환경에 대한 노출, 다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 등)	4	5.16	6.76	1.60	5	4.64	6.32	1.68
(10) 진로에 대한 준비	7.00	5.16	7.00	1.84	3	4.52	5.96	1.44

〈부록 표 21〉 E대학교 입학연도별 편입생 유형별 분포(2010~2014)

연도	유형별			
	일반편입	연계편입	학사편입	총 편입생수
2010	453	124	46	623
2011	461	120	45	626
2012	392	126	32	550
2013	366	106	20	492
2014	347	119	20	486
총계	2,019	595	163	2,777

〈부록 표 22〉 E대학교 최근 5년간 졸업생 대비 연계편입 현황(2010~2014)

편입학 연도	졸업생수(A)	연계편입인원(B)	연계편입율 (B/A*100)
2014	2,163	111	5.13
2013	2,155	100	4.64
2012	2,177	111	5.10
2011	2,028	110	5.42
2010	1,931	108	5.59
총계	10,454	540	5.17

[작성기준] 1. 졸업생수 : 정보공시기준으로 작성(2014학년도: 2013년 8월 졸업생 +2014년 2월 졸업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생 제외
2. 연계편입인원 : 학년도별 4년제 대학교 연계편입 인원

〈부록 표 23〉 E대학교 연도별 연계편입 지원인원 대비 합격인원(2004~2014)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지원자수	127	98	81	106	178	165	149	117	117	131	150
배정인원	114	114	107	123	133	124	121	136	129	126	129
합격자수	107	88	72	88	125	121	108	110	111	100	111

[작성기준] 1. 지원자수 : 연계편입을 위한 우리대학교 편입신청인원
2. 배정인원 : 4년제 대학에서 우리대학으로 배정한 연계편입 가능 인원
3. 합격자수 : 4년제 대학에 연계편입으로 우리대학교 학생이 최종 등록된 인원

〈부록 표 24〉 E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교육과정)

항목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1)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영어, 수학 등 전공 공부에 필요한 기초 보충 교육)	10	3.92	1	0
(2) 대학의 복수전공제(이중 전공 포함)	0	–	0	1
(3) 대학의 멘토 프로그램(동료 및 선후배 간, 교수, 기타)	9	4.00	1	2
(4)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동료 간, 기타)	5	3.80	1	1
(5)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0	–	0	0
(6) 교환학생 프로그램	0	–	0	0
(7) 외국어 강의 수강	9	4.25	2	0
(8) 대학연계 산학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	4	4.38	2	1
(9) 학습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	11	4.38	2	0
(10) 교육 및 학습지원시설(강의실, 도서실, 컴퓨터 환경 등)	27	4.73	14	0
(11) 신(편)입생 프로그램(오티, 1학년세미나 등)	24	3.80	1	9
(12)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21	4.22	4	0
(13)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6	3.82	1	1
(14)취업 및 진로관련 상담 및 서비스	7	3.85	1	0

〈부록 표 25〉 E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교수학습)

항목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1) 대학 온라인 강의(사이버강의)	8	3.83	0	1
(2)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 준비	18	3.84	2	2
(3)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관련 자료 공유	25	4.00	4	1
(4)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 상호작용 중심의 쌍방향 수업(MOODLE)	9	3.92	2	2
(5) 수업내용과 관련한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27	4.35	8	0
(6) 수업내용과 관련한 동료학생의 피드백	19	4.44	3	2
(7) 수업에서의 질문이나 토론활동	26	4.08	2	0
(8) 수업과 관련하여 그룹 프로젝트 진행	27	3.76	2	7
(9) 수업과 관련한 외부 콘텐츠 활용과 공유	23	4.24	1	0
(10)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ex. 동영상, 피피티 등)	27	4.36	8	0
(11) 강의중심 수업	28	3.69	2	3
(12) 프로젝트중심 수업	22	4.00	2	3

〈부록 표 26〉 E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성과-역량변화)

항목	기대역량 (명)	입학전 역량 (평균)	현재 역량 (평균)	역량변화정도(평균)
(1)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7	4.54	5.61	1.07
(2)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21	5.36	7.39	2.04
(3) 외국어 구사 능력	8	3.36	3.93	0.57
(4) 종합적 사고력	3	5.43	6.46	1.04
(5)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3	5.79	6.83	1.05
(6) 대인관계 역량	12	6.86	6.61	-0.25
(7) 의사소통 역량	4	6.57	6.68	0.11
(8) 자기관리 역량	5	6.36	7.29	0.93
(9) 글로벌 역량:(※ 외국어 능력, 글로벌 환경에 대한 노출, 다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 등)	4	3.96	5.11	1.14
(10) 진로에 대한 준비	9	5.75	7.04	1.29

〈부록 표 27〉 E대학교 평균재학기간 추이 정보(2010~2013)

연도	평균재학기간별(편입학-졸업까지)				
	조기졸업 (2년미만)	2년	3년	4년	5년 이상
2010	0	63	21	10	0
2011	0	57	24	0	0
2012	0	63	0	0	0
2013	0	0	0	0	0
총 계	0	183	45	10	0

〈부록 표 28〉 E대학교의 입학자, 중도이탈자, 취업자 추이 정보(2010~2013)

연도	입학자 정보		중도이탈		취업자 정보	
	대학 전체 입학자수	연계편입생수	전체 편입생 중도탈락	연계편입생 중도탈락	전체 취업자수	편입생 중 취업자수(연계 편입취업자수)
2010	6,341	124	757	92	2,350	315(41)
2011	6,265	120	760	44	3,049	391(67)
2012	6,253	126	743	40	3,265	436(61)
2013	6,022	106	612	21	2,603	307(56)
총 계	24,881	476	2,872	197	11,267	1,449(225)

〈부록 표 29〉 F대학교 입학년도별 편입생 유형별 분포(2010~2014)

연도별	이전대학 정보						
	고등학교졸업	2년제/3년제 대학졸업	4년제 전문대학졸업	4년제 일반대학졸업	학점은행제 학사취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사취득	기타
2010	3,886	2,478	–	912	97	–	419
2011	4,455	3,219	–	1,094	206	–	517
2012	4,339	3,431	–	1,398	255	–	589
2013	4,484	3,494	–	1,743	312	–	689
2014	4,745	3,678	–	1,962	338	–	825
총계	21,909	16,300	–	7,109	1,208	–	3,039

〈부록 표 30〉 F대학교의 입학연령별 추이(2010~2014)

연도별	입학연령별(한국나이기준)			
	~24세	25세~30세	31세~40세	40세 이상
2010	532	1,958	3,252	2,050
2011	838	2,526	3,674	2,453
2012	633	2,338	3,985	3,056
2013	1,459	2,648	3,867	2,748
2014	1,769	2,626	4,086	3,067
총계	5,231	12,096	18,864	13,374

〈부록 표 31〉 F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교육과정)

항목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1)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영어, 수학 등 전공 공부에 필요한 기초 보충 교육)	3	3.67	0	1
(2) 대학의 복수전공제(이중 전공 포함)	10	4.70	4	0
(3) 대학의 멘토 프로그램(동료 및 선후배 간, 교수, 기타)	10	4.40	5	0
(4)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동료 간, 기타)	1	4.00	0	0
(5)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0	-	0	0
(6) 교환학생 프로그램	1	5.00	0	2
(7) 외국어 강의 수강	8	4.00	2	2
(8) 대학연계 산학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	3	4.67	1	0
(9) 학습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	11	4.42	3	1
(10) 교육 및 학습지원시설(강의실, 도서실, 컴퓨터 환경 등)	8	4.22	1	0
(11) 신(편)입생 프로그램(오티, 1학년세미나 등)	19	4.21	8	1
(12)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16	4.71	3	0
(13)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3	4.50	0	1
(14)취업 및 진로관련 상담 및 서비스	7	4.22	2	8

〈부록 표 32〉 F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교수학습)

항목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1) 대학 온라인 강의(사이버강의)	8	3.83	0	1
(2)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 준비	18	3.84	2	2
(3)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관련 자료 공유	25	4.00	4	1
(4)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 상호작용 중심의 쌍방향 수업(MOODLE)	9	3.92	2	2
(5) 수업내용과 관련한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27	4.35	8	0
(6) 수업내용과 관련한 동료학생의 피드백	19	4.44	3	2
(7) 수업에서의 질문이나 토론활동	26	4.08	2	0
(8) 수업과 관련하여 그룹 프로젝트 진행	27	3.76	2	7
(9) 수업과 관련한 외부 콘텐츠 활용과 공유	23	4.24	1	0
(10)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ex. 동영상, 피피티 등)	27	4.36	8	0
(11) 강의중심 수업	28	3.69	2	3
(12) 프로젝트중심 수업	22	4.00	2	3

〈부록 표 33〉 F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성과-역량변화)

항목[129]	기대역량 (명)	입학전 역량 (평균)	현재 역량 (평균)	역량변화정도(평균)
(1)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2	4.36	7.00	2.63
(2)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13	4.74	8.26	3.52
(3) 외국어 구사 능력	3	3.30	3.98	0.67
(4) 종합적 사고력	1	5.48	7.73	2.26
(5)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6	5.27	7.43	2.29
(6) 대인관계 역량	8	6.00	8.39	2.39
(7) 의사소통 역량	3	2.50	1.69	1.91
(8) 자기관리 역량	6	5.78	8.17	2.39
(9) 글로벌 역량:(※ 외국어 능력, 글로벌 환경에 대한 노출, 다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 등)	5	4.30	5.83	1.52
(10) 진로에 대한 준비	4	5.09	7.7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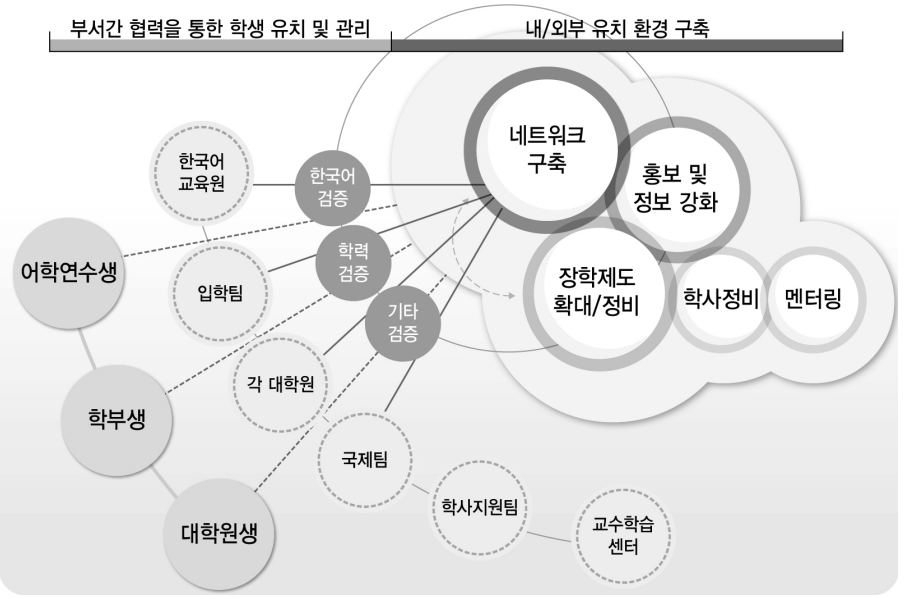
〈부록 표 34〉 F대학교의 평균재학기간 별 정보(2010~2014)

연도	평균재학기간별(편입학-졸업까지)				
	조기졸업 (2년미만)	2년	3년	4년	5년 이상
2010	0	649	317	65	16
2011	0	643	400	65	25
2012	0	583	406	88	30
2013	0	747	475	92	14
2014	0	814	489	101	20
총 계	0	3,436	2,087	411	105

129) 학생들이 기술한 기타역량으로는 현재 일에 접목할 수 있는 기본지식,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지도방법,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 학벌, 인문지식, 전문용어 사용 및 이해력이 있었음.

〈부록 표 35〉 F대학교의 입학자 및 중도이탈자 정보(2010~2014)

연도	입학자 정보		중도이탈		
	(입학률)		(탈락률)		
	전체 입학자수	편입생수	전체 편입생수	편입생 중 중도탈락학생수	편입생의 중도탈락률
2010	3,026	1,863	1,863	152	8.2%
2011	4,125	2,474	2,474	369	14.9%
2012	4,144	2,759	2,759	279	10.1%
2013	4,068	2,642	2,642	303	11.5%
총 계	4,130	2,725	9,738	1,103	11.3%



[부록 그림 3] G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체계

〈부록 표 36〉 G대학교 SSIA 활동 내역

구분	내용
학사지원	■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동반 참가 ■ 수강신청 및 정정 지원 ■ 과목 정보 등 학사관련 정보 제공
교내활동	■ 교내 관련 시설 투어(도서관, 컴퓨터 랩, 동아리방 등) ■ 동아리 거리제 등 학교 행사 동반 참가
생활 및 문화적응	■ 학교 주변 근린시설 동반 투어(은행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등) ■ 서울 시티투어(고궁 등) 및 한국영화 관람, 스포츠 관람 등
기타활동	■ 국제팀 주요 행사 지원 등

〈부록 표 37〉 G대학교 및 H대학교 분석 결과(교육과정)

항목	G대학				H대학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1) 대학의 보충 프로그램(영어, 수학 등 전공 공부에 필요한 기초 보충 교육)	13	3.38	2	0	21	4.08	3	2
(2) 대학의 복수전공제 (이중 전공 포함)	3	4.00	2	1	13	3.90	1	1
(3) 대학의 멘토 프로그램(동료 및 선후배 간, 교수, 기타)	9	3.78	1	0	19	3.96	3	2
(4)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 (동료 간, 기타)	12	3.92	5	2	12	3.72	0	0
(5)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1	1.00	0	1	12	3.94	1	1
(6) 교환학생 프로그램	2	2.00	0	0	9	4.33	1	0
(7) 외국어 강의 수강	15	3.73	3	2	20	4.40	3	0
(8) 한국어 강의 수강	16	3.63	1	3	21	4.64	8	1
(9) 대학연계 산학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	5	3.40	1	1	12	4.22	3	0
(10) 학습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	8	4.00	0	1	19	4.00	0	3
(11) 교육 및 학습지원시설(강의실, 도서실, 컴퓨터 환경 등)	16	4.06	0	0	21	4.38	5	0
(12) 신(편)입생 프로그램 (오티, 1학년세미나 등)	11	3.18	0	1	19	3.69	3	3
(13)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12	4.50	3	0	21	4.62	5	0
(14)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6	3.50	1	1	12	3.56	0	4
(15) 취업 및 진로 관련 상담 서비스	7	4.14	0	1	12	3.67	1	2

〈부록 표 38〉 G대학교 및 H대학교 분석 결과(교수학습)

항목	G대학				H대학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경험자 (명)	유용성 정도 (경험자 평균)	가장 도움 (명)	도움 안됨 (명)
(1) 대학 온라인 강의(사이버강의)	7	2.43	1	2	12	3.83	0	0
(2)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 준비	11	4.18	3	0	14	4.00	1	1
(3)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관련 자료 공유	16	4.14	4	0	17	4.05	2	0
(4)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 상호작용 중심의 쌍방향 수업 (MOODLE)	9	3.25	0	1	8	3.94	0	1
(5) 수업내용과 관련한 교수로부터의 피드백	12	3.64	1	1	17	4.00	3	3
(6) 수업내용과 관련한 동료학생의 피드백	11	3.27	1	2	14	4.05	2	0
(7) 수업에서의 질문이나 토론활동	13	4.08	1	2	22	4.38	10	1
(8) 수업과 관련하여 그룹 프로젝트 진행	14	3.75	1	3	20	4.08	4	2
(9) 수업과 관련한 외부 콘텐츠 활용과 공유	10	3.25	0	0	15	3.80	2	0
(10)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ex. 동영상, 피피티 등)	16	4.07	2	0	22	4.26	4	0
(11) 강의중심 수업	12	3.36	0	1	20	3.64	2	5
(12) 프로젝트중심 수업	12	3.45	2	1	19	3.74	4	4

〈부록 표 39〉 G대학교 및 H대학교 분석 결과(성과-역량변화)

항목	G대학				H대학			
	기대 역량 (명)	입학전 역량 (평균)	현재 역량 (평균)	역량 변화 정도 (평균)	기대 역량 (명)	입학전 역량 (평균)	현재 역량 (평균)	역량 변화 정도 (평균)
(1)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	3	4.50	6.13	1.88	4	4.56	7.11	2.56
(2) 전공분야 관련 지식 및 기술	10	3.75	6.56	2.75	12	3.67	7.00	3.33
(3) 한국어 구사 능력	5	5.31	7.19	1.88	14	3.30	7.19	3.89
(4) 종합적 사고력	6	5.27	6.07	0.93	5	4.40	6.81	2.42
(5)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2	4.67	6.19	2.13	1	4.04	6.56	2.52
(6) 대인관계 역량	3	6.00	6.56	0.56	3	4.67	6.85	2.19
(7) 의사소통 역량	8	5.94	6.94	1.00	7	4.41	7.15	2.74
(8) 자기관리 역량	3	5.69	6.31	0.62	4	4.63	7.04	2.41
(9) 글로벌 역량:(※ 외국어 능력, 글로벌 환경에 대한 노출, 다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 등)	2	5.63	7.19	1.56	5	4.19	7.23	3.08
(10) 진로에 대한 준비	2	4.50	5.19	0.69	4	3.26	6.74	3.48
(11) 한국에 대한 이해	2	4.00	6.44	2.44	7	3.22	7.48	4.26

[부록 3] D, F, H대학교 사례(Ⅳ장 관련)

1. 재직자를 위한 교육운영사례: D대학교[130)]

D대학교는 지방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컴퓨터 및 IT 융합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후 일정 기간 취업한 근로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2년 3월부터 컴퓨터공학과에서 재직자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대학은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사회 전반의 교육열을 수용하면서도 현장인력 부족과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가. 교육 및 행정지원 서비스

D대학에서 재직자를 위한 교육운영을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공학과는 교육서비스와 관련하여 강의실의 경우 교양 및 전공 강의를 위한 강의실 5개 확보 및 강의실 별 강의용 PC 및 프로젝터 설치하고 있으며, 실험 및 실습실과 관련하여 U-Learning 스튜디오, PC실, 회로실험실, 디지털응용실험실, 설계프로젝트실험실 등 실험실 및 실습실을 개방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자재의 경우 전자정보대학 컴퓨터공학과에 구비된 교육기자재(PC, 실험장비, 실습장비 등)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행정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별학과에서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편, 학사 운영을 진행하고 교무과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칙 개정, 공동협약 지원 및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시설 및 설비, 기자재를 확충하여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D 대학교는 개발된 동영상 강좌 수업 지원 서비스, 교육용 소프트웨어 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 과를 운영 중인 전담조직은 전임교수 8명(1명 전담, 7명 겸직)과 겸임교수 및 강사 8명, 전담 행정보조인력(조교)를 채용하여 재직자 학생의 교육을 돕고 있다.

130) 이하 D대학교의 사례는 이태우(D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게 의뢰한 원고를 연구진이 수정해서 제시한 것임.

나. 기초학력보완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D대학교는 현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의 낮은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학력은 향상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초·중학교에서 충분한 보정학습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도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수준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특히 수학 교과목은 컴퓨터공학 및 IT 융복합 관련 교과목에 매우 중요한 기초 학문이므로 중등교육과정의 수학적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스터디그룹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보다 전문적인 스터디 운영을 위해 박사과정생을 튜터로 하여 미적분학, 함수, 통계, 분수 등에 대한 강의를 튜터링으로 운영한 바 있다.

한편, 자기개발 프로그램(직업기초능력인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학교의 현장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역량에 대한 미흡으로 인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고졸자에 대한 직업기초능력을 위한 교육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 직장적응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는 “애니어그램(심리적 성격유형 분석)”,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기술 작문법, 논문 및 문서 작성법“ 등과 같이 자기개발이 가능한 다양한 교육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다. 특성화된 학업 보완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D대학교는 컴퓨터 공학 관련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앱 애플리케이션 개발, 3D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하계 및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특강 형태로 운영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전문인력양성 및 다양한 취업 object Project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교수진 및 우수한 전문 강사진과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양성 실험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임베디드 리눅스 전문가 양성 실험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산업 군과 기업체에서 임베디드 시스템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베디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실습 교과목은 재학생들의 능력 개발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라. 재직자과정 재학생 학습부담 경감 프로그램 운영

D대학교는 재직자과정 재학생의 학습 부담에 대한 경감을 위해 관련 학칙을 개정하여 재직자과정 학생들의 졸업이수기준학점을 120학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전공 93학점, 교양 27학점). 또한 현장실무를 통한 학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4학년 1학기와 2학기에 3학점을 기준으로 현장학습강좌를 개설하였다. 이 과목을 통해 강의 수강을 위해 학교에 상주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학업에 대한 시간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원격교육을 통한 강의시간대의 탄력적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양과목 강좌를 사이버 강의(OCU)형태로 운영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재직자 재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현재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블렌디드 러닝 강좌를 개발할 계획 또한 갖고 있다.

마.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D대학교는 IT·컴퓨터계열 선취업 후진학 재학생들을 위한 전국단위 공동교육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D대학의 컴퓨터공학과와 타 대학교와 함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과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NCS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대학간 NCS기반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년제 학위과정과 2년제 전문학사과정 중 전공분야 공동운영을 위한 단계적인 개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수 전공 교과목에 대한 교재 개발 및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전국단위 공동교육망 구축을 통한 재직자들의 후학업 학사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재직자 과정 학생들은 입학 전 3년 재직 중 학업 준비 지원 및 기본학습역량강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예비 과정을 학습할 수 있으며, 온·오프 상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집중 이수수업 등을 통해 학사 유연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실제로 D대학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C프로그래밍, 리눅스실습, 네트워크 실무와 관련하여 교재개발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했던 실적을 갖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계의 정보기술 및 실무 중심의 특성화 분야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에 해당하며 NCS기반 교육과정의 질관리를 위하여 수요자(학생, 산업체 협의회 등)의 피드백을 통한 약점을 확인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 사이버대의 편입생 관련 교육운영사례: F대학교[131)]

F대학교는 2001년에 디지털대학으로 시작해서 2009년부터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으로 전환되었고, 2014년 현재 10,000명 이상의 재학생과 11,000명에 이르는 졸업생을 배출한 대학으로 성장하였다. 2014년도 대학정보공시자료에 따르면 학생 충원률 115.8%,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98.3%, 정원내 경쟁률 2:1이다. 이 대학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일반편입생(2/3학년제 대학졸업)이 약 30%, 학사편입생이 약 20%(4년제 일반대학과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포함),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생 40%와 기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사연계의 관점에서 F대학교의 특징은 편입생들의 구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선은 일반편입생들의 경우 일반대학들과 달리 4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편입하는 학생들은 없고 편입생 전부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편입하는 학생들이다. 또한 학사학위를 갖고 이 대학으로 편입하는 학사편입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편입생들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 이전 대학의 전공과 다른 경우가 90%이상이다.

가.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학생 선발

F대학교 입학생의 50%는 편입생이고 재교육이 필요해서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편입생의 경우 입학 후의 학업계획서와 인적성검사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학업계획서의 우수성이 학업성적과 재등록률 등과 상관이 높게 나와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나. 엄격한 학사관리 및 학생의 요구 파악을 통한 교육운영

사이버대학교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대학으로서의 엄격한 학사관리라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해 다양한 적용을 해왔다. 사이버대학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관리요소는 시험평가이다.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 중에 시험평가는 성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부정행위나 표절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가의 신뢰성을 잃기 쉽다. 이를 위해 강의평가, 설문조사 등을 통

131) 이하 F대학교의 사례는 정종욱(F대학교 기획예산처장)에게 의뢰한 원고를 연구진이 수정해서 제시한 것임.

해 시험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였고,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였다. 편입생에게는 다양한 교양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편입생의 교양교육의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교양교육과정이 필요하였고 F사이버대학교의 경우 6개 분야에 걸쳐 이론기반의 교양과목과 실무중심의 교양과목을 개발하였다.

다.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식 교육 운영

전공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교육체계는 유지하지만 실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2013년도 700여개의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으로 재편하고 교과목의 내용 또한 실무내용을 강화하도록 개편하였다. 이와 더불어 강의평가방식을 바꾸어서 수업개편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직장인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PC가 아니 모바일시스템으로 전환했고 동영상과 더불어 스크립트를 함께 제공해오고 있다. 한 2014년도부터는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학업계획을 제시해 주는 러닝디자이너라는 학습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학생이 전공만을 마치고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적으로는 40%이상의 학생이 전공이외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고 있고, 1개 이상의 이수형 자격증에 도전하는 학생은 60%가 넘고 있다.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년별 과목선택의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과거 학생들의 과목수강 데이터와 각종 이수요건 및 자격증 수여요건을 반영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상담에 있어서도 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등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매 학기 35,000통 이상의 전화상담과 20,000개 이상의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담의 양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상담이력과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2014년도 2학기부터 가이딩허브라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지원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추어 30%이상의 상담량의 감소를 가져오고 학생지원의 효율화를 이루고 있다.

F대학교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향후 대학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판단하여 학습자분석 및 다양한 데이터분석을 의사결정에 도입하였고, 계속 추진 중에 있

으며 보다 체계적으로 러닝 애널리틱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여 개발하고 있다.

3. 외국인 유학생 관련 교육운영사례: H대학교[132)]

H대학교는'특성화'와 '국제화'를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목표는 사회발전에 부합하는'실무형'인재양성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특성화'와 '국제화'는 단순히 전공의 특성화와 국제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본 대학교의 전체적인 운영시스템도 특성화와 국제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여, 본교는 특색 있는 전공개설과 학과교수의 구성에서 국제화 하는 것 외에, '학생중심'이라는 분명한 색깔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어떻게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해야만 근본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학생'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가. 유학생지원실 구축

H대학교는 위에서 언급한 '학생중심'의 대학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교에서는 외국인 학생의 캠퍼스 생활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유학생지원실'을 구축하였다. 이에 H대학교에서는 2014년 3월 1일부로 '유학생지원실'을 신설했다.'국제교류원' 산하에 기관을 설치했으며, 실장 1명, 팀장 1명, 교무직원 1명, 학사업무 직원 1명, 보조업무 인턴 3명을 팀으로 구성하고 있다. 지원실 주임의 직책은 유학생지원실의 전체적인 운영과 본교의 교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업무를 갖는다. 팀장의 직책은 지원실 주임의 보좌관으로 모든 업무를 협조하는 것이다. 학사업무 직원은 장학, 학생회 및 각종 학교 생활에 걸친 모든 사항을 지원하고 협조하는데 있다. 교무업무 직원은 학생의 수강신청 및 졸업 관련에 관한 전반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다.

132) 이하 H대학교의 사례는 최우석(H대학교 글로벌 자유전공학부 학과장)에게 의뢰한 원고를 연구진이 수정해서 제시한 것임.

나. 유학생들의 조속한 캠퍼스 적응

외국인 유학생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첫째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유학생지원실에서 총괄하며, 입학 첫날 진행한다. 각종 비자연기, 교무, 학사 업무에 관한 각종 중요 정보를 제공해 주며, 기숙사수칙, 유학생 보험 등의 필수 사항을 환기 시켜 준다. 둘째, H대학교에서는 근로장학 유학생 약 10여명으로 구성된 이른바'솔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신입생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각종 생활 방면의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입생이 처음 왔을 때 환전, 우체국, 통장개설, 핸드폰 개설 등의 현지 생활 방면의 여러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유학생이 있는 각 학과별로 유학생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도교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학생들의 각종 고민을 들어 주고 이를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넷째, 유학생들의 생활상의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문제해결 시스템을 가동한다. 유학생들의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2명의 직원이 24시간 항상 유학생들과 함께 기거하며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다. 유학생들의 전공수업장애 해결

H대학교는 유학생들의 전공수업장애를 해결하는 것에 힘쓰고 있다. 먼저, 학기 초에 수강 신청할 때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처음에 오면 각 학과의 조교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강 신청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학과별로 중국어가 가능한 인턴조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이것도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학생지원실에서 직접 각 학과와 소통하여 수강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안배해주고 있다. 또한 유학생지원실의 교무담당 직원은 중국인으로서 재학생들의 졸업 문제 관련 각종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주고 있으며, 모든 유학생들이 졸업 관련 학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둘째, 학업 부진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유학생지원실에서는 유학생 가운데 전공 수업 부적응자를 위한 상담을 특별히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학생 가운데 직전 학기 성적 2.75미만자를 위해서 유학생지원실 실장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1학기에는 해당 학생의 약 90% 이상이 모두 1회 이상 상담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전공별로 사전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비중이 95%이상에 이르는 중국인 유학생의 전공 수업 장애를 해결하는 일환으로 중국유학생이 많은 일부 학과의 전공 한중용어사전을 개발하고 이를 무료로 배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에이스사업과 연계하여 경영학관련, 뷰티디자인관련, 호텔관관전공 관련 3과목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전공 용어 한중용어 사전을 개발하고 있다. 2015년 3월에는 이를 관련 학과 유학생에게 무료로 배포하여 이를 사용토록 하고자 한다. 넷째, 3회 이상 결석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유학생 가운데 3회 이상 결석자를 특별 관리하여, 유학생들의 성적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3회 이상 연속으로 결석을 한 학생은 각 학과의 학과장이 이를 먼저 유학생지원실에 통보해 주고 유학생지원실에서는 이 학생에게 통보하여 유학생지원실 실장이 직접 이 학생과 면담하여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향후 결석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라. 문화교류를 통한 적응력 제고

H대학교는 솔메이트를 통하여 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솔메이트란 외국인 학생과 국내 학생을 1:1로 서로 소개해 주어, 상대방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서로 배우고 교류하는 가운데 유학생들의 캠퍼스 생활 적응력을 제고 시키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2012년부터 에이스사업의 지원을 받아 유학생지원실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매학기 120여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 하고 있으며, 활동이 우수한 팀에게는 소정의 지원금도 시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국내 학생들은 유학생들에게 외국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둘째, 멘토링제도를 활성화 한다. 멘토링제도란 사회봉사 1,2 과목의 내용으로 국내 학생이 외국인 유학생의 멘토가 되어 외국인 유학생의 캠퍼스 생활을 도와주는 가운데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1학점이 부여 되며 유학생지원실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2학기의 경우에는 20팀, 약 500여명의 국내외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발표회를 통한 우수팀 시상 및 학점 부여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내외 학생 간의 활발한 교류를 꾀할 수 있다. 셋째, 미니홈피 관리를 통하여 유학생들을 지원한다. 중국유학생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QQ 웹싸이트

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수시로 유학생들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학사 및 공지 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유학생들은 이를 통해 각종 문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 받고 있다. 물론 일러한 소통을 통해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 하고 있다.

라. 교무처 산하의 유학생 교무 직무 교육팀 신설

한편 유학생지원실의 지원 외에도, H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캠퍼스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각 학과 조교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순조롭게 유학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무처 산하 '유학생 교무 직무 교육팀'을 세운다. 신입 조교들을 대상으로 업무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지도교수제도를 강화시키고 정기적인 지도교수간담회를 소집한다. 유학생이 있는 학과마다 학과장이 책임을 지고 유학생들에게 학습지도교수를 지정해 준다. 유학생의 학업뿐만 아니라 각종 활동 및 대회에 참여, 졸업 후 진로 등을 지도해 준다. 중국학부에서 현재 바로 이 방식으로 학생지도를 하고 있다. 셋째, 신입 유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소속 학과에 적응하기 위하여 유학생이 있는 학과에서는 개강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유학생들은 교수진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과도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넷째, 한국어능력시험 4급과 5급 강화반(強化班)을 개설한다. '학생을 위하여'라는 이념을 고려하여 저녁에 기숙사에서 강의하고, 2주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실시하기를 건의한다. 다섯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예절문화에 관한 강의를 개설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활동을 많이 개최한다. 위와 같은 방안을 통해 본교에서는 유학생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연구보고 RR 2014-11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 대학 진학수요 맞춤형 교육운영체제를 중심으로

발 행 일 2014년 12월
발 행 인 백 순 근
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 (우면동)
전화 : (02) 3460-0114
FAX : (02) 3460-0121
http://www.kedi.re.kr
등록번호 1973년 6월 13일, 제16-35호
인 쇄 처 (주)선우정보인쇄
(02) 2272-6105
I S B N 979-11-5666-100-9 93370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